

ETHER LIBRARY

0018

#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제인 오스틴

Jane Austen · 1813

문학 · 소설

#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제인 오스틴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Pride and Prejudice

지은이 제인 오스틴(1775~1817)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813년, 런던 토머스 에저턴. 세 권으로 나왔고, 표제지에는 지은이 이름 대신 「『이성과 감성』의 작가 지음」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 일러두기

##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1813)을 영어 원전에서 옮긴 완역본입니다. 1813년 초판에서 내려온 본문을 1894년 런던의 조지 앨런 출판사가 휴 톰슨의 삽화를 넣어 펴낸 판에서 옮겨 적은 퍼블릭 도메인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그 판의 서문과 삽화는 싣지 않았습니다.

1813년 초판은 세 권으로 나왔고 권마다 장 번호를 새로 매겼습니다. 이 책은 저본을 따라 1장부터 61장까지 번호를 이어 매겼습니다. 초판의 제2권은 24장에서, 제3권은 43장에서 시작합니다.

번역은 저본의 2,051문단과 문단마다 맞추어 옮겼고, 책으로 짜면서 두 군데만 손보았습니다. 저본이 한 문단으로 몰아 짠 긴 편지 세 통(35장 다아시의 편지, 46장 제인의 두 번째 편지, 52장 가디너 부인의 편지)은 내용의 흐름에 따라 여러 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본이 두 사람의 말을 한 문단에 합친 자리(54장)와 한 사람의 말을 여러 문단으로 쪼갠 자리(47장)는 말하는 사람이 바뀌는 대로 문단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본문은 2,074문단입니다.

## 서술에 관하여

이 소설의 서술자는 인물들보다 한 걸음 위에서 담담하게 말합니다. 칭찬처럼 들리는 문장이 비난이고, 단정하는 문장이 웃음입니다. 그 담담함을 살리려고 서술에서는 누구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영부인도 서술에서는 「말했다」로 적었고, 높임말은 인물들의 대사 안에만 두었습니다.

서술은 자주 엘리자베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엘리자베스의 말투로 말합니다. 이런 대목은 따옴표 없이 3인칭 그대로 옮기되, 엘리자베스의 감탄과 물음이 들리도록 어미를 골랐습니다.

### 말투에 관하여

영어에는 높임말이 없지만, 이 소설의 인물들은 「Mr. Darcy」「Miss Bennet」 같은 격식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 거리를 우리말에서는 존댓말로 옮길 수밖에 없어서, 인물 관계마다 말의 등급을 미리 정해 두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존댓말을 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과정은 말의 등급이 아니라 말의 온도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첫 청혼과 거절, 다아시의 편지는 딱딱한 하십시오체로, 펨벌리에서 다시 만난 뒤로는 다아시가 먼저 부드러운 해요체로 내려오고, 두 번째 고백 뒤에는 두 사람 모두 해요체로 말합니다.

**베넷 씨**는 아내에게 하오체로, **베넷 부인**은 남편에게 해요체로 말합니다. 베넷 씨의 메마른 농담이 옛 신사의 말투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캐서린 영부인**은 아랫사람 모두에게 하오체로 명령하듯 말하고, 엘리자베스는 영부인에게 끝까지 하십시오체로 맞섭니다.

**다아시와 빙리**는 서로 「자네」라 부르는 하게체를 씁니다. 자매들끼리, 엘리자베스와 샬럿은 서로 반말을 씁니다.

**콜린스**의 말은 지나치게 길고 지나치게 높입니다. 웃음이 거기서 나오므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 이름과 호칭에 관하여

Mr., Mrs., Miss는 「씨」, 「부인」, 「양」으로 옮겼습니다(다아시 씨, 베넷 부인, 빙리 양). 이 시대에는 성으로 부르는 「Miss + 성」이 그 집 맏딸을 가리키므로, 「베넷 양」은 대개 맏딸 제인입니다.

백작의 딸에게 붙는 Lady는 「영부인」(캐서린 영부인), 기사의 아내에게 붙는 Lady는 「부인」(루커스 부인), Sir는 「경」(윌리엄 경)으로 옮겼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애칭 가운데 가족이 부르는 Lizzy는 「리지」, 친구와 이웃이 부르는 Eliza는 「일라이저」로 구별했습니다. 넷째 딸은 원문이 Catherine이라 적은 자리도 캐서린 영부인과 헷갈리지 않도록 모두 애칭 「키티」로 옮겼습니다.

Darcy는 굳어진 관용을 따라 「다아시」로 적었습니다.

제목의 pride는 본문에서 뜻에 따라 「오만」, 「자존심」, 「자부심」으로 갈라 옮겼고, prejudice는 언제나 「편견」으로 옮겼습니다.

### 편지에 관하여

이 소설에는 서른 통 가까운 편지가 나옵니다. 편지는 쓴 사람의 말투를 따르되 우리말 편지의 부름말과 맺음말을 갖추었습니다. 원문이 편지의 여러 문단 가운데 마지막 문단에서만 따옴표를 닫는 것과 달리, 이 책에서는 문단마다 따옴표를 열고 닫았습니다.

### 각주와 그 밖의 것

각주 24개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한정상속, 성직록, 사교계에 나가는 관습처럼 모르면 문장이 읽히지 않는 당대의 제도와 관습, 화폐와 지명에만 달았고, 인물의 심리나 풍자의 뜻을 풀이하는 주는 달지 않았습니다.

돈은 「10,000파운드」 처럼, 날짜와 시간의 분, 주는 「10월 15일」, 「15분」, 「2주」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적었고, 나이와 사람 수는 「열다섯 살」, 「다섯 딸」처럼 한글로 적었습니다.

원문에서 기울여 쓴 강조는 기울임체로 살렸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으며, 끊긴 말은 말줄임표로 옮겼습니다. 원문이 이름을 가린 자리는 「○○」로 적었습니다.

# 차례

제1장 ..... 11
제2장 ..... 15
제3장 ..... 19
제4장 ..... 25
제5장 ..... 29
제6장 ..... 33
제7장 ..... 42
제8장 ..... 50
제9장 ..... 58
제10장 ..... 64
제11장 ..... 73
제12장 ..... 79
제13장 ..... 82
제14장 ..... 88
제15장 ..... 92
제16장 ..... 98

제17장 ..... 110
제18장 ..... 115
제19장 ..... 132
제20장 ..... 139
제21장 ..... 145
제22장 ..... 152
제23장 ..... 158
제24장 ..... 164
제25장 ..... 171
제26장 ..... 176
제27장 ..... 184
제28장 ..... 189
제29장 ..... 194
제30장 ..... 203
제31장 ..... 208
제32장 ..... 214
제33장 ..... 220
제34장 ..... 227
제35장 ..... 235
제36장 ..... 245
제37장 ..... 252

제38장 257
제39장 261
제40장 267
제41장 273
제42장 281
제43장 287
제44장 304
제45장 312
제46장 319
제47장 330
제48장 344
제49장 352
제50장 361
제51장 369
제52장 376
제53장 387
제54장 397
제55장 403
제56장 412
제57장 422
제58장 428

제59장 ..... 437
제60장 ..... 447
제61장 ..... 453

# 제1장

넉넉한 재산을 가진 독신 남자라면 아내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은, 세상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그런 남자가 어느 동네에 처음 들어올 때 그의 감정이나 생각이 어떤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 진리는 이웃 집안들의 마음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있어서, 그는 이 집 딸이든 저 집 딸이든 누군가의 정당한 소유물로 여겨진다.

"여보," 어느 날 부인이 베넷 씨에게 말했다. "네더필드 파크에 드디어 세 든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 들었어요?"

베넷 씨는 못 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생겼다니까요." 부인이 되받았다. "롱 부인이 방금 다녀갔는데, 나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베넷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누가 세 들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내가 참다못해 다그쳤다.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로구려. 듣는 거야 나도 마다하지 않겠소."

부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한 초대였다.

"글쎄, 여보, 들어 봐요. 롱 부인 말이, 네더필드에 세 든 사람은 영국 북부에서 온 큰 부자 젊은이인데, 월요일에 네 필이 끄는 경마차를 타고 집을 보러 왔다가 어찌나 마음에 들었던지 그 자리에서 모리스 씨하고 계약을 해 버렸고, 미카엘 축일[1] 전에 들어오기로 했고, 다음 주 말까지는 하인 몇이 먼저 와서 집에 들어와 있을 거래요."

"이름이 뭐요?"

"빙리래요."

"결혼한 사람이오, 독신이오?"

"어머, 독신이죠, 여보, 그렇고말고요! 재산이 엄청난 독신 남자예요. 1년에 4,000~5,000파운드[2]래요. 우리 딸들한테 이게 웬 복이에요!"

"어째서 말이오? 그게 딸들하고 무슨 상관이오?"

"여보," 아내가 대답했다. "사람을 어쩜 이렇게 지치게 해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우리 애들 가운데 하나하고 결혼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당신도 뻔히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속셈으로 여기 자리를 잡는다는 거요?"

"속셈이라뇨?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애들 가운데 하나한테 반할 수도 있다는 건 아주 그럴듯한 얘기니까, 그 사람이 오는 대로 당신이 꼭 찾아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까닭을 모르겠소. 당신하고 딸들이 가구려. 아니면 딸들끼리만 보내든지.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소, 당신도 딸들 누구 못지않게 아름다우니 빙리 씨가 일행 가운데 당신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오."

"여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나도 한때 남부럽지 않게 고왔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와서 무슨 대단한 미인인 척할 생각은 없어요. 다 큰 딸이 다섯이나 되는 여자는 제 얼굴 생각일랑 그만 접어야죠."

"그런 경우라면 여자한테 생각할 만한 미모가 그리 남아 있지도 않은 때가 많소."

"그래도 여보, 빙리 씨가 이 동네에 오면 당신이 꼭 가서 만나 봐야 해요."

"그것까지 내가 장담할 수는 없소."

"딸들을 생각해 봐요. 그 애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런 집에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좋은 혼처겠어요. 윌리엄 경하고 루커스 부인도 순전히 그것 때문에 찾아가기로 작정했대요, 알다시피 그 집은 원래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찾아가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당신이 꼭 가야 해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요."[3]

"당신은 지나치게 격식을 따지는구려. 빙리 씨도 당신을 보면 무척 반가워할 게요. 내가 몇 자 적어 당신 편에 보내리다. 딸들 가운데 누구를 고르든 그 사람이 장가드는 데 내가 진심으로 찬성한다고 단단히 일러 두겠소, 하기야 우리 귀여운 리지를 위해 좋은 말 한마디쯤은 끼워 넣어야겠지만."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요. 리지가 다른 애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인 반만큼도 아름답지 않고 리디아 반만큼도 싹싹하지 않은 게 틀림없는데요. 그런데도 당신은 늘 *그 애만* 감싸고돌죠."

"어느 애도 딱히 내세울 만한 건 없소." 남편이 대답했다. "다들 남의 집 딸들처럼 어리석고 아는 게 없지. 그래도 리지는 다른 자매들보다 머리가 조금 빨리 도는 편이오."

"여보, 어쩌면 제 자식들을 그렇게 헐뜯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날 약 올리는 게 재미있죠. 불쌍한 내 신경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요."

"오해요, 부인. 나는 당신 신경을 대단히 존중하오. 내 오랜 친구들 아니오. 적어도 지난 스무 해 동안 당신이 그 친구들 이야기를 그토록 정성껏 하는 걸 들어 왔으니 말이오."

"아,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당신은 몰라요."

"그래도 당신이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오래오래 살아서, 1년에 4,000파운드를 버는 젊은이들이 이 동네에 줄줄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기를 바라오."

"그런 사람이 스무 명 온들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찾아가지 않을 텐데."

"걱정 마시오, 부인. 스무 명이 되면 내가 다 찾아가리다."

베넷 씨는 재빠른 머리와 빈정거리는 유머와 과묵함과 변덕이 하도 묘하게 뒤섞인 사람이어서, 스물세 해를 함께 살고도 아내는 남편의 성품을 끝내 알지 못했다. *아내의* 속은 그보다 훨씬 헤아리기 쉬웠다. 이해력은 모자라고 아는 것은 적고 성미는 종잡을 수 없는 여자여서, 무엇이든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자기 신경이 탈이 났다고 여겼다. 딸들을 시집보내는 것이 베넷 부인 인생의 사업이었고, 그 인생의 위안은 이웃을 찾아다니는 일과 소문이었다.

---

1. 9월 29일. 분기 임대료를 치르는 날로, 집을 새로 빌려 드는 때이기도 했다.

2. 지대와 이자로 해마다 들어오는 돈. 1년에 4,000~5,000파운드면 큰 부자였고, 베넷 씨의 수입은 2,000파운드였다.

3. 당시 예법으로는 새로 온 신사를 그 고장 집안의 가장이 먼저 찾아가야 부인과 딸들이 그 집과 사귈 수 있었다.

# 제2장

베넷 씨는 빙리 씨를 찾아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맨 먼저 간 축에 들었다. 처음부터 찾아갈 작정이었으면서도 끝까지 아내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방문을 마친 날 저녁이 될 때까지 아내는 그 일을 까맣게 몰랐다. 일은 이렇게 드러났다. 둘째 딸이 모자에 장식을 달고 있는 것을 보더니 베넷 씨가 불쑥 말을 건넸다.

"빙리 씨가 그 모자를 마음에 들어 하면 좋겠구나, 리지."

"빙리 씨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샐쭉해서 말했다. "찾아가지도 않을 거면서."

"하지만 어머니, 잊으셨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공회당 무도회[1]에서 만나게 될 거고, 롱 부인이 소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걸요."

"롱 부인이 그런 일을 해 줄 리가 없다. 자기한테도 조카딸이 둘이나 있는데. 이기적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여자라서, 나는 그 사람을 조금도 좋게 보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요." 베넷 씨가 말했다. "당신이 그 부인 덕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 다행이구려."

베넷 부인은 굳이 대꾸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속을 누르지 못해 딸 하나를 붙잡고 꾸짖기 시작했다.

"키티, 제발 그렇게 자꾸 콜록거리지 좀 마라! 내 신경도 좀 불쌍히 여겨 줘. 아주 갈가리 찢어 놓는구나."

"키티는 기침할 때 분별이 없어서 탈이오." 아버지가 말했다. "때를 영 못 맞춘단 말이오."

"재미로 기침하는 거 아니에요." 키티가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리지 언니, 다음 무도회는 언제야?"

"내일부터 2주 뒤."

"그래, 맞다." 어머니가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롱 부인은 그 전날에야 돌아온다는구나. 그러니 롱 부인이 그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지, 자기도 아직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일 테니까."

"그렇다면 부인, 당신이 친구보다 한발 앞서서 빙리 씨를 *그 부인한테* 소개해 주면 되겠구려."

"말도 안 돼요, 여보, 말도 안 돼요. 나도 아직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요. 어쩜 그렇게 사람을 놀려요?"

"당신의 신중함에 경의를 표하오. 2주 사귄 사이라면 참으로 얼마 안 되는 교분이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2주로는 알 수 없는 법이오. 하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나설 거요. 결국 롱 부인과 조카딸들도 제 운을 시험해 봐야 공평할 테고, 그 부인도 그걸 친절로 여길 테니, 당신이 그 일을 마다한다면 내가 맡겠소."

딸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베넷 부인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하고만 말했다.

"그 힘찬 감탄에는 대체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요?" 베넷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소개의 격식이며 사람들이 그 격식을 그토록 중히 여기는 것을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요? *그 점이라면* 나는 당신 생각에 다 동의할 수 없구려. 메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생각이 깊은 아가씨인 데다 훌륭한 책들을 읽고 좋은 대목을 늘 공책에 따로 베껴 두기까지 한다는 걸 이 아버지가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메리는 아주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메리가 생각을 가다듬는 동안," 베넷 씨가 말을 이었다. "다시 빙리 씨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빙리 씨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아내가 소리쳤다.

"*그런 말을* 들으니 유감이구려. 하지만 왜 진작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오늘 아침에 그걸 알았더라면 결코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참 공교롭게 되었구려, 이미 방문을 하고 왔으니 이제 와서 그 사람과 사귀는 일을 피할 수도 없게 되었소."

여자들은 베넷 씨가 바라던 그대로 놀랐고 그중에서도 베넷 부인이 가장 크게 놀란 듯했지만, 처음의 요란한 기쁨이 한바탕 지나가자 부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 정말 너그러우시네요! 결국엔 내가 당신 마음을 돌려놓을 줄 알았어요, 당신이 딸들을 끔찍이 아끼니까 그런 사람과 사귈 기회를 그냥 넘겨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아이, 이렇게 기쁠 수가! 게다가 오늘 아침에 벌써 다녀와 놓고 지금까지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다니,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장난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 키티, 이제 마음껏 기침해도 된다." 베넷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내의 환호에 지쳐 방을 나가 버렸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문이 닫히자 부인이 말했다. "아버지가 베푼 친절을 너희가 무슨 수로 갚을지 모르겠구나, 그 점에서는 나한테 진 신세도 마찬가지지만. 내 말 믿어라, 우리 나이쯤 되면 날마다 새 사람을 사귄다는 게 그리 즐거운 일만은 아니란다만, 너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 하겠니. 우리 리디아, 네가 *막내이긴* 하지만 다음 무도회에서는 틀림없이 빙리 씨가 너하고 춤을 출 거다."

"어머, 난 걱정 안 해요." 리디아가 당차게 말했다. "내가 *막내이긴* 해도 키는 제일 크거든요."

그날 저녁 남은 시간 내내 식구들은 빙리 씨가 얼마나 빨리 베넷 씨의 방문에 답례하러 올지 점치고, 언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지 정하느라 바빴다.

---

1. 동네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공회당에 모여 여는 공개 무도회.

# 제3장

그러나 베넷 부인이 다섯 딸의 거들음까지 받아 가며 그 일을 두고 물을 수 있는 것은 다 물어보았어도, 남편에게서 빙리 씨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끌어내기에는 모자랐다. 모녀는 대놓고 묻기도 하고, 교묘하게 넘겨짚기도 하고, 멀찌감치 에둘러 짐작해 보기도 하며 갖은 수로 베넷 씨를 공략했지만, 베넷 씨는 그 모든 솜씨를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결국 모녀는 이웃인 루커스 부인에게서 건너 들은 이야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루커스 부인이 전한 이야기는 아주 좋았다. 윌리엄 경은 빙리 씨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빙리 씨는 아주 젊고, 놀랄 만큼 잘생기고, 더없이 호감이 가는 사람인 데다, 무엇보다도 다음 무도회에 일행을 잔뜩 데리고 올 생각이라고 했다.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을까! 춤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길로 한 걸음 확실히 들어섰다는 뜻이었으므로, 빙리 씨의 마음을 두고 다들 한껏 부푼 희망을 품었다.

"딸 하나만이라도 네더필드에 행복하게 자리 잡는 걸 보고,"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나머지 애들도 다 그만큼 좋은 데로 시집가는 걸 본다면, 난 더 바랄 게 없겠어요."

며칠 뒤 빙리 씨는 베넷 씨의 방문에 답례하러 와서 서재에서 10분쯤 앉아 있다 갔다. 아름답다는 소문을 많이 들은 아가씨들을 만나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빙리 씨가 본 사람은 아버지뿐이었다. 아가씨들은

그보다 조금 운이 좋아서, 위층 창문으로 그가 파란 웃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탄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득을 누렸다.

곧이어 베넷 집안은 저녁 초대장을 보냈다. 그런데 베넷 부인이 살림 솜씨를 뽐낼 요리 차례를 벌써 다 짜 놓았을 즈음, 그 모든 계획을 미루게 만드는 답장이 왔다. 빙리 씨는 다음 날 런던에 가야 해서 초대해 주신 영광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등등의 사연이었다. 베넷 부인은 몹시 당황했다. 하트퍼드셔에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런던에 무슨 볼일이 있는지 부인으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빙리 씨가 늘 이곳저곳 날아다니기만 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도 네더필드에 끝내 자리를 잡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다. 빙리 씨가 무도회에 데려올 일행을 잔뜩 모으러 런던에 갔을 뿐이라는 생각을 루커스 부인이 내놓은 덕분에 부인의 걱정은 조금 가라앉았고, 곧이어 빙리 씨가 숙녀 열두 명과 신사 일곱 명을 데리고 무도회에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가씨들은 숙녀가 그렇게나 많다는 데 시름에 잠겼지만, 무도회 전날 빙리 씨가 런던에서 열두 명이 아니라 겨우 여섯 명, 그러니까 누이 다섯과 사촌 하나만 데려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막상 일행이 무도회장에 들어섰을 때는 모두 합쳐 다섯 사람뿐이었다. 빙리 씨와 그의 누이 둘, 큰누이의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젊은이 하나였다.

빙리 씨는 잘생기고 신사다웠다. 표정이 밝았고 태도는 편안하고 꾸밈이 없었다. 누이들은 누가 봐도 유행을 앞서가는 멋진 여자들이었다. 매부인 허스트 씨는 그저 겉보기만 신사였다. 그러나 빙리 씨의 친구 다아시 씨는 훤칠하고 늠름한 몸매와 잘생긴 얼굴과 기품 있는 풍채에, 그가 들어온 지 5분도 안 되어 온 방에 퍼진 1년에 10,000파운드를 번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금세 무도회장의 눈길을 끌었다. 신사들은 다아시 씨를 참으로 훌륭한 남자라고 했고, 숙녀들은

빙리 씨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게 다아시 씨는 저녁 시간의 절반쯤은 감탄 어린 눈길을 받았지만, 그의 태도가 사람들의 반감을 사면서 인기는 단번에 뒤집혔다. 그가 오만하고, 주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무엇에도 즐거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자 더비셔에 있다는 그 넓디넓은 땅조차도, 얼굴이 더없이 쌀쌀맞고 밉살스러우며 그 친구와는 견줄 것도 못 된다는 평을 막아 주지 못했다.

빙리 씨는 금세 무도회장의 주요 인사들과 모두 인사를 나누었다. 쾌활하고 숨김이 없는 사람이어서, 한 곡도 빠짐없이 춤을 추었고, 무도회가 너무 일찍 끝난다고 화를 냈으며, 네더필드에서 직접 무도회를 열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 상냥한 면모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 그 친구와는 얼마나 딴판이었던가! 다아시 씨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빙리 양과 한 번 춤을 추었을 뿐 다른 숙녀를 소개받는 것은 사양했고, 남은 저녁 시간은 무도회장을 어슬렁거리며 이따금 자기 일행 가운데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보냈다. 다아시 씨의 사람됨은 그것으로 판가름이 났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밉살스러운 남자였고, 다들 그가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 다아시 씨를 가장 거세게 헐뜯은 사람 가운데 베넷 부인이 있었는데, 행동거지가 전반적으로 못마땅하던 차에 그가 자기 딸 하나를 업신여기기까지 하자 그 반감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날카로워졌다.

남자가 모자라는 바람에 엘리자베스 베넷은 두 곡 동안 앉아 있어야 했다. 그사이 한동안 다아시 씨가 꽤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춤추다 말고 잠깐 나와서 친구에게 춤을 추라고 조르는 빙리 씨와 다아시 씨가 나누는 이야기가 엘리자베스의 귀에 들어왔다.

"이봐, 다아시." 빙리가 말했다. "자네도 춤을 춰야 하네. 그렇게 멍하니 혼자 서성거리는 꼴은 보기 싫단 말일세. 춤을 추는 편이 훨씬 낫네."

"절대 안 추네. 상대를 각별히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질색하는지 자네도 알지 않나. 이런 무도회에서라면 견딜 수가 없을 걸세. 자네 누이들은 다 짝이 있고, 이 방에 남은 여자 가운데 함께 춤을 추는 게 내게 벌이 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네."

"나라를 하나 준대도 자네처럼 까다롭게 굴지는 않겠네!" 빙리가 소리쳤다. "맹세코 오늘 저녁처럼 상냥한 아가씨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 본 건 난생처음일세. 자네도 보다시피 그중 몇은 보기 드물게 예쁘지 않나."

"이 방에서 하나뿐인 아름다운 아가씨하고는 *자네가* 춤을 추고 있지 않나." 다아시 씨가 맏이인 베넷 양[1]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 저 아가씨는 내가 지금껏 본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세! 그런데 그 동생 하나가 바로 자네 뒤에 앉아 있는데, 아주 예쁘고 틀림없이 무척 호감 가는 사람일 걸세. 내 상대한테 자네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봄세."

"어느 쪽 말인가?" 다아시 씨는 돌아서서 잠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제 눈길을 거두고 차갑게 말했다. "봐줄 만은 하군. 하지만 *나*를 끌 만큼 아름답지는 않네. 게다가 지금은 다른 남자들한테 외면당한 아가씨들 체면을 세워 줄 기분이 아닐세. 자네는 춤 상대한테 돌아가서 그 미소나 즐기게. 나하고 있어 봐야 시간 낭비야."

빙리 씨는 그 충고를 따랐다. 다아시 씨는 자리를 떴고,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를 향한 그다지 곱지 않은 마음이 남았다. 그래도 엘리자베스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들려주었다. 무엇이든 우스꽝스러운 것을 보면 즐거워하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은 온 식구에게 대체로 즐겁게 지나갔다. 베넷 부인은 맏딸이 네더필드 일행에게 크게 칭찬받는 것을 보았다. 빙리 씨는 제인과 두 번 춤을 추었고, 그의 누이들도 제인을 특별히 대했다. 제인도 어머니 못지않게 기뻤지만 좀 더 조용히 기뻐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기쁨을 함께 느꼈다. 메리는 누군가 빙리 양에게 자기를 이 근방에서 가장 교양을 갖춘 아가씨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었다. 키티와 리디아는 운 좋게도 한 번도 춤 상대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애들이 무도회에서 신경 쓸 줄 아는 것은 아직 그것뿐이었다. 그래서 모두 기분 좋게 롱번으로 돌아왔다. 롱번은 그들이 사는 마을이었고, 그 마을에서 첫손에 꼽히는 집안이 바로 그들이었다. 집에 오니 베넷 씨가 아직 깨어 있었다. 베넷 씨는 책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번에는 그토록 화려한 기대를 불러일으킨 저녁이 어떻게 끝났는지 꽤 궁금하기도 했다. 낯선 신사를 두고 아내가 품은 꿈이 모조리 어긋났기를 은근히 바랐지만, 베넷 씨는 곧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 여보," 부인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정말 훌륭한 무도회였어요. 당신도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인이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그런 건 다시 없을 거예요. 다들 제인이 정말 예쁘다고 했고, 빙리 씨는 제인을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두 번이나 같이 춤을 췄어요. *그것* 좀 생각해 봐요, 여보. 두 번이나 같이 췄다니까요. 그 방에서 그 사람이 두 번 청한 아가씨는 제인 하나뿐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루커스 양한테 청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루커스 양하고 춤추러 나서는 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래도 그 사람은 루커스 양을 조금도 좋게 보지 않았어요. 하기야 누가 그 애를 좋게 보겠어요. 그런데 제인이 춤 대열을 따라 내려가는 걸 보더니 아주 홀딱 반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묻고, 소개를 받고, 다음 두 곡을 청했지 뭐예요. 그러고 나서 셋째 두 곡은 킹 양하고, 넷째 두 곡은 마리아 루커스하고, 다섯째 두 곡은 다시 제인하고, 여섯째 두 곡은 리지하고 췄고, 그리고 불랑제는…"

"*나를* 조금이라도 딱하게 여겼다면," 남편이 참다못해 소리쳤다. "그 사람은 그 반도 추지 않았을 거요! 제발 그 사람 춤 상대 얘기는 그만하시오. 아, 첫 곡에서 발목이라도 삐었더라면!"

"아, 여보," 베넷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난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쩜 그렇게 잘생겼는지! 누이들도 얼마나 멋진 여자들인지 몰라요. 그렇게 우아한 드레스는 난생처음 봤다니까요. 허스트 부인 드레스에 달린 레이스는 아마…"

여기서 부인의 말은 또 끊겼다. 베넷 씨가 옷치레 이야기라면 한마디도 듣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인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갈래로 이야기를 돌려, 다아시 씨가 보인 그 기막힌 무례를 몹시 분한 마음으로, 또 얼마간 부풀려서 늘어놓았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요," 부인이 덧붙였다. "*그 사람* 눈에 들지 못했다고 리지가 손해 볼 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밉살스럽고 끔찍한 사람이라, 비위를 맞춰 줄 가치가 조금도 없거든요. 어찌나 거만하고 잘난 척을 하는지 봐줄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리 걸어갔다 저리 걸어갔다 하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같이 춤출 만큼 아름답지는 않다나요! 여보, 당신이 거기 있었더라면 그 사람 콧대를 한번 꺾어 줬을 텐데. 난 그 사람이 정말 질색이에요."

---

1. 성에 「양」을 붙여 「베넷 양」이라 부르는 것은 그 집 맏딸이고, 아래 딸들은 「엘리자베스 양」처럼 이름에 붙여 불렀다.

# 제4장

제인과 엘리자베스 둘만 남게 되자, 그때까지 빙리 씨를 칭찬하는 데 조심스럽던 제인이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보였는지 동생에게 털어놓았다.

"젊은 남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 그대로셔." 제인이 말했다. "분별 있고, 성품 좋고, 쾌활하고. 그렇게 기분 좋은 태도는 처음 봤어! 그렇게 편안하면서도 예의범절은 또 어쩌면 그렇게 완벽한지!"

"잘생기기도 했지."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젊은 남자라면 될 수만 있으면 그것까지 갖춰야 하는 법이고. 그걸로 그 사람 됨됨이는 흠잡을 데 없이 완성된 셈이야."

"두 번째로 춤을 청해 주셔서 정말 우쭐했어. 그렇게까지 대접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

"못 했어? *나는* 언니 대신 다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게 언니하고 나의 큰 차이지. 누가 칭찬을 해 주면 *언니는* 늘 깜짝 놀라지만 *나는* 한 번도 놀라지 않거든. 그 사람이 언니한테 다시 청한 것만큼 당연한 일이 또 어디 있어? 언니가 그 방의 다른 여자들보다 다섯 배쯤은 예쁘다는 걸 그 사람이 못 볼 리가 없잖아. 그러니 그건 그 사람이 여자를 잘 받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무튼 아주 호감 가는 사람인 건 틀림없으니까, 언니가 좋아해도 된다고 허락할게. 언니는 그보다 훨씬 어리석은 사람들도 숱하게 좋아했으니까."

"리지도 참!"

"어휴, 언니는 사람을 대체로 너무 쉽게 좋아하잖아. 누구한테서도 흠을 못 봐. 언니 눈에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착하고 호감이 가지. 언니가 남을 나쁘게 말하는 건 내 평생 한 번도 못 들어 봤어."

"누구든 성급하게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난 늘 생각하는 대로 말해."

"알아. 그러니까 *그게* 놀랍다는 거야. *언니처럼* 분별 있는 사람이 남들의 어리석음이며 허튼소리에 그렇게 곧이곧대로 눈이 멀다니! 너그러운 척하는 사람이야 흔하지, 어디서나 볼 수 있어. 하지만 뽐내지도 않고 속셈도 없이 너그러운 것, 그러니까 누구한테서든 좋은 점만 골라 더 좋게 봐 주고 나쁜 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건 언니밖에 못 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 사람 누이들도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 사람들 태도는 그 사람만 못하던데."

"처음에는 그렇지.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 보면 아주 상냥한 사람들이야. 빙리 양은 빙리 씨하고 함께 살면서 살림을 맡을 거래. 내가 크게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우리는 빙리 양을 아주 좋은 이웃으로 두게 될 거야."

엘리자베스는 잠자코 들었지만 수긍하지는 않았다. 무도회에서 그 자매가 보인 행동은 대체로 남의 호감을 살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보다 눈치가 빠르고 성미가 덜 고분고분했으며, 자기에게 쏠린 관심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었으므로 그 자매를 좋게 볼 마음이 거의 없었다. 사실 그들은 아주 세련된 숙녀들이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상냥함이 모자라지 않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호감을 살 줄도 알았지만, 오만하고 자만심이 강했다. 꽤 아름다웠고, 런던에서 손꼽히는 사립 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20,000파운드의 재산이 있었고, 분수에 넘치게 돈을 쓰며 지체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익숙했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자신들은 높이 치고 남들은 낮잡아 볼

자격이 있었다. 그들은 영국 북부의 번듯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빙리 씨의 재산이나 자기들 재산이 장사로 모은 돈이라는 점보다는 그 점을 훨씬 깊이 기억에 새겨 두고 있었다.

빙리 씨는 아버지에게서 100,000파운드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았다. 아버지는 땅을 사들일 생각이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빙리 씨도 같은 생각이어서 이따금 어느 주에 자리를 잡을지 고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집과 사냥터를 마음대로 쓸 권리까지 얻었으니, 그의 느긋한 성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가 네더필드에서 남은 생을 다 보내고 땅을 사는 일은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을까 하고 의심했다.

누이들은 빙리 씨가 제 땅을 갖게 되기를 몹시 바랐다. 하지만 지금은 세 든 처지일 뿐인데도 빙리 양은 그의 식탁에서 안주인 노릇 하기를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고, 재산보다는 멋을 더 갖춘 남자와 결혼한 허스트 부인 역시 내킬 때면 빙리 씨의 집을 제 집처럼 여기는 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빙리 씨는 성년이 된 지 두 해도 채 안 되었을 때, 우연히 누가 권하는 바람에 마음이 동해 네더필드 저택을 보러 갔다. 가서 보기는 정말 보았다. 겉을 보고 안까지 들여다보았는데, 그것도 30분 동안이었다. 그러고는 자리 잡은 터와 주요 방들이 마음에 들었고 집주인이 늘어놓은 자랑에도 흡족해서, 그 자리에서 집을 빌렸다.

다아시와 빙리는 성격이 아주 딴판인데도 사이가 무척 돈독했다. 다아시가 빙리를 아낀 것은 빙리의 성미가 느긋하고 솔직하고 남의 말을 잘 따르기 때문이었는데, 자기 성품과 그보다 더 대조되는 성품은 없었고 다아시가 자기 성품을 못마땅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도 그랬다. 빙리는 다아시의 우정을 굳게 믿었고 그의 판단력을 더없이 높이 샀다. 이해력으로 치면 다아시가 한 수 위였다. 빙리도 결코 모자라지 않았지만, 다아시는 영리했다. 그러면서도 다아시는 거만하고

과묵하고 까다로웠으며, 그의 태도는 교양은 있었지만 사람을 끄는 데가 없었다. 그 점에서는 친구가 훨씬 유리했다. 빙리는 어디에 나타나든 틀림없이 호감을 샀고, 다아시는 쉴 새 없이 남의 비위를 거슬렀다.

두 사람이 메리턴 무도회 이야기를 하는 것만 들어 보아도 저마다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빙리는 그렇게 유쾌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예쁜 아가씨들은 생전 처음 보았다. 다들 더없이 친절하고 살뜰하게 대해 주었고, 딱딱한 격식도 어색함도 없었으며, 금세 그 방의 모두와 아는 사이가 된 기분이었고, 베넷 양으로 말하자면 그보다 아름다운 천사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반대로 다아시가 본 것은 아름다움은 별로 없고 세련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의 무리였다. 그중 누구에게도 털끝만큼의 관심이 생기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도 관심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 베넷 양이 예쁘다는 것은 그도 인정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웃었다.

허스트 부인과 그 동생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베넷 양을 칭찬하고 좋아해서, 귀여운 아가씨이고 더 알고 지내도 괜찮을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그리하여 베넷 양은 귀여운 아가씨로 자리매김했고, 빙리는 누이들이 그렇게 칭찬했으니 베넷 양을 마음대로 생각해도 된다는 허락을 얻은 기분이었다.

# 제5장

롱번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베넷 집안과 유난히 가깝게 지내는 집안이 살았다. 윌리엄 루커스 경은 예전에 메리턴에서 장사를 하며 제법 봐줄 만한 재산을 모았고, 시장으로 있을 때 국왕에게 축사를 올린 덕에 기사 작위를 받는 영광까지 누렸다. 그 영예가 아마 너무 크게 와닿았던지, 그 뒤로 윌리엄 경은 자기 장사에도, 작은 장터 마을에서 사는 일에도 진저리를 치게 되었다. 그래서 둘 다 그만두고 메리턴에서 1마일쯤 떨어진 집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옮겨 갔는데, 그 집은 그때부터 루커스 로지라고 불렸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흐뭇하게 되새기며 장사에 얽매이지 않고 온 세상 사람에게 정중하게 구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작위에 우쭐하기는 했어도 그 때문에 남을 깔보지는 않았고, 오히려 누구에게나 살뜰했다. 타고나기를 순하고 다정하고 남을 잘 돕는 사람이었는데, 세인트제임스 궁에서 왕을 알현한[1] 뒤로는 예절까지 깍듯해졌다.

루커스 부인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베넷 부인의 귀한 이웃이 되지 못할 만큼 영리하지는 않았다. 슬하에 자식이 여럿 있었다. 맏이는 분별 있고 총명한 스물일곱 살쯤 된 아가씨로, 엘리자베스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루커스 집안 아가씨들과 베넷 집안 아가씨들이 만나 무도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무도회 다음 날 아침 루커스 집안 아가씨들은 듣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려고 롱번으로 찾아왔다.

"*너는* 저녁을 아주 잘 시작했더구나, 샬럿." 베넷 부인이 정중하게 속을 누르며 루커스 양에게 말했다. "빙리 씨가 맨 처음 고른 게 *너*였잖니."

"네. 그래도 그분은 두 번째로 고른 사람을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던데요."

"아, 제인 얘기구나, 두 번 같이 춰서 그러는 거지. 하긴 그 사람이 제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 실은 정말 *좋아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뭐였는지 잘 모르겠다만… 로빈슨 씨가 어쩌고 하는 얘기였는데."

"제가 그분하고 로빈슨 씨가 하는 얘기를 엿들은 걸 말씀하시나 봐요.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로빈슨 씨가 우리 메리턴 무도회가 마음에 드시느냐고, 방 안에 예쁜 여자가 아주 많지 않으냐고, 그리고 그중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아, 맏이인 베넷 양이지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점이라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거야말로 딱 잘라 한 말이구나. 정말 꼭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다 흐지부지될 수도 있지, 알잖니."

"*내가* 엿들은 게 *네가* 엿들은 것보다 훨씬 쓸모 있었네, 일라이저." 샬럿이 말했다. "다아시 씨는 그 친구만큼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가엾은 일라이저! 겨우 *봐줄 만한* 정도라니."

"제발 리지한테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굴었다고 속상해하라고 부추기지 말아 다오. 그렇게 밉살스러운 사람 마음에 들면 그게 오히려 큰 불행이지. 어젯밤에 롱 부인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30분 동안이나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입을 한 번도 안 열었다더라."

"정말 그래요, 어머니? 조금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제인이 말했다. "다아시 씨가 롱 부인한테 말을 거는 걸 분명히 봤는데요."

"그래, 롱 부인이 참다못해 네더필드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건데, 롱 부인 말로는 누가 말을 걸었다고 아주 화가 난 눈치였다는구나."

"빙리 양이 그러는데," 제인이 말했다. "그분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말을 많이 안 하신대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무척 호감이 가는 분이래요."

"얘야, 난 그 말 한마디도 안 믿는다. 그렇게 호감 가는 사람이었으면 롱 부인한테도 말을 걸었겠지. 어떻게 된 건지 짐작이 간다. 다들 그 사람이 오만으로 똘똘 뭉쳤다고들 하니, 아마 롱 부인이 자기 마차가 없어서 빌린 삯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왔다는 걸 어디서 주워들은 게지."

"그분이 롱 부인하고 말을 안 한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루커스 양이 말했다. "하지만 일라이저하고는 춤을 췄으면 좋았을 텐데요."

"리지야, 다음에는,"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너라면 *그 사람하고는* 춤추지 않겠다."

"어머니,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춤추지 않겠다고 마음 놓고 약속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오만은," 루커스 양이 말했다. "흔히 보는 오만만큼 *내* 비위를 거스르지는 않아. 그럴 만한 까닭이 있으니까. 집안이며 재산이며 모든 걸 다 갖춘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자기를 높이 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오만할 *권리*가 있는 거야."

"정말 그래."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 사람의* 오만쯤은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내* 자존심을 짓밟지만 않았다면."

"오만은," 자기 생각이 깊고 단단하다고 자부하는 메리가 한마디 했다. "아주 흔한 결점이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책에 비추어 보건대, 오만은 참으로 아주 흔하고, 인간 본성은 유독 그것에 빠지기

쉬우며, 실제로 있든 상상 속에만 있든 이런저런 장점을 두고 스스로 흡족해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극히 드물다고 나는 확신해. 허영과 오만은 다른 거야, 두 말이 흔히 같은 뜻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허영이 없어도 오만할 수 있어. 말하자면, 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관계되고, 허영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느냐에 관계된다고 할 수 있지."

"내가 다아시 씨만큼 부자라면," 누이들을 따라온 루커스 집안의 어린 아들이 소리쳤다. "아무리 오만해져도 상관 안 할 거예요. 여우 사냥개를 한 무리 기르고, 날마다 포도주를 한 병씩 마실 거예요."

"그럼 마땅히 마셔야 할 양보다 훨씬 많이 마시는 거지." 베넷 부인이 말했다. "네가 그러는 걸 내가 보기만 하면 당장 병을 빼앗아 버릴 거다."

소년은 부인이 그러지 못할 거라고 우겼고 베넷 부인은 꼭 그러고 말겠다고 거듭 버텼는데, 그 말다툼은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

1. 세인트제임스 궁은 영국 국왕의 궁전. 그곳에서 왕을 알현하는 것은 상류 사회에 들었다는 표시였고, 윌리엄 경의 기사 작위도 여기서 받은 것이다.

# 제6장

롱번의 숙녀들은 곧 네더필드의 숙녀들을 찾아갔고, 네더필드 쪽에서도 격식을 갖추어 답례 방문을 왔다. 베넷 양의 상냥한 태도는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의 호감을 점점 더 샀다. 어머니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고 동생들은 말 상대도 안 된다는 평이었지만, 두 자매는 위의 두 딸에게 *두 사람과는*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제인은 그런 관심을 더없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누구를 대하든, 언니조차 거의 빼놓지 않고, 남을 깔보는 기색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알아보았고 그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제인에게 베푸는 그 친절은 대단치는 않을지언정 값어치가 있었다. 십중팔구 빙리 씨가 제인을 좋아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빙리 씨가 제인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눈에는 제인이 처음부터 그에게 품기 시작한 호감에 차츰 넘어가 깊은 사랑에 빠져 가고 있다는 것도 그만큼 분명히 보였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대체로 그것을 알아채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에 엘리자베스는 흐뭇했는데, 제인은 감정이 몹시 깊으면서도 성품이 차분하고 늘 한결같이 명랑해서, 무례하게 캐고 드는 사람들의 의심을 막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이 이야기를 친구인 루커스 양에게 했다.

"그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다면 기분이야 좋겠지." 샬럿이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조심하는 게 때로는 손해야. 여자가 그

솜씨 그대로 상대 남자한테까지 애정을 감추면 그 남자를 붙잡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세상도 다 똑같이 깜깜했다고 믿어 봐야 별 위안이 안 되거든. 거의 모든 애착에는 고마움이나 허영이 아주 많이 섞여 있어서, 어느 것이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안전하지 않아. *시작이야* 누구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가벼운 호감쯤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하지만 상대가 북돋아 주지 않는데도 정말로 사랑에 빠질 만큼 마음이 대담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주 드물어. 열에 아홉은 여자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애정을 드러내는 편이 나아. 빙리 씨가 너희 언니를 좋아하는 건 틀림없어. 하지만 언니가 거들어 주지 않으면 좋아하는 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언니는 거들고 있어, 타고난 성격이 허락하는 만큼은. *나도* 언니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알아본다면 정말 바보지."

"잊지 마, 일라이저. 그 사람은 너만큼 제인 성격을 잘 알지 못해."

"그래도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마음이 기울었는데 그걸 감추려 애쓰지 않으면, 남자는 알아챌 수밖에 없어."

"그 여자를 충분히 자주 본다면야 그렇겠지. 하지만 빙리 씨하고 제인이 꽤 자주 만나기는 해도 몇 시간씩 함께 있는 일은 없잖아. 게다가 늘 이 사람 저 사람 섞인 큰 모임에서 보니까, 그 시간을 전부 둘이 이야기하는 데 쓸 수도 없고. 그러니 제인은 그 사람의 관심을 붙잡아 둘 수 있는 30분 30분을 최대한 잘 써야 해. 그 사람을 확실히 붙잡아 놓고 나면, 그다음에 마음껏 사랑에 빠질 여유야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네 계획은 좋은 계획이야."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좋은 데 시집가겠다는 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따질 게 없을 때라면 말이지. 나도 부자 남편을, 아니 누구든 남편을 얻겠다고 작정했다면 아마 그 계획을 따를 거야. 하지만 제인 언니 마음은 그렇지 않아. 언니는 속셈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직은 자기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마음이 합당한 건지조차 확신하지 못해. 그 사람을 안 지 겨우 2주야. 메리턴에서 네 곡을 같이 췄고, 어느 날 아침 그 사람 집에서 딱 한 번 만났고, 그 뒤로 여럿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네 번 마주쳤지. 그걸로 그 사람 성품을 다 알기에는 좀 모자라."

"네 말대로라면야 그렇지. 언니가 그 사람하고 그냥 *저녁만* 먹었다면 그 사람 식욕이 좋은지 정도나 알았겠지. 하지만 저녁 시간을 네 번이나 함께 보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 저녁 네 번이면 꽤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 그 네 번의 저녁 덕분에 두 사람 다 코머스보다 뱅앙[1]을 더 좋아한다는 건 확인했겠지. 하지만 그 밖에 성격의 큰 줄기라면 별로 드러난 게 없을 것 같은데."

"글쎄," 샬럿이 말했다. "난 진심으로 제인이 잘되기를 바라. 그리고 제인이 그 사람하고 내일 당장 결혼한다 해도, 열두 달 동안 그 사람 성격을 연구하고 나서 결혼하는 것만큼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결혼에서 행복은 순전히 운이야. 두 사람이 미리 서로의 성미를 아무리 잘 알아도, 또 성미가 아무리 비슷해도, 그게 행복을 조금이라도 늘려 주지는 않아. 나중에는 늘 서로 넉넉히 달라져서 제 몫의 속상함을 겪게 마련이거든. 그러니 평생을 함께 보낼 사람의 결점은 될 수 있는 대로 모르는 게 나아."

"너 때문에 웃는다, 샬럿. 하지만 그건 옳은 말이 아니야. 옳지 않다는 걸 너도 알고, 너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너는 알아."

빙리 씨가 언니에게 쏟는 관심을 지켜보느라 바빠서, 엘리자베스는 자기 자신이 그의 친구 눈에 얼마간 관심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다아시 씨는 처음에는 엘리자베스가 예쁘다는 것조차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무도회에서는 아무 감탄 없이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았고, 그다음에 만났을 때는 흠을 잡으려고만 쳐다보았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반반한 데가 거의 없다고 자신과 친구들 앞에서 분명히 해 두자마자, 그 얼굴이 짙은 두 눈에 어린 아름다운 표정 덕분에 보기 드물게 총명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발견에 이어 그만큼 자존심 상하는 발견이 몇 가지 더 뒤따랐다. 비판하는 눈으로 몸매에서 완벽한 균형이 어긋난 데를 한 군데 이상 찾아냈으면서도 자태가 가볍고 보기 좋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엘리자베스의 태도가 상류 사회의 태도는 아니라고 단언했는데도 그 스스럼없는 장난기에는 마음을 사로잡혔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줄은 까맣게 몰랐다. 엘리자베스에게 다아시 씨는 어디서도 호감을 사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같이 춤출 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여긴 남자일 뿐이었다.

다아시 씨는 엘리자베스를 더 알고 싶어지기 시작했고, 직접 말을 붙여 보기 위한 첫걸음으로 엘리자베스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엘리자베스가 그것을 눈치챘다. 윌리엄 루커스 경의 집에 손님이 많이 모였을 때였다.

"다아시 씨는 무슨 생각으로," 엘리자베스가 샬럿에게 말했다. "내가 포스터 대령하고 하는 이야기를 엿듣는 걸까?"

"그건 다아시 씨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

"하지만 한 번만 더 그러면, 무슨 꿍꿍이인지 내가 다 안다는 걸 꼭 알려 줄 거야. 눈길이 아주 빈정거리는 사람이라, 내가 먼저 당돌하게 나가지 않으면 금방 그 사람이 무서워질 것 같아."

얼마 뒤 다아시 씨가 말을 걸 생각은 없어 보이면서도 두 사람 쪽으로 다가오자, 루커스 양은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꺼낼 수 있으면 어디 해 보라고 엘리자베스를 부추겼다. 그 말에 곧바로 약이 오른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다아시 씨, 방금 제가 포스터 대령님께 메리턴에서 무도회를 열어 달라고 조를 때 말을 유난히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힘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숙녀라면 누구나 그 이야기만 나오면 힘이 나는 법입니다."

"저희한테 너무 박하시군요."

"곧 *이 친구가* 놀림받을 차례예요." 루커스 양이 말했다. "피아노 뚜껑 연다, 일라이저. 다음엔 뭐가 올지 알지?"

"친구라는 게 참 별난 애야! 아무 데서나 아무한테나 나보고 연주하고 노래하라고 하니! 내 허영이 음악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너만 한 친구가 없었겠지만, 지금 나는 정말이지 최고의 연주자들 음악을 늘 들으며 사시는 분들 앞에는 앉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루커스 양이 끈질기게 조르자 엘리자베스는 덧붙였다. "좋아, 꼭 해야 한다면 해야지." 그러고는 다아시 씨를 진지하게 흘끗 보며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아시는 아주 훌륭한 옛말이 있지요. '입김은 아껴 두었다가 죽이나 식혀라.' 저는 제 입김을 아껴 두었다가 노래나 부풀리겠어요."

엘리자베스의 연주는 듣기 좋았지만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한두 곡을 부르고 나서, 한 곡 더 불러 달라는 여러 사람의 청에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동생 메리가 냉큼 피아노 앞으로 와서 자리를 차지했다. 메리는 집안에서 혼자만 인물이 없어서 지식과 교양을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늘 그것을 내보이고 싶어 안달이었다.

메리는 재능도 안목도 없었다. 허영 덕분에 부지런하기는 했지만, 같은 허영 탓에 학자연하는 기색과 잘난 척하는 태도까지 몸에 배어서, 메리가 이른 것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올랐더라도 그것을 망쳐 놓았을 터였다.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반만큼도 잘 치지 못했지만 편안하고 꾸밈이 없어서 사람들은 훨씬 즐겁게 들었다. 메리는 긴 협주곡을

끝내고 나서, 동생들이 청하는 대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가락을 연주해 칭찬과 고마움을 사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그 동생들은 루커스 집안 아이들 몇, 장교 두세 명과 함께 방 한쪽 끝에서 신나게 춤을 추었다.

다아시 씨는 그 가까이에 서서, 이야기라고는 한마디도 없이 저녁을 그렇게 보내는 데 말없이 분개하고 있었고, 제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윌리엄 루커스 경이 옆에 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마침내 윌리엄 경이 이렇게 말을 꺼냈다.

"젊은이들한테는 참으로 멋진 놀이입니다, 다아시 씨! 뭐니 뭐니 해도 춤만 한 게 없지요. 저는 춤이야말로 세련된 사회가 첫손에 꼽는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덜 세련된 사회에서도 유행한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야만인도 누구나 춤은 춥니다."

윌리엄 경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친구분께서는 참 멋지게 추시는군요." 빙리가 춤추는 무리에 끼는 것을 보고 윌리엄 경이 잠시 뒤 말을 이었다. "다아시 씨도 그 방면에는 틀림없이 일가견이 있으시겠지요."

"메리턴에서 제가 춤추는 걸 보신 것으로 압니다."

"그럼요, 보았고말고요. 보면서 적잖이 즐거웠습니다. 세인트제임스 궁에서도 자주 추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곳에 바치는 마땅한 경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디에도 그런 경의는 바치지 않습니다."

"런던에 댁이 있으시겠지요?"

다아시 씨는 고개를 숙여 보였다.

"저도 한때 런던에 자리를 잡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상류사회를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런던 공기가 루커스 부인한테 맞을지 영 자신이 없었지요."

윌리엄 경은 대답을 기다리며 말을 멈추었다. 그러나 상대는 대답할 마음이 없었다. 마침 그때 엘리자베스가 그쪽으로 걸어오자, 윌리엄 경은 아주 멋지게 신사 노릇을 해 보자는 생각이 번뜩 떠올라 엘리자베스를 불렀다.

"일라이저 양, 왜 춤을 추지 않소? 다아시 씨, 이 아가씨를 더없이 바람직한 춤 상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눈앞에 있는데 설마 춤을 거절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러고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아 다아시 씨에게 건네려 했다. 다아시 씨는 몹시 놀라면서도 그 손을 받는 것이 싫지 않았는데, 엘리자베스가 대뜸 몸을 빼며 조금 당황한 얼굴로 윌리엄 경에게 말했다.

"정말입니다. 저는 춤출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춤 상대를 청하러 이쪽으로 왔다고는 부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아시 씨는 엄숙하고 예의 바르게 함께 춤출 영광을 달라고 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을 굳혔고, 윌리엄 경이 설득해 보려 했지만 그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일라이저 양은 춤 솜씨가 그리 뛰어나니, 내가 그걸 보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오. 이 신사분은 원래 춤을 즐기지 않는다지만, 30분쯤 우리 청을 들어주는 것까지 마다하지는 않을 게요."

"다아시 씨는 정말 예의 그 자체시네요." 엘리자베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야 그렇소. 하지만 일라이저 양, 그런 미끼가 걸려 있으니 저 신사가 그리 고분고분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지. 이런 춤 상대를 누가 마다하겠소?"

엘리자베스는 짓궂은 눈길을 던지고는 돌아섰다. 다아시 씨는 엘리자베스가 거절했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기는커녕 꽤 흐뭇하게 엘리자베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빙리 양이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

"무슨 생각에 잠기셨는지 짐작이 가요."

"짐작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저녁을 숱하게 보내야 한다면 얼마나 견딜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도 정말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짜증 난 적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같이 따분하면서 시끄럽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은 또 어찌나 하는지! 다아시 씨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혹평하시는지 들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드리겠어요!"

"짐작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의 얼굴에 박힌 아름다운 두 눈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던 참입니다."

빙리 양은 대뜸 다아시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어느 숙녀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영광을 누렸는지 말해 달라고 했다. 다아시 씨는 아주 대담하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라고요!" 빙리 양이 되뇌었다. "정말 놀랍네요.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언제쯤 축하를 드리면 될까요?"

"꼭 그렇게 물으실 줄 알았습니다. 숙녀의 상상력은 참 빠릅니다. 감탄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결혼으로 순식간에 뛰어넘지요. 축하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렇게 진지하시다면 이 일은 다 결정된 걸로 알게요. 정말 멋진 장모님을 두시게 되겠네요. 그분은 당연히 늘 펨벌리에서 함께

지내시겠지요."

빙리 양이 그렇게 혼자 즐거워하는 동안 다아시 씨는 더없이 무심하게 듣고만 있었다. 그가 태연한 것을 보고 아무 일 없겠다고 마음을 놓자, 빙리 양의 재치는 술술 흘러나왔다.

---

1. 뱅앙·코머스는 당시 즐겨 하던 카드놀이. 뒤에 나오는 루·휘스트·카드리유·카지노·피켓도 모두 카드놀이다.

# 제7장

베넷 씨의 재산은 거의 전부가 1년에 2,000파운드가 나오는 땅이었는데, 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그 땅은 아들 상속인이 없으면 먼 친척에게 넘어가도록 한정상속[1]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은 그 출신에 비하면 넉넉한 편이었지만 남편 재산의 모자람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베넷 부인의 아버지는 메리턴의 변호사였고, 딸에게 4,000파운드를 남겼다.

베넷 부인에게는 필립스 씨라는 사람과 결혼한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필립스 씨는 장인 밑에서 서기로 일하다가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런던에서 번듯한 장사를 하며 자리를 잡은 남동생도 하나 있었다.

롱번 마을은 메리턴에서 고작 1마일 떨어져 있었다. 아가씨들에게는 더없이 편한 거리였고, 그래서 아가씨들은 보통 한 주에 서너 번씩 이모에게 인사도 드리고 바로 길 건너 모자 가게에도 들를 겸 그곳으로 이끌려 갔다. 막내 둘인 키티와 리디아가 특히 그렇게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두 아이는 언니들보다 머릿속이 비어 있어서, 더 나은 일이 없으면 메리턴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침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저녁에 나눌 이야깃거리를 장만하는 데 꼭 필요했다. 그리고 시골에 소식이 아무리 귀해도 둘은 늘 이모에게서 무슨 소식이든 얻어 냈다. 마침 요즘은 민병대[2] 연대 하나가 근방에 막 들어온 덕분에 소식도 기쁨도 넘쳐 났다. 연대는 겨울 내내 머물 예정이었고, 메리턴이 본부였다.

이제 필립스 부인 댁에 가면 더없이 흥미로운 소식을 얻을 수 있었다. 두 아이는 날마다 장교들의 이름과 집안을 하나씩 더 알게 되었다. 장교들이 어디 묵는지도 오래지 않아 비밀이 아니게 되었고, 마침내 두 아이는 장교들과 직접 알고 지내기 시작했다. 필립스 씨가 장교들을 일일이 찾아갔는데, 그 덕분에 조카딸들에게는 전에 몰랐던 행복의 샘이 열렸다. 두 아이는 장교 말고는 아무 이야기도 할 줄 몰랐다. 빙리 씨의 막대한 재산은 그 이야기만 나오면 어머니가 금세 생기를 띠었지만, 두 아이의 눈에는 소위 한 사람의 군복에 견주어도 아무 값어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두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한바탕 쏟아 내는 것을 듣고 있던 베넷 씨가 냉정하게 한마디 했다.

"너희가 떠드는 말투로 짐작건대 너희 둘은 이 고장에서 제일 어리석은 아이들이 틀림없구나. 얼마 전부터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든다."

키티는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리디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터 대위가 얼마나 멋진지, 대위가 내일 아침 런던으로 떠나니 오늘 중으로 꼭 만나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았다.

"여보, 놀랍네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어떻게 제 자식을 그렇게 선뜻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네 자식을 깔보고 싶다 해도, 내 자식만은 아닐 거예요."

"내 자식들이 어리석다면, 나는 늘 그걸 똑똑히 알고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소."

"그래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애들은 다 아주 영리하거든요."

"내가 보기에 우리 생각이 엇갈리는 건 그 점 하나뿐인 것 같소. 나는 우리 생각이 무엇 하나 빠짐없이 다 맞기를 바랐소만, 우리 막내 둘이

보기 드물게 어리석다는 점에서만큼은 당신과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구려."

"여보, 그런 애들한테 아버지 어머니만 한 분별을 기대하면 안 되죠. 우리 나이가 되면 그 애들도 장교 생각 따위는 우리만큼도 안 할 거예요. 나도 붉은 군복이 참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사실 지금도 속으로는 좋아요. 1년에 5,000~6,000파운드쯤 버는 멋진 젊은 대령이 우리 딸 하나를 달라고 하면 나는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요전 날 밤 윌리엄 경 댁에서 포스터 대령이 군복을 입은 모습이 아주 잘 어울리던걸요."

"어머니," 리디아가 소리쳤다. "이모 말이, 포스터 대령하고 카터 대위가 처음 왔을 때만큼 왓슨 양 댁에 자주 가지 않는대요. 요즘은 클라크네 대여 도서관에 서 있는 걸 자주 본대요."

베넷 부인이 대답하려는 참에 하인이 베넷 양 앞으로 온 쪽지를 들고 들어왔다. 네더필드에서 온 것이었고, 심부름 온 하인이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넷 부인은 기뻐서 눈을 반짝이며, 딸이 쪽지를 읽는 동안 성급하게 소리쳤다.

"그래, 제인, 누구한테서 온 거니? 무슨 일이래?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니? 얼른, 제인, 빨리 말해 봐. 빨리, 얘야."

"빙리 양한테서 온 거예요." 제인은 그렇게 말하고 소리 내어 읽었다.

"친애하는 벗에게"

"오늘 언니와 저하고 저녁을 함께해 줄 만큼 자비롭지 않으시다면, 우리 둘은 남은 평생 서로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자 둘이 하루 종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면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편지를 받는 대로 되도록 빨리 와 주세요. 오빠와 신사분들은 장교들과 저녁을 먹을 예정이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벗,"

"캐럴라인 빙리"

"장교들하고!" 리디아가 소리쳤다. "이모는 왜 *그 얘기는* 안 해 줬지?"

"밖에서 저녁을 먹는다니," 베넷 부인이 말했다. "그거 참 운이 없구나."

"마차를 써도 될까요?" 제인이 물었다.

"안 돼, 애야. 말을 타고 가는 게 낫겠다,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와야 할 테고."

"그거 좋은 꾀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언니를 집까지 마차로 보내 주겠다고 하지만 않는다면요."

"아, 하지만 신사들이 메리턴에 가려면 빙리 씨의 경마차를 쓸 테고, 허스트 씨 내외는 자기네 마차를 끌 말이 없잖니."

"저는 마차를 타고 가는 편이 훨씬 좋은데요."

"하지만 얘야, 아버지가 말을 내줄 수 없을 게 뻔해. 말은 농장 일에 써야 하잖아요, 여보, 안 그래요?"

"농장 일에 쓰이는 날이 내가 얻어 쓰는 날보다 훨씬 많기는 하오."

"그럼 오늘 아버지가 말을 쓰시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어머니 뜻은 이루어지는 셈이네요."

베넷 부인은 마침내 말들이 일에 묶여 있다는 대답을 남편에게서 억지로 받아 냈다. 그래서 제인은 말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날이 궂을 거라고 신나게 점치며 문간까지 배웅했다. 어머니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제인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동생들은 언니를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기뻐했다. 비는 저녁 내내 그치지 않고 내렸으니, 제인은 돌아올 수 없는 게 확실했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막힌 꾀였어!" 베넷 부인은 몇 번이고 그렇게 말했다. 마치 비를 내리게 한 공이 전부 자기 것인 것처럼. 하지만 자기 꾀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왔는지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다 알게

되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네더필드의 하인이 엘리자베스 앞으로 쪽지를 가져왔다.

"사랑하는 리지에게"

"오늘 아침 몸이 무척 안 좋아. 아마 어제 흠뻑 젖은 탓인가 봐. 친절한 친구들이 나을 때까지는 집에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말래. 존스 씨한테도 꼭 진찰을 받으라고 하셔. 그러니 존스 씨가 다녀갔다는 말을 듣더라도 놀라지 마.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것 말고는 별로 탈 난 데가 없어."

"그럼 이만."

"그래, 부인," 엘리자베스가 쪽지를 소리 내어 읽자 베넷 씨가 말했다. "당신 딸이 위험한 병에 걸린다면, 혹시라도 죽기라도 한다면, 그게 다 빙리 씨를 쫓다가 그리된 것이고 당신이 시킨 일이었다는 걸 아는 게 큰 위안이 되겠구려."

"어머, 그 애가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건 조금도 없어요. 사람이 그깟 가벼운 감기로 죽지는 않아요. 거기서 잘 돌봐 줄 거예요. 거기 머무는 동안은 다 잘된 거예요. 마차만 있으면 나도 가 볼 텐데."

엘리자베스는 정말로 걱정이 되어 마차를 쓸 수 없더라도 언니에게 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말을 탈 줄 몰랐으므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어쩜 그렇게 어리석니,"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 진창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거기 도착하면 남 앞에 내놓을 꼴이 아닐 거다."

"제인 언니를 볼 꼴만 되면 돼요.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리지야," 아버지가 말했다. "그건 나더러 말을 데려오라는 소리냐?"

"아니에요, 정말로요. 걷는 게 싫지 않아요. 까닭이 있으면 거리야 아무것도 아니죠. 겨우 3마일인걸요. 저녁 먹을 때까지는 돌아올게요."

"언니의 자비로운 행동력은 감탄할 만해." 메리가 한마디 했다. "하지만 감정의 충동은 하나하나 이성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법이야. 내 생각에 노력은 언제나 필요한 만큼에 비례해야 하지."

"우리도 메리턴까지 같이 갈게." 키티와 리디아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동생들과 함께 가기로 했고, 세 아가씨는 같이 길을 나섰다.

"서두르면," 걸어가면서 리디아가 말했다. "카터 대위가 떠나기 전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지 몰라."

셋은 메리턴에서 헤어졌다. 막내 둘은 장교 부인 하나가 묵는 숙소로 갔고, 엘리자베스는 혼자서 계속 걸었다. 들판을 하나 또 하나 빠른 걸음으로 가로지르고, 울타리 디딤판을 넘고 웅덩이를 건너뛰며 조바심치듯 부지런히 걸은 끝에, 마침내 저택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엘리자베스는 발목이 시큰거리고 양말은 흙투성이에 얼굴은 운동의 열기로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아침 식사실로 안내되었다. 제인 말고는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엘리자베스가 나타나자 다들 무척 놀랐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렇게 궂은 날씨에, 그것도 혼자서 3마일이나 걸어왔다는 것을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은 거의 믿을 수 없어 했고,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그 일로 자기를 깔본다고 확신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엘리자베스를 아주 정중하게 맞았다. 그리고 빙리 씨의 태도에는 정중함보다 나은 것, 곧 다정함과 친절이 있었다. 다아시 씨는 말이 거의 없었고 허스트 씨는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아시 씨는 운동으로 한결 환해진 엘리자베스의 얼굴빛에 감탄하는 마음과, 혼자 그 먼 길을 올 만한 일이었는지 의심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허스트 씨는 오로지 아침 먹을 생각뿐이었다.

언니가 어떠냐고 묻자 그리 좋은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베넷 양은 밤새 잠을 설쳤고, 일어나기는 했지만 열이 몹시 나서 방을 나올 형편이 못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언니에게 안내되어 기뻤다. 제인은 걱정을 끼치거나 폐가 될까 봐 쪽지에 차마 쓰지 못했을 뿐 속으로는 이렇게 와 주기를 몹시 바랐던 터라, 엘리자베스가 들어서자 무척 기뻐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운은 없었고, 빙리 양이 둘만 남겨 두고 나가자 이 집 사람들이 베풀어 주는 각별한 친절이 고맙다는 말 말고는 별말을 하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언니 곁을 지켰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빙리 자매가 와서 함께 있었다. 그 자매가 제인에게 얼마나 애정과 걱정을 쏟는지 보고는 엘리자베스도 그들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약제사가 와서 환자를 진찰하더니, 짐작대로 지독한 감기에 걸렸으니 잘 이겨 내도록 애써야 한다면서 다시 자리에 누우라고 권하고 물약을 지어 주겠다고 했다. 열이 오르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기 때문에 제인은 그 권고를 순순히 따랐다. 엘리자베스는 잠시도 언니 방을 떠나지 않았고, 다른 숙녀들도 자리를 비우는 일이 드물었다. 신사들이 나가고 없으니 사실 다른 데서 할 일도 없었다.

시계가 세 시를 치자 엘리자베스는 이제 가야겠다고 느끼고는 몹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빙리 양이 마차를 내주겠다고 했고, 엘리자베스가 조금만 더 권하면 받아들이려던 참에, 제인이 동생과 헤어지는 것을 너무나 서운해하는 바람에 빙리 양은 경마차를 내주겠다던 말을 당분간 네더필드에 머물라는 초대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무척 고마워하며 그러겠다고 했고, 빙리 양은 하인 하나를 롱번으로 보내 엘리자베스가 머물게 되었다고 식구들에게 알리고 갈아입을 옷을 챙겨 오게 했다.

1. 땅을 아들 상속인에게만 물려줄 수 있도록 묶어 둔 것. 아들이 없는 베넷 씨의 땅은 딸들이 아니라 먼 친척 남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2. 나폴레옹 전쟁 무렵 각 주에서 뽑은 지방 방위군. 겨울이면 연대 단위로 소도시에 머물렀다.

# 제8장

다섯 시에 두 숙녀는 옷을 갈아입으러 물러갔고, 여섯 시 반에 엘리자베스는 저녁 식사에 불려 내려갔다. 그 자리에서 정중한 물음이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 빙리 씨의 걱정이 남달리 깊다는 것을 알아보는 기쁨도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리 좋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제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자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독한 감기란 얼마나 끔찍한지, 자기들은 아픈 게 얼마나 질색인지를 서너 번 되풀이하고는 더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제인이 눈앞에 없을 때 보이는 그 무관심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품었던 반감을 고스란히 되찾아 누릴 수 있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엘리자베스가 조금이라도 흐뭇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빙리 씨뿐이었다. 빙리 씨는 제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역력했고 엘리자베스에게도 더없이 살뜰하게 대해 주어서, 엘리자베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불청객으로 여긴다고 믿으면서도 그만큼 불청객이 된 기분은 들지 않았다. 빙리 씨 말고는 엘리자베스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 빙리 양은 다아시 씨에게 온 정신이 팔려 있었고 허스트 부인도 그에 못지않았다. 엘리자베스 옆에 앉은 허스트 씨로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카드놀이 하는 것 말고는 사는 낙이 없는 게으른 사람이어서, 엘리자베스가 기름진 라구보다 소박한 음식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붙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곧장 제인에게 돌아갔다. 엘리자베스가 방을 나가자마자 빙리 양은 엘리자베스를 헐뜯기 시작했는데, 그 판정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태도가 정말 형편없었고, 오만과 무례가 뒤섞여 있었으며, 말재주도 맵시도 안목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았다. 허스트 부인도 같은 생각이라며 덧붙였다.

"한마디로 잘 걷는다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아침 그 꼴은 절대 못 잊을 거야. 정말 거의 들짐승 같았다니까."

"정말 그랬어, 언니.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 애초에 오다니 말도 안 되지! 언니가 감기 좀 걸렸다고 *그 애가* 왜 시골길을 그렇게 쏘다녀야 해? 머리는 또 어찌나 헝클어지고 부스스한지!"

"그래, 그리고 페티코트. 너도 그 페티코트 봤지? 진흙이 6인치는 묻었을 거야, 틀림없어. 그걸 가리려고 겉옷 자락을 내렸는데도 가려지질 않더라."

"루이자, 그 묘사가 아주 정확할지는 몰라도," 빙리가 말했다. "난 그런 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어. 오늘 아침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 방에 들어올 때 아주 보기 좋다고 생각했는걸. 페티코트가 더러운 건 전혀 못 봤어."

"*다아시 씨*는 보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빙리 양이 말했다. "그리고 *누이동생분이* 그런 꼴을 보이는 건 바라지 않으시겠지요."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3마일인지 4마일인지 5마일인지, 아니 몇 마일이 됐든, 그 먼 길을 발목 위까지 진흙에 빠져 가며, 그것도 혼자서, 완전히 혼자서 걸어오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잘난 척하는 고약한 독립심이랄까, 예의범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시골 읍내 티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언니를 아끼는 마음이 드러나서 아주 보기 좋던데." 빙리가 말했다.

"다아시 씨," 빙리 양이 소곤거리듯 말했다. "이번 모험 때문에 그 아가씨의 아름다운 두 눈에 대한 감탄이 좀 식으셨겠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운동 덕분에 더 빛났습니다."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허스트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제인 베넷을 무척 좋아해. 정말 귀여운 아가씨야. 진심으로 좋은데 시집갔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 그렇게 변변찮은 친척들이 있으니 아무래도 가망이 없을 것 같아."

"그 사람들 이모부가 메리턴에서 변호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응. 그리고 칩사이드[1] 근처 어디 사는 외삼촌도 하나 있대."

"거참 근사하네." 다른 하나가 맞장구를 쳤고, 두 사람은 깔깔 웃어댔다.

"그 집 외삼촌들이 칩사이드를 온통 채울 만큼 많다 해도," 빙리가 소리쳤다. "그 사람들이 호감 가는 건 조금도 줄지 않아."

"하지만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은 그만큼 크게 줄어들 걸세." 다아시가 대답했다.

빙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누이들은 진심으로 맞장구를 치고는 사랑하는 친구의 천한 친척들을 두고 한동안 실컷 웃어댔다.

그래도 식당을 나오자 두 사람은 다시 다정해져서 제인의 방으로 가 커피를 마시라고 부를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다. 제인은 여전히 많이 아팠고, 엘리자베스는 밤늦게까지 언니 곁을 조금도 떠나려 하지 않다가, 언니가 잠든 것을 보고 마음을 놓은 뒤에야, 즐겁다기보다는 도리상 자기도 아래층에 내려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응접실에 들어가 보니 모두 루를 하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함께하자는 청을 받았다. 하지만 판돈이 클 것 같아서 사양하고, 언니를 핑계로 아래층에

잠시 머무는 동안 책이나 읽겠다고 했다. 허스트 씨가 놀란 눈으로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았다.

"카드보다 책 읽는 게 더 좋다고요?" 허스트 씨가 말했다. "그거 좀 별나네요."

"일라이저 베넷 양은," 빙리 양이 말했다. "카드를 경멸해요. 대단한 독서가라서 다른 데서는 아무 즐거움도 못 느끼거든요."

"저는 그런 칭찬도 그런 비난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저는 대단한 독서가가 *아니고*, 즐거움을 느끼는 일도 많아요."

"언니를 간호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건 틀림없겠지요." 빙리가 말했다. "언니가 다 나은 걸 보시면 그 즐거움이 곧 더 커지기를 바랄게요."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는 책 몇 권이 놓인 탁자 쪽으로 걸어갔고, 빙리는 곧바로 다른 책을, 서재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양을 위해서도 제 체면을 위해서도 장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워낙 게을러서요. 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펼쳐 본 것보다는 훨씬 많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방에 있는 책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놀라워요." 빙리 양이 말했다. "아버지가 책을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남기셨다니. 다아시 씨, 펨벌리에 있는 서재는 정말 멋지지요!"

"좋아야 마땅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여러 대에 걸쳐 이룬 것입니다."

"게다가 다아시 씨가 직접 보태신 것도 많잖아요. 늘 책을 사들이시니까요."

"요즘 같은 시절에 집안 서재를 소홀히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라뇨! 그 훌륭한 곳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다아시 씨가 무엇 하나 소홀히 하실 리가 없지요. 찰스, *오빠가* 집을 지을 때는 펨벌리의 반만큼이라도 멋졌으면 좋겠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이지 땅을 사려거든 그 근방에서 사고, 펨벌리를 본보기로 삼아. 영국에서 더비셔보다 멋진 주는 없으니까."

"기꺼이 그러지. 다아시가 판다면 펨벌리를 통째로 사겠어."

"난 될 법한 얘기를 하는 거야, 찰스."

"맹세코, 캐럴라인, 펨벌리는 흉내 내서 얻기보다 돈 주고 사서 얻는 쪽이 더 될 법할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너무 끌려서 책에 마음을 둘 수가 없었고, 결국 책을 아예 내려놓고 카드 탁자로 다가가 빙리 씨와 그의 큰누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놀이를 구경했다.

"다아시 양은 봄 이후로 많이 컸나요?" 빙리 양이 말했다. "저만큼 크려나요?"

"그럴 겁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베넷 양 키쯤 되거나, 그보다 조금 더 큽니다."

"얼마나 다시 보고 싶은지 몰라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 얼굴, 그 몸가짐, 게다가 그 나이에 그렇게 교양을 갖추다니! 피아노 솜씨는 또 얼마나 뛰어난지요."

"난 정말 놀라워." 빙리가 말했다. "젊은 아가씨들은 어쩌면 그렇게 참을성이 있어서 하나같이 다 그토록 교양을 갖출 수 있는지."

"젊은 아가씨들이 다 교양을 갖췄다고! 찰스, 무슨 소리야?"

"그래, 다 그렇다고 생각해. 다들 탁자에 그림을 그리고, 가리개에 천을 씌우고, 지갑을 뜨개질하잖아. 그런 걸 못 하는 아가씨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처음 소개받는 아가씨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가씨가 교양을 아주 잘 갖췄다는 말이 빠지는 건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니까."

"자네가 늘어놓은 흔한 교양의 목록은 너무나 맞는 말일세." 다아시가 말했다. "지갑을 뜨개질하거나 가리개에 천을 씌울 줄 안다는 것 말고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여자들한테도 그 말이 숱하게 붙지만, 숙녀들을 대체로 그렇게 평가하는 자네 생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네. 내가 아는 사람을 다 통틀어도 정말 교양을 갖춘 여자를 여섯 넘게 안다고는 자랑할 수가 없어."

"저도 그렇고말고요." 빙리 양이 말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가 한마디 했다. "교양을 갖춘 여자라는 말에 아주 많은 것을 담고 계신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고말고요." 그의 충실한 조수가 소리쳤다. "흔히 보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지 않고서는 누구도 정말 교양을 갖췄다는 평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려면 여자는 음악, 노래, 그림, 춤, 그리고 현대어를 속속들이 알아야 하고, 그 밖에도 몸가짐과 걸음걸이, 목소리, 말씨와 표현에 뭐라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반쯤밖에 들을 자격이 없지요."

"그 모든 걸 갖춰야 합니다." 다아시가 덧붙였다. "그리고 거기에 폭넓은 독서로 정신을 가꾸어 더 실속 있는 무언가를 보태야 합니다."

"이제 다아시 씨가 교양을 갖춘 여자를 *겨우* 여섯밖에 모르신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아신다는 게 놀랍군요."

"같은 여성에게 그렇게 박하셔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능력과 안목과 근면과 우아함을 한 사람이 다 갖춘 것은 *저로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은 엘리자베스가 은근히 의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둘 다 소리 높여 항의했고, 그런 조건에 맞는 여자를 많이 안다고 둘이서 막 우겨 대는데, 허스트 씨가 놀이는 뒷전이라며 신랄하게 투덜거리면서 두 사람을 나무랐다. 그래서 이야기가 모두 끊겼고, 엘리자베스는 얼마 뒤 방을 나갔다.

"일라이저 베넷은," 문이 닫히자 빙리 양이 말했다. "같은 여자를 깎아내려서 남자들 눈에 들려고 하는 그런 아가씨예요. 많은 남자한테는 그게 먹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치사한 수작이고, 아주 비열한 기술이에요."

"틀림없이," 그 말을 주로 들으라고 한 상대인 다아시가 대답했다. "숙녀들이 남자를 사로잡으려고 이따금 몸을 낮춰 쓰는 기술에는 *하나같이* 비열한 데가 있습니다. 교활함과 조금이라도 닮은 것은 무엇이든 경멸스럽습니다."

빙리 양은 이 대답이 썩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더 이어 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다시 내려온 것은 언니가 더 나빠져서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 빙리는 당장 존스 씨를 부르자고 졸랐고, 누이들은 시골 의사의 조언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확신하며 런던에 급보를 보내 가장 이름난 의사를 불러오자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빙리의 제안에는 그리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베넷 양이 확실히 나아지지 않으면 아침 일찍 존스 씨를 부르기로 정했다. 빙리는 몹시 안절부절못했고, 누이들은 비참하다고 했다. 하지만 누이들은 밤참을 먹은 뒤 이중창을 부르며 그 비참함을 달랬고, 빙리는 하녀장에게 아픈 숙녀와 그 동생을 할 수 있는 한 정성껏 돌보라고 일러두는 것 말고는 마음을 달랠 더 나은 길을 찾지 못했다.

1. 런던 시티의 상인 거리. 외삼촌이 장사꾼이라고 비웃는 말이다.

# 제9장

엘리자베스는 그날 밤 대부분을 언니 방에서 보냈다. 아침이 되자 아주 이른 시각에 빙리 씨가 하녀를 시켜 안부를 물어 오고, 얼마 뒤에는 그 누이들의 시중을 드는 우아한 두 숙녀가 와서 또 물어 왔는데, 엘리자베스는 그럭저럭 봐줄 만한 대답을 보낼 수 있어 기뻤다. 그렇게 차도가 있었는데도 엘리자베스는 롱번에 쪽지를 보내 어머니가 와서 제인을 보고 형편을 직접 판단해 달라고 청했고, 쪽지는 곧바로 롱번에 갔으며 어머니도 그만큼 빨리 그 청을 들어주었다. 베넷 부인은 막내 둘을 데리고, 네더필드 식구들의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도착했다.

제인이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였다면 베넷 부인은 몹시 괴로워했겠지만, 막상 보니 걱정할 병은 아니라서 마음이 놓였고, 그러자 제인이 곧바로 낫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다 나으면 아마 네더필드를 떠나야 할 테니까. 그래서 부인은 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딸의 청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거의 같은 때에 도착한 약제사도 제인을 옮기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어머니와 세 딸은 제인 곁에 잠시 앉아 있다가, 빙리 양이 나타나 청하자 빙리 양을 따라 아침 식사실로 갔다. 빙리는 베넷 부인이 보기에 베넷 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기를 바란다며 그들을 맞았다.

"그런데 나빴어요." 부인이 대답했다. "옮기기에는 너무 많이 아파요. 존스 씨도 옮길 생각은 하지도 말래요. 조금만 더 염치없이 신세를 져야겠어요."

"옮기다니요!" 빙리가 소리쳤다. "그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 누이도 베넷 양을 옮기는 건 틀림없이 듣지도 않으려 할 거예요."

"부인, 염려 마십시오." 빙리 양이 차갑도록 정중하게 말했다. "베넷 양이 저희와 함께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정성은 다 기울이겠습니다."

베넷 부인은 고맙다는 말을 끝없이 늘어놓았다.

"정말이지," 부인이 덧붙였다. "이렇게 좋은 친구분들이 아니었으면 그 애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아프고 무척 고생하고 있는데도 세상 누구보다 잘 참고 있거든요, 그 애는 늘 그래요, 제가 본 사람 가운데 그 애만큼 마음씨 고운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는 다른 딸들한테 너희는 *제인한테* 댈 것도 못 된다고 자주 말해요. 빙리 씨, 방이 참 아늑하네요. 저 자갈길 너머로 보이는 경치도 정말 멋지고요. 이 고장에서 네더필드만 한 곳은 없을 거예요. 임대 기간이 짧긴 해도 서둘러 떠날 생각은 안 하시겠지요?"

"저는 뭘 하든 서둘러서 해요." 빙리가 대답했다. "그러니 네더필드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다면 아마 5분 만에 떠나 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아주 눌러앉을 생각입니다."

"제가 짐작한 그대로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저를 알아보기 시작하셨군요?" 빙리가 엘리자베스 쪽으로 돌아서며 소리쳤다.

"네, 그럼요. 속속들이 알겠어요."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속이 들여다보인다니 좀 딱한 일 같네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깊고 복잡한 성격이라고 해서 빙리 씨 같은 성격보다 꼭 더 존중받을 만하거나 덜 존중받을 만한 건 아니니까요."

"리지," 어머니가 소리쳤다. "여기가 어딘지 생각해야지. 집에서 내버려 두니까 하던 대로 그렇게 함부로 지껄이면 못 써."

"몰랐어요," 빙리가 곧바로 말을 이었다. "엘리자베스 양이 사람의 성격을 연구하시는 분인 줄은. 재미있는 연구겠어요."

"네. 하지만 복잡한 성격이 *제일* 재미있어요. 적어도 그런 장점은 있지요."

"시골은," 다아시가 말했다. "대체로 그런 연구 대상을 많이 내주지 못합니다. 시골 동네에서는 아주 좁고 변화 없는 사회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가 워낙 많이 변하니까, 언제든 새로 관찰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고말고요." 시골 동네를 들먹이는 다아시의 말투에 기분이 상한 베넷 부인이 소리쳤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골에도 런던 못지않게 *그런 일이* 많답니다."

모두 놀랐다. 다아시는 부인을 잠깐 쳐다보더니 말없이 돌아섰다. 다아시를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한 베넷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저로서는 가게며 사람들 모이는 곳 말고는 런던이 시골보다 크게 나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시골이 훨씬 더 즐겁지요, 안 그래요, 빙리 씨?"

"시골에 있을 때는," 빙리가 대답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런던에 있을 때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둘 다 저마다 좋은 점이 있으니, 어디에 있든 똑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빙리 씨 성품이 바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신사분은," 부인이 다아시를 쳐다보며 말했다. "시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엘리자베스가 어머니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다아시 씨 말씀을 완전히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다아시 씨는

그저 시골에서는 런던에서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건 어머니께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하셔야 해요."

"그야 물론이지, 얘야. 누가 그렇다고 했니. 하지만 이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 이보다 큰 동네도 드물걸. 우리가 저녁을 같이 먹는 집만 해도 스물네 집이나 되는데."

빙리는 오로지 엘리자베스를 생각하는 마음 덕분에 간신히 웃음을 참았다. 그의 누이는 그만큼 섬세하지 못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다아시 씨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만한 말을 하려고, *자기가* 집을 떠나온 뒤로 샬럿 루커스가 롱번에 다녀간 적이 있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럼, 어제 아버지하고 같이 왔었다. 윌리엄 경은 참 호감 가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빙리 씨? 어쩜 그렇게 멋쟁이신지!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편안하시고! 누구한테든 늘 할 말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양이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입도 안 여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죠."

"샬럿도 저녁을 먹고 갔어요?"

"아니, 굳이 집에 가겠다더라. 민스파이 때문에 집에서 찾았나 봐. 빙리 씨, 저로 말하자면 *저는* 늘 제 할 일은 알아서 하는 하인들을 둔답니다. *제* 딸들은 그렇게 자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거야 저마다 판단할 일이고, 루커스 집안 딸들은 아주 괜찮은 아가씨들이에요, 정말로요. 아름답지 않은 게 안됐지요! 그렇다고 *제가* 샬럿을 *그렇게까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우리하고는 각별한 친구니까요."

"아주 상냥한 아가씨 같던데요." 빙리가 말했다.

"어머, 그럼요. 하지만 아주 못생긴 건 인정하셔야죠. 루커스 부인도 자주 그렇게 말하면서 제인이 예쁜 걸 부러워했어요. 제 자식 자랑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정말이지 제인만 한… 그렇게 예쁜 사람은 흔히 볼 수 없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제가 편애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애가 겨우 열다섯 살이었을 때, 런던에 사는 제 남동생 가디너네 집에 어떤 신사가 있었는데, 그 애한테 어찌나 반했는지 올케는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 신사가 청혼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결국 청혼은 안 했어요. 아마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그 애한테 바치는 시를 몇 편 썼는데, 정말 예쁜 시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 사람의 애정도 끝났지요." 엘리자베스가 참다못해 말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이겨 낸 사람이 아마 한둘이 아닐 거예요. 시가 사랑을 쫓아내는 데 효험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아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저는 시를 사랑의 *양식*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다아시가 말했다.

"튼튼하고 건강한 멋진 사랑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미 강한 것은 무엇이든 자양분으로 삼으니까요. 하지만 그저 가볍고 여린 호감이라면, 잘 쓴 소네트 한 편이면 굶겨서 아주 없애 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아시는 미소만 지었다. 이어 모두가 입을 다물자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또 망신을 사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베넷 부인은 제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 고맙다고 빙리 씨에게 거듭 인사하면서, 리지까지 신세를 지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빙리 씨는 꾸밈없이 정중하게 대답했고, 여동생에게도 억지로 정중하게 굴며 그 자리에 맞는 말을 하도록 했다. 빙리 양은 그리 상냥하지는 않았지만 제 몫은 해냈고, 베넷 부인은 만족해서 곧 마차를 대라고 일렀는데, 그것을 신호 삼아 막내딸이 앞으로 나섰다. 두 아이는 방문 내내 귓속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결과 막내가 빙리 씨에게, 처음 이 고장에 왔을 때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로 둘이서 정해 둔 터였다.

리디아는 열다섯 살의 튼튼하고 잘 자란 아이로, 혈색이 좋고 얼굴이 명랑했다. 어머니가 가장 귀여워하는 딸이어서, 그 사랑 덕분에 어린 나이에 벌써 사교계에 나가 있었다. 기운이 넘쳤고 타고난 잘난 맛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모부가 베푸는 푸짐한 저녁 식사와 리디아 자신의 스스럼없는 태도 덕에 장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것이 아예 뻔뻔함으로 자라 있었다. 그러니 빙리 씨에게 무도회 이야기를 꺼내는 일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서, 리디아는 대뜸 약속을 상기시키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그보다 창피한 일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이 느닷없는 공격에 빙리가 내놓은 대답은 어머니의 귀에 더없이 반가웠다.

"약속은 언제든지 지킬 거예요, 정말이에요. 언니가 다 나으면 원하시는 대로 무도회 날짜를 직접 정하세요. 하지만 언니가 아픈데 춤추고 싶지는 않겠지요?"

리디아는 그거면 됐다고 했다. "아, 그럼요. 제인 언니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때쯤이면 카터 대위도 아마 메리턴에 돌아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빙리 씨가 *빙리 씨네* 무도회를 열고 나면," 리디아가 덧붙였다. "장교들도 하나 열라고 꼭 조를 거예요. 안 열면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포스터 대령한테 말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넷 부인과 딸들은 돌아갔고,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제인에게 돌아가면서 자신과 식구들의 행동을 두 숙녀와 다아시 씨의 입방아에 내맡겼다. 그러나 빙리 양이 *아름다운 두 눈*을 두고 온갖 재치를 다 부렸는데도, 다아시 씨는 *엘리자베스를* 흉보는 데에는 아무리 꾀어도 끝내 끼지 않았다.

# 제10장

그날도 전날과 거의 다름없이 지나갔다.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은 오전에 몇 시간을 환자 곁에서 보냈는데, 환자는 더디긴 해도 계속 나아지고 있었다. 저녁에는 엘리자베스도 응접실에 모인 사람들 틈에 끼었다. 하지만 루 탁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아시 씨는 편지를 쓰고 있었고, 그 곁에 앉은 빙리 양은 편지가 써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이동생에게 전할 말을 자꾸 부탁해 그의 주의를 흐트러뜨렸다. 허스트 씨와 빙리 씨는 피켓을 하고 있었고, 허스트 부인은 그 놀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바느질감을 집어 들고, 다아시와 그 곁의 숙녀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꽤 즐거워했다. 숙녀는 글씨가 어떻다느니, 줄이 어쩌면 그렇게 고르다느니, 편지가 어쩌면 그렇게 길다느니 하며 끝없이 칭찬을 늘어놓았고, 그는 그 칭찬을 더없이 무심하게 받아넘겼다. 그렇게 묘한 대화가 이어졌는데, 그것은 두 사람에 대해 엘리자베스가 품고 있던 생각과 꼭 맞아떨어졌다.

"다아시 양이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글씨를 유난히 빨리 쓰시네요."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꽤 느리게 씁니다."

"1년 동안 써야 할 편지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사업 편지까지! 저라면 정말 질색일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빙리 양이 아니라 제 몫이라서 다행입니다."

"누이동생분께 제가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 꼭 전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벌써 한 번 전했습니다."

"펜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제가 다듬어 드릴게요. 제가 펜 다듬는 솜씨가 아주 좋답니다."

"고맙습니다만, 제 펜은 늘 제가 다듬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르게 쓰실 수 있어요?"

그는 잠자코 있었다.

"누이동생분께 하프 솜씨가 늘었다니 정말 기쁘다고 전해 주시고, 탁자에 그린 그 예쁘고 아담한 도안에 제가 아주 홀딱 반했다고, 그랜틀리 양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꼭 알려 주세요."

"그 홀딱 반하신 마음은 다음 편지 쓸 때로 미뤄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걸 제대로 전할 자리가 없습니다."

"어머, 상관없어요. 1월에 만날 테니까요. 그런데 다아시 씨, 누이동생분께는 늘 그렇게 멋지고 긴 편지를 쓰세요?"

"대개 길기는 합니다. 하지만 늘 멋진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긴 편지를 술술 쓸 줄 아는 사람은 글을 못 쓸 리가 없어요."

"그건 다아시를 칭찬하는 말이 못 돼, 캐럴라인." 오빠가 소리쳤다. "다아시는 술술 쓰지 *못하거든*. 네 음절짜리 낱말을 고르느라 너무 공을 들이지. 안 그런가, 다아시?"

"내가 글 쓰는 법은 자네와 아주 다르네."

"어머," 빙리 양이 소리쳤다. "찰스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무렇게나 써요. 낱말을 반은 빼먹고, 나머지는 잉크로 얼룩지게 하죠."

"생각이 너무 빨리 흘러서 그걸 다 표현할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편지는 이따금 받는 사람한테 아무 생각도 전하지 못한답니다."

"빙리 씨, 그렇게 겸손하시니,"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누구도 나무랄 수가 없겠네요."

"겸손해 보이는 것만큼," 다아시가 말했다. "속이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건 흔히 남의 의견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때로는 에두른 자랑입니다."

"그럼 방금 *내가* 보인 그 자그마한 겸손은 둘 가운데 어느 쪽이라는 건가?"

"에두른 자랑이지. 자네는 글 솜씨의 흠을 실은 자랑스러워하고 있네. 생각이 재빠르고 손놀림에 거리낌이 없어서 생기는 흠이라고 여기고, 그걸 칭찬할 만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아주 흥미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든 재빨리 해내는 능력은 그걸 가진 사람 자신이 늘 대단히 높이 치는 법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엉성한지에는 흔히 눈길도 주지 않지. 오늘 아침 자네가 베넷 부인에게, 네더필드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다면 5분 만에 떠나 버릴 거라고 했을 때, 자네는 그걸 일종의 찬사로,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칭찬으로 한 말이었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게 마련이고 자네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성급함에 칭찬할 만한 게 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

"이봐," 빙리가 소리쳤다. "아침에 한 어리석은 소리를 밤에 죄다 기억해 내다니 너무하잖나. 하지만 맹세코 나는 그때 나에 대해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믿네. 그러니 적어도 숙녀들 앞에서 뽐내려고 쓸데없는 성급함을 일부러 꾸며 낸 건 아니라네."

"자네가 그렇게 믿었으리라는 건 의심하지 않네.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재빨리 떠나리라고는 조금도 믿기지 않아. 자네 행동은 내가

아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연에 좌우될 걸세. 자네가 말에 오르는 참에 친구가 '빙리, 다음 주까지 있다 가는 게 좋겠네' 하고 말한다면, 자네는 아마 그렇게 할 걸세, 아마 떠나지 않겠지. 그러다 친구가 한마디만 더 하면 한 달이라도 눌러 있을지 모르네."

"그걸로 증명하신 건,"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빙리 씨가 자기 성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다아시 씨는 지금 빙리 씨를 빙리 씨 자신보다 훨씬 더 돋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빙리가 말했다. "제 친구 말을 제 성품이 다정하다는 칭찬으로 바꿔 주시다니요. 하지만 저 신사는 전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엘리자베스 양이 그렇게 돌려 해석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그런 경우에 제가 딱 잘라 거절하고 있는 힘껏 말을 달려 떠나 버린다면, 저 친구는 틀림없이 저를 더 좋게 볼 테니까요."

"그렇다면 다아시 씨는 애초에 경솔하게 마음먹은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기만 하면 그 경솔함이 씻긴다고 보시는 건가요?"

"맹세코 저도 그건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아시가 직접 말해야겠네요."

"제가 한 번도 제 생각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두 분이 멋대로 제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제가 해명해야 합니까. 하지만 베넷 양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빙리가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미루기를 바란다는 그 친구는 그저 바랐을 뿐이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근거는 하나도 대지 않고 청하기만 했습니다."

"친구의 *권유*에 선뜻, 쉽게 따르는 것은 다아시 씨에게는 아무 장점도 아니군요."

"납득하지도 않고 따르는 것은 어느 쪽의 분별에도 칭찬이 되지 못합니다."

"다아시 씨는 우정과 애정의 힘을 조금도 쳐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청하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설득해 줄 근거를 기다리지 않고도 선뜻 청을 들어주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제가 특별히 다아시 씨가 빙리 씨를 두고 가정하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빙리 씨가 그때 어떻게 처신하는 게 현명한지는 아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져도 늦지 않겠지요. 하지만 친구 사이의 평범한 경우를 두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결심을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설득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부탁을 들어준다면 다아시 씨는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그 부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정해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고말고요." 빙리가 소리쳤다. "세세한 걸 다 들어 봐요. 두 사람의 키와 몸집이 어떤지도 빠뜨리지 말고요. 베넷 양, 그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논쟁에서 훨씬 무게가 크거든요. 정말이지 다아시가 저에 비해 그렇게 키 크고 덩치 큰 친구가 아니라면, 저는 저 친구를 반만큼도 떠받들지 않을 거예요. 맹세코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서라면 저는 다아시보다 무시무시한 존재를 알지 못해요. 특히 자기 집에서, 그것도 할 일 없는 일요일 저녁에는요."

다아시 씨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가 꽤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아서 웃음을 참았다. 빙리 양은 다아시 씨가 당한 모욕에 몹시 분개해서, 그런 허튼소리를 한다고 오빠를 나무랐다.

"자네 속셈은 알겠네, 빙리." 친구가 말했다. "자네는 논쟁을 싫어하니까 이 이야기를 막고 싶은 거지."

"아마 그럴걸. 논쟁은 말다툼하고 너무 닮았어. 자네하고 베넷 양이 내가 방에서 나갈 때까지 논쟁을 미뤄 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그다음엔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네."

"그 부탁이라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저로서는 조금도 희생할 게 없어요. 다아시 씨는 편지를 마저 쓰시는 게 훨씬 낫겠네요."

다아시 씨는 그 충고를 따라 편지를 마저 썼다.

그 일이 끝나자 다아시 씨는 빙리 양과 엘리자베스에게 음악을 좀 들려 달라고 청했다. 빙리 양은 냉큼 피아노로 가서, 엘리자베스에게 먼저 치라고 정중하게 권했다가 엘리자베스가 똑같이 정중하게, 그러나 더 간곡하게 사양하자 자기가 자리에 앉았다.

허스트 부인이 동생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두 사람이 그렇게 노래하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 몇 권을 넘기다가, 다아시 씨의 눈길이 얼마나 자주 자기에게 머무는지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자기를 감탄하며 바라본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싫어서 쳐다본다는 것은 그보다 더더욱 이상했다. 그러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자리의 다른 누구보다 자기에게 잘못되고 나무랄 만한 데가 더 많아서 눈길을 끄는 것이리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 사람을 너무 싫어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든 말든 관심도 없었다.

이탈리아 노래 몇 곡을 친 뒤 빙리 양은 경쾌한 스코틀랜드 가락으로 분위기를 바꾸었다. 얼마 뒤 다아시 씨가 엘리자베스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베넷 양, 이런 기회에 릴 춤을 한번 추고 싶지 않으십니까?"

엘리자베스는 미소만 짓고 대답하지 않았다. 다아시 씨는 엘리자베스가 잠자코 있는 데 조금 놀라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아,"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아까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금방 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네' 하고 대답하기를 바라셨겠지요. 그래야 제 취향을 경멸하는 즐거움을 누리실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속셈을 뒤엎고, 미리 준비해 둔 경멸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게 늘 즐겁습니다. 그래서 릴 춤 같은 건 조금도 추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자, 경멸하실 수 있으면 어디 경멸해 보세요."

"정말이지 감히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비위를 좀 거스를 줄 알았는데 그가 그렇게 정중하게 나오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태도에는 상냥함과 짓궂음이 섞여 있어서 누구의 비위를 거스르기가 어려웠고, 다아시는 지금껏 어떤 여자에게도 엘리자베스에게만큼 홀린 적이 없었다. 엘리자베스의 집안이 그토록 변변치 않지만 않았다면 자기가 좀 위험해졌을 거라고 그는 진심으로 믿었다.

빙리 양은 질투할 만큼은 보았거나 아니면 짐작했으므로, 사랑하는 친구 제인이 어서 낫기를 몹시 바라는 마음에는 엘리자베스를 쫓아 버리고 싶은 마음도 얼마간 힘을 보탰다.

빙리 양은 다아시가 손님을 싫어하게 만들려고, 두 사람이 결혼할 거라고 지어내 말하며 그런 혼인으로 그가 누릴 행복을 미리 설계해 주는 일이 잦았다.

"바라건대," 다음 날 둘이 관목 숲길을 함께 거닐 때 빙리 양이 말했다. "그 바람직한 일이 이루어지면 장모님께 입을 다무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귀띔 좀 해 드리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막내 아가씨들이 장교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버릇도 고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도 된다면, 부인 되실 분이 지닌 그 뭐랄까, 자만과 무례에 가까운 그 자그마한 무언가도 좀 억눌러 보세요."

"그 밖에 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제안하실 것이 또 있습니까?"

"그럼요. 필립스 이모부와 이모의 초상화를 꼭 펨벌리의 화랑에 걸어 두세요. 판사셨던 다아시 씨 종조부 초상화 바로 옆에요. 아시다시피 같은 업계잖아요, 갈래만 다를 뿐이지. 다아시 씨의 엘리자베스 초상화라면 아예 그릴 생각을 마세요. 그 아름다운 두 눈을 제대로 그려 낼 화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 표정을 잡아내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눈 빛깔과 모양, 그리고 유난히 고운 그 속눈썹은 그대로 옮겨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은 다른 길에서 오던 허스트 부인과 바로 그 엘리자베스와 마주쳤다.

"언니도 산책할 생각인 줄 몰랐네." 빙리 양이 혹시 얘기를 들켰을까 봐 조금 당황해서 말했다.

"정말 너무하셨어요." 허스트 부인이 대답했다. "나온다는 말도 없이 둘이서 달아나 버리시다니."

그러고는 다아시 씨의 비어 있는 팔을 잡고 엘리자베스를 혼자 걷게 내버려 두었다. 길은 세 사람이 겨우 나란히 걸을 만한 폭이었다. 다아시 씨는 두 사람이 무례하다고 느끼고 곧바로 말했다.

"이 길은 우리 일행이 다 걷기에는 좁습니다. 가로수 길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을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세 분이 아주 멋지게 어우러져서 유난히 돋보이시네요. 네 번째 사람이 끼면 그림 같은

풍경이 망가질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그러고는 엘리자베스는 즐겁게 뛰어가, 이리저리 거닐며 하루 이틀이면 다시 집에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기뻐했다. 제인은 벌써 많이 나아서 그날 저녁에는 두어 시간 방을 나와 있을 생각이었다.

# 제11장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숙녀들이 자리를 옮기자 엘리자베스는 언니에게 달려 올라갔다. 감기 들지 않게 단단히 여민 것을 확인하고는 언니를 데리고 응접실로 내려갔는데, 두 친구는 무척 반갑다는 말을 숱하게 늘어놓으며 제인을 맞았고, 신사들이 나타나기 전 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엘리자베스가 지금껏 본 어느 때보다도 호감이 갔다. 둘의 말솜씨는 대단했다. 연회를 정확하게 묘사할 줄 알았고, 일화를 재미있게 들려줄 줄 알았고, 아는 사람들을 신나게 비웃을 줄 알았다.

그러나 신사들이 들어오자 제인은 더는 으뜸가는 관심사가 아니어서, 빙리 양의 눈길은 곧바로 다아시에게 쏠렸고 빙리 양은 그가 몇 걸음 다가오기도 전에 벌써 그에게 할 말이 있었다. 다아시는 곧장 베넷 양에게 가서 정중하게 회복을 축하했다. 허스트 씨도 베넷 양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정말 반갑다"고 했다. 그러나 길고 따뜻한 인사는 빙리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빙리는 기쁨과 살뜰함으로 가득했다. 처음 30분은 방을 옮긴 탓에 제인이 탈이라도 날까 봐 불을 돋우는 데 다 보냈고, 제인은 빙리가 원하는 대로 문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도록 벽난로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고 나서 빙리는 제인 곁에 앉아 다른 사람과는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맞은편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던 엘리자베스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무척 기뻐했다.

차를 마시고 나자 허스트 씨가 처제에게 카드 탁자 이야기를 꺼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빙리 양은 다아시 씨가 카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밀히 알아 둔 터였고, 허스트 씨는 곧 대놓고 청한 것까지 거절당했다. 빙리 양은 아무도 카드를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모두 그 이야기에 입을 다물고 있으니 빙리 양의 말이 옳은 것 같았으므로, 허스트 씨는 소파 하나에 길게 누워 잠드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다아시는 책을 집어 들었고 빙리 양도 그렇게 했으며, 허스트 부인은 주로 팔찌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이따금 빙리와 베넷 양이 나누는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빙리 양은 자기 책을 읽는 것 못지않게 다아시 씨가 *그의* 책을 얼마나 읽어 나가는지 지켜보는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묻거나 그가 읽는 쪽을 넘겨다보았다. 그러나 그를 대화로 끌어들이지는 못했다. 다아시 씨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계속 읽었다. 마침내 빙리 양은 오로지 다아시 씨가 읽는 책의 둘째 권이라는 이유로 고른 자기 책으로 어떻게든 즐거워 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기진맥진해져서, 크게 하품을 하며 말했다. "이렇게 저녁을 보내니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뭐니 뭐니 해도 책 읽는 것만 한 즐거움은 없다니까요! 다른 건 다 금방 싫증이 나는데 책은 안 그래요! 내 집을 갖게 되면 훌륭한 서재가 없으면 정말 비참할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빙리 양은 또 하품을 하고 책을 내던지더니 무슨 재밋거리가 없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오빠가 베넷 양에게 무도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갑자기 오빠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그런데 찰스, 정말로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 생각이야? 결정하기 전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뜻부터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크게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는 무도회가 즐거움이라기보다 오히려 벌인 사람도 있을걸."

"다아시 말이라면," 오빠가 소리쳤다. "원하면 무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러 가도 돼. 하지만 무도회는 이미 정해진 일이야. 니컬스가 화이트 수프를 넉넉히 끓여 놓는 대로 초대장을 돌릴 거야."

"무도회가 좀 다르게 진행된다면," 빙리 양이 대답했다. "훨씬 더 좋아할 텐데. 그런 모임이 흔히 돌아가는 꼴에는 견딜 수 없이 지루한 데가 있어. 춤 대신 대화가 그날의 순서를 차지한다면 분명히 훨씬 이성적일 텐데."

"훨씬 이성적이긴 하겠지, 캐럴라인. 하지만 그건 무도회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걸."

빙리 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얼마 뒤 일어나 방 안을 거닐었다. 몸매가 우아했고 걸음걸이도 고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겨냥한 다아시는 여전히 꿈쩍도 않고 책만 읽었다. 빙리 양은 절박한 심정으로 한 번만 더 해 보기로 마음먹고 엘리자베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일라이저 베넷 양, 저를 따라 방 안을 한 바퀴 거닐어 보세요.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었으니 정말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놀랐지만 곧바로 그러겠다고 했다. 빙리 양이 그렇게 친절을 베푼 진짜 목적도 그 못지않게 이루어져서, 다아시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쪽에서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새로운 일이라는 데 다아시 씨는 엘리자베스 못지않게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책을 덮었다. 두 숙녀는 곧바로 그에게 함께 걷자고 했지만 그는 사양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방 안을 오가기로 한 데는 두 가지 동기밖에 짐작할 수 없는데 어느 쪽이든 자기가 끼면 방해가 될 거라고 했다. 대체 무슨 뜻일까? 빙리 양은 그 뜻이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고, 엘리자베스에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이라도 알겠느냐고 물었다.

"전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틀림없이 우리를 꼬집으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고요."

그러나 빙리 양은 무슨 일에서든 다아시 씨를 실망시킬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두 가지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끝까지 끈질기게 졸랐다.

"설명하는 것쯤이야 조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빙리 양이 말할 틈을 주자마자 그가 말했다. "두 분이 이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은, 서로 속을 터놓는 사이라서 은밀히 나눌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걸을 때 몸매가 가장 돋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경우라면 제가 끼어들어 완전히 방해가 될 테고, 뒤의 경우라면 저는 벽난로 곁에 앉아 있는 편이 두 분을 훨씬 더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머, 너무해요!" 빙리 양이 소리쳤다. "이렇게 고약한 말은 처음 들어봐요. 저런 말을 했으니 어떻게 벌을 줄까요?"

"마음만 있으면 그보다 쉬운 일은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 괴롭히고 벌줄 수 있어요. 놀리세요, 비웃어 주세요. 그렇게 친한 사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맹세코 저는 *몰라요*. 정말이지 친하게 지냈어도 *그런 건* 아직 못 배웠어요. 침착한 성품과 흔들림 없는 마음을 놀리라니요! 아니, 아니에요. 그 점이라면 다아시 씨가 우리를 얼마든지 깔볼 수 있을걸요. 그리고 웃음이라면, 괜찮으시다면 웃을 거리도 없는데 웃으려다가 우리만 망신당하는 일은 하지 말아요. 다아시 씨는 혼자 흐뭇해하셔도 되겠네요."

"다아시 씨는 비웃음을 살 일이 없는 분이라니요!"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그건 보기 드문 장점이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기 드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을 많이 알게 되면 *저로서는* 큰 손해일 테니까요. 저는 웃는 걸 정말 좋아해요."

"빙리 양은," 그가 말했다. "저를 실제보다 훨씬 높이 쳐주셨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니 그런 사람이 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행동이라도, 인생에서 우스개를 첫째로 치는 사람에게 걸리면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현명하거나 훌륭한 것을 비웃는 일은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과 허튼소리, 변덕과 앞뒤 안 맞는 행동은 솔직히 *정말* 재미있어서, 저는 기회만 있으면 그걸 보고 웃습니다만, 다아시 씨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없으시겠지요."

"누구에게나 그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뛰어난 분별을 흔히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약점들을 피하는 것을 평생의 공부로 삼아 왔습니다."

"허영이나 오만 같은 것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허영은 정말 약점입니다. 하지만 오만은, 정말로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오만은 언제나 잘 다스려질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웃음을 감추려고 고개를 돌렸다.

"다아시 씨에 대한 심문은 다 끝나셨나 보군요." 빙리 양이 말했다. "그래, 결과는 어떤가요?"

"다아시 씨에게는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본인이 숨김없이 그렇게 인정하시니까요."

"아닙니다." 다아시가 말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흠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분별의 흠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성미는 감히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고분고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하기에는 확실히 너무 그렇습니다. 남들의 어리석음과 악덕을, 또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잘못을 마땅히 잊어야 할 만큼 빨리 잊지 못합니다. 누가 제 감정을 움직이려 든다고 해서

그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제 성미는 아마 앙심을 품는다고 할 만할 겁니다. 한번 잃은 제 호감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결점이네요!"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누그러들 줄 모르는 앙심은 *분명히* 사람됨의 그늘입니다. 하지만 결점을 참 잘 고르셨습니다. 그건 정말 *웃어넘길* 수가 없네요. 저한테서는 안전하십니다."

"어떤 성품에든 무언가 특정한 악으로 기우는 경향, 곧 타고난 결함 같은 것이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으로도 그것은 이겨 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아시 씨의* 결함은 누구든 미워하는 버릇이고요."

"그리고 베넷 양의 결함은,"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일부러 남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좀 들어요." 끼지 못하는 대화에 싫증이 난 빙리 양이 소리쳤다. "언니, 허스트 씨를 깨워도 괜찮지?"

언니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고, 피아노 뚜껑이 열렸다. 다아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렇게 된 것이 서운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에게 너무 마음을 쓰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터였다.

# 제12장

자매가 의논한 끝에, 엘리자베스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그날 중으로 마차를 보내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딸들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제인이 꼭 한 주를 채우는 날까지 네더필드에 머물 것으로 셈해 두었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딸들을 반갑게 맞을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았다. 그래서 답장은 반갑지 않았다. 적어도 어서 집에 가고 싶어 안달하던 엘리자베스의 바람에는 어긋났다. 베넷 부인은 화요일 전에는 도저히 마차를 보낼 수 없다고 전해 왔고, 추신에는 빙리 씨와 그 누이가 더 머물라고 붙잡거든 자기는 딸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말까지 덧붙여 놓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더 머물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먹었고, 그런 청을 받으리라고 그리 기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쓸데없이 오래 눌러앉아 있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당장 빙리 씨의 마차를 빌리자고 제인을 졸랐고, 마침내 원래 그날 아침 네더필드를 떠나려 했다는 뜻을 밝히고 마차를 청하기로 정했다.

그 말을 꺼내자 다들 무척 서운하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머물러 달라는 말이 제인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오갔고, 그래서 떠나는 일은 다음 날로 미뤄졌다. 그러자 빙리 양은 미루자고 한 것을 후회했다. 한 자매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다른 자매를 아끼는 마음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두 사람이 그렇게 빨리 떠난다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서운해했고,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위험할 거라고 베넷 양을 거듭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제인은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일에서는 굽히지 않았다.

다아시 씨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네더필드에 머물 만큼 머물렀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끌었고, 게다가 빙리 양은 *엘리자베스에게* 무례했으며 자기에게는 평소보다 더 성가시게 굴었다. 그는 *이제는* 감탄하는 기색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도록, 엘리자베스가 자기 행복을 좌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우쭐해질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기로 현명하게 마음먹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이미 엘리자베스의 머리에 떠올랐다면, 마지막 하루 동안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굳어지느냐 꺾이느냐가 크게 달라지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아시 씨는 그 결심을 굳게 지켜서 토요일 하루 내내 엘리자베스에게 열 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한번은 30분 동안 둘만 남게 되었는데도 더없이 성실하게 책만 붙들고 엘리자베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일요일 아침 예배가 끝난 뒤, 거의 모두가 반가워한 작별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빙리 양은 막판에 이르러 엘리자베스에게 부쩍 깍듯해졌고 제인에게는 한층 다정해졌다. 헤어질 때는 롱번에서든 네더필드에서든 언제 만나도 반가울 거라고 제인에게 거듭 말하며 더없이 살갑게 끌어안았고, 엘리자베스와는 악수까지 나누었다. 엘리자베스는 한껏 들뜬 기분으로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두 딸을 그리 반겨 주지 않았다. 베넷 부인은 왜 벌써 돌아왔느냐며 의아해했고, 남에게 그렇게 수고를 끼친 것은 아주 잘못한 일이라고 여겼으며, 제인이 틀림없이 또 감기에 걸렸을 거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갑다는 말을 몇 마디로 짧게 했을 뿐이어도 속으로는 정말 기뻐했다. 그동안 집안에서 두 딸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한 터였다.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없는 사이, 저녁마다 식구들이 다 모여 나누는 이야기는 생기를 한참 잃었고 조리라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메리는 여느 때처럼 화성학과 인간 본성 연구에 깊이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은 메리가 새로 베껴 둔 글귀에 감탄해 주어야 했고, 닳고 닳은 도덕에 관한 새 소견도 들어 주어야 했다. 키티와 리디아가 전한 소식은 종류가 달랐다. 지난 수요일 이후로 연대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졌고 많은 말이 오갔다. 장교 몇 사람이 요사이 이모부 댁에서 저녁을 먹었고, 사병 하나가 매질을 당했으며, 포스터 대령이 결혼할 거라는 말까지 실제로 돌았다.

# 제13장

"부인, 오늘 저녁상은 넉넉히 차리라고 일러 두었기를 바라오." 이튿날 아침 식탁에서 베넷 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 식구 자리에 한 사람이 더 늘 듯하니 말이오."

"누구 말이에요, 여보? 올 사람이라곤 아무도 모르는데요. 샬럿 루커스가 혹시 들른다면 모를까. 그리고 *내* 저녁상이면 샬럿한테는 차고 넘칠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그런 상을 자주 받아 보지도 못할 테니까요."

"내가 말하는 사람은 신사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오."

베넷 부인의 눈이 반짝였다. "신사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요! 빙리 씨로군요, 틀림없어요. 어머, 제인, 너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흘렸지… 요 앙큼한 것! 아무튼 빙리 씨를 뵙게 되면 정말 반갑겠어요. 그런데… 맙소사! 이런 낭패가! 오늘은 생선 한 토막 구할 데가 없는데. 리디아, 얘야, 종 좀 울려라. 당장 힐한테 일러야겠다."

"빙리 씨가 *아니오*." 남편이 말했다. "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오."

이 말에 다들 깜짝 놀랐고, 베넷 씨는 아내와 다섯 딸에게서 한꺼번에 질문 세례를 받는 즐거움을 누렸다.

한동안 식구들의 호기심을 재미있게 구경하고 나서 베넷 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 달쯤 전에 이 편지를 받았고, 2주쯤 전에 답장을 했소. 제법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일이라 일찌감치 손을 써 두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오. 내 사촌 콜린스 씨한테서 온 편지인데, 내가 죽고 나면 마음 내키는 대로 언제든 당신이며 애들이며 모조리 이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아이고, 여보," 아내가 소리쳤다. "그 얘기는 듣기도 싫어요. 제발 그 밉살스러운 사람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요. 당신 재산이 당신 자식들한테 가지 못하고 남한테 한정상속된다니, 세상에 그보다 모진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당신이었으면 진작에 무슨 수라도 써 봤을 거예요."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한정상속이 어떤 것인지 어머니에게 설명하려 했다. 전에도 여러 번 해 본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베넷 부인에게 이치가 닿지 않는 문제였고, 베넷 부인은 딸이 다섯이나 되는 집안에서 재산을 떼어 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남자에게 넘겨주는 그 잔인한 처사를 두고 줄곧 모질게 퍼부었다.

"참으로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는 하오." 베넷 씨가 말했다. "롱번을 물려받는다는 그 죄에서 콜린스 씨를 벗겨 줄 길은 없소. 하지만 편지를 들어 보면, 그 사람이 말을 풀어 놓는 품에 당신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질지 모르겠구려."

"아뇨,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편지를 보낸 것부터가 아주 건방지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런 거짓 친구가 정말 싫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듯이 계속 당신하고 다투고 지내면 될 걸, 왜 그러질 못한대요?"

"글쎄, 그 일에서는 그 사람도 자식 된 도리로 꽤 망설였던 모양이오. 들어 보면 알 거요."

"켄트주 웨스터럼 근처 헌스퍼드에서, 10월 15일."

"존경하는 베넷 씨께"

"돌아가신 존경하는 선친과 어르신 사이에 이어져 온 불화는 언제나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불행히도 선친을 여읜 뒤로 저는 그 틈을

메우고 싶다는 바람을 자주 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제 마음속의 의심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선친께서 늘 기꺼이 사이를 나쁘게 지내셨던 분과 제가 가까이 지내면 선친의 기억을 욕되게 하는 일로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거 보오, 부인.'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관한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성직 서품을 받은 저는, 고(故) 루이스 드 버그 경의 미망인이신 존귀하신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1]의 후원을 입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고, 영부인께서는 너그러우신 은혜와 자비로 저를 이 교구의 값진 교구 목사직에 앉혀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영부인께 감사와 공경을 다해 처신하고, 영국 국교회가 정한 의식과 예식을 언제든 행할 채비를 갖추기 위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성직자로서, 제 힘이 닿는 모든 집안에 평화의 축복을 북돋우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제 의무로 여깁니다. 이런 까닭에 지금 제가 내미는 이 선의의 손길이 크게 칭찬받을 만하다고, 그리고 제가 롱번 영지의 한정상속 다음 순위라는 사정도 어르신 쪽에서 너그러이 눈감아 주시어 제가 내미는 올리브 가지를 물리치시는 일은 없으리라고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어르신의 상냥한 따님들께 손해를 끼치는 장본인이 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어 이 점을 사과드리고자 하며, 아울러 따님들께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해 드릴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일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댁에 맞아들이시는 데 이의가 없으시다면, 11월 18일 월요일 네 시까지 어르신과 가족분들을 찾아뵙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며, 아마 그다음 주 토요일까지 어르신의 환대에 폐를 끼치게 될 듯합니다. 그렇게 해도 제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캐서린 영부인께서는 다른 성직자가 그날의 직무를 맡아 주기만 하면 제가 이따금 일요일에 자리를 비우는 것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인과 따님들께 삼가 정중한 안부를 전하며, 어르신의 평안을 비는 벗으로서 이만 줄입니다."

"윌리엄 콜린스 올림"

"그러니 네 시면 이 화평을 이루러 오시는 신사분을 맞게 되겠구려." 베넷 씨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참으로 양심 바르고 예의 바른 젊은이 같구려. 틀림없이 사귀어 둘 만한 사람일 거요. 특히 캐서린 영부인께서 너그러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다시 오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더더욱."

"그래도 애들 얘기는 일리가 있네요. 애들한테 무슨 보상이라도 해 줄 마음이 있다면 나는 말릴 생각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보상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건지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제인이 말했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칭찬할 만해요."

엘리자베스의 눈에 가장 띈 것은 캐서린 영부인을 받드는 그 유별난 공경, 그리고 교구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세례를 베풀고 혼례를 올려 주고 장례를 치러 주겠다는 그 친절한 뜻이었다.

"별난 사람인가 봐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도무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문체가 아주 거창해요. 그리고 한정상속 다음 순위라는 게 사과할 일인가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마다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분별 있는 사람일까요, 아버지?"

"아니다, 얘야. 아닐 것 같구나. 오히려 정반대라는 걸 알게 되리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단다. 편지에 비굴함과 거드름이 뒤섞여 있는 게 아주 유망하거든. 어서 만나 보고 싶구나."

"문장 구성으로 보면," 메리가 말했다. "그 편지에 흠은 없는 듯해요. 올리브 가지라는 착상이 아주 새롭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표현은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키티와 리디아에게는 편지도 편지를 쓴 사람도 조금도 흥미롭지 않았다. 사촌이 붉은 군복을 입고 올 리는 거의 없었고, 두 아이는 벌써 몇 주째 다른 빛깔의 옷을 입은 남자와 어울리며 즐거움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콜린스 씨의 편지 덕분에 언짢던 마음이 많이 풀려서, 남편과 딸들이 놀랄 만큼 차분하게 그를 맞을 채비를 했다.

콜린스 씨는 약속한 시각에 꼭 맞춰 왔고, 온 가족에게 무척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 베넷 씨는 정작 말이 별로 없었지만 숙녀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채비가 되어 있었고, 콜린스 씨도 누가 부추길 필요가 없어 보였거니와 스스로 입을 다물 생각도 없어 보였다. 콜린스 씨는 키가 크고 몸이 둔중해 보이는 스물다섯 살 젊은이였다. 풍채는 근엄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몸가짐은 몹시 격식을 차렸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베넷 부인에게 이렇게 훌륭한 딸들을 두었다고 치하하며, 딸들이 아름답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소문이 실제에 못 미친다고 말했고, 때가 되면 모두 좋은 혼처를 찾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중한 찬사는 듣는 사람 몇몇의 취향에는 그다지 맞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찬사와도 다투는 법이 없는 베넷 부인은 냉큼 대답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 애들은 그야말로 막막한 신세가 될 테니까요. 일이 참 묘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 영지의 한정상속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아,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불쌍한 우리 딸들한테는 참 서글픈 일이에요, 인정하시겠지요. *콜린스 씨를* 탓하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런 일은 다 운이라는 걸 저도 알거든요. 영지가 일단 한정상속되고 나면 그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부인, 어여쁜 사촌 아가씨들께서 겪으실 어려움은 저도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만, 주제넘고 성급해 보일까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아가씨들께 이 말씀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가씨들을 찬미할 채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쩌면 서로 좀 더 알게 되면…"

그때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전갈이 와서 콜린스 씨의 말이 끊겼고, 아가씨들은 서로 마주 보며 웃었다. 콜린스 씨가 감탄한 것은 아가씨들만이 아니었다. 현관이며 식당이며 거기 놓인 가구 하나하나까지 그는 꼼꼼히 살피고 칭찬했다. 무엇 하나 빼놓지 않는 그 칭찬에 베넷 부인의 마음도 흐뭇해질 법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장차 자기 재산으로 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속이 쓰렸다. 저녁 식사도 차례가 오자 크게 칭찬받았다. 그는 이 훌륭한 요리 솜씨가 어여쁜 사촌 아가씨들 가운데 누구 덕분인지 알고 싶다고 청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베넷 부인이 그의 말을 바로잡았다. 베넷 부인은 조금 날 선 목소리로, 자기네도 좋은 요리사 하나쯤은 넉넉히 둘 형편이 되고 딸들은 부엌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기분을 상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다. 베넷 부인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조금도 기분 상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는 15분 가까이 사과를 이어 갔다.

---

1. 「Lady + 이름」은 백작 이상 귀족의 딸이 평생 쓰는 칭호로, 「영부인」으로 옮겼다. 기사의 아내는 「Lady + 성」이라 「루커스 부인」처럼 옮겼다.

# 제14장

저녁 식사 내내 베넷 씨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하인들이 물러가자 이제 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눌 때가 되었다고 여기고, 손님이 빛을 낼 만한 화제를 골라 후원자 복이 아주 좋은 것 같다는 말로 운을 뗐다.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 콜린스 씨의 바람을 살피고 그의 편의를 헤아려 주는 품은 참으로 각별해 보였다. 베넷 씨는 이보다 더 나은 화제를 고를 수 없었다. 콜린스 씨는 영부인을 칭송하는 데 막힘이 없었다. 그 화제에 그는 평소보다 한층 엄숙해졌고, 더없이 거드름 피우는 얼굴로, 지체 높은 사람에게서 그런 처신은 평생 본 적이 없다고, 자기가 캐서린 영부인에게서 몸소 겪은 것과 같은 상냥함과 굽어살핌은 처음이라고 단언했다. 영부인은 그가 영광스럽게도 이미 두 차례 영부인 앞에서 한 설교를 둘 다 흐뭇하게 인정해 주었다. 또 로징스로 두 번이나 저녁 식사에 불러 주었고, 바로 지난 토요일에는 저녁에 카드리유 한 판을 벌일 사람 수를 채우려고 그를 부르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이 캐서린 영부인을 오만하다고 여긴다는 것은 그도 알았지만, *자기*는 영부인에게서 상냥함 말고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다. 영부인은 언제나 여느 신사에게 하듯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가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도, 친척을 만나러 이따금 1~2주씩 교구를 비우는 것도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다. 신중하게 고르기만 한다면 되도록 빨리 결혼하라고 굽어살펴 충고해 주기까지 했고, 한번은 그의 초라한 목사관을 찾아와 그가 손보던 곳을 하나같이 흡족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황송하게도 손볼

거리를 몇 가지 몸소 일러 주기까지 했다. 위층 벽장에 선반을 몇 개 달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참으로 예의 바르고 점잖은 처사네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아주 호감 가는 분인가 봐요. 귀부인들이 대개 그분만 같지 못한 게 아쉽네요. 그분이 콜린스 씨 댁 가까이 사세요?"

"제 초라한 거처가 자리한 정원과 영부인의 저택인 로징스 파크 사이에는 오솔길 하나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미망인이시라고 하셨지요? 자제분은 있으세요?"

"외동따님이 한 분 계십니다. 로징스와 더없이 광대한 재산을 물려받으실 상속녀이시지요."

"아," 베넷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그럼 웬만한 아가씨들보다는 팔자가 낫네요. 그래, 어떤 아가씨예요? 아름다운가요?"

"참으로 더없이 매력적인 아가씨이십니다. 캐서린 영부인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참된 아름다움으로 치면 드 버그 양이 여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하십니다. 그 얼굴에는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젊은 여성임을 드러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지요. 불행히도 몸이 약하셔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이루셨을 여러 가지 교양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가씨의 교육을 맡았고 지금도 그 댁에 함께 사는 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더없이 상냥하셔서, 조랑말이 끄는 작은 포장 없는 경마차를 타고 제 초라한 거처 앞을 굽어살펴 지나가 주실 때가 많습니다."

"궁정에 나가 인사는 드렸대요? 궁에 소개된 숙녀들 가운데 그 이름은 본 기억이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건강이 좋지 않아 런던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에, 언젠가 제가 캐서린 영부인께 직접 말씀드린 대로, 영국 궁정은 가장 빛나는 보석을 잃은 셈이지요. 영부인께서는 그 말을 흡족하게

여기시는 듯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숙녀분들이 언제나 반기시는 작고 섬세한 찬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바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캐서린 영부인께 따님께서는 공작 부인이 되시려고 태어나신 분 같다고, 가장 높은 지위라도 따님을 돋보이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님 덕분에 빛을 얻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영부인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자잘한 것들이고, 저는 이런 정성을 바치는 것이 제게 특별히 지워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옳은 판단일세." 베넷 씨가 말했다. "섬세하게 아첨하는 재주가 있으니 자네는 복 받은 사람이야. 하나 물어도 되겠나? 그런 기분 좋은 정성은 그때그때 우러나오는 건가, 아니면 미리 궁리해 둔 결과인가?"

"대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느 자리에 어울릴 만한 작고 우아한 찬사를 미리 떠올려 다듬어 보며 즐거워하기도 합니다만, 언제나 되도록 꾸민 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베넷 씨의 기대는 고스란히 채워졌다. 사촌은 바라던 만큼이나 우스꽝스러웠다. 베넷 씨는 더없이 즐겁게 귀를 기울이면서도 얼굴만은 끝까지 태연하게 지켰고, 이따금 엘리자베스에게 눈길을 던지는 것 말고는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차 마실 무렵이 되자 약도 그만하면 충분했다. 베넷 씨는 반가운 마음으로 손님을 다시 응접실로 데려갔고, 차를 다 마시고 나서는 숙녀들에게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지 않겠느냐고 반가이 청했다. 콜린스 씨는 선뜻 승낙했고 책 한 권이 나왔다. 그러나 그 책을 보자마자(어느 모로 보나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대여 도서관의 책이었다) 그는 움찔 물러서며, 죄송하지만 자기는 소설을 읽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키티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고 리디아는 소리를 질렀다. 다른 책들이 나오자 그는 한참 고민한 끝에 『포다이스 설교집』

[1]을 골랐다. 그가 책을 펴자 리디아는 하품을 했고, 그가 몹시 단조롭고 엄숙한 목소리로 세 쪽을 채 읽기도 전에 이렇게 말을 끊었다.

"어머니, 그거 알아요? 필립스 이모부가 리처드를 내보낼 생각이래요. 그러면 포스터 대령님이 데려다 쓸 거래요. 토요일에 이모가 직접 그랬어요. 내일 메리턴에 걸어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데니 씨가 언제 런던에서 돌아오는지도 물어볼 거예요."

두 언니가 리디아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지만, 콜린스 씨는 몹시 기분이 상해서 책을 내려놓고 말했다.

"젊은 아가씨들은 오로지 자기들을 위해 쓰인 책인데도 진지한 책에는 도무지 흥미를 보이지 않더군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솔직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가씨들에게 가르침만큼 이로운 것은 분명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어린 사촌 아가씨를 더는 성가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베넷 씨 쪽으로 돌아서서 백개먼 상대를 자청했다. 베넷 씨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아가씨들은 아가씨들끼리 시시한 놀이나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주 현명한 처사라고 한마디 보탰다. 베넷 부인과 딸들은 리디아가 말을 끊은 것을 무척 정중하게 사과하며, 책을 다시 읽어 준다면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콜린스 씨는 어린 사촌 아가씨에게 아무 악감정도 없으며 그 행동을 결코 모욕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장담하고는, 베넷 씨와 함께 다른 탁자에 앉아 백개먼 채비를 했다.

---

1. 제임스 포다이스가 1766년에 펴낸 설교집. 젊은 여성의 품행과 몸가짐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 제15장

콜린스 씨는 분별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타고난 모자람을 교육이나 사귐이 메워 준 것도 별로 없었다. 생애의 대부분을 배운 것 없고 인색한 아버지 밑에서 보냈고, 대학에 적을 두기는 했지만 정해진 학기를 채웠을 뿐 쓸모 있는 친분 하나 맺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억눌려 자란 탓에 처음에는 몸가짐이 몹시 겸손했다. 그러나 이제는 외진 곳에서 지내는 약한 머리의 자만심과, 이르고도 뜻밖에 찾아온 출세가 안겨 준 거들먹거림이 그 겸손을 상당 부분 상쇄해 버렸다. 헌스퍼드의 성직록이 비었을 때 운 좋게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의 눈에 들었다. 그런데 영부인의 높은 지위에 대한 존경과 후원자를 받드는 숭배가, 자기 자신을, 성직자인 자기의 권위를, 교구 목사인 자기의 권리를 아주 높이 치는 마음과 뒤섞이는 바람에, 그는 통틀어 오만과 비굴, 거드름과 겸손이 한데 섞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번듯한 집과 넉넉한 수입이 생겼으니 그는 결혼할 생각이었다. 롱번 집안과 화해하려 한 데에도 아내를 얻으려는 속셈이 깔려 있었으니, 소문대로 딸들이 아름답고 상냥하다면 그중 하나를 고를 작정이었다. 그것이 딸들 아버지의 영지를 물려받는 데 대한 그의 보상, 아니 속죄 계획이었고, 그는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고 걸맞으며 자기로서는 지나치리만큼 너그럽고 사심 없는 훌륭한 계획이라고 여겼다.

딸들을 보고 나서도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베넷 양의 사랑스러운 얼굴은 그의 생각을 굳혀 주었고, 나이 순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의 가장 엄격한 관념에도 들어맞았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베넷 양이* 그가 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사정이 달라졌다. 아침 식사 전 15분 동안 베넷 부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목사관 이야기로 시작해 자연스레 그 집 안주인을 롱번에서 찾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는 데까지 이르자, 베넷 부인은 더없이 상냥하게 웃으며 대체로 그를 부추기면서도, 바로 그가 점찍어 둔 제인에 대해서만은 넌지시 주의를 주었다. "*아래로* 딸들이라면 자기로서는 뭐라고 할 수 없다. 딱 잘라 대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 다만 *맏*딸은, 이 말만은 해 두어야겠는데, 넌지시 일러 두는 게 도리일 것 같은데, 머잖아 약혼하게 될 것 같다."

콜린스 씨는 제인에서 엘리자베스로 바꾸기만 하면 되었다. 그 일은 금세 끝났다. 베넷 부인이 난롯불을 뒤적이는 사이에 끝났다. 태어난 순서로도 미모로도 똑같이 제인 바로 다음인 엘리자베스가 당연히 그 자리를 이었다.

베넷 부인은 그 암시를 소중히 간직하며 머잖아 두 딸을 시집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리고 전날만 해도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베넷 부인의 총애를 듬뿍 받게 되었다.

메리턴에 걸어가겠다는 리디아의 생각은 잊히지 않았다. 메리만 빼고 자매들이 모두 함께 가기로 했고, 콜린스 씨도 베넷 씨의 청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베넷 씨는 어떻게든 그를 떼어 내고 서재를 혼자 차지하고 싶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콜린스 씨가 서재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그러고는 거기 눌러앉아 이름만 서가에서 가장 큰 2절판 책 한 권을 붙들고 있다 할 뿐, 실은 헌스퍼드의 집과 정원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베넷 씨에게 늘어놓았다. 그런 짓은 베넷 씨의 마음을 몹시

어지럽혔다. 서재에서만큼은 언제나 한가로움과 고요를 누릴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에게 말한 대로, 집 안의 다른 방에서라면 어디서든 어리석음과 자만을 만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서재에서만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 지내는 데 익숙했다. 그래서 딸들의 산책에 함께 가라고 콜린스 씨에게 권하는 데 베넷 씨의 예의는 더없이 재빨랐다. 그리고 실은 책 읽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이 훨씬 잘 어울리는 콜린스 씨는 크나큰 책을 덮고 길을 나서게 되어 아주 흡족해했다.

그는 거창하지만 알맹이 없는 말을 늘어놓고 사촌들은 정중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메리턴에 들어설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때부터 동생들의 주의는 더는 *그가* 끌 수 없었다. 두 아이의 눈은 곧장 장교들을 찾아 거리 저 위쪽을 헤맸고, 정말로 아주 멋진 보닛이나 진열창의 진짜 새 모슬린 정도가 아니고서는 그 눈길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숙녀들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다. 처음 보는 젊은이로, 더없이 신사다운 차림새에 장교 하나와 함께 길 건너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장교는 바로 리디아가 런던에서 언제 돌아오는지 알아보러 온 데니 씨였고, 일행이 지나가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다들 그 낯선 사람의 풍채에 놀랐고, 다들 누구일까 궁금해했다. 키티와 리디아는 어떻게든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건너편 가게에 살 것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앞장서서 길을 건넜다. 그리고 운 좋게도 막 길가에 올라섰을 때, 돌아서 오던 두 신사도 같은 자리에 이르렀다. 데니 씨는 곧바로 인사를 건네며 친구를 소개해도 되겠느냐고 청했다. 친구는 위컴 씨로, 전날 자기와 함께 런던에서 왔으며 반갑게도 그들의 연대에 장교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데니 씨는 덧붙였다. 더할 나위 없이 잘된 일이었다. 그 젊은이에게 모자란 것은 군복 하나뿐이었고, 군복만 입으면 완벽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터였다. 겉모습만으로도 위컴 씨는 크게 득을 보았다. 잘생긴 사람이 갖출 만한 가장 좋은 것은 다 갖추고 있었다. 훤한 얼굴, 좋은 풍채, 그리고 아주 호감 가는 말씨. 소개가 끝나자 그는 막힘없이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 갔는데, 그러면서도 말씨는 더없이 바르고 겸손했다. 일행이 모두 선 채로 한창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다아시와 빙리가 말을 타고 거리를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무리 가운데 숙녀들을 알아본 두 신사는 곧장 그쪽으로 와서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주로 말한 사람은 빙리였고, 주로 말을 건넨 상대는 베넷 양이었다. 빙리는 마침 베넷 양의 안부를 물으러 일부러 롱번으로 가던 길이라고 했다. 다아시 씨는 고개를 숙여 그 말이 맞다고 거들었고, 엘리자베스에게 눈길을 주지 않기로 막 마음을 다지려던 참에 낯선 사람을 보고 갑자기 눈길이 멎었다. 마침 서로를 마주 보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본 엘리자베스는 그 만남이 빚어낸 결과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둘 다 안색이 변했다. 한 사람은 하얗게 질렸고 한 사람은 붉어졌다. 잠시 뒤 위컴 씨가 모자에 손을 댔고, 다아시 씨는 그 인사를 마지못해 받아 주었다. 대체 무슨 뜻일까?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알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도 없었다.

잠시 뒤 빙리 씨는 방금 지나간 일을 알아채지 못한 듯 작별 인사를 하고 친구와 함께 말을 몰아 떠났다.

데니 씨와 위컴 씨는 아가씨들과 함께 필립스 씨 댁 문 앞까지 걸어갔다. 그러고는 들어오라고 조르는 리디아 양의 간청에도, 필립스 부인이 응접실 창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거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필립스 부인은 조카딸들을 언제나 반겼고, 한동안 집을 비웠던 맏이들은 특히 반가웠다. 필립스 부인은 두 아이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다니 놀랍다는 말을 한창 쏟아 내던 참이었다. 자기네 마차가 데리러 간 것도

아니니, 길에서 우연히 존스 씨네 가게 심부름꾼 아이를 만나 베넷 집안 아가씨들이 돌아갔으니 이제 네더필드에 물약을 더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더라면 까맣게 몰랐을 거라고 했다. 그때 제인이 콜린스 씨를 소개하는 바람에 필립스 부인은 그에게 예의를 차려야 했다. 필립스 부인이 더없이 깍듯하게 그를 맞자 그는 그보다 훨씬 더 깍듯하게 답례하며, 미리 인사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불쑥 찾아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래도 자기를 부인에게 소개해 준 아가씨들과의 친척 관계로 보아 그만한 실례는 너그러이 봐주시리라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필립스 부인은 그 넘쳐 나는 예절에 그만 기가 죽었다. 그러나 그 낯선 사람을 오래 뜯어볼 겨를도 없이 다른 낯선 사람을 두고 감탄과 질문이 쏟아졌다. 필립스 부인이 조카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아가씨들도 이미 아는 것뿐이었다. 데니 씨가 런던에서 데려왔고, ○○셔 연대에서 중위 자리를 얻게 되리라는 것. 필립스 부인은 지난 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거리를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위컴 씨가 다시 나타나기만 했다면 키티와 리디아도 틀림없이 그 일을 이어 갔을 터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제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장교 몇뿐이었고, 그들은 그 낯선 사람에 견주니 "멍청하고 밉살스러운 녀석들"이 되어 있었다. 그 장교들 몇이 이튿날 필립스 씨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되어 있었다. 이모는 롱번 식구들이 저녁에 와 준다면 남편을 시켜 위컴 씨를 찾아가 그도 초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하기로 정해지자 필립스 부인은 아늑하고 시끌벅적하게 복권 놀이를 한판 벌이고 나서 따뜻한 밤참도 조금 내겠다고 단언했다. 그런 즐거움을 앞두고 다들 기분이 들떠서, 서로 흐뭇하게 헤어졌다. 콜린스 씨는 방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사과했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을 지칠 줄 모르는 예의와 함께 들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엘리자베스는 두 신사 사이에서 본 일을 제인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둘 중 누가 잘못한 것처럼 보였다면, 아니 둘 다 그랬더라도 제인은 그들을 감싸 주었겠지만, 그런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기는 제인도 동생과 마찬가지였다.

집에 돌아온 콜린스 씨는 필립스 부인의 몸가짐과 예의를 칭찬해 베넷 부인을 크게 흐뭇하게 했다. 그는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따님을 빼면 그보다 더 우아한 여자는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필립스 부인은 그를 더없이 정중하게 맞아 주었을 뿐 아니라, 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이인데도 이튿날 저녁 초대에 굳이 그를 콕 집어 넣어 주기까지 했다면서. 그가 짐작하기로는 이 집안과 친척이라는 점도 얼마간 작용했겠지만, 그래도 평생 그토록 큰 대접을 받아 본 적은 없었다.

# 제16장

젊은이들이 이모 댁에 가기로 한 약속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머무는 동안 단 하룻저녁이라도 베넷 씨 내외를 두고 나가기가 마음에 걸린다는 콜린스 씨의 망설임은 모두 단호하게 물리쳐졌다. 그래서 알맞은 시각에 마차가 콜린스 씨와 다섯 사촌을 메리턴으로 실어 갔다. 아가씨들은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위컴 씨가 이모부의 초대를 받아들여 지금 이 집에 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두 자리에 앉자 콜린스 씨는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할 여유가 생겼다. 방의 크기와 가구에 몹시 감명을 받은 그는, 로징스에 있는 여름용 작은 아침 식사실에 와 있는 줄 알 뻔했다고 단언했다. 처음에는 그 비유가 그다지 흐뭇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로징스가 어떤 곳이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 필립스 부인이 그에게서 듣고 나자, 캐서린 영부인 댁 응접실 하나에 대한 묘사만 듣고도 벽난로 장식 하나에만 800파운드가 들었다는 것을 알고 나자, 필립스 부인은 그 찬사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고, 이제는 그 댁 하녀장 방에 빗대었더라도 별로 언짢아하지 않았을 터였다.

캐서린 영부인과 그 대저택의 온갖 웅장함을 필립스 부인에게 들려주고, 이따금 옆길로 새어 자기의 초라한 거처와 그 집을 손보는 이야기까지 칭찬하며, 콜린스 씨는 신사들이 들어올 때까지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필립스 부인은 아주 열심히 들어 주었고, 듣는 만큼 그를 대단한 인물로 여기게 되었으며, 되도록 빨리 이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낱낱이 퍼뜨리리라 마음먹었다. 사촌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없는 아가씨들에게는, 피아노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라거나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자기들이 서툴게 흉내 내 그린 도자기 그림이나 들여다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으니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마침내 그 시간도 끝났다. 신사들이 정말로 들어왔다. 위컴 씨가 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엘리자베스는 전에 그를 보았을 때도, 그 뒤로 그를 생각할 때도, 터무니없이 감탄한 것은 조금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 셔 연대 장교들은 대체로 아주 번듯하고 신사다운 사람들이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나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 있었다. 그러나 위컴 씨는 풍채로나 얼굴로나 몸가짐으로나 걸음걸이로나 그들 모두를 훨씬 앞질렀다. 마치 *그들이*, 뒤따라 방에 들어온, 얼굴이 넓적하고 답답해 보이며 포트와인 냄새를 풍기는 필립스 이모부보다 훨씬 나은 것과 같았다.

위컴 씨는 거의 모든 여자의 눈길이 쏠린 행복한 남자였고, 엘리자베스는 그가 마침내 곁에 와서 앉은 행복한 여자였다. 그가 곧바로 기분 좋게 꺼낸 이야기는 고작 비가 오는 밤이라느니 우기가 될 것 같다느니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는 아무리 흔하고 따분하고 닳고 닳은 화제라도 말하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흥미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위컴 씨와 장교들처럼 아가씨들의 눈길을 다투는 맞수들 앞에서 콜린스 씨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젊은 아가씨들에게 그는 확실히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따금 필립스 부인이라는 친절한 청중이 있었고, 그 부인이 눈여겨 챙겨 준 덕에 커피와 머핀만큼은 더없이 넉넉하게 얻어먹었다.

카드 탁자가 놓이자 그는 휘스트 자리에 앉음으로써 필립스 부인에게 신세를 갚을 기회를 얻었다.

"지금은 이 놀이를 잘 모릅니다만," 그가 말했다. "기꺼이 배워 보겠습니다. 제 처지로 말씀드리자면…" 필립스 부인은 그가 응해 준 것이 무척 고마웠지만 그 까닭까지 기다려 들어 줄 수는 없었다.

위컴 씨는 휘스트를 하지 않았고, 다른 탁자에서 엘리자베스와 리디아 사이에 앉게 되자 다들 크게 반겼다. 리디아는 한번 입을 열면 그칠 줄 모르는 수다쟁이였으므로, 처음에는 리디아가 그를 혼자 독차지해 버릴 위험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리디아는 복권 놀이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곧 놀이에 정신이 팔리고 내기를 걸고 상을 타면 소리를 지르느라 바빠서 누구 하나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놀이에 으레 드는 신경만 빼면 위컴 씨는 엘리자베스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고, 엘리자베스도 기꺼이 그의 말을 들었다. 다만 엘리자베스가 무엇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 곧 그가 다아시 씨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는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신사의 이름은 꺼낼 엄두조차 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위컴 씨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엘리자베스의 궁금증은 저절로 풀리게 되었다. 그는 네더필드가 메리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고 묻더니, 대답을 듣고 나서 머뭇거리며 다아시 씨가 그곳에 머문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었다.

"한 달쯤 됐어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 이야기가 그냥 끝나 버리는 것이 아쉬워서 덧붙였다. "더비셔에 아주 큰 재산이 있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위컴이 대답했다. "그곳 영지는 아주 훌륭하지요. 1년에 순수입만 10,000파운드예요. 그 점이라면 저보다 확실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집안과 남다른 인연으로 얽혀 있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놀란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놀라실 만도 해요, 베넷 양. 어제 저희가 마주쳤을 때 얼마나 냉랭했는지 보셨을 테니까요. 다아시 씨와는 잘 아는 사이세요?"

"알고 싶은 만큼은 알아요." 엘리자베스가 발끈해서 말했다. "그분과 같은 집에서 나흘을 지냈는데, 아주 밉살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호감이 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위컴이 말했다. "판단할 처지가 못 되거든요. 너무 오래, 너무 잘 알아서 공정한 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베넷 양의 생각을 들으면 대개는 다들 놀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다른 데서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고요. 여기는 베넷 양의 친척 댁이니까요."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네더필드만 빼면 이 근방 어느 집에서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트퍼드셔에서는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그분의 오만에 질렸거든요. 그분을 좋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찾지 못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든 누구든 제 값어치 이상으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서 안타까운 척은 못 하겠어요." 위컴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좀처럼 겪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의 재산과 지위에 눈이 멀거나, 그 높고 위압적인 태도에 겁을 먹어서, 그 사람이 보이고 싶은 대로만 그 사람을 보니까요."

"*저처럼* 조금 아는 사람이 봐도 성미가 고약한 분인 것 같아요."

위컴은 고개만 저었다.

"그 사람이 이 고장에 더 오래 머물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할 틈이 나자 그가 말했다.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네더필드에 있을 때 떠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그분이 이 근방에 있다고 해서 ○○셔 연대에

들어오시려던 계획이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 그럴 리가요. 다아시 씨 때문에 쫓겨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보기 싫으면 그 사람이 떠나야지요. 저희는 사이가 좋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이 아프지만, 온 세상에 대고 외칠 수 있는 까닭 말고는 *그 사람을* 피할 까닭이 하나도 없어요. 몹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같은 사람이라는 데 대한 더없이 쓰라린 안타까움이요. 베넷 양, 그 사람의 아버지, 돌아가신 다아시 씨는 세상에 둘도 없이 훌륭한 분이었고, 제게는 가장 참된 벗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다아시 씨와 한자리에 있으면 수많은 애틋한 기억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은 추악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만 아니라면, 다른 일이야 무엇이든 다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어요."

엘리자베스는 이야기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려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워낙 조심스러운 문제라 더 캐물을 수는 없었다.

위컴 씨는 좀 더 일반적인 화제로 넘어갔다. 메리턴이며 이 근방이며 이곳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본 것이 모두 무척 마음에 든다는 기색이었다. 특히 이곳 사람들을 두고는 은근하지만 누구라도 알아들을 만한 정중한 찬사를 곁들였다.

"늘 사람들과, 그것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셔 연대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가 덧붙였다. "아주 훌륭하고 기분 좋은 연대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제 친구 데니가 지금 주둔지 이야기며, 메리턴에서 받는 각별한 환대와 좋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람에 더 마음이 끌렸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는 못 살아요. 실망을 겪은 사람이라, 홀로 지내는 것을 기운이 견디질 못하거든요. 저는 할 일과 사귈 사람이 꼭 있어야 해요.

군인으로 살 생각은 없었지만 사정이 이렇게 되니 군대도 괜찮은 길이 되었어요. 원래는 교회가 제 길이 *되었어야* 했어요. 저는 성직자가 되도록 길러졌으니, 방금 이야기한 그 신사가 마다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주 값진 성직록[1]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요!"

"네. 돌아가신 다아시 씨는 당신이 임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직록이 다음에 비면 저를 앉히라고 유언하셨어요. 제 대부이셨고, 저를 끔찍이 아끼셨지요. 그분의 친절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를 넉넉히 보살펴 주실 생각이셨고, 그렇게 해 두셨다고 믿으셨는데, 막상 그 성직록이 비자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가 버렸어요."

"세상에!"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유언을 무시할 수가 있죠? 왜 법에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유언장 문구에 마침 형식상 허술한 데가 있어서 법에는 기댈 수가 없었어요. 명예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뜻을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다아시 씨는 의심하는 쪽을 택했어요. 아니면 그저 조건부 추천쯤으로 여기는 쪽을 택하고는, 제가 낭비했다느니 경솔했다느니, 요컨대 있는 일 없는 일 다 끌어다가 제가 모든 권리를 잃었다고 우겼지요. 확실한 건, 그 성직록이 2년 전,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를 맡을 나이가 딱 되었을 때 비었는데도 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건, 제가 그 자리를 잃을 만한 일을 정말로 했다고 스스로 탓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고요. 저는 성미가 급하고 앞뒤를 재지 않는 편이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한테 대고도* 제 생각을 너무 거리낌 없이 말했을지 몰라요. 그보다 나쁜 일은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없네요! 그런 사람은 공공연히 망신을 당해야 마땅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손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아버지를 잊을 수 있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맞서거나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그런 마음씨가 존경스러웠고, 그런 말을 하는 그가 어느 때보다 잘생겨 보였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잠시 뒤에 말했다.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을까요?"

"저를 철저하게, 작정하고 싫어했으니까요. 그렇게 싫어한 데에는 시샘도 얼마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다아시 씨가 저를 덜 아끼셨다면 아드님도 저를 좀 더 참아 주었을 텐데, 아버지가 저를 유난히 아끼시니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사람 속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희가 놓여 있던 그런 경쟁을, 그러니까 제가 자주 더 귀여움을 받는 걸 견딜 성미가 못 되었어요."

"다아시 씨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분을 좋아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을 대체로 깔보는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악의에 찬 앙갚음을, 이런 부당한 짓을, 이런 몰인정한 짓을 저지를 만큼 비열해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던 엘리자베스는 말을 이었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 네더필드에서, 자기는 한번 원한을 품으면 풀 줄 모른다고, 용서할 줄 모르는 성미라고 자랑하던 게 *정말* 기억나요. 성품이 끔찍한 게 틀림없어요."

"그 문제에서는 제 말을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컴이 대답했다. "*저*는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한참 만에 소리쳤다. "아버지의 대자이고, 벗이고, 가장 아끼던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니요!" "게다가 *위컴 씨처럼*, 얼굴만 봐도 상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젊은이를요." 하고 덧붙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 말로 그쳤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줄곧 그분의 동무였을 사람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더없이 가까운 사이로 얽혀 있었다면서요."

"저희는 같은 교구에서, 같은 영지 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함께 보냈고요. 한집에 살면서 같은 놀이를 하고, 같은 어버이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제* 아버지는 처음에 베넷 양의 이모부 필립스 씨가 그토록 빛내고 계신 그 직업으로 세상에 나섰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다아시 씨를 돕느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펨벌리 영지를 돌보는 데 온 시간을 바치셨지요. 다아시 씨는 제 아버지를 더없이 높이 사셨고, 둘도 없이 가깝고 믿음직한 벗으로 여기셨어요. 제 아버지가 부지런히 살펴 준 덕을 크게 입었다고 다아시 씨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다아시 씨가 저를 돌봐 주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을 때, 그건 저를 아끼는 마음만큼이나 *제 아버지에게* 진 고마움의 빚을 갚는 일이라고 여기셨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참 이상하네요!"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정말 고약해요! 그 다아시 씨는 그렇게 오만하면서 어떻게 그 오만 때문에라도 위컴 씨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더 나은 동기는 없더라도, 그만큼 오만한 사람이면 부정직한 짓을 하기에는 콧대가 너무 높았어야 하는데요. 부정직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위컴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다 오만에서 나오고, 오만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다른 어떤 감정보다 오만이 그 사람을 미덕 가까이

데려다 놓았지요. 하지만 한결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대할 때는 오만보다 더 강한 충동이 그 사람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고약한 오만이 그분에게 득이 된 적이 있기는 했어요?"

"그럼요. 그 오만 덕분에 그 사람은 자주 너그럽고 후하게 굴었어요. 돈을 아낌없이 쓰고, 손님을 후히 대접하고, 소작인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지요. 가문의 자부심, 그리고 *자식 된* 자부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무척 자랑스러워하거든요. 가문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마음, 사람들이 칭송하던 집안의 미덕에서 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펨벌리 저택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은 강력한 동기가 되지요. 그 사람에게는 *오라비 된* 자부심도 있어서, *얼마간* 오라비다운 애정까지 보태져 누이동생을 아주 친절하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후견인이 되어 있어요. 다들 그 사람을 더없이 자상하고 훌륭한 오라비라고 추어올리는 걸 듣게 되실 거예요."

"다아시 양은 어떤 아가씨예요?"

위컴은 고개를 저었다. "상냥한 아가씨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아시 집안 사람을 나쁘게 말하려니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오라비를 너무 닮았어요. 아주, 아주 거만해요. 어릴 때는 정이 많고 사랑스러운 데다 저를 무척 따라서, 저는 그 아이를 즐겁게 해 주느라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함께 놀아 주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 저하고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열다섯이나 열여섯쯤 된 아름다운 아가씨이고, 듣기로는 교양을 아주 훌륭하게 갖췄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런던에서 지내는데, 어떤 부인이 함께 살면서 교육을 맡아 보고 있어요."

여러 번 말이 끊기고 이런저런 다른 화제를 꺼내 본 끝에, 엘리자베스는 기어이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분이 빙리 씨와 그렇게 가까운 게 놀라워요. 빙리 씨는 사람 좋은 것 그 자체 같고, 제가 보기엔 정말로 상냥한 분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두 분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죠? 빙리 씨를 아세요?"

"전혀 몰라요."

"성품이 다정하고 상냥하고 매력적인 분이에요. 다아시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게 틀림없어요."

"아마 모르겠지요. 하지만 다아시 씨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재주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말이 잘 통하는 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와 지위가 조금이라도 엇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형편이 그만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오만이 그 사람을 떠나는 일은 없지만, 부자들과 있을 때는 너그럽고, 공정하고, 진실하고, 이성적이고, 명예를 알고, 어쩌면 호감도 가는 사람이 되지요. 재산과 풍채를 얼마간 감안하면 말이에요."

얼마 뒤 휘스트 판이 끝나자 놀던 사람들이 다른 탁자로 모여들었고, 콜린스 씨는 사촌 엘리자베스와 필립스 부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필립스 부인이 으레 하는 대로 성적이 어땠느냐고 물었다.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아서 그는 한 판도 빠짐없이 졌다. 그러나 필립스 부인이 그 일로 걱정스럽다는 말을 꺼내자, 그는 몹시 진지하고 엄숙하게, 그런 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으며 그 돈은 하찮은 푼돈에 지나지 않으니 부디 마음 쓰지 마시라고 장담했다.

"부인, 저도 잘 압니다." 그가 말했다. "카드 탁자에 앉으면 이런 일쯤은 운에 맡겨야 하지요. 다행히 저는 5실링쯤에 마음을 쓸 처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도 많겠지요. 그러나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 덕분에 저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쓸 필요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위컴 씨는 그 말에 눈길이 쏠렸다. 잠시 콜린스 씨를 살펴보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엘리자베스에게, 친척분이 드 버그 집안과 아주 가까운 사이냐고 물었다.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얼마 전에 저분께 성직록을 주셨어요. 콜린스 씨가 처음에 어떻게 그분 눈에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을 안 지 오래되지 않은 건 분명해요."

"물론 아시겠지만,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과 앤 다아시 영부인은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캐서린 영부인은 지금의 다아시 씨의 이모가 되지요."

"아뇨, 정말 몰랐어요. 캐서린 영부인의 집안 사정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저께까지는 그런 분이 계신 줄도 몰랐는걸요."

"그분 따님 드 버그 양은 아주 큰 재산을 물려받을 거예요. 그 아가씨와 사촌이 결혼해서 두 영지를 하나로 합칠 거라고들 해요."

그 말을 듣자 엘리자베스는 가엾은 빙리 양 생각에 웃음이 났다. 그가 이미 다른 사람과 맺어지기로 스스로 정해 두었다면, 빙리 양이 그에게 바친 온갖 정성은 정말이지 헛수고였고, 그의 누이동생을 아끼는 척한 것도 그를 칭찬한 것도 모두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이었다.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따님을 아주 높이 치켜세워요. 하지만 영부인에 관해 들려준 몇 가지 이야기로 보면, 고마운 마음 때문에 콜린스 씨가 눈이 흐려진 것 같아요. 후원자이긴 해도 영부인은 거만하고 자만심 강한 분인 것 같아요."

"둘 다 아주 심하다고 생각해요." 위컴이 대답했다. "그분을 못 뵌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그분을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그분의 태도가 독단적이고 무례했다는 것만은 아주 잘 기억해요. 그분은 남달리

분별 있고 영리하다는 평판을 듣지만, 제가 보기에 그 능력의 일부는 지위와 재산에서, 일부는 위압적인 태도에서, 나머지는 조카의 오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조카는 자기와 연줄이 닿는 사람은 누구나 일류의 지성을 갖춰야 한다고 여기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그가 아주 이치에 닿게 설명했다고 인정했다. 두 사람은 서로 흡족해하며 이야기를 이어 갔고, 마침내 밤참이 나오면서 카드놀이가 끝나자 다른 숙녀들도 위컴 씨의 관심을 나누어 받게 되었다. 필립스 부인의 시끌벅적한 밤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지만, 그의 몸가짐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샀다.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말솜씨가 좋았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우아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찬 채 그 집을 나섰고, 집으로 가는 내내 오로지 위컴 씨와 그가 들려준 이야기만 생각했다. 그러나 리디아도 콜린스 씨도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아서, 가는 길에 그의 이름을 한 번 입에 올릴 틈조차 없었다. 리디아는 복권 놀이 이야기, 잃은 셈패며 딴 셈패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콜린스 씨는 필립스 씨 내외의 정중함을 묘사하고, 휘스트에서 잃은 돈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고 단언하고, 밤참에 나온 요리를 하나하나 꼽고, 자기 때문에 사촌들이 비좁지 않을까 거듭 걱정하느라, 마차가 롱번 저택 앞에 멈출 때까지 다 하지 못할 만큼 할 말이 많았다.

---

1. 지주나 귀족이 목사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 교구 자리와, 거기에 딸린 수입.

# 제17장

이튿날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와 자기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제인에게 들려주었다. 제인은 놀라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었다. 다아시 씨가 빙리 씨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그토록 없는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위컴처럼 상냥해 보이는 젊은이의 말이 참말인지 의심하는 것 또한 제인의 성품에 맞지 않았다. 위컴이 정말로 그런 몹쓸 대접을 견뎌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제인의 여린 마음은 온통 그쪽으로 쏠렸다. 그러니 남은 길은 두 사람을 다 좋게 생각하고, 두 사람의 처신을 다 감싸 주고,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우연이나 오해 탓으로 돌리는 것뿐이었다.

"두 사람 다 무슨 까닭에선가 속은 거겠지." 제인이 말했다. "우리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까닭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둘 사이에서 서로를 나쁘게 전했을지도 몰라. 요컨대 어느 쪽에도 정말 잘못이 있는 게 아닌데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까닭이나 사정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어."

"정말 맞는 말이야. 그럼 언니, 이 일에 끼어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 편에서는 뭐라고 해 줄 거야? *그 사람들* 누명도 좀 벗겨 줘. 안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실컷 웃어. 그래도 웃는다고 내 생각이 바뀌지는 않아. 리지, 생각 좀 해 봐.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사람을, 아버지가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면 다아시 씨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지.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닌 인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평판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은 못 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잘못 알 수가 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위컴 씨가 어젯밤 나한테 들려준 자기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것보다는 빙리 씨가 속고 있다는 게 훨씬 믿기 쉬워. 이름이며 사실이며 하나도 거리낌 없이 다 말했다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아시 씨더러 아니라고 하라지. 게다가 그 사람 표정에는 진심이 있었어."

"정말 어렵구나. 괴로워.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지만,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는 아주 분명해."

그러나 제인이 확신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빙리 씨가 정말로 *속은 거라면* 이 일이 알려졌을 때 무척 괴로워하리라는 점뿐이었다.

두 아가씨는 관목 숲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로 그 이야기에 오르내리던 사람들 몇이 찾아오는 바람에 불려 들어갔다. 빙리 씨와 그 누이들이 오래 기다려 온 네더필드 무도회에 직접 초대하러 왔다. 무도회는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졌다. 두 숙녀는 소중한 벗을 다시 보게 되어 무척 기뻐하며, 만난 지 백 년은 된 것 같다고 하고, 헤어진 뒤로 어떻게 지냈느냐고 몇 번이고 물었다. 다른 식구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베넷 부인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했고, 엘리자베스에게는 말을 몇 마디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식구들에게는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두 숙녀는 곧 다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오빠가 놀랄 만큼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베넷 부인의 친절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처럼 서둘러 떠났다.

네더필드 무도회를 앞두고 집안 여자들은 모두 더없이 즐거웠다. 베넷 부인은 그 무도회가 맏딸을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여기기로 했고, 격식

차린 초대장 대신 빙리 씨에게서 직접 초대를 받은 것이 특히 우쭐했다. 제인은 두 벗과 어울리며 빙리 씨에게서 관심을 받는 행복한 저녁을 그려 보았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와 춤을 실컷 출 생각에, 그리고 다아시 씨의 표정과 거동에서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될 생각에 즐거웠다. 키티와 리디아가 기대하는 행복은 어느 한 가지 일이나 어느 한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았다. 둘 다 엘리자베스처럼 저녁 시간의 절반은 위컴 씨와 춤출 작정이었지만, 그들을 만족시킬 상대가 위컴 씨 하나뿐인 것은 결코 아니었고, 어쨌거나 무도회는 무도회였다. 메리조차 무도회가 싫지는 않다고 식구들에게 장담할 수 있었다.

"아침 시간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메리가 말했다. "이따금 저녁 모임에 끼는 것이 희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교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휴식과 오락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자처해요."

이 일로 엘리자베스는 기분이 한껏 들떠서, 평소에는 콜린스 씨에게 쓸데없는 말을 잘 건네지 않았는데도 빙리 씨의 초대에 응할 생각이냐고, 응한다면 저녁의 오락에 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콜린스 씨는 그 점에 대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고, 감히 춤을 춘다고 해서 대주교나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에게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런 걱정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가 말했다. "인품 있는 젊은이가 점잖은 사람들을 위해 여는 이런 무도회가 무슨 나쁜 쪽으로 흐를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춤추는 것을 마다하기는커녕, 오늘 저녁에 어여쁜 사촌 아가씨들 모두와 춤을 추는 영광을 누리기를 바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엘리자베스 양, 특히 첫 두 곡을 함께

추어 주십사 청합니다. 사촌 제인 양께서는 제가 이렇게 먼저 청하는 까닭을 바르게 헤아려 주시고, 결코 자기를 업신여겨서가 아님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보기 좋게 걸려들었다고 느꼈다. 바로 그 두 곡은 위컴과 추기로 굳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 대신 콜린스 씨라니! 엘리자베스의 쾌활함이 이토록 때를 잘못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위컴 씨의 행복과 자기의 행복은 하는 수 없이 조금 더 미뤄졌고,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의 청을 될 수 있는 대로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그의 정중한 친절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으니 엘리자베스로서는 더욱 반갑지 않았다. 헌스퍼드 목사관의 안주인으로, 그리고 더 나은 손님이 없을 때 로징스에서 카드리유 판의 머릿수를 채우는 사람으로 손색이 없다고 자매들 가운데 *자기가* 뽑혔다는 생각이 그제야 처음으로 들었다. 자기에게 점점 더 정중해지는 그의 태도를 지켜보고, 엘리자베스의 재치와 활달함을 칭찬하려는 그의 잦은 시도를 듣다 보니, 그 생각은 곧 확신으로 굳어졌다. 자기 매력이 빚어낸 이 결과에 엘리자베스는 흐뭇하기보다 놀라웠지만, 얼마 안 가 어머니는 두 사람이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기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라고 넌지시 일러 주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눈치를 못 알아들은 척하기로 했다. 무슨 대답을 하든 크게 다투게 될 것이 뻔했다. 콜린스 씨가 끝내 청혼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청혼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일로 다퉈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준비하고 이야기할 네더필드 무도회가 없었더라면, 이 무렵 베넷 집안의 작은 아가씨들은 가엾은 처지가 되었을 터였다. 초대를 받은 날부터 무도회 날까지 비가 줄곧 내리는 바람에 메리턴에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다. 이모도, 장교들도, 소식도 찾아 나설 수 없었다. 네더필드에 신고 갈 구두에 달 장미 장식조차 남을 시켜서 구해 와야

했다. 위컴 씨와 가까워지는 일이 완전히 멈춰 버린 날씨였으니 엘리자베스조차 인내심을 얼마간 시험받았을 법했다. 그리고 화요일의 무도회가 아니었다면 키티와 리디아는 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결코 견뎌 내지 못했을 터였다.

# 제18장

네더필드 응접실에 들어서서 그곳에 모인 붉은 군복 무리 가운데 위컴 씨를 찾다가 끝내 찾지 못하기 전까지, 엘리자베스는 그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 그를 틀림없이 만나리라는 확신은, 따지고 보면 마음을 졸이게 할 만도 했던 그 어떤 기억으로도 흔들리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여느 때보다 공들여 옷을 차려입었고, 그의 마음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을 모조리 정복하리라는 더없이 들뜬 기분으로 채비를 했다. 그쯤이야 하룻저녁이면 넉넉히 얻어 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순간 끔찍한 의심이 일었다. 빙리 일가가 장교들을 초대하면서 다아시 씨의 비위를 맞추려고 일부러 그를 뺐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그의 친구 데니 씨의 입으로 확인되었다. 리디아가 냅다 물어보자 데니 씨는, 위컴이 어제 일이 있어서 런던에 가야 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 계신 어떤 신사분을 피하고 싶지 않았다면, 하필 지금 볼일이 생겨 자리를 비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리디아는 이 대목을 듣지 못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으니 처음 짐작이 맞았을 때와 다름없이 위컴이 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다아시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다아시에 대한 온갖 불쾌한 감정이 당장의 실망으로 한층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곧바로

다가와 정중하게 안부를 묻는 다아시에게 엘리자베스는 봐줄 만한 예의조차 갖춰 대답하기가 힘들었다. 다아시에게 관심을 보이고, 너그럽게 굴고, 참아 주는 것은 곧 위컴을 해치는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와는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돌아섰는데, 그 언짢은 기분은 빙리 씨에게 말을 건넬 때도 다 떨쳐 내지 못했다. 빙리 씨가 친구를 무작정 감싸는 것이 엘리자베스의 화를 돋웠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언짢은 기분에 오래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에 품었던 기대는 모조리 무너졌지만 그 일이 오래 마음을 짓누르지는 못했다. 한 주 동안 보지 못한 샬럿 루커스에게 속상한 일을 모두 털어놓고 나자, 엘리자베스는 곧 스스로 화제를 돌려 사촌의 별난 점들을 이야기하며 샬럿에게 그를 눈여겨보라고 가리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첫 두 곡이 시작되자 다시 괴로움이 찾아왔다. 굴욕의 춤이었다. 콜린스 씨는 어색하고 엄숙했으며, 춤에 신경을 쓰는 대신 사과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엉뚱한 쪽으로 움직여서, 불쾌한 상대가 두 곡 동안 안겨 줄 수 있는 온갖 창피와 괴로움을 엘리자베스에게 안겨 주었다. 그에게서 풀려나는 순간은 날아갈 듯했다.

다음에는 장교 하나와 춤을 추면서 위컴 이야기를 나누고, 위컴을 다들 좋아한다는 말을 듣는 즐거움을 누렸다. 그 춤이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샬럿 루커스에게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갑자기 다아시 씨가 말을 걸어왔다. 다아시 씨가 너무 뜻밖에 춤을 청하는 바람에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승낙해 버렸다. 그가 곧바로 다시 걸어가 버리자,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그렇게 침착하지 못했던 것을 두고 속을 끓였다. 샬럿이 달래 주려 했다.

"막상 춰 보면 아주 호감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지도 몰라."

"그런 일은 하늘이 막아 주셔야지! *그건* 세상에서 제일 큰 불행일 거야! 미워하기로 작정한 남자를 호감 가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다니! 그런 몹쓸 일은 빌어 주지 마."

그러나 다시 춤이 시작되어 다아시가 춤을 청하러 다가오자, 샬럿은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위컴에게 마음이 쏠려서 그보다 열 배는 지체 높은 남자의 눈에 밉살스럽게 보이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귓속말로 일러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고 줄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다아시 씨와 마주 서는 것이 허락될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르다니 스스로도 어리둥절했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얼굴에서도 똑같은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 침묵이 두 곡 내내 이어지겠구나 싶었고, 처음에는 자기가 먼저 깨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다 문득 상대에게 억지로 말을 시키는 편이 더 큰 벌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 춤에 관해 가벼운 말을 한마디 건넸다. 그는 대답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몇 분 동안 말이 끊긴 뒤 엘리자베스가 다시 말을 걸었다.

"이번에는 *다아시 씨가* 무슨 말씀이든 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춤 이야기를 했으니, *다아시 씨는* 방 크기라든가 춤추는 사람 수라든가 하는 이야기라도 하셔야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자베스가 바라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장담했다.

"좋습니다. 지금은 그 대답이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는 제가 개인 무도회가 공개 무도회보다 훨씬 즐겁다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지금은* 잠자코 있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춤을 추실 때는 규칙에 따라 말씀하십니까?"

"가끔은 그렇습니다. 말을 조금은 해야 하니까요. 30분 동안 내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상해 보일 테지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말을 적게 하는 수고만 들도록 대화를 짜 드려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스스로의 기분을 헤아리신 겁니까, 아니면 제 기분을 맞춰 주신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둘 다예요." 엘리자베스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저희 두 사람은 생각하는 결이 아주 닮았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둘 다 사람 사귀기를 싫어하고 말수가 적어서, 온 방 안을 놀라게 하고 속담처럼 떠들썩하게 후세에 전해질 말이 아니면 입을 열려 하지 않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다지 닮은 자화상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제* 성품과 얼마나 닮았는지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께서는* 꼭 닮은 초상이라고 여기시는 줄 압니다."

"제 솜씨를 제가 판정해서는 안 되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줄 끝까지 춤추며 내려갈 때까지 다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가 엘리자베스와 자매들이 메리턴에 자주 걸어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덧붙였다. "요전 날 그곳에서 저희를 만나셨을 때, 저희는 마침 새로운 분과 인사를 나누던 참이었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 거만한 기색이 한층 짙게 드리웠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나약함을 탓하면서도 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마침내 다아시가 입을 열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컴 씨는 복 받은 몸가짐을 지닌 덕에 친구를 *사귀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친구를 *지켜 나가는* 데도 똑같이 능한지는 그보다 덜 확실합니다만."

"그분은 운 나쁘게도 다아시 씨의 우정을 잃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대답했다. "평생 그 일로 고통받게 될 만큼 모질게 말입니다."

다아시는 대답하지 않고 화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그때 윌리엄 루커스 경이 바로 옆에 나타났다. 줄을 가로질러 방 저편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다아시 씨를 알아보자 걸음을 멈추고 더없이 깍듯하게 절하며 그의 춤 솜씨와 춤 상대를 칭찬했다.

"참으로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빼어난 춤은 좀처럼 보기 어렵지요. 최상류 사교계에 속하시는 분이라는 게 한눈에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여쁜 춤 상대도 다아시 씨께 조금도 누가 되지 않는군요. 이런 즐거움을 자주 보게 되기를 바라오, 특히 어떤 바람직한 일이 일어날 때 말이오, 일라이저 양(언니와 빙리 쪽을 흘끗 보며). 그때는 축하 인사가 얼마나 쏟아지겠소! 다아시 씨께 여쭙겠습니다만… 아니,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저 젊은 아가씨와 나누시는 황홀한 대화에서 붙잡아 두면 고마워하실 리가 없지요. 저 아가씨의 반짝이는 눈도 저를 나무라고 있군요."

다아시는 이 말의 뒷부분은 거의 듣지 못했다. 그러나 친구를 두고 한 윌리엄 경의 암시가 그에게는 크게 와닿은 듯했고, 그의 눈길은 몹시 심각한 표정을 띠고 함께 춤추는 빙리와 제인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춤 상대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윌리엄 경이 끼어드시는 바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야기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방 안에서 저희 둘만큼 서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도 없을 테니 윌리엄 경이 방해하실 것도 없었지요. 벌써 화제를 두세 가지 꺼내 보았지만 헛일이었고, 이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저는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책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책이요… 아, 안 됩니다! 저희는 같은 책을 읽은 적이 없거나, 읽었더라도 같은 느낌으로 읽지는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다면 적어도 화제가 모자랄 일은 없을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견주어 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아뇨. 무도회장에서는 책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늘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런 자리에서는 늘 *지금 이 순간*이 마음을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가 미심쩍은 얼굴로 말했다.

"네, 늘 그렇지요."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답했다. 생각이 화제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은 곧이어 엘리자베스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꺼내는 데서 드러났다. "다아시 씨, 언젠가 다아시 씨께서 남을 좀처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번 품은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원한이 *생기는* 일에는 무척 조심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편견에 눈이 머는 일도 결코 없도록 하시겠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한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바르게 판단하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법이지요."

"이런 질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저 *다아시 씨의* 성품을 그려 보려는 것뿐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진지한 기색을 떨쳐 내려 애쓰며 말했다. "그걸 알아내 보려는 참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까?"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다아시 씨에 대해 워낙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서 몹시 헷갈립니다."

"저에 대한 소문이 크게 엇갈리리라는 건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베넷 양, 지금 이 순간에는 제 성품을 그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그림이 어느 쪽에도 명예가 되지 못할까 걱정할 까닭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초상을 그려 두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떤 즐거움이든 막아 드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가 차갑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더 말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다음 곡을 추며 줄을 내려간 뒤 말없이 헤어졌다. 둘 다 불만스러웠지만 그 정도는 같지 않았다. 다아시의 가슴속에는 엘리자베스를 향한 꽤 강한 감정이 있어서 곧 엘리자베스를 용서하게 되었고, 그의 분노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다.

둘이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빙리 양이 다가와서, 정중한 경멸을 띤 얼굴로 이렇게 말을 걸었다.

"그래, 일라이저 양, 조지 위컴한테 아주 반하셨다면서요? 언니분이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수도 없이 묻더군요. 그런데 보아하니 그 젊은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도 자기가 돌아가신 다아시 씨의 영지 관리인이던 위컴 영감의 아들이라는 말은 깜박했나 봐요. 하지만 친구로서 권하는데, 그 사람 말을 다 곧이곧대로 믿지는 마세요. 다아시 씨가 그 사람을 몹쓸게 대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니까요. 오히려 다아시 씨는 늘 그 사람한테 유난히 친절했는데, 조지 위컴이 다아시 씨를 더없이 파렴치하게 대했어요.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다아시 씨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 다아시 씨는 조지 위컴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오빠는 장교들을 초대하면서 그 사람만 빼놓기가 곤란하다고 여겼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자리를 피해 줘서 무척 기뻐했다는 건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이 고장에 온 것부터가 정말 뻔뻔한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라이저 양, 마음에 둔 사람의 죄를 이렇게 알게 되셨으니 안됐네요. 하지만 정말이지, 그 사람 출신을 생각하면 그보다 나은 걸 기대할 수는 없었겠죠."

"말씀을 들어 보니 그분의 죄와 그분의 출신이 같은 것인가 보네요." 엘리자베스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분이 다아시 씨의 영지 관리인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나쁜 죄는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라면* 그분이 직접 저한테 말해 줬어요."

"실례했네요." 빙리 양이 코웃음 치며 돌아섰다. "참견해서 미안해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어요."

"건방진 아가씨 같으니!"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말했다. "이렇게 하찮은 공격으로 나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보이는 건 제멋대로 눈감은 무지와 다아시 씨의 악의뿐이야." 그러고는 빙리에게 같은 일을 알아보겠다고 나섰던 큰언니를 찾았다. 제인은 더없이 흐뭇한 미소와 행복으로 빛나는 얼굴로 엘리자베스를 맞았는데, 그것만 보아도 오늘 저녁의 일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넉넉히 알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마음을 단번에 읽었고, 그 순간 위컴에 대한 염려도, 그의 적들에 대한 분노도, 다른 무엇도, 제인이 행복을 향해 더없이 순탄한 길을 가고 있다는 희망 앞에서 모두 물러났다.

"궁금해." 엘리자베스가 언니 못지않게 웃는 얼굴로 말했다. "위컴 씨에 대해서 뭘 알아냈는지. 하지만 너무 즐겁게 지내느라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용서해 줄게."

"아니야," 제인이 대답했다. "잊지 않았어. 하지만 만족스러운 얘기는 해 줄 게 없어. 빙리 씨는 그 사람 내력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다아시 씨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한 사정은 전혀 몰라. 하지만 친구가 품행이 바르고 정직하고 명예를 아는 사람이라는 건 장담하겠대. 그리고 위컴

씨는 다아시 씨에게서 받은 것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아도 마땅했다고 굳게 믿고 있어. 안타깝지만 빙리 씨 말로도, 빙리 양 말로도 위컴 씨는 결코 훌륭한 젊은이가 아니래. 아주 경솔하게 굴어서 다아시 씨의 호의를 잃을 만했던 것 같아."

"빙리 씨는 위컴 씨를 직접 알지는 못하는구나."

"응. 요전 날 아침 메리턴에서 처음 봤대."

"그럼 그 이야기는 다아시 씨한테서 들은 거네. 잘 알겠어. 그런데 성직록에 대해서는 뭐래?"

"다아시 씨한테 여러 번 들었다는데 사정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대. 하지만 그건 *조건부로만* 그 사람한테 남겨진 걸로 알고 있대."

"빙리 씨가 진심이라는 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장담만 듣고 내가 수긍하지 않는다고 나무라지는 마. 빙리 씨는 친구를 아주 그럴듯하게 감쌌겠지. 하지만 그 이야기의 몇 대목은 모르고, 나머지는 바로 그 친구한테서 들었으니까, 나는 두 신사를 여전히 전처럼 생각하겠어."

그러고는 둘 다 더 기분 좋고 생각이 갈릴 일도 없는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다. 엘리자베스는 빙리의 호의를 두고 제인이 품은, 행복하지만 조심스러운 희망을 기쁘게 들었고, 언니가 그 호의를 더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말은 다 해 주었다. 빙리 씨가 직접 다가오자 엘리자베스는 루커스 양에게로 물러났다. 방금 춤춘 상대가 괜찮았느냐는 루커스 양의 물음에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콜린스 씨가 다가와서는, 방금 운 좋게도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아주 묘한 우연으로," 그가 말했다. "제 후원자의 가까운 친척 되시는 분이 지금 이 방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신사분께서 이 댁 안주인 노릇을 하시는 젊은 숙녀께 사촌 드 버그 양과 그 모친 캐서린

영부인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이런 일이 어쩌면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는지요! 이 무도회에서 제가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의… 어쩌면… 조카분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늦지 않게 알게 되어 그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가서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진작 인사드리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인척 관계를 까맣게 몰랐다는 것이 제 변명이 되겠지요."

"설마 다아시 씨께 직접 자기소개를 하시려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럴 겁니다. 진작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사 청할 겁니다. 저는 그분이 캐서린 영부인의 *조카*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드레 전만 해도 영부인께서 아주 평안하셨다고 그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말리느라 무던히 애썼다. 소개도 없이 말을 걸면 다아시 씨는 그것을 이모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무례한 결례로 여길 것이고, 어느 쪽에서든 아는 체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설령 필요하다 해도 지위가 더 높은 다아시 씨가 먼저 인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거듭 일렀다. 콜린스 씨는 기어이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단호한 얼굴로 듣고 있다가, 엘리자베스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양, 엘리자베스 양의 이해력이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라면 그 훌륭한 판단력을 세상 누구보다 높이 사지만, 평신도들 사이에 정해진 예법과 성직자를 다스리는 예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 성직이라는 직분은 그 위엄에서 이 왕국의 가장 높은 지위와 맞먹습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걸맞은 겸손한 몸가짐을 지킨다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 양심의 명령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제 양심은 제가 의무로 여기는 일을 하라고 이릅니다. 다른 모든 일에서는 언제나

길잡이로 삼을 엘리자베스 양의 충고를 이번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경우에는 교육으로 보나 평소의 공부로 보나, 엘리자베스 양 같은 젊은 아가씨보다는 제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에 더 알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고는 깊숙이 절을 하고 엘리자베스 곁을 떠나 다아시 씨에게 돌진했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그 접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숨죽이고 지켜보았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데 다아시 씨가 놀란 기색은 아주 역력했다. 사촌은 엄숙하게 절을 하며 말을 시작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지만 다 들리는 것만 같았고, 그의 입술 움직임에서 "사과" "헌스퍼드"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 같은 말을 읽었다. 그가 그런 사람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니 속이 상했다. 다아시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그를 뜯어보다가, 마침내 콜린스 씨가 말할 틈을 주자 거리를 두는 정중함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콜린스 씨는 기죽지 않고 다시 말을 늘어놓았고, 두 번째 말이 길어질수록 다아시 씨의 경멸은 눈에 띄게 커져 가는 것 같았다. 말이 끝나자 다아시 씨는 고개만 가볍게 숙여 보이고 다른 쪽으로 가 버렸다. 그러자 콜린스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돌아왔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가 말했다. "저를 맞아 주신 태도에 불만을 가질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다아시 씨께서는 제 인사를 무척 반기시는 듯했습니다. 더없이 정중하게 대답해 주셨고, 캐서린 영부인의 안목을 굳게 믿기 때문에 영부인께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는 칭찬까지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었지요. 전체적으로 보아 그분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따로 마음 쓸 일이 없어서 거의 온 신경을 언니와 빙리 씨에게 쏟았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기분 좋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자 엘리자베스도 어쩌면 제인 못지않게 행복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바로 이 집에 자리 잡고, 참된 애정으로 맺어진 결혼이 줄 수 있는 온갖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그려 보았다. 그렇게만 된다면 빙리의 두 누이까지도 좋아해 보려고 애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의 생각도 같은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 뻔히 보였으므로, 엘리자베스는 너무 많은 말을 듣게 될까 봐 어머니 곁에는 가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밤참 자리에 앉았을 때 어머니와 자기 사이에 겨우 한 사람만 끼어 앉게 된 것을 엘리자베스는 더없이 짓궂은 불운으로 여겼다. 그리고 어머니가 바로 그 한 사람(루커스 부인)에게 거리낌 없이, 터놓고, 오로지 제인이 머잖아 빙리 씨와 결혼하리라는 기대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을 알고 몹시 속이 상했다. 신나는 화제였고, 베넷 부인은 그 혼사의 이점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지칠 줄을 몰랐다. 그토록 매력적인 젊은이이고, 그토록 부자이고, 겨우 3마일 떨어진 곳에 산다는 것이 첫째로 흐뭇한 점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두 누이가 제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하면 참 든든했고, 그 사람들도 자기만큼이나 이 혼사를 바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제인이 그렇게 크게 시집을 가면 동생들도 다른 부자들을 만날 길이 열릴 테니 작은딸들에게도 아주 전망이 밝은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나이에 시집 안 간 딸들을 언니에게 맡길 수 있게 되면 내키지 않는 사교 자리에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자리에서는 그것이 예법이니 이런 사정을 즐거운 일로 말해야 했다. 그러나 베넷 부인만큼 평생 어느 때든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위안으로 여길 리 없는 사람도 없었다. 베넷 부인은 루커스 부인도 머잖아 그만큼 운이 좋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잔뜩 늘어놓으며 말을 맺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의기양양하게 믿고 있는 것이 뻔히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말이 빨라지는 것을 막아 보려고, 아니면 그 행복을 좀 덜 들리게 속삭이도록 타일러 보려고 애썼지만 헛일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하게도, 그 말의 대부분을 맞은편에 앉은 다아시 씨가 듣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엘리자베스를 나무랄 뿐이었다.

"다아시 씨가 나한테 뭐라고 내가 그 사람을 겁내야 하니?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할 말은 한마디도 하면 안 될 만큼 우리가 그 사람한테 특별히 예의를 차려야 할 까닭은 없어."

"어머니,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다아시 씨 기분을 상하게 해서 어머니한테 무슨 득이 있겠어요? 그래 봐야 그 친구분한테 잘 보이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는 똑같이 잘 들리는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늘어놓았다. 엘리자베스는 부끄럽고 속상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또 붉어졌다. 다아시 씨 쪽을 자꾸 흘끗거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볼 때마다 두려워하던 바가 사실임을 확인할 뿐이었다. 다아시 씨가 늘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주의가 한결같이 어머니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확신했다. 그의 얼굴은 분개한 경멸에서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엄숙함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다.

마침내 베넷 부인도 더 할 말이 없어졌고, 함께 누릴 가망도 없는 기쁨을 되풀이해 듣느라 한참 하품을 하던 루커스 부인은 차가운 햄과 닭고기로 위안을 삼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야 살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밤참이 끝나자 노래 이야기가 나왔고, 엘리자베스는 메리가 몇 번 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뜻에 응하려고 채비하는 것을 보며 낯이 뜨거웠다. 엘리자베스는 의미심장한 눈짓과 말없는 애원으로 그런 친절의 증거를 막아 보려 했지만 헛일이었다. 메리는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솜씨를 뽐낼 기회가 메리에게는 즐겁기만 했고, 메리는 노래를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몹시 괴로운 심정으로 메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몇 절을 이어 부르는 동안 조바심을 내며 지켜보았지만, 그 조바심은 노래가 끝났을 때 보답을 받기는커녕 더 고약한 꼴을 맞았다. 식탁에서 나온 감사 인사 가운데 한 곡 더 들려주면 좋겠다는 기색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아채자, 메리는 30초쯤 뜸을 들였다가 다른 노래를 시작했다. 메리의 재주는 그런 자리에서 뽐내기에 결코 알맞지 않았다. 목소리는 가냘팠고 몸짓은 꾸민 티가 났다. 엘리자베스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언니를 보았다. 어떻게 견디나 싶어서였지만, 제인은 아주 침착하게 빙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빙리의 두 누이를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리고 다아시에게 비웃는 눈짓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아시는 여전히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엄숙했다. 아버지를 보았다. 메리가 밤새 노래하지 않도록 나서 달라고 애원하는 눈길이었다. 아버지는 눈치를 알아채고, 메리가 두 번째 노래를 마치자 큰 소리로 말했다.

"그만하면 아주 훌륭하구나, 얘야. 오래도록 우리를 즐겁게 해 주었다. 다른 아가씨들에게도 솜씨를 보일 시간을 주렴."

메리는 못 들은 척했지만 적잖이 당황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가 안쓰럽고 아버지의 말도 안타까워서, 자기가 마음을 졸인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 싶어 걱정스러웠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를 청했다.

"제가," 콜린스 씨가 말했다. "운 좋게 노래를 부를 줄 안다면 분명히 기꺼이 한 곡 불러 여러분의 청에 응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아주 순수한 오락이자 성직자의 직분과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음악에 너무 많은 시간을 바쳐도 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할 다른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교구 목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십일조에 관해

자기에게 이롭고 후원자의 비위에도 거슬리지 않게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설교문은 손수 써야 하고, 남는 시간은 교구 일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안락하게 꾸며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자기 거처를 돌보고 손보는 데 쓰기에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자기에게 성직 임용의 은혜를 베푼 분들에게 세심하고 상냥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에게서 그 의무를 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과 연이 닿는 분께 존경을 표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다아시 씨에게 절을 하며 연설을 끝맺었는데, 어찌나 큰 소리로 말했던지 방 안의 절반이 다 들었다. 여러 사람이 눈을 휘둥그레 떴고, 여러 사람이 웃었다. 그러나 베넷 씨만큼 재미있어하는 얼굴은 없었다. 그사이 그의 아내는 콜린스 씨가 참 분별 있게 말했다고 진지하게 칭찬하며, 루커스 부인에게 반쯤 속삭이는 소리로 유난히 영리하고 착한 젊은이라고 했다.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식구들이 오늘 저녁 될 수 있는 한 망신을 당하자고 미리 짜기라도 했다 한들 이보다 더 신나게, 이보다 더 멋지게 제 역할을 해낼 수는 없었을 것 같았다. 그 꼴 가운데 몇몇은 빙리의 눈에 띄지 않았고, 그가 보았을 어리석은 짓에도 크게 괴로워할 성품이 아니니 빙리와 언니에게는 다행이라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그러나 빙리의 두 누이와 다아시 씨가 식구들을 비웃을 기회를 그렇게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웠다. 그 신사의 말 없는 경멸과 숙녀들의 무례한 미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참기 어려운지 엘리자베스는 가늠할 수가 없었다.

남은 저녁은 엘리자베스에게 별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콜린스 씨가 끈질기게 곁을 떠나지 않고 성가시게 굴었다. 다시 춤을 추자고 엘리자베스를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그 바람에 엘리자베스도 다른

사람과 춤을 출 수 없었다. 다른 사람과 춤을 추라고 사정하고, 이 방 안의 어느 아가씨든 소개해 주겠다고 해 보았지만 헛일이었다. 그는 춤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으며, 자기의 주된 목적은 섬세한 정성으로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드는 것이니 저녁 내내 곁을 지키는 것을 철칙으로 삼겠다고 장담했다. 그런 계획 앞에서는 따져 볼 여지가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가장 크게 숨통을 튼 것은 친구 루커스 양 덕분이었다. 루커스 양은 자주 곁에 와서 콜린스 씨의 말 상대를 기꺼이 떠맡아 주었다.

적어도 다아시 씨가 더는 아는 체하는 불쾌함에서는 벗어났다. 다아시 씨는 아무와도 춤추지 않은 채 아주 가까이 서 있을 때가 많았지만, 말을 걸 만큼 다가오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아마 위컴 씨를 두고 넌지시 꺼낸 말 때문이리라 생각하고 기뻐했다.

롱번 일행은 손님 가운데 가장 늦게 떠났다. 베넷 부인의 술책으로 다른 손님이 모두 떠난 뒤에도 15분이나 마차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 덕분에 그 집 식구 몇이 그들이 어서 가 주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바라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은 피곤하다는 불평 말고는 입도 거의 열지 않았고, 어서 자기들끼리 집을 차지하고 싶어 안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두 사람은 베넷 부인이 말을 붙이려 할 때마다 퇴짜를 놓았고, 그 바람에 일행 전체에 나른한 기운이 드리웠다. 콜린스 씨가 빙리 씨와 그 누이들에게 연회가 우아했다느니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후하고 정중했다느니 하며 긴 연설을 늘어놓았지만 그 나른함은 거의 가시지 않았다. 다아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베넷 씨도 똑같이 잠자코 그 광경을 즐겼다. 빙리 씨와 제인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함께 서서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엘리자베스는 허스트 부인이나 빙리 양 못지않게 꿋꿋이 침묵을 지켰다. 리디아조차

너무 지쳐서, 이따금 크게 하품을 하며 "세상에, 너무 피곤해!" 하고 소리치는 것 말고는 말이 없었다.

마침내 작별하려고 일어서자, 베넷 부인은 온 식구를 머잖아 롱번에서 다시 보기를 바란다며 더없이 간곡하게 예의를 차렸다. 특히 빙리 씨에게는, 정해진 초대 같은 격식 없이 언제든 와서 식구끼리 먹는 저녁을 함께해 주면 자기네가 얼마나 행복할지 모른다고 힘주어 말했다. 빙리는 고마움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내일 잠깐 런던에 다녀와야 하는데 돌아오는 대로 되도록 빨리 찾아가겠다고 선뜻 약속했다.

베넷 부인은 더없이 흡족했다. 혼인 계약이며 새 마차며 혼례복이며 꼭 필요한 준비를 감안하더라도 서너 달 안에는 틀림없이 딸이 네더필드에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즐거운 확신을 품고 그 집을 나섰다. 다른 딸 하나를 콜린스 씨에게 시집보내는 일도 그만큼 확실하다고 여겼고, 그만큼은 아니어도 꽤 기뻤다. 엘리자베스는 자식들 가운데 베넷 부인이 가장 덜 아끼는 아이였다. 그래서 그 남자도 그 혼처도 *엘리자베스에게는* 차고 넘쳤지만, 둘 다 빙리 씨와 네더필드에 가려 빛을 잃었다.

# 제19장

이튿날 롱번에서는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콜린스 씨가 격식을 갖춰 청혼을 했다. 휴가가 다음 토요일까지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해치우기로 마음먹었고, 막상 그 순간에도 스스로 괴로워할 만큼 수줍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므로, 이런 일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격식을 모두 갖추어 아주 질서 정연하게 일에 착수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베넷 부인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동생 하나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부인, 오늘 오전 중에 어여쁜 따님 엘리자베스 양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영광을 청하고자 하는데, 부인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도 되겠습니까?"

엘리자베스가 놀라서 얼굴을 붉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겨를이 없는 사이, 베넷 부인이 곧바로 대답했다.

"어머나! 그럼요, 물론이에요. 리지도 분명 무척 기뻐할 거예요. 마다할 리가 없지요. 키티, 이리 와. 위층에 같이 가자." 그러고는 바느질감을 주섬주섬 챙겨 서둘러 나가려는데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콜린스 씨도 양해해 주시겠지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면 남이 들어서 안 될 게 없을 거예요. 차라리 제가 나갈게요."

"안 돼, 안 돼, 무슨 소리야, 리지. 넌 거기 그대로 있어."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속상하고 난처한 얼굴로 정말 빠져나가려는 것 같자 베넷 부인은 덧붙였다. "리지, 넌 여기 남아서 콜린스 씨 말씀을 들어야 *해*."

엘리자베스는 그런 엄명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잠깐 생각해 보니 될 수 있는 한 빨리, 조용히 끝내 버리는 편이 가장 현명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엘리자베스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괴로움과 우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속을 감추려고 쉴 새 없이 손을 놀렸다. 베넷 부인과 키티가 나가자마자 콜린스 씨가 입을 열었다.

"엘리자베스 양, 엘리자베스 양의 그 겸손함은 결코 흠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여러 완벽한 점들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조금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다면* 제 눈에 덜 사랑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고난 조심성 때문에 모르는 척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의심하실 리는 없을 겁니다. 제 정성은 너무나 뚜렷해서 오해하실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곧바로 엘리자베스 양을 제 앞날의 반려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제 감정에 휩쓸려 버리기 전에, 제가 결혼하려는 까닭과, 더 나아가 아내를 고를 생각으로 하트퍼드셔에 온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온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 엄숙하고 침착한 콜린스 씨가 감정에 휩쓸린다는 생각에 엘리자베스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래서 그가 잠깐 말을 쉬는 틈을 타 더 말리려 해 볼 수가 없었고, 그는 말을 이었다.

"제가 결혼하려는 까닭은, 첫째로 (저처럼) 형편이 넉넉한 성직자라면 누구나 자기 교구에서 결혼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결혼이 제 행복을 크게 더해 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며, 셋째로, 이건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영광스럽게도 후원자라 부르는 더없이 고귀하신 부인께서 각별히 충고하고 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영부인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 두 번이나 굽어살피시어 의견을 주셨습니다(그것도 묻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헌스퍼드를 떠나기 전 토요일 밤, 카드리유 판 사이사이에 젠킨슨 부인이 드 버그 양의 발판을 고쳐 놓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콜린스 씨, 결혼하시오. 콜린스 씨 같은 성직자는 결혼을 해야 하오. 제대로 고르시오. *내* 체면을 봐서도, *콜린스 씨 자신*을 위해서도 숙녀를 고르시오. 부지런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하오. 높이 자라지는 않았어도 적은 수입으로 살림을 넉넉히 꾸려 갈 줄 아는 사람 말이오. 이것이 내 충고요. 되도록 빨리 그런 여자를 찾아 헌스퍼드로 데려오시오. 그러면 내가 찾아가 보겠소.' 그런데 어여쁜 사촌 아가씨, 내친김에 말씀드리자면,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께서 베푸시는 관심과 친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점들 가운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의 몸가짐은 제가 묘사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재치와 활달함은, 특히 영부인의 지위 앞에서 저절로 우러나올 침묵과 존경으로 누그러진다면, 영부인께서도 반기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려는 제 생각의 대강은 이쯤 해 두겠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제가 사는 고장에도 상냥한 젊은 여성이 많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데도 왜 하필 롱번으로 눈을 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는 존경하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물론 앞으로도 여러 해를 더 사실 수 있겠지만) 이 영지를 물려받게 되어 있으니, 그 슬픈 일이 닥칠 때 따님들이 입을 손해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려면 따님들 가운데서 아내를 고르기로 마음먹지 않고서는 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은 여러 해 뒤에나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여쁜 사촌 아가씨, 이것이 제 동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가씨가 저를 낮추 보시지는 않으리라 감히 자부합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일은, 제 애정이 얼마나 격렬한지 더없이 열띤 말로 장담하는 것뿐입니다. 재산이라면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며, 아가씨의 아버님께 그런 요구는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요구에 응하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아가씨가 받을 수 있는 몫이라고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뒤에야 아가씨 것이 될, 4퍼센트 공채[1]에 든 1,000파운드가 전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입을 다물겠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너그럽지 못한 핀잔은 결코 제 입에서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의 말을 끊어야 했다.

"너무 서두르십니다."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저는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잊으셨군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 대답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혼해 주신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로서는 거절하는 것 말고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란," 콜린스 씨가 격식을 차려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속으로는 받아들일 작정인 남자라도 처음 구애해 오면 거절하는 것이 보통이고, 때로는 두 번, 심지어 세 번까지 거절을 되풀이하기도 한다는 것을 저도 이제 와서 새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방금 하신 말씀에 저는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으며, 머지않아 아가씨를 제단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희망을 품으시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 번째 청혼을 받을 요행에 자기 행복을 걸 만큼 대담한 그런 젊은 아가씨들(그런 아가씨들이 정말 있다면 말이지만)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콜린스 씨는 *저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없고, *콜린스 씨를*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없는 여자가 세상에 있다면 그게 바로 저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콜린스 씨의 벗 캐서린 영부인께서 저를 아신다면, 제가 모든 면에서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캐서린 영부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는 게 확실하다면야…" 콜린스 씨가 몹시 엄숙하게 말했다. "그러나 영부인께서 아가씨를 조금이라도 못마땅해하시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부인을 뵙는 영광을 누릴 때, 아가씨의 겸손함과 알뜰함과 그 밖의 사랑스러운 자질을 더없이 높이 칭찬해 드리겠다는 것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콜린스 씨, 정말이지 저를 칭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 일은 제가 판단하게 해 주시고, 제 말을 믿어 주시는 것으로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콜린스 씨가 무척 행복하고 무척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혼을 거절함으로써, 그렇지 않게 되는 일을 막으려고 제 힘이 닿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저에게 청혼하심으로써 저희 집안을 생각하는 섬세한 마음은 다 채우셨을 테니, 롱번 영지가 넘어갈 때는 아무 자책 없이 차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엘리자베스는 일어섰고, 콜린스 씨가 이렇게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방을 나가 버렸을 터였다.

"다음번에 이 문제로 아가씨께 말씀드리는 영광을 누릴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대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가씨를 매정하다고 탓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처음 청혼을 받으면 남자를 거절하는 것이 여성들의 정해진 관습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어쩌면 아가씨는 지금도 여성다운 참된 섬세함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제 구애를 북돋우는 말씀을 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콜린스 씨, 정말이지," 엘리자베스가 다소 언성을 높였다.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콜린스 씨 귀에 격려로 들린다면, 그게 거절이라는 걸 믿게 해 드리려면 대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촌 아가씨, 제 구애를 거절하시는 것은 그저 으레 하는 말일 뿐이라고 자부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까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청혼이 아가씨가 받아들이시기에 부족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제가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살림도 더없이 바람직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 사회적 처지, 드 버그 집안과 저의 연줄, 그리고 아가씨 집안과 저의 친척 관계는 모두 저에게 크게 유리한 사정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헤아려 보셔야 할 것은, 아가씨에게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고는 하나 다른 청혼을 또 받으리라는 보장은 결코 없다는 점입니다. 불행히도 아가씨의 지참금은 너무 적어서, 아가씨의 사랑스러움과 상냥한 자질이 낼 효과를 십중팔구 다 지워 버릴 테니까요. 그러니 저는 아가씨가 진심으로 저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아한 여성들이 흔히 그러듯 애를 태워 제 사랑을 더 키우려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점잖은 남자를 괴롭히는 데서 나오는 그런 우아함 따위는 조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차라리 진심이라고 믿어 주시는 쪽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청혼해 주신 영광에는 몇 번이고 감사드리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 마음이 어느 모로 보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까? 이제 저를 콜린스 씨를 애태우려는 우아한 여성으로 여기지 마시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하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여겨 주십시오."

"아가씨는 언제나 한결같이 매력적이십니다!" 그가 어색하게 정중한 체하며 소리쳤다. "그리고 훌륭하신 부모님 두 분께서 분명하게 승낙해 주시기만 하면 제 청혼은 틀림없이 받아들여지리라 믿습니다."

제멋대로 자기를 속이며 이토록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에게 엘리자베스는 대답할 마음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말없이 물러났다. 그가 거듭된 거절을 끝내 기분 좋은 격려로 여긴다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리라 마음먹었다. 아버지라면 딱 잘라 거절하는 말을 해 줄 것이고, 적어도 아버지의 처신만큼은 우아한 여성의 내숭이나 교태로 오해받을 리 없었다.

---

1. 연 4퍼센트 이자가 붙는 영국 정부 공채. 1,000파운드면 1년 이자가 40파운드다.

# 제20장

콜린스 씨는 성공한 사랑을 말없이 음미할 겨를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현관 언저리를 서성거리던 베넷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문을 열고 나와 자기 곁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 층계 쪽으로 가는 것을 보자마자 아침 식사실로 들어가, 이제 더 가까운 인척이 되리라는 기쁜 전망을 두고 콜린스 씨와 자기 자신에게 뜨거운 축하를 퍼부었다. 콜린스 씨는 똑같이 기뻐하며 그 축하를 받고 또 되돌려 주었고, 이어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사촌 아가씨가 끝내 굽히지 않고 거절한 것도 수줍은 겸손과 참된 섬세함에서 저절로 우러나왔을 테니, 그 결과에는 만족할 까닭이 충분하다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이 소식에 베넷 부인은 깜짝 놀랐다. 딸이 그의 청혼을 마다한 것도 실은 그를 부추기려는 뜻이었다고 똑같이 흐뭇하게 믿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베넷 부인은 감히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콜린스 씨." 베넷 부인이 덧붙였다. "리지는 꼭 정신을 차리게 만들 테니까요. 지금 당장 제가 직접 타이를게요. 아주 고집 세고 어리석은 애라 제 이익이 뭔지도 모르지만, 제가 꼭 *알게* 만들겠어요."

"부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콜린스 씨가 소리쳤다. "아가씨가 정말로 고집 세고 어리석다면, 당연히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저 같은 처지의 남자에게 과연 썩 바람직한 아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가씨가 정말로 끝내 제 구애를 물리친다면, 그런 성미의 결점이 있는 사람은 제 행복에 그다지 이바지하지 못할 테니 억지로 저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말을 아주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베넷 부인이 깜짝 놀라 말했다. "리지가 고집이 센 건 이런 일에서뿐이에요. 다른 일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애예요. 당장 남편한테 가 볼게요. 그 애하고는 금방 결판을 낼 거예요, 틀림없어요."

베넷 부인은 그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 서재에 들어서며 소리쳤다.

"아, 여보, 당장 좀 와 봐요. 집안이 온통 난리예요. 리지가 콜린스 씨하고는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고 버티니 당신이 와서 결혼하라고 해야겠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콜린스 씨가 마음을 바꿔서 *그 애*를 마다할 거예요."

아내가 들어서자 베넷 씨는 책에서 눈을 들어 아내의 얼굴을 차분하고 무심하게 바라보았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 무심한 표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구려." 아내가 말을 마치자 베넷 씨가 말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콜린스 씨하고 리지 얘기요. 리지는 콜린스 씨하고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콜린스 씨는 리지를 마다하겠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내가 뭘 하면 되겠소? 가망 없는 일 같은데."

"당신이 직접 리지한테 말해요. 콜린스 씨하고 꼭 결혼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 애를 불러 내리시오. 내 생각을 들려주겠소."

베넷 부인이 종을 울렸고, 엘리자베스 양이 서재로 불려 왔다.

"이리 오너라, 얘야." 엘리자베스가 나타나자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불렀다. 콜린스 씨가 너한테 청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엘리자베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좋다. 그런데 너는 그 청혼을 거절했고?"

"네, 아버지."

"좋다. 이제 요점에 이르렀구나. 네 어머니는 네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렇지 않소, 부인?"

"그래요. 안 그러면 다시는 그 애 얼굴 안 볼 거예요."

"엘리자베스, 불행한 갈림길이 네 앞에 놓였구나. 오늘부터 너는 부모 가운데 한쪽과는 남남이 되어야 한다.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네 어머니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거고, 결혼*하면*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거다."

그런 시작에 그런 결말이 나오자 엘리자베스는 웃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남편이 이 일을 자기 바람대로 생각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던 베넷 부인은 몹시 실망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애가 콜린스 씨하고 결혼하도록 *꼭* 말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부인," 남편이 대답했다. "작은 부탁이 두 가지 있소. 첫째, 이번 일에서 내 분별을 내 마음대로 쓰게 해 주시오. 둘째, 내 방도 내 마음대로 쓰게 해 주시오. 되도록 빨리 서재를 혼자 차지하고 싶구려."

그러나 남편에게 실망했으면서도 베넷 부인은 아직 뜻을 굽히지 않고, 엘리자베스에게 몇 번이고 다시 말을 걸며 달래다가 을러대다가 했다. 제인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도 해 보았지만, 제인은 더없이 부드럽게 끼어들기를 사양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공세에 때로는

정말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고 쾌활하게 맞받았다. 그러나 대하는 태도는 바뀌어도 결심만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사이 콜린스 씨는 혼자서 지난 일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다. 자기를 너무 높이 치는 사람이라, 사촌 아가씨가 무슨 동기로 자기를 거절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 밖에는 아무 데도 괴로운 데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를 향한 그의 마음은 순전히 상상 속의 것이었다. 게다가 엘리자베스가 어머니의 꾸지람대로 정말 고집 세고 어리석은 아가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아쉬운 마음조차 조금도 들지 않았다.

식구들이 이렇게 어수선한 판에 샬럿 루커스가 하루를 함께 보내러 찾아왔다. 현관에서 샬럿을 맞은 것은 리디아였다. 리디아는 샬럿에게 쪼르르 달려가 반쯤 속삭이는 소리로 외쳤다. "와 줘서 다행이에요, 여기 지금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콜린스 씨가 리지 언니한테 청혼했는데, 언니가 싫대요."

샬럿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키티가 같은 소식을 전하러 와서 끼어들었다. 그리고 베넷 부인 혼자 있는 아침 식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베넷 부인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꺼내더니, 루커스 양에게 자기를 좀 가엾게 여겨 달라고 하소연하며, 친구 리지가 식구들의 바람을 따르도록 설득해 달라고 애원했다. "제발 그래 다오, 샬럿." 베넷 부인이 처량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아무도 나를 거들어 주지 않아. 다들 나를 모질게 대하고, 아무도 불쌍한 내 신경은 생각해 주지 않아."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샬럿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었다.

"아, 저기 오는구나." 베넷 부인이 말을 이었다. "더없이 태평한 얼굴로, 제 고집만 부릴 수 있으면 우리가 요크에 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사정은 눈곱만큼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야. 하지만 똑똑히 들어 둬라, 리지 아가씨. 이렇게 청혼이 들어오는 족족 거절할 작정이라면 넌 평생 남편 같은 건 못 얻을 거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널 먹여 살릴지 난 정말 모르겠다. *나는* 널 먹여 살릴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미리 경고해 두는 거다. 오늘부터 너하고는 끝이야. 서재에서 다시는 너하고 말 안 한다고 했지. 내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말 안 듣는 자식들하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즐겁지 않아. 사실 누구하고든 얘기하는 게 그리 즐거운 것도 아니지만. 나처럼 신경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말할 마음이 별로 안 나는 법이야.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늘 이렇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가엾게 여겨 주지 않는다니까."

따지거나 달래려 들면 화만 더 돋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딸들은 어머니가 쏟아 내는 이 말을 잠자코 들었다. 그래서 베넷 부인은 누구에게도 가로막히지 않고 말을 이어 가다가, 콜린스 씨가 여느 때보다 더 위엄을 부리며 들어오자 그를 보고 딸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너희는 모두 입을 다물고 콜린스 씨하고 나하고 이야기 좀 나누게 해 다오. 꼭 그래야 해."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자 제인과 키티도 뒤따랐다. 그러나 리디아는 하나라도 더 들을 작정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샬럿은 처음에는 자기 안부며 식구 하나하나의 안부까지 시시콜콜 묻는 콜린스 씨의 정중함에 붙들렸고, 다음에는 약간의 호기심에 붙들려, 창가로 걸어가 못 들은 척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베넷 부인은 처량한 목소리로 별러 온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다.

"아, 콜린스 씨!"

"부인," 그가 대답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영원히 입을 다물기로 하십시다." 그러고는 곧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따님의 처사를 원망하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체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저처럼 일찍이 성직 임용의 행운을 누린 젊은이에게는 더욱 각별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체념했다고 믿습니다. 어여쁜 사촌 아가씨께서 제게 손을 허락해 주셨더라도 제가 확실히 행복했을지 의문이 드는 만큼, 체념이 한결 수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절당한 축복이 우리 눈에 얼마간 값어치를 잃기 시작할 때만큼 체념이 완벽해지는 때도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아 왔으니까요. 부인, 이렇게 따님의 호의를 구하던 뜻을 거두면서 저를 위해 권위를 행사해 주십사 부인과 베넷 씨께 청하는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댁의 가족을 조금이라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부인의 입이 아니라 따님의 입에서 거절을 받아들인 제 처신에 흠잡힐 데가 있을까 걱정입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이 일 내내 제 뜻만은 분명히 선했습니다. 제 목적은 댁의 온 가족이 누릴 이익까지 마땅히 헤아리면서 제 곁에 둘 상냥한 반려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제 *태도*에 조금이라도 나무랄 데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삼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제21장

콜린스 씨의 청혼을 두고 오가던 이야기도 이제 거의 끝나 가서, 엘리자베스는 그런 일에 으레 따르는 거북한 기분과 이따금 어머니가 툭툭 던지는 짜증 섞인 빈정거림만 견디면 되었다. 당사자인 신사는 어땠는가 하면, *그의* 감정은 당황하거나 풀이 죽거나 엘리자베스를 피하려 애쓰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뻣뻣한 태도와 원망 어린 침묵으로 드러났다.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스스로도 그토록 뿌듯해하던 극진한 관심을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루커스 양에게 옮겨 갔는데, 루커스 양이 예의 바르게 그 말을 들어 준 덕분에 모두가 때맞춰 한숨 돌렸고 그 친구인 엘리자베스는 누구보다 그랬다.

이튿날이 되어도 베넷 부인의 언짢은 기분과 나빠진 몸 상태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콜린스 씨도 자존심이 상해 성난 기색 그대로였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가 분한 마음에 방문을 일찍 끝내기를 바랐지만, 그의 계획은 그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았다. 처음부터 토요일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으니, 여전히 토요일까지는 머물 작정이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아가씨들은 위컴 씨가 돌아왔는지 알아보고 그가 네더필드 무도회에 오지 못한 것을 함께 아쉬워하려고 메리턴까지 걸어갔다. 위컴 씨는 아가씨들이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다가와 이모네 집까지 따라갔고, 거기서 다들 그의 아쉬움과 속상함을, 그리고 저마다의 걱정을 실컷 이야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에게만은 그

자리에 빠진 것이 *정말로* 스스로 택한 일이었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털어놓았다.

"날이 다가올수록," 위컴 씨가 말했다. "다아시 씨와는 마주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여러 시간 내리 같은 방, 같은 모임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제가 견디기 힘들지도 모르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쾌하게 만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자제심을 크게 칭찬했다. 위컴과 다른 장교 한 사람이 롱번까지 일행을 바래다주며 걷는 동안 두 사람은 그 일을 두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정중하게 칭찬을 주고받을 여유가 있었고, 걷는 내내 위컴은 특히 엘리자베스에게 마음을 썼다. 위컴이 따라와 준 것은 두 겹으로 좋은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자기에게 바치는 경의라는 것을 고스란히 느꼈고, 또 그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소개할 기회로도 더없이 반가웠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베넷 양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다. 네더필드에서 온 편지여서 베넷 양은 곧바로 뜯었다. 봉투 안에는 작고 우아한, 매끈하게 다림질한 고급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고, 숙녀다운 곱고 유려한 글씨가 종이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는 언니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그리고 언니가 몇몇 대목에 유난히 오래 눈길을 멈추는 것을 보았다. 제인은 곧 마음을 가다듬고 편지를 치운 뒤 여느 때처럼 쾌활하게 다들 나누는 이야기에 끼려고 애썼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일이 마음에 걸려 위컴에게서조차 정신이 떠났고, 위컴과 그 동행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자마자 따라오라는 제인의 눈짓을 받고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다. 둘이 쓰는 방에 들어서자 제인이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캐럴라인 빙리한테서 온 거야. 읽고 꽤 놀랐어. 지금쯤이면 일행이 다 네더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가는 길이래. 다시 돌아올 생각도 없고. 뭐라고 썼는지 들어 봐."

제인은 먼저 첫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다. 오빠를 따라 곧장 런던으로 가기로 방금 정했고, 그날 저녁은 허스트 씨의 집이 있는 그로브너 거리에서 먹을 생각이라는 내용이었다. 다음 문장은 이랬다. "하트퍼드셔를 떠나면서 아쉬운 것은 사랑하는 벗, 당신과 함께한 시간뿐이에요. 다른 건 아쉬운 척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누려 온 그 즐거운 사귐을 몇 번이고 다시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그동안은 아주 자주,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헤어지는 아픔을 덜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은 당신만 믿을게요." 엘리자베스는 이 거창한 말들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덤덤하게 들었다. 일행이 갑자기 떠난 것은 놀라웠지만 정말로 슬퍼할 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누이들이 네더필드에 없다고 해서 빙리 씨까지 거기 오지 않으리라고 볼 까닭은 없었고, 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된 아쉬움이라면 제인이 빙리 씨와 어울리는 즐거움을 누리다 보면 곧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리라고 엘리자베스는 굳게 믿었다.

"친구들이 이 고장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다니 아쉽네." 잠시 말이 없다가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래도 빙리 양이 고대하는 앞날의 행복이 빙리 양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기를, 친구로서 누려 온 그 즐거운 사귐이 시누이와 올케로 더 흐뭇하게 이어지기를 바라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빙리 씨가 누이들 때문에 런던에 붙들려 있지는 않을 거야."

"캐럴라인은 이번 겨울에는 일행 가운데 아무도 하트퍼드셔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어. 읽어 줄게."

"'어제 오빠가 우리 곁을 떠날 때는 런던에 간 볼일이 사나흘이면 끝나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오빠가 일단 런던에 가면 서둘러 떠날 리 없다는 것도 확신하기 때문에, 오빠가 쓸쓸한 호텔에서 빈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게

뒤따라가기로 했어요. 아는 사람들도 벌써 많이들 겨울을 나러 그곳에 가 있어요. 사랑하는 벗, 당신도 그 북적이는 무리에 한 사람 보태러 올 생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건 바랄 수 없겠지요. 하트퍼드셔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그 계절이 으레 가져다주는 즐거움으로 넘치기를, 그리고 따르는 신사들이 아주 많아서 우리가 데려가는 세 사람이 없어도 허전함을 느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걸 보면 분명해." 제인이 덧붙였다. "빙리 씨는 이번 겨울에 다시 오지 않는 거야."

"분명한 건 빙리 양이 빙리 씨를 다시 오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니? 틀림없이 빙리 씨 자신이 그렇게 정했을 거야. 누구 말에 매일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넌 아직 *다* 듣지 못했어. 나를 특히 아프게 한 대목을 *꼭* 읽어 줄게. *너한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야. '다아시 씨는 누이동생을 몹시 보고 싶어 해요.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그 아가씨를 다시 만나고 싶고요. 아름다움으로도 우아함으로도 교양으로도 조지애나 다아시만 한 아가씨는 정말 없을 거예요. 그 아가씨가 언니와 제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애정은, 언젠가 그 아가씨가 우리 올케가 되리라는 희망을 감히 품게 되면서 한층 더 각별해졌어요. 이 일을 두고 제가 어떤 마음인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털어놓지 않고는 이 고장을 떠나지 않을래요. 무리한 바람이라고 여기지는 않으리라 믿어요. 오빠는 벌써 그 아가씨를 무척 좋아하고, 이제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그 아가씨를 자주 볼 기회도 생길 거예요. 그 아가씨 쪽 친척들도 다 오빠 쪽 식구들 못지않게 이 혼인을 바라고 있고요. 오빠야말로 어떤 여자의 마음이라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누이의 편애로 눈이 흐려져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정이 싹트기에 좋은 사정은 다 갖춰져 있고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제인, 그렇게 많은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줄 일을 바라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그 대목을 다 읽고 나서 제인이 말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해, 리지? 이만하면 분명하지 않니? 캐럴라인은 내가 자기 올케가 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고, 자기 오빠가 나한테 아무 마음이 없다고 굳게 믿는다고, 혹시라도 내가 빙리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한다면 (정말 친절하게도!) 나더러 조심하라고 일러 주려는 거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잖아? 이 일을 달리 볼 수가 있을까?"

"있지.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 들어 볼래?"

"얼마든지."

"몇 마디면 돼. 빙리 양은 빙리 씨가 언니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 빙리 씨를 다아시 양하고 결혼시키고 싶은 거야. 빙리 씨를 런던에 붙잡아 둘 생각으로 뒤따라가서는, 빙리 씨가 언니한테 마음이 없다고 언니를 설득하려는 거고."

제인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야, 언니, 내 말을 믿어야 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빙리 씨의 애정을 의심할 수가 없어. 빙리 양도 틀림없이 의심 못 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아니니까. 다아시 씨가 자기를 그 절반만큼이라도 사랑하는 걸 봤다면 빙리 양은 벌써 혼례복을 맞췄을걸. 하지만 사정은 이래.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걸맞을 만큼 부자도 아니고 대단하지도 않아. 그래서 빙리 양은 다아시 양을 자기 오빠 짝으로 데려오는 데 더 애가 타는 거야. 두 집안 사이에 혼인이 *한 번* 맺어지고 나면 두 번째는 덜 애쓰고도 이룰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말이야. 꽤 꾀를 낸 셈이긴 하고, 드 버그 양만 없다면 아마 잘될 거야. 하지만 언니, 빙리 양이 자기 오빠가 다아시 양을 무척 좋아한다고 써 보냈다고 해서, 빙리 씨가 화요일에 언니와 작별할 때보다 *언니의*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덜 알아보게 됐다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 빙리 양이 빙리 씨를 구슬려서 사실은 언니가 아니라 자기 친구를 몹시 사랑하는 거라고 믿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빙리 양을 똑같이 본다면," 제인이 대답했다. "네가 이 일을 그렇게 풀어 주니 마음이 아주 편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바탕부터가 부당하다는 걸 난 알아. 캐럴라인은 일부러 남을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번 일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건 캐럴라인 자신이 잘못 알고 있으리라는 것뿐이야."

"그거 좋네. 내 생각으로는 위로를 얻지 않겠다니,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생각은 떠올릴 수 없었을 거야. 그래, 꼭 빙리 양이 잘못 알고 있다고 믿어. 이제 빙리 양한테 할 도리는 다 했으니 더는 애태우지 마."

"하지만 리지,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해도, 누이들이며 친구들이 다들 다른 데로 장가가기를 바라는 남자를 받아들이고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건 언니가 정할 일이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곰곰이 따져 보고 나서, 누이 둘의 비위를 거스르는 괴로움이 그 사람 아내가 되는 행복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꼭 그 사람을 거절하라고 권하겠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제인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이들이 반대하면 몹시 마음 아프겠지만 그래도 내가 망설이지 않으리라는 건 너도 알 텐데."

"망설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 그렇다면 언니 처지를 그리 딱하게 여길 수가 없네."

"하지만 빙리 씨가 이번 겨울에 다시 오지 않는다면 내가 고를 일도 영영 없겠지. 여섯 달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

빙리 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엘리자베스는 더없이 하찮게 여겼다. 그것은 제 잇속을 챙기려는 캐럴라인의 바람이 내비친 말일 뿐이었고, 캐럴라인이 그 바람을 아무리 드러내 놓고 말하든 교묘하게 돌려 말하든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젊은 남자를 그것으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는 한순간도 생각할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이 일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언니에게 힘껏 설명했고, 곧 그 말이 효과를 내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제인은 쉽게 낙담하는 성품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드는 자신 없음이 이따금 희망을 누르기도 했지만, 빙리가 네더필드로 돌아와 마음속 바람을 하나하나 다 채워 주리라는 희망을 차츰 품게 되었다.

자매는 베넷 부인에게는 그 신사의 행동을 두고 걱정할 만한 이야기는 빼고 그 일행이 떠났다는 것만 알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일부만 전했는데도 베넷 부인은 몹시 걱정했고, 다들 그렇게 가까워지던 참에 하필 숙녀들이 떠나 버리다니 너무나 운이 나쁘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한참을 그렇게 슬퍼한 끝에 빙리 씨가 곧 다시 내려와 머잖아 롱번에서 저녁을 먹으리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식구끼리 먹는 저녁에 초대했을 뿐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상을 제대로 차려 내겠다는 흡족한 다짐으로 끝났다.

# 제22장

베넷 집안 식구들은 루커스 집안에 저녁 초대를 받아 두었고, 이번에도 루커스 양은 하루의 대부분을 콜린스 씨의 말을 들어 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엘리자베스는 틈을 보아 고맙다고 말했다. "덕분에 그 사람 기분이 좋아."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말로 다 못 할 만큼 고마워."

샬럿은 쓸모가 있어 기쁘고, 시간을 조금 내준 것쯤은 그 기쁨으로 넉넉히 보상받았다고 친구를 안심시켰다. 참으로 상냥한 일이었다. 그러나 샬럿의 친절은 엘리자베스가 짐작조차 못 한 데까지 뻗어 있었다. 샬럿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니라, 콜린스 씨의 구애를 자기 쪽으로 끌어와 엘리자베스가 다시는 그 구애를 받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 루커스 양의 계획은 그러했고, 형세가 워낙 좋아서 그날 밤 헤어질 때는 콜린스 씨가 그렇게 곧 하트퍼드셔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성공을 거의 확신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 점에서 샬럿은 그의 성품에 깃든 열정과 독립심을 얕보았다. 바로 그 성품 덕분에 콜린스 씨는 이튿날 아침 감탄할 만큼 교묘하게 롱번 저택을 빠져나와 루커스 로지로 달려가서 샬럿의 발아래 몸을 던졌다. 콜린스 씨는 사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다. 자기가 나가는 것을 보면 사촌들이 틀림없이 속셈을 짐작하리라고 확신했고, 성공했다는 것까지 함께 알릴 수 있을 때가 아니면 시도했다는 것조차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샬럿이 제법 북돋아 주었으니 거의 안심해도 될 만했고 실제로 그럴 까닭도 있었지만, 수요일의 그 모험 이후로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얼마쯤 줄어

있었다. 그러나 그를 맞아 준 반응은 더없이 흐뭇했다. 루커스 양은 집 쪽으로 걸어오는 콜린스 씨를 위층 창문으로 보고는 곧장 나가 오솔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토록 많은 사랑과 웅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감히 바라지도 못했다.

콜린스 씨의 긴 연설이 허락하는 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이 양쪽 다 흡족하게 정해졌다. 집으로 들어서면서 콜린스 씨는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줄 날을 정해 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그런 청은 당장은 미뤄 둘 수밖에 없었지만, 숙녀는 그의 행복을 가지고 장난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타고나기를 넉넉히 받은 어리석음 덕분에 그의 구애에는 여자가 그것이 더 오래 이어지기를 바랄 만한 매력이 끼어들 틈이 없었을 테고, 오로지 살림을 차려 자리 잡고 싶다는 순수하고 사심 없는 바람 하나로 그를 받아들인 루커스 양으로서는 그 자리를 아무리 빨리 얻어도 상관없었다.

윌리엄 경과 루커스 부인에게 곧바로 승낙을 구했고, 두 사람은 더없이 기쁘게 선뜻 승낙했다. 콜린스 씨의 지금 처지로 보아 물려줄 재산이 얼마 없는 딸에게는 아주 바람직한 혼처였고, 앞으로 부자가 될 전망도 무척 밝았다. 루커스 부인은 곧장, 이제껏 그 문제에 품어 본 적 없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베넷 씨가 앞으로 몇 해나 더 살 것 같은지 셈하기 시작했다. 윌리엄 경은 콜린스 씨가 롱번 영지를 손에 넣는 날이 오면 부부가 함께 세인트제임스 궁에 나아가 얼굴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겠다고 단호하게 의견을 밝혔다. 한마디로 온 가족이 이 일을 마땅히 크게 기뻐했다. 아래 딸들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한두 해 일찍 *사교계에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고, 아들들은 샬럿이 노처녀로 죽으면 어쩌나 하던 걱정을 덜었다. 샬럿 자신은 제법 차분했다. 바라던 것을 얻었고, 그것을 곰곰이 따져 볼 시간도 있었다. 따져 본 결과는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콜린스 씨가 분별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호감이

가는 사람도 아닌 것은 사실이었다. 함께 있으면 따분했고, 자기를 향한 애정이라는 것도 상상 속에나 있을 게 뻔했다. 그래도 그는 남편이 될 사람이었다. 남자도 결혼도 대단하게 여긴 적은 없었지만 결혼은 언제나 샬럿의 목표였다. 교육은 잘 받았으되 재산은 적은 젊은 여자에게 결혼은 명예롭게 생계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었고, 행복을 가져다줄지는 알 수 없어도 가난을 막아 주는 방패로는 가장 기분 좋은 것임에 틀림없었다. 샬럿은 이제 그 방패를 손에 넣었다. 스물일곱 살에, 한 번도 아름다웠던 적이 없는 몸으로 그것을 얻었으니 샬럿은 그 행운을 절절히 느꼈다. 이 일에서 가장 달갑지 않은 것은 엘리자베스 베넷이 틀림없이 받을 충격이었다. 샬럿은 그 누구의 우정보다 엘리자베스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다. 엘리자베스는 놀랄 테고 아마 자기를 나무랄 터였다. 결심이야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런 못마땅한 눈길을 받으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었다. 샬럿은 그 소식을 직접 전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래서 롱번으로 저녁을 먹으러 돌아가는 콜린스 씨에게 식구들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도 내비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야 당연히 아주 충실하게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다. 그가 오래 자리를 비운 탓에 호기심이 동한 식구들이 돌아온 그에게 워낙 대놓고 질문을 퍼부어서 피해 가려면 꽤 재주를 부려야 했고, 그와 동시에 성공한 사랑을 널리 알리고 싶어 몸이 달아 있었으니 대단한 자제력까지 발휘해야 했다.

콜린스 씨는 다음 날 너무 일찍 길을 떠나야 해서 식구들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터라, 숙녀들이 잠자리에 들려고 일어설 때 작별 의식을 치렀다. 베넷 부인은 무척 정중하고 다정하게, 다른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언제든 롱번을 다시 찾아 준다면 다들 무척 반가울 거라고 말했다.

"부인," 콜린스 씨가 대답했다. "이 초대는 각별히 기쁩니다. 바로 제가 받기를 바라고 있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 초대에 응하리라는 것은 틀림없이 믿으셔도 좋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다. 그렇게 빨리 돌아오기를 바랄 리 없는 베넷 씨가 곧바로 말했다.

"하지만 여기 오면 캐서린 영부인께서 언짢아하실 위험은 없겠나, 여보게? 친척을 소홀히 하는 편이 후원자의 비위를 거스를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는 나을 걸세."

"어르신," 콜린스 씨가 대답했다. "이렇게 다정하게 주의를 주시니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영부인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는 한 그런 중대한 걸음은 결코 내딛지 않을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네. 무엇을 무릅쓰든 영부인의 노여움만은 사지 말게. 자네가 우리 집에 다시 오는 것 때문에 노여움을 사게 될 것 같거든, 내 생각엔 그럴 공산이 아주 크네만, 집에 얌전히 있게. *우리*는 조금도 언짢아하지 않을 테니 그리 알고 마음 놓게나."

"어르신, 이렇게 다정하게 마음 써 주시니 고마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 일은 물론이고 제가 하트퍼드셔에 머무는 동안 베풀어 주신 온갖 호의에 대해 곧 감사 편지를 받으시게 될 테니 믿어 주십시오. 어여쁜 사촌 아가씨들께는, 제가 떠나 있는 동안이 그럴 필요가 있을 만큼 길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건강과 행복을 빌어 드리겠습니다. 사촌 엘리자베스 양도 빼놓지 않고 말입니다."

숙녀들은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물러났다. 다들 콜린스 씨가 곧 돌아올 궁리를 하고 있다는 데 똑같이 놀랐다. 베넷 부인은 그가 아래 딸 가운데 하나에게 구애할 생각이라고 여기고 싶었고, 메리라면 설득하면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메리는 다른 누구보다 콜린스 씨의 재능을 훨씬 높이 샀다. 메리가 보기에 그의 생각에는 자주 감탄하게 되는 묵직함이

있었고, 자기만큼 영리하지는 결코 못해도 자기 같은 본보기를 보며 책을 읽고 스스로를 갈고닦도록 격려를 받는다면 아주 호감 가는 반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그런 희망은 모두 사라졌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곧 루커스 양이 찾아와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이야기하면서 전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콜린스 씨가 자기 친구를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난 하루 이틀 사이에 엘리자베스의 머리를 한 번 스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샬럿이 그를 북돋아 준다는 것은 엘리자베스 자신이 그러는 것만큼이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처음에는 예의의 선을 넘어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다.

"콜린스 씨하고 약혼했다고! 샬럿, 말도 안 돼!"

이야기하는 동안 굳게 지키던 루커스 양의 침착한 얼굴이 이렇게 대놓고 나무라는 말을 듣자 잠깐 흐트러졌다. 그러나 예상했던 반응일 뿐이어서 곧 평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왜 그렇게 놀라, 일라이저? 콜린스 씨가 너한테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여자의 호감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제 정신을 차렸고, 애써 마음을 다잡은 끝에 제법 단호하게, 샬럿과 인척이 된다니 무척 기쁘다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었다.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샬럿이 대답했다. "놀랐겠지, 아주 많이 놀랐을 거야. 바로 얼마 전까지 콜린스 씨가 너와 결혼하고 싶어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을 두고 다 생각해 보고 나면 내가 한 일에 만족하게 되기를 바라. 너도 알다시피 난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내가 바라는 건 편안한 집 하나뿐이야. 콜린스 씨의 사람됨과 집안, 세상에서 차지한 자리를 따져 보면, 그 사람과

살면서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결혼하는 사람 대부분이 내세울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확신해."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그야 그렇겠지."라고 대답했다. 어색하게 말이 끊겼다가 두 사람은 다른 식구들에게로 돌아갔다. 샬럿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혼자 남아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겼다. 그토록 어울리지 않는 혼인이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붙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콜린스 씨가 사흘 사이에 두 번 청혼했다는 기이함도 이번에 그 청혼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혼에 대한 샬럿의 생각이 자기와 꼭 같지는 않다고 늘 느껴 오긴 했지만, 막상 행동할 때가 오면 샬럿이 세속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감정을 모두 희생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콜린스 씨의 아내 샬럿이라니, 더없이 굴욕스러운 그림이었다! 친구가 스스로 체면을 떨어뜨려 자기 눈에서 낮아졌다는 쓰라림에, 그 친구가 스스로 고른 운명 속에서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 수는 없으리라는 괴로운 확신까지 더해졌다.

# 제23장

엘리자베스가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앉아 들은 이야기를 되새기며 그 일을 입 밖에 내도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윌리엄 루커스 경이 몸소 나타났다. 딸의 부탁으로 약혼 소식을 이 집안에 알리러 온 길이었다. 윌리엄 경은 식구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잔뜩 늘어놓고 두 집안이 인척이 된다는 전망에 스스로 무척 흐뭇해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놓았는데, 듣는 쪽은 그저 놀라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믿지 않았다. 베넷 부인은 예의보다 고집을 앞세워 무언가 단단히 잘못 안 거라고 우겼고, 늘 조심성 없고 자주 버릇없는 리디아는 시끄럽게 소리쳤다.

"어머, 세상에! 윌리엄 경,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콜린스 씨가 리지 언니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거 모르세요?"

궁정 신하쯤 되는 넉살이 아니고서는 이런 대접을 받고 화를 내지 않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 경은 몸에 밴 예절 덕분에 끝까지 잘 견뎌 냈다. 자기가 전한 소식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양해를 구해 가며 못 박기는 했지만, 그 모든 무례한 말을 더없이 너그럽고 정중하게 들어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윌리엄 경을 이 불편한 처지에서 구해 주는 것이 자기 몫이라고 느끼고, 이제 나서서 샬럿에게 직접 미리 들었다며 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탄성을 멈추려고, 윌리엄 경에게 진심을 담아 축하 인사를 건네고 (제인도 선뜻 거들었다) 이 혼인에서 기대할 수 있는 행복이며 콜린스 씨의 훌륭한 사람됨,

헌스퍼드가 런던에서 알맞게 가깝다는 점까지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다.

사실 베넷 부인은 너무 기가 질려서 윌리엄 경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다 할 말을 별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윌리엄 경이 떠나자마자 감정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첫째, 이 일을 통째로 믿지 않겠다고 버텼다. 둘째, 콜린스 씨가 속아 넘어간 게 틀림없다고 했다. 셋째, 두 사람은 결코 함께 행복하지 못하리라고 믿었다. 넷째, 혼약이 깨질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두 가지 결론이 뚜렷하게 나왔다. 하나는 엘리자베스가 이 모든 말썽의 진짜 원인이라는 결론, 또 하나는 자기가 그들 모두에게 야만스러운 대접을 받았다는 결론이었다. 베넷 부인은 그날 남은 시간 내내 주로 이 두 가지를 곱씹었다.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었고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었다. 그날 하루가 다 가도록 원망은 닳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를 보고도 꾸짖지 않게 되기까지 한 주가 걸렸고, 윌리엄 경이나 루커스 부인에게 무례하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한 달이 흘렀으며, 그 집 딸을 조금이라도 용서하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렸다.

베넷 씨는 이 일에 훨씬 담담했고, 그나마 느낀 감정은 더없이 유쾌한 종류라고 했다. 그동안 꽤 분별 있다고 여겨 온 샬럿 루커스가 자기 아내만큼 어리석고 자기 딸보다는 더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니 흐뭇하다는 말이었다!

제인은 이 혼인에 조금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놀랐다는 말보다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을 더 많이 했고, 엘리자베스가 아무리 말해도 그 혼인이 잘될 리 없다고 여기지 않았다. 키티와 리디아는 루커스 양을 부러워하기는커녕, 콜린스 씨가 고작 성직자일 뿐이어서 이 일을 메리턴에 퍼뜨릴 소식거리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루커스 부인은 딸을 좋은 데 시집보냈다는 위안을 이번에는 베넷 부인에게 되갚아 줄 수 있게 되자 승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베넷 부인의 시큰둥한 얼굴과 심술궂은 말이 행복마저 쫓아낼 만했는데도, 얼마나 행복한지 말하려고 여느 때보다 자주 롱번을 찾아왔다.

엘리자베스와 샬럿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낌이 생겨 두 사람 다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고, 엘리자베스는 둘 사이에 다시는 진정한 믿음이 오갈 수 없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샬럿에게 실망한 엘리자베스는 더 애틋한 마음으로 언니에게 눈을 돌렸다. 언니의 올곧음과 섬세함만은 자기가 결코 의심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고, 언니의 행복을 위해 날마다 더 마음을 졸였는데, 빙리가 떠난 지 벌써 한 주가 지나도록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혀 없었다.

제인은 캐럴라인의 편지에 일찌감치 답장을 보내 놓고, 다시 소식을 기대해도 될 만한 날까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콜린스 씨가 약속한 감사 편지는 화요일에 아버지 앞으로 왔는데, 그 집에 열두 달은 머문 사람이나 보일 법한 엄숙한 감사로 가득했다. 그 점에서 양심의 짐을 벗고 나자 콜린스 씨는 황홀한 표현을 잔뜩 늘어놓으며 그들의 상냥한 이웃 루커스 양의 애정을 얻은 행복을 알렸고, 롱번에서 다시 보자는 친절한 바람에 그토록 선뜻 응한 것도 순전히 루커스 양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였다고 밝혔다. 롱번에는 2주 뒤 월요일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캐서린 영부인이 그의 결혼을 진심으로 찬성하여 되도록 빨리 식을 올리기를 바란다니, 상냥한 샬럿도 그 말 앞에서는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줄 날을 서둘러 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리라 믿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콜린스 씨가 하트퍼드셔로 돌아오는 것은 베넷 부인에게 더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편 못지않게 불평을 늘어놓고 싶어졌다.

루커스 로지가 아니라 롱번으로 온다니 참 이상한 일이었다. 게다가 아주 불편하고 몹시 성가신 일이기도 했다. 몸도 이렇게 시원찮은데 집에 손님을 들이는 건 질색이었고, 세상 사람 가운데 연인들만큼 밉살스러운 것도 없었다. 베넷 부인의 점잖은 투덜거림은 이러했고, 그 투덜거림이 멎는 것은 빙리 씨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더 큰 근심에 밀려날 때뿐이었다.

제인도 엘리자베스도 이 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나도 빙리 씨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고,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그가 겨울 내내 네더필드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얼마 안 가 메리턴에 쫙 퍼진 소문뿐이었다. 베넷 부인은 그 소문에 몹시 화를 냈고, 들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엘리자베스마저 걱정하기 시작했다. 빙리가 무심해서가 아니라, 누이들이 그를 붙잡아 두는 데 성공할까 봐서였다. 제인의 행복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제인의 연인이 한결같지 못하다고 욕보이는 생각이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그 생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인정머리 없는 두 누이와 남을 휘어잡는 친구가 힘을 합치고 거기에 다아시 양의 매력과 런던의 즐거움까지 거든다면, 빙리의 애정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겨 내기에 힘이 부칠지도 모른다고 엘리자베스는 두려워했다.

제인은 어땠는가 하면,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제인의* 불안은 당연히 엘리자베스의 불안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무엇을 느끼든 제인은 감추고 싶어 했고, 그래서 엘리자베스와 둘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는 한 번도 입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섬세함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았으므로, 빙리 이야기를 하거나 어서 오기를 바란다고 안달하거나, 심지어 빙리 씨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아주 몹쓸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겠다고 털어놓으라며 제인을 다그치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이 드물었다. 제인은 한결같은 온화함을 다 끌어모아야 이런 공세를 그런대로 차분하게 견딜 수 있었다.

콜린스 씨는 2주 뒤 월요일에 어김없이 돌아왔지만, 롱번에서 받은 대접은 처음 왔을 때만큼 융숭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워낙 행복해서 별로 신경 써 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식구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연애라는 일 덕분에 그와 함께 지내야 하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 콜린스 씨는 날마다 하루의 대부분을 루커스 로지에서 보냈고, 때로는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야 롱번에 돌아와 늦은 것을 사과하곤 했다.

베넷 부인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는 처지였다. 그 혼인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말만 나와도 심통이 나서 괴로워했는데, 어디를 가든 그 이야기를 듣게 마련이었다. 루커스 양을 보는 것조차 끔찍했다. 이 집에서 자기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이라 생각하니 시기와 혐오가 치밀었다. 샬럿이 찾아올 때마다 이 집을 차지할 날을 미리 그려 보고 있다고 단정했고, 샬럿이 콜린스 씨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두 사람이 롱번 영지 이야기를 하면서 베넷 씨가 죽는 대로 자기와 딸들을 이 집에서 내쫓기로 작정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베넷 부인은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쓰라리게 하소연했다.

"정말이지 여보," 베넷 부인이 말했다. "샬럿 루커스가 언젠가 이 집 안주인이 되고, *내가 그 애한테* 자리를 비켜 줘야 하고, 그 애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꼴을 살아서 봐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워요!"

"부인, 그런 우울한 생각에 빠지지 마오. 더 좋은 일을 바라 봅시다. *내가* 살아남는 쪽이 될지도 모른다고 기분 좋은 상상이나 해 봅시다."

베넷 부인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었다. 그래서 대꾸하는 대신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 사람들이 이 영지를 다 차지한다니 생각만 해도 못 견디겠어요. 한정상속만 아니면 상관 안 할 텐데."

"무엇을 상관 안 한단 말이오?"

"아무것도 상관 안 할 거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지 않았으니 고맙게 여깁시다."

"한정상속에 관한 거라면 난 절대로 고마워할 수 없어요, 여보. 대체 어떤 양심이면 제 딸들한테서 영지를 떼어 내 한정상속으로 묶어 버릴 수 있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콜린스 씨 좋으라고요! 왜 하필 *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걸 가져야 하죠?"

"그건 당신이 판단하도록 맡기겠소." 베넷 씨가 말했다.

# 제24장

빙리 양의 편지가 왔고, 의심은 끝이 났다. 첫 문장부터 그들이 모두 겨울을 날 채비를 마치고 런던에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문장은 오빠가 하트퍼드셔를 떠나기 전에 그곳 벗들에게 인사하러 들를 겨를이 없었던 것을 아쉬워한다는 말로 끝났다.

희망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마음을 추슬러 나머지 사연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제인은 쓴 사람이 내세우는 애정 말고는 위안이 될 만한 것을 거의 찾지 못했다. 편지의 대부분은 다아시 양 칭찬이어서 그 숱한 매력을 다시 늘어놓았고, 캐럴라인은 둘 사이가 날로 가까워진다고 신이 나서 자랑하며 앞선 편지에서 털어놓았던 바람이 이루어지리라고 감히 내다보기까지 했다. 오빠가 다아시 씨 집에 함께 묵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주 즐겁게 적었고, 다아시 씨가 새 가구를 들이려는 계획 몇 가지를 황홀해하며 전하기까지 했다.

제인은 곧 이 가운데 요점을 엘리자베스에게 들려주었고,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분개하며 들으면서 언니를 걱정하는 마음과 다른 모든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라졌다. 빙리 씨가 다아시 양에게 마음이 있다는 캐럴라인의 주장은 조금도 믿지 않았고, 빙리 씨가 제인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언제나 좋게 보려 했으면서도, 이제 그를 속셈 있는 친구들의 노예로 만들어 그들의 변덕스러운 뜻에 자기 행복을 바치게 한 그 무른 성미, 그 마땅한 결단력의 부족을 생각하면 화가 났고 경멸하는

마음마저 거의 들었다. 하지만 바쳐지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의 행복뿐이라면, 제 행복쯤이야 좋을 대로 가지고 놀아도 그만이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언니의 행복이 걸려 있었고 그 사람도 틀림없이 그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한마디로 오래 곱씹을 수밖에 없지만 곱씹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문제였다.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빙리의 애정이 정말로 식어 버렸든 친구들의 간섭에 눌렸든, 제인의 애정을 그가 알아챘든 눈치채지 못했든, 그 차이에 따라 그를 보는 자기 생각은 크게 달라지겠지만 어느 쪽이든 언니의 처지는 똑같았고 언니의 평온이 상처 입은 것도 똑같았다.

하루 이틀이 지나서야 제인은 엘리자베스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용기를 냈다. 그러다 마침내, 베넷 부인이 네더필드와 그 집 주인을 두고 여느 때보다 오래 짜증을 부리다가 둘만 남겨 두고 나가자 제인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가 조금만 더 자제하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분 이야기를 쉴 새 없이 꺼내셔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어머니는 짐작도 못 하실 거야. 하지만 투정하지 않을래. 오래가지는 않을 거야. 그분은 잊힐 테고 우리는 모두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엘리자베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걱정스럽게 언니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말을 못 믿는구나." 제인이 살짝 얼굴을 붉히며 힘주어 말했다. "정말이야, 그럴 까닭이 없어. 그분은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상냥한 남자로 내 기억 속에 남을지 몰라. 하지만 그게 다야. 바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분을 나무랄 것도 없어. 고맙게도 *그런* 아픔은 없어. 그러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이겨 내려고 애쓸 거야…"

곧 제인은 한결 힘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장 위안이 되는 게 하나 있어. 내 쪽에서 혼자 착각했을 뿐이고, 그래서 나 말고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야."

"언니,"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언니는 너무 착해. 그 다정함하고 사심 없는 마음은 정말 천사 같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언니를 한 번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언니가 받아 마땅한 만큼 사랑하지도 못한 것 같아."

베넷 양은 자기에게 남다른 덕이 있다는 말을 열심히 손사래 쳐 물리고, 그 칭찬을 동생의 따뜻한 애정 덕으로 돌렸다.

"아니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 *언니는* 온 세상 사람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고, 내가 누구 흉이라도 보면 마음 아파하잖아. *나는* 그저 *언니* 하나만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언니는 그걸 마다하고. 내가 지나치게 나가서 누구에게나 선의를 베푸는 언니의 특권을 넘볼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럴 일 없으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몇 안 되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보다도 적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더 마음에 안 들고, 사람의 성품이란 하나같이 믿을 수 없고, 겉으로 보이는 덕이나 분별은 거의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날마다 굳어져. 최근에 그런 경우를 둘 보았어. 하나는 말하지 않을래. 또 하나는 샬럿의 결혼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느 모로 보나 이해가 안 돼!"

"리지, 그런 기분에 빠지지 마. 그러다 네 행복을 망쳐. 너는 처지와 성미가 다르다는 걸 충분히 헤아리지 않아. 콜린스 씨가 남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샬럿이 신중하고 꿋꿋한 성품이라는 걸 생각해 보고, 샬럿이 식구 많은 집 딸이라는 것과 재산으로 보면 아주 바람직한 혼처라는 것도 기억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샬럿이 우리 사촌에게

호감과 존경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어 줄 마음을 가져 봐."

"언니를 위해서라면 거의 무엇이든 믿어 보려고 하겠지만, 이런 걸 믿어 봤자 누구한테도 좋을 게 없어. 샬럿이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다고 믿게 된다면, 지금 샬럿의 마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샬럿의 머리를 더 나쁘게 생각하게 될 뿐이야. 언니, 콜린스 씨는 자만심 강하고 거드름 피우고 속 좁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언니도 나만큼 잘 알잖아.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여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졌을 리 없다는 것도 언니는 나만큼 느낄 테고. 샬럿 루커스라고 해서 감싸 주면 안 돼. 한 사람을 위해서 원칙과 도리의 뜻을 바꾸면 안 되고, 이기심이 신중함이고 위험을 못 느끼는 게 행복의 보증이라고 언니 자신이나 나를 설득하려 해서도 안 돼."

"두 사람에 대해서 네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제인이 대답했다.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너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지. 하지만 이 얘기는 이만하자. 너는 다른 일도 넌지시 말했어. 경우가 둘이라고 했잖아.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어. 하지만 리지, 부탁이야. *그분*을 탓하고 그분을 보는 네 생각이 나빠졌다고 말해서 나를 아프게 하지는 마. 남이 일부러 우리를 해쳤다고 너무 쉽게 상상해서는 안 되고, 활달한 젊은 남자가 늘 그렇게 조심하고 신중하기를 바랄 수도 없어. 우리를 속이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의 허영인 경우가 아주 많아. 여자들은 남자의 찬탄에 실제보다 더 큰 뜻이 있다고 상상하거든."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꼭 그렇게 상상하도록 공을 들이지."

"일부러 그런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 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는 만큼 속셈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빙리 씨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속셈에서 나왔다고 보는 건 결코 아니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꾀하지 않아도 잘못이 생길 수 있고 불행이 생길 수 있어. 생각이 모자라고, 남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결단력이 없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럼 그 가운데 하나 때문이라고 보는 거야?"

"응, 마지막 것.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언니가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털어놓게 돼서 언니 기분을 상하게 할 거야. 말릴 수 있을 때 날 말려."

"그럼 너는 끝내 누이들이 그분을 휘두른다고 생각하는 거니?"

"응, 그분 친구하고 한패가 되어서."

"난 그렇게 못 믿겠어. 누이들이 왜 그분을 휘두르려 하겠어? 그분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거야.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나를 좋아한다면 다른 어떤 여자도 그분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어."

"언니의 첫 전제가 틀렸어. 누이들은 그 사람의 행복 말고도 바라는 게 많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지체가 높아지기를 바랄 수도 있고, 돈이며 대단한 인척이며 오만이 주는 위세를 다 갖춘 아가씨와 결혼하기를 바랄 수도 있어."

"누이들이 그분이 다아시 양을 고르기를 바라는 건 틀림없지." 제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네가 짐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마음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 누이들은 나보다 다아시 양을 훨씬 오래 알아 왔으니 다아시 양을 더 아끼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야. 하지만 누이들이 무엇을 바라든 오빠의 바람을 거슬렀을 리는 없어. 뭔가 아주 못마땅한 게 있지 않고서야 어느 누이가 감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 누이들이 그분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었다면 우리를 떼어 놓으려 하지 않았을 거고, 그분이 정말로 나를 좋아했다면 누이들이 떼어 놓으려 해도 될

리가 없었겠지. 그런 애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너는 모두가 부자연스럽고 그릇되게 행동했다고 만드는 셈이고, 나를 더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셈이야. 그런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 잘못 안 게 부끄럽지는 않아. 적어도 그 부끄러움은 대수롭지 않아. 그분이나 그분 누이들을 나쁘게 생각할 때 느낄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좋은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받아들이게 해 줘."

엘리자베스는 그런 바람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에서 빙리 씨의 이름은 거의 입에 오르지 않았다.

베넷 부인은 여전히 빙리 씨가 다시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투덜거렸다. 엘리자베스가 그 까닭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드물었지만,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어리둥절해하며 그 일을 생각하게 될 가망은 거의 없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자기도 믿지 않는 말로, 빙리 씨가 제인에게 보인 관심은 흔히 있는 한때의 호감일 뿐이었고 제인을 더 보지 못하게 되자 그친 것이라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럴 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튿날이면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했다. 베넷 부인에게 가장 큰 위안은 빙리 씨가 여름에는 틀림없이 다시 내려오리라는 생각이었다.

베넷 씨는 이 일을 달리 대했다. "그래, 리지," 어느 날 베넷 씨가 말했다. "네 언니가 실연했다더구나. 축하할 일이다. 여자애들은 결혼 다음으로 이따금 조금씩 실연하는 걸 좋아하거든. 생각할 거리가 생기고, 친구들 사이에서 남다른 구석도 생기니까. 네 차례는 언제냐? 제인한테 오래 뒤지는 건 너도 못 견딜 텐데. 지금이 기회다. 메리턴에는 이 고장 아가씨들을 다 실망시키고도 남을 만큼 장교가 많으니까. 위컴을 네 남자로 삼으렴. 유쾌한 친구니 남부끄럽지 않게 너를 차 줄 게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덜 유쾌한 남자라도 만족하겠어요. 누구나 제인 언니 같은 행운을 바랄 수는 없지요."

"그렇지." 베넷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네게 닥치면 언제든 그걸 한껏 부풀려 줄 다정한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되는구나."

최근에 공교롭게 일이 꼬이는 바람에 롱번 식구 여럿에게 드리운 우울을 걷어 내는 데에는 위컴 씨와 어울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식구들은 위컴 씨를 자주 보았고, 그에게는 이제 다른 장점들에 더해 누구에게나 숨김없이 털어놓는다는 장점까지 붙었다. 엘리자베스가 이미 들은 이야기 전부, 곧 그가 다아시 씨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몫과 그에게서 겪은 온갖 고초가 이제 드러내 놓고 인정되고 공공연히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다들 아무것도 모르던 때부터 자기들이 다아시 씨를 얼마나 싫어했던가를 떠올리며 흐뭇해했다.

베넷 양만이 이 일에 하트퍼드셔 사람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그 일을 얼마쯤 너그럽게 볼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온화하고 한결같은 공정함은 언제나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고 잘못 알았을 수도 있다고 일깨웠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아시 씨는 더없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

# 제25장

사랑을 고백하고 행복한 앞날을 설계하며 한 주를 보낸 끝에, 토요일이 오자 콜린스 씨는 상냥한 샬럿 곁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다음에 하트퍼드셔로 돌아오면 곧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줄 날이 정해지리라고 기대할 만한 까닭이 있었으므로, 그로서는 신부를 맞을 채비를 하면서 이별의 아픔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콜린스 씨는 지난번 못지않게 엄숙하게 롱번의 친척들과 작별했고, 어여쁜 사촌 아가씨들에게 다시 한번 건강과 행복을 빌었으며, 그들의 아버지에게는 감사 편지를 또 한 통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다음 월요일, 베넷 부인은 여느 해처럼 롱번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온 남동생 부부를 반갑게 맞았다. 가디너 씨는 분별 있고 신사다운 사람으로, 타고난 성품으로 보나 받은 교육으로 보나 누나보다 훨씬 나았다. 장사로 먹고살고 자기 창고가 내다보이는 곳에 사는 남자가 그렇게 교양 있고 호감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네더필드의 숙녀들은 좀처럼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가디너 부인은 베넷 부인이나 필립스 부인보다 몇 살 아래로, 상냥하고 영리하고 우아한 여자였으며 롱번의 조카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다. 특히 위의 두 조카와 가디너 부인 사이에는 남다른 정이 있었다. 두 조카는 런던의 외숙모 집에 자주 가서 머물곤 했다.

도착하자마자 가디너 부인은 맨 먼저 선물을 나누어 주고 최신 유행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일이 끝나자 덜 바쁜 역할이 돌아왔다. 이제 들어

줄 차례였다. 베넷 부인에게는 털어놓을 억울한 일이 많았고 불평할 거리도 많았다. 지난번에 올케를 본 뒤로 식구들이 다들 몹쓸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 딸 둘이 시집가기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제인을 탓하는 건 아니야." 베넷 부인이 말을 이었다. "제인은 할 수만 있었으면 빙리 씨를 잡았을 테니까. 하지만 리지는! 아, 올케! 제가 고집만 안 부렸어도 지금쯤 콜린스 씨 부인이 되어 있었을 걸 생각하면 정말 속상해. 바로 이 방에서 그 사람이 청혼을 했는데 거절했지 뭐야. 그 바람에 루커스 부인이 나보다 먼저 딸을 시집보내게 됐고, 롱번 영지는 여전히 한정상속에 꽁꽁 묶여 있어. 루커스 집안 사람들은 정말 교활한 사람들이야, 올케. 다들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으려고 들거든. 이런 말 하기는 안됐지만 사실이 그래. 내 집안에서 이렇게 일이 틀어지고, 누구보다 저희 생각만 하는 이웃을 두니 신경이 곤두서고 몸이 다 아파. 그래도 마침 이럴 때 올케가 와 줘서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네. 그리고 긴 소매 얘기는 정말 반갑게 들었어."

이 소식의 요점은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보낸 편지로 이미 들어 알고 있던 터라, 가디너 부인은 시누이에게 가볍게 대꾸만 하고는 조카들이 딱해서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렸다.

나중에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되자 가디너 부인은 그 이야기를 더 꺼냈다. "제인한테는 바람직한 혼처였던 것 같구나." 가디너 부인이 말했다. "깨져서 안타깝다. 하지만 이런 일은 아주 흔하단다! 네가 말한 빙리 씨 같은 젊은이는 예쁜 아가씨한테 몇 주 동안 아주 쉽게 반했다가, 어쩌다 떨어지게 되면 또 아주 쉽게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변덕은 정말 흔해."

"그 나름으로는 훌륭한 위로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재산이 넉넉해서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젊은 남자가 불과 며칠 전까지 열렬히 사랑하던 아가씨를 친구들이 끼어들었다고 해서 더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열렬히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닳고 닳았고, 너무 미덥지 않고, 너무 막연해서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구나. 그 말은 진짜 강한 애정에 쓰이는 만큼이나 30분쯤 알고 지낸 데서 생긴 감정에도 곧잘 쓰이거든. 그래, 빙리 씨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했는데?*"

"그렇게 앞날이 보이는 호감은 본 적이 없어요. 빙리 씨는 다른 사람한테는 점점 무심해지고 언니한테만 온통 빠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더 뚜렷해지고 눈에 띄었고요. 자기가 연 무도회에서는 아가씨 두셋한테 춤을 청하지 않아서 그 아가씨들 기분을 상하게 했고, 저도 두 번이나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못 들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증상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한테나 무례해지는 게 사랑의 정수 아닌가요?"

"아, 그렇지! 내가 짐작하기에 빙리 씨가 느꼈을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면 말이야. 가엾은 제인! 그 애 성품으로는 금방 털고 일어서지 못할지도 몰라서 안쓰럽구나. 차라리 *너한테* 일어난 일이었으면 나았을 텐데, 리지. 너라면 웃어넘기면서 더 빨리 벗어났을 테니까. 그런데 제인이 우리랑 같이 런던에 가자고 하면 따라나설 것 같니? 다른 데서 지내 보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집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돌리는 게 무엇보다 좋을 수도 있어."

엘리자베스는 이 제안이 몹시 반가웠고, 언니도 선뜻 응하리라고 믿었다.

"바라건대," 가디너 부인이 덧붙였다. "그 젊은이 일을 이것저것 따지느라 제인이 망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우리는 런던에서도 전혀 다른 동네에 살고, 아는 사람들도 완전히 다르고,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밖에 잘 나다니지도 않으니, 그 사람이 정말로 제인을 보러 오지 않는 한 둘이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리고 *그건* 아예 불가능해요. 빙리 씨는 지금 친구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다아시 씨가 런던에서도 그런 동네로 제인 언니를 찾아가게 놔둘 리 없어요! 외숙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다아시 씨는 그레이스처치 거리라는 데가 있다는 말쯤은 *들어 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혹시라도 한 번 발을 들였다가는 그 더러움을 씻어 내는 데 한 달 내내 몸을 씻어도 모자라다고 여길 거예요. 그리고 빙리 씨는 다아시 씨 없이는 꼼짝도 안 하니까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럼 더 잘됐구나. 둘이 아예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인이 그 사람 누이하고 편지를 주고받지 않니? *그 아가씨는* 찾아오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 아가씨는 언니와 연락을 아예 끊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 점을, 그리고 그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점, 곧 빙리가 제인을 만나지 못하게 붙들려 있다는 점을 짐짓 확신하는 체했지만, 사실은 이 일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고, 곰곰이 따져 보니 자기가 이 일을 아주 가망 없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빙리의 애정이 되살아나고, 친구들의 입김이 제인의 매력이라는 더 자연스러운 힘에 꺾일 수도 있었다. 때로는 그럴 공산이 크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베넷 양은 외숙모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빙리 집안 사람들은, 캐럴라인이 오빠와 한집에 살지 않으니 이따금 캐럴라인과 오전 한때를 함께 보내도 빙리 씨를 마주칠 위험은 없으리라는 바람 속에서만 떠올렸다.

가디너 부부는 롱번에 한 주 동안 머물렀는데, 필립스 집안이며 루커스 집안이며 장교들이며 해서 약속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베넷 부인이 남동생 부부를 대접할 채비를 워낙 꼼꼼하게 해 두어서 식구끼리만 저녁 식탁에 앉은 날은 한 번도 없었다. 집에서 모이는 날이면 언제나 장교 몇 사람이 끼었고, 그 장교들 가운데는 위컴 씨가 꼭 들어 있었다. 그럴 때면 가디너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위컴 씨를 따뜻하게 칭찬하던 것이 마음에 걸려 두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본 바로는 두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사랑에 빠졌다고까지는 여기지 않았지만,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만은 뚜렷해 보여서 조금 불안해졌다. 그래서 가디너 부인은 하트퍼드셔를 떠나기 전에 엘리자베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 그런 애정을 북돋는 것이 얼마나 경솔한 일인지 일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디너 부인에게 위컴은 그의 남다른 사교 재주와는 상관없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다. 가디너 부인은 결혼하기 전, 열 해 남짓 아니면 열두 해쯤 전에 위컴의 고향인 더비셔의 바로 그 지방에서 꽤 오래 지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아는 사람이 많았고, 위컴은 다섯 해 전 다아시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그곳에 거의 가지 않았지만, 가디너 부인이 그동안 구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새로운 옛 친구들 소식을 전해 줄 수 있었다.

가디너 부인은 펨벌리를 본 적이 있었고, 돌아가신 다아시 씨의 인품도 평판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 여기에 마르지 않는 이야깃거리가 생긴 셈이었다. 기억 속의 펨벌리를 위컴이 들려주는 자세한 묘사와 견주어 보고, 그 집의 옛 주인의 인품에 찬사를 바치면서 가디너 부인은 위컴과 자기 자신을 함께 즐겁게 했다. 지금의 다아시 씨가 위컴에게 한 짓을 전해 듣고는, 그 신사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소문난 성품 가운데 그 이야기와 들어맞는 것이 없었나 기억해 내려 애썼고, 마침내 피츠윌리엄 다아시 씨가 예전에 아주 오만하고 심술궂은 아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고 확신했다.

# 제26장

가디너 부인은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이야기할 좋은 기회가 오자마자 어김없이, 그리고 다정하게 주의를 주었는데, 먼저 자기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은 뒤 이렇게 말을 이었다.

"리지, 너는 누가 말린다고 해서 오히려 사랑에 빠질 만큼 분별없는 아가씨가 아니야. 그러니 터놓고 말해도 걱정이 없구나.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조심했으면 좋겠다. 재산이 없어서 너무나 경솔한 일이 될 애정에 너 자신을 휘말리게 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휘말리게 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아주 매력 있는 젊은이라서 마땅히 가졌어야 할 재산만 있었다면 너한테 그보다 나은 혼처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사정이 이러니… 마음 가는 대로 휩쓸려서는 안 돼. 너는 분별이 있고, 우리는 모두 네가 그 분별을 쓰기를 바란단다. 네 아버지도 틀림없이 *네* 결단과 바른 처신을 믿고 계실 거야. 아버지를 실망시켜서는 안 돼."

"외숙모, 정말 진지하시네요."

"그래, 그리고 너도 진지해지기를 바란다."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제 몸을 잘 챙길 거고, 위컴 씨도 잘 챙길게요. 제가 막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저를 사랑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지금 진지하지 않구나."

"죄송해요. 다시 해 볼게요. 지금 저는 위컴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네,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본 사람 가운데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호감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저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러지 않는 편이 낫겠지요. 그게 경솔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아, 그 지긋지긋한 다아시 씨!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높이 봐 주시니 더없이 영광스럽고, 그 믿음을 잃는다면 저는 무척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위컴 씨를 마음에 들어 하세요. 한마디로 외숙모, 제가 누구 하나라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정말 속상할 거예요. 하지만 서로 좋아하기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당장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약혼을 단념하는 일은 드물다는 걸 날마다 보는데, 제가 마음이 끌린다면 그 많은 사람보다 더 현명하겠다고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어요? 아니, 버티는 게 더 현명한지 어떤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뿐이에요. 제가 그분의 첫째가는 상대라고 서둘러 믿지 않을게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무언가를 바라지 않을게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할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주 여기 오는 걸 넌지시 막는다면 그것도 괜찮겠지. 적어도 어머니께 그 사람을 초대하라고 *일깨워 드리지는* 마라."

"요전 날처럼 말이죠." 엘리자베스가 찔리는 듯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건* 삼가는 게 현명하겠네요. 하지만 그분이 늘 이렇게 자주 여기 온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번 주에 그렇게 자주 초대받은 건 외숙모 때문이에요. 친척들이 오면 늘 손님으로 북적여야 한다는 어머니 생각은 외숙모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정말이지 명예를 걸고, 제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애쓸게요. 이제 마음이 놓이셨으면 좋겠어요."

외숙모는 마음이 놓였다고 했고, 엘리자베스는 친절하게 일러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이런 문제에서 충고를 하고도 상대의 원망을 사지 않은, 놀라운 본보기였다.

가디너 부부와 제인이 하트퍼드셔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콜린스 씨가 돌아왔지만, 루커스 집안에 묵었기 때문에 그가 와도 베넷 부인은 그리 불편하지 않았다. 그의 결혼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베넷 부인도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일로 여길 만큼은 체념해서, 심지어 심술궂은 목소리로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말하기까지 했다. 결혼식은 목요일이었고, 수요일에 루커스 양이 작별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 루커스 양이 떠나려고 일어서자, 마지못해 무뚝뚝하게 축하하는 어머니가 부끄럽고 자기도 진심으로 마음이 뭉클했던 엘리자베스는 루커스 양을 따라 방을 나섰다. 함께 계단을 내려가면서 샬럿이 말했다.

"편지 자주 해 줄 거라고 믿을게, 일라이저."

"*그건* 틀림없이 그럴게."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나를 보러 와 줄래?"

"하트퍼드셔에서 자주 만나게 되겠지."

"한동안은 켄트를 떠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 헌스퍼드에 오겠다고 약속해 줘."

엘리자베스는 그 방문이 별로 즐겁지 않으리라고 내다보면서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하고 마리아가 3월에 나한테 오기로 했어." 샬럿이 덧붙였다. "너도 같이 와 주면 좋겠어. 정말이야, 일라이저, 너도 그 두 사람만큼이나 반가울 거야."

결혼식이 치러졌다. 신랑 신부는 교회 문 앞에서 곧장 켄트로 떠났고, 다들 여느 때처럼 그 일을 두고 할 말도 많고 들을 말도 많았다.

엘리자베스는 곧 친구의 편지를 받았고, 두 사람의 편지는 예전만큼 꼬박꼬박 자주 오갔다. 하지만 예전만큼 허물없을 수는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샬럿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친한 사이의 편안함은 다 끝났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편지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어도 그것은 지금의 우정이 아니라 지난날의 우정을 위해서였다. 샬럿이 새 집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캐서린 영부인을 어떻게 여길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감히 말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샬럿의 첫 편지들은 무척 기다려졌다. 하지만 막상 편지를 읽고 나니, 샬럿이 무엇 하나 빼지 않고 엘리자베스가 내다볼 수 있었던 그대로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샬럿은 명랑하게 썼고, 편안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으며, 칭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집도, 가구도, 이웃도, 길도 모두 샬럿의 마음에 들었고, 캐서린 영부인은 더없이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콜린스 씨가 그리던 헌스퍼드와 로징스의 그림을 이성적으로 누그러뜨린 것이었고, 엘리자베스는 나머지를 알려면 직접 그곳에 가 볼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인은 런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이미 동생에게 몇 줄 적어 보냈고,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다시 편지를 쓸 때는 빙리 집안 사람들에 대해 무언가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조바심 내며 기다린 이 두 번째 편지는 조바심이 대개 받는 만큼의 보답을 받았다. 제인은 런던에 온 지 한 주가 되도록 캐럴라인을 만나지도 못했고 소식도 듣지 못했지만, 롱번에서 친구에게 보낸 지난번 편지가 무슨 사고로 없어졌으리라고 짐작하며 그 까닭을 설명했다.

"외숙모가 내일 그쪽 동네에 가실 거래." 제인은 이어서 썼다. "그 기회에 그로브너 거리에 들러 볼 생각이야."

제인은 그 방문을 마치고 빙리 양을 만난 뒤 다시 편지를 썼다. "캐럴라인은 기운이 없어 보였어." 제인은 이렇게 썼다. "하지만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했고, 런던에 온다고 미리 알려 주지 않았다고 나무랐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았던 거야. 내 지난번 편지는 끝내 캐럴라인한테 닿지 않았어. 물론 그분 소식도 물어봤지. 잘 지내시는데 다아시 씨하고 워낙 바빠서 누이들도 그분 얼굴을 거의 못 본대. 다아시 양이 저녁 먹으러 오기로 했다더라. 나도 다아시 양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캐럴라인하고 허스트 부인이 외출할 참이어서 오래 있지는 않았어. 아마 곧 두 사람이 여기로 찾아오겠지."

엘리자베스는 이 편지를 읽고 고개를 저으며, 언니가 런던에 와 있다는 것을 빙리 씨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연 덕분이리라고 확신했다.

4주가 흘렀지만 제인은 빙리 씨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제인은 그것이 아쉽지 않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애썼지만, 빙리 양이 자기를 소홀히 한다는 것에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다. 2주 동안 아침마다 집에서 기다리고 저녁마다 빙리 양을 위해 새로운 핑계를 지어낸 끝에 그 손님은 마침내 나타났지만, 너무 짧게 머물다 간 데다 무엇보다 태도가 달라진 탓에 제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이때 제인이 동생에게 쓴 편지를 보면 제인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리지, 내가 빙리 양이 나를 아끼는 줄 알았다가 완전히 속았다고 털어놓아도, 너는 내 희생을 딛고 네 판단이 더 나았다며 우쭐해하지는 않으리라 믿어. 하지만 리지, 일이 이렇게 되어 네 말이 옳았다는 게 드러나긴 했어도, 빙리 양의 그때 행동을 생각하면 내가 믿은 것도 네가 의심한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다고 내가 여전히 우긴다고 해서 나를 고집쟁이로 여기지는 말아 줘. 빙리 양이 왜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하지만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나는 틀림없이 또 속을 거야. 캐럴라인은 어제에야 답방을 왔고, 그동안 쪽지 한 장, 편지 한 줄도 받지 못했어. 정작 와서도 전혀 즐겁지 않은 게 뻔히 보였어. 그동안 찾아오지 못한 걸 형식적으로 짧게 사과했을 뿐 다시 보고 싶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모든 면에서 사람이 너무 달라져 있어서 캐럴라인이 돌아간 뒤에는 더는 사귀지 않기로 완전히 마음을 정했어. 나무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캐럴라인이 가엾어. 그렇게 나를 콕 집어 가까이한 건 아주 잘못한 일이야. 친해지려고 먼저 다가온 건 언제나 캐럴라인 쪽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캐럴라인이 가엾은 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틀림없이 느낄 테고, 그게 다 오빠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야.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우리는* 그런 걱정이 전혀 쓸데없다는 걸 알지만, 캐럴라인이 그렇게 걱정한다면 나한테 그렇게 대한 것도 쉽게 이해가 가. 그리고 그분은 누이가 아낄 만한 오빠이니, 그분을 위해서 무슨 걱정을 하든 자연스럽고 상냥한 마음이야. 그래도 캐럴라인이 지금 와서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게 이상하기는 해. 그분이 나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었다면 우리는 벌써 오래, 아주 오래전에 만났을 테니까. 캐럴라인이 직접 한 말로 보아 그분은 내가 런던에 와 있는 걸 틀림없이 알아. 그런데도 캐럴라인이 말하는 걸 들으면, 그분이 정말로 다아시 양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모질게 판단하는 게 두렵지만 않다면, 이 모든 일에 표리부동한 기색이 짙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야. 괴로운 생각은 다 떨쳐 버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 그러니까 너의 애정과 외삼촌 외숙모의 한결같은 친절만 생각하도록 애쓸게. 곧 소식 전해 줘. 빙리 양이 그분이 다시는 네더필드에 돌아가지 않을 거라느니 그 집을 내놓을 거라느니 하는 말을 비쳤지만 확실하게 말한 건 아니니까,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겠어. 헌스퍼드의 친구들한테서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듣는다니 정말 기뻐. 꼭 윌리엄 경하고 마리아랑 함께 가 봐.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만."

이 편지를 읽고 엘리자베스는 얼마쯤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적어도 그 누이에게 제인이 더는 속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기운이 돌아왔다. 그 오빠에게 걸었던 기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다시 관심을 보이기를 바라지조차 않았다. 돌이켜 볼 때마다 그의 사람됨은 낮아졌고, 그래서 그에게 내리는 벌로, 또 제인에게 득이 될 수도 있는 일로, 그가 정말로 곧 다아시 씨의 누이와 결혼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위컴의 말대로라면 그 아가씨는 그가 내던진 것을 두고두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테니까.

이 무렵 가디너 부인은 그 신사에 관해 한 약속을 엘리자베스에게 일깨우며 사정을 알려 달라고 했다. 엘리자베스가 보낼 수 있는 소식은 엘리자베스 자신보다 외숙모를 흡족하게 할 만한 것이었다. 그가 드러내던 호감은 가라앉았고, 그의 관심은 끝났으며, 그는 이제 다른 누군가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다 알아챌 만큼 눈이 밝았지만, 그것을 보고 또 편지에 쓰면서도 이렇다 할 아픔은 느끼지 않았다. 마음은 그저 살짝 건드려졌을 뿐이었고, 재산만 허락했다면 *자기가* 그의 유일한 선택이었으리라고 믿는 것으로 허영도 채워졌다. 그가 지금 환심을 사려는 젊은 아가씨의 가장 두드러진 매력은 갑자기 손에 넣은 10,000파운드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어쩌면 샬럿의 경우보다 이번에는 눈이 덜 밝았는지, 넉넉하게 독립해서 살고 싶은 그의 바람을 두고 다투지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 자연스러운 일은 없었다. 그가 자기를 단념하느라 몇 번은 괴로워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현명하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인정할 마음이 있었고, 그가 행복하기를 아주 진심으로 바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것을 가디너 부인에게 털어놓았고, 사정을 다 이야기한 뒤 이렇게 이어 썼다. "외숙모, 이제 확신이 들어요. 저는 한 번도 크게 사랑에 빠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순수하고 고결한 열정을 정말로 겪었다면 지금쯤 그분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고 그분한테 온갖 불행이 닥치기를 빌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여전히 다정한 마음이 들 뿐 아니라 킹 양에게도 치우침 없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킹 양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아주 괜찮은 아가씨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도 꺼려지지 않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을 리 없지요. 제가 조심한 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분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다면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제가 훨씬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되었겠지만, 이렇게 비교적 하찮은 처지로 남은 게 아쉽다고는 못 하겠어요. 남의 이목을 끄는 일은 때로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사야 하니까요. 키티와 리디아가 저보다 그분이 떠나간 걸 훨씬 더 마음에 담아 두고 있어요. 그 애들은 아직 세상 물정에 어려서, 잘생긴 젊은 남자도 못생긴 남자처럼 먹고살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굴욕스러운 확신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 제27장

롱번 집안에는 이보다 큰일은 없었고, 때로는 질척하고 때로는 추운 메리턴 나들이 말고는 이렇다 할 변화도 없이 1월과 2월이 지나갔다. 3월이 되면 엘리자베스는 헌스퍼드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곳에 가는 일을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샬럿이 그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고, 엘리자베스 자신도 차츰 더 즐겁게, 또 더 확실하게 그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떨어져 지내다 보니 샬럿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커졌고 콜린스 씨에 대한 혐오는 옅어졌다. 그 계획에는 새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와 그토록 말벗이 되지 못하는 동생들이 있는 한 집이 흠잡을 데 없을 수는 없었으므로, 잠깐의 변화는 그 자체로 반갑지 않을 것도 없었다. 게다가 가는 길에 제인 얼굴도 잠깐 볼 수 있었다. 한마디로, 날이 다가올수록 무슨 일로든 늦어지면 몹시 서운할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침내 샬럿이 처음 그린 밑그림대로 정해졌다. 엘리자베스는 윌리엄 경과 그의 둘째 딸과 함께 가기로 했다. 때맞춰 런던에서 하룻밤 묵는다는 더 나은 계획이 덧붙여져서, 그 계획은 계획이 될 수 있는 한 완벽해졌다.

괴로운 것은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일뿐이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엘리자베스를 그리워할 테고, 막상 떠날 때가 되자 딸이 가는 것을 너무나 달가워하지 않아서 편지를 쓰라고 이르고는 답장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거의 하다시피 했다.

엘리자베스와 위컴 씨의 작별은 더없이 다정했고, 위컴 쪽은 한층 더 그랬다. 지금 좇고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해서, 엘리자베스가 자기 관심을 처음으로 불러일으키고 또 그럴 만했던 사람, 처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 주고 딱하게 여겨 준 사람, 처음으로 자기를 흠모해 준 사람이라는 것을 잊을 수는 없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즐거운 일만 있기를 빌어 주고,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 어떤 사람일지 미리 일러 주고, 캐서린 영부인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 모든 사람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같으리라 믿는다고 말하는 위컴의 태도에는 정성과 관심이 배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때문에라도 자기가 언제까지나 그에게 더없이 진실한 호의를 품게 되리라 느꼈고, 그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언제나 자기에게는 상냥하고 유쾌한 사람의 본보기로 남으리라 확신하며 그와 헤어졌다.

이튿날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은 엘리자베스가 위컴을 덜 호감 가는 사람으로 여기게 할 부류가 아니었다. 윌리엄 루커스 경과 그의 딸 마리아는, 마리아가 마음씨는 좋지만 아버지만큼이나 머리가 빈 아가씨라서, 둘 다 들을 만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경마차의 덜컹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한 즐거움으로 그들의 말을 들었다. 엘리자베스는 엉뚱하고 어처구니없는 것을 좋아했지만, 윌리엄 경의 그것은 너무 오래 보아 온 터였다. 윌리엄 경은 왕을 알현하고 기사 작위를 받은 그 놀라운 일에 대해 엘리자베스에게 새로 들려줄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의 예의 바른 말들도 그가 전하는 소식처럼 닳고 닳아 있었다.

24마일밖에 안 되는 여정이었고, 일찍 출발한 덕분에 한낮에는 그레이스처치 거리에 닿았다. 마차가 가디너 씨 집 문 앞으로 들어서는데 제인이 응접실 창가에서 그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행이 현관 복도에 들어서자 제인이 나와 맞아 주었고,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뻤다. 계단에는 꼬마 남자아이 여자아이 한 무리가 서 있었다. 사촌 언니가 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응접실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나왔지만, 한 해 동안 보지 못한 터라 수줍어서 더 아래로는 내려오지 못했다. 모두가 기쁘고 다정했다. 그날 하루는 더없이 즐겁게 지나갔다. 오전에는 북적이며 물건을 사러 다녔고 저녁에는 극장에 갔다.

엘리자베스는 그때 용케 외숙모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맨 먼저 꺼낸 이야기는 제인이었고, 엘리자베스가 꼬치꼬치 묻자 외숙모는 제인이 늘 기운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이따금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있다고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놀랍기보다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그런 때가 오래가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치에 맞았다. 가디너 부인은 빙리 양이 그레이스처치 거리에 찾아왔던 일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그동안 제인과 여러 번 나눈 대화도 되풀이해 들려주었는데, 그것으로 보아 제인은 진심으로 빙리 양과의 사귐을 단념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고 나서 가디너 부인은 위컴에게 버림받은 일로 조카를 놀리면서, 그 일을 아주 잘 견뎌 냈다고 칭찬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가디너 부인이 덧붙였다. "킹 양은 어떤 아가씨니? 우리 친구가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구나."

"외숙모, 결혼 문제에서 돈을 밝히는 것과 신중한 것이 대체 뭐가 다른데요? 분별은 어디서 끝나고 탐욕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경솔한 일이라고 그분이 저와 결혼할까 봐 걱정하시더니, 이제는 그분이 겨우 10,000파운드 가진 아가씨를 잡으려 한다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는 걸 밝혀내고 싶어 하시네요."

"킹 양이 어떤 아가씨인지만 말해 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야."

"아주 괜찮은 아가씨일 거예요. 흠잡을 만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재산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킹 양한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잖니?"

"안 줬지요. 왜 줬어야 하는데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분이 *제* 마음을 얻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관심도 없고 똑같이 가난한 아가씨한테 구애할 까닭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곧바로 그 아가씨한테 관심을 쏟는 건 어딘가 품위가 없어 보이는구나."

"처지가 궁한 남자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지킬 법한 그 모든 우아한 예의범절을 차릴 겨를이 없어요. *그 아가씨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싫어해야 하죠?"

"*그 아가씨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아지는 건 아니야. 그 아가씨에게도 무언가, 분별이든 감정이든 모자란 데가 있다는 걸 보여 줄 뿐이지."

"좋아요."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외숙모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분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고 *그 아가씨는* 어리석은 사람인 걸로 해요."

"아니야, 리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더비셔에서 그렇게 오래 산 젊은이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

"아, 그게 다라면, 저는 더비셔에 사는 젊은 남자들을 아주 하찮게 봐요. 그 사람들과 친한, 하트퍼드셔에 사는 친구들도 별로 나을 게 없고요. 다들 지긋지긋해요. 하늘이 도우셔서 저는 내일, 호감 가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예절로도 분별로도 내세울 게 없는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요. 결국 사귈 가치가 있는 건 멍청한 남자들뿐이에요."

"조심하렴, 리지. 그 말에서는 실망한 티가 짙게 나는구나."

연극이 끝나 헤어지기 전에, 엘리자베스는 외삼촌 내외가 여름에 떠나려는 유람 여행에 함께 가자는 뜻밖의 초대를 받는 행복을 누렸다.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다 정하지 못했어." 가디너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호수 지방까지 갈지도 몰라."

엘리자베스에게 이보다 마음에 드는 계획은 있을 수 없었고, 엘리자베스는 더없이 기꺼이, 고마워하며 초대를 받아들였다. "외숙모, 아, 외숙모," 엘리자베스가 황홀해하며 소리쳤다.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저한테 새 생명과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네요. 실망이여 우울이여, 이제 안녕이에요. 바위와 산에 비하면 남자들이 다 뭐예요? 아, 우리는 얼마나 황홀한 시간을 보낼까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정말이지*, 무엇 하나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다른 여행객들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를 다녀왔는지 *꼭* 알고 있을 거고, 무엇을 보았는지 *꼭* 기억할 거예요. 호수며 산이며 강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이지도 않을 거고, 어느 한 경치를 이야기하려다가 그게 어디쯤 있었는지를 두고 말다툼을 시작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의* 첫 감탄만큼은 여느 여행객들의 감탄보다 덜 참기 힘든 것이 되게 해요."

# 제28장

이튿날 길에서 보는 것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웠다. 언니가 건강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을 만큼 좋아 보였고 북쪽으로 떠날 여행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기쁨이 솟았으니, 엘리자베스는 한껏 즐거운 기분이었다.

큰길을 벗어나 헌스퍼드로 가는 좁은 길로 접어들자 모두의 눈이 목사관을 찾았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번에는 보이려니 했다. 길 한쪽은 로징스 영지의 울타리가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들은 온갖 이야기가 떠올라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목사관이 눈에 들어왔다. 길 쪽으로 비탈져 내려온 정원, 그 안에 선 집, 초록색 말뚝 울타리와 월계수 생울타리, 모든 것이 다 왔다고 알려 주고 있었다. 콜린스 씨와 샬럿이 문간에 나타났고, 일행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웃는 가운데 마차는 짧은 자갈길을 따라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대문 앞에 멈췄다. 일행은 순식간에 경마차에서 내려 서로 얼굴을 보며 반가워했다. 콜린스 부인은 더없이 들뜬 기쁨으로 친구를 맞았고,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다정하게 맞아 주는 것을 보니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었다. 엘리자베스는 사촌의 태도가 결혼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격식 차린 예의는 예전 그대로였고,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를 몇 분이나 대문 앞에 붙잡아 두고 식구들 하나하나의 안부를 묻고 대답을 들었다. 그러고는 현관이 얼마나 깔끔한지 가리켜 보인 것 말고는 더 지체하지

않고 일행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보란 듯이 격식을 차려 자기의 누추한 거처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했고, 아내가 다과를 권한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되풀이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한껏 으스대는 모습을 볼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의 균형 잡힌 크기며 방향이며 가구를 자랑할 때 그가 특히 자기에게 대고 말하는 듯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자기를 거절해서 무엇을 놓쳤는지 느끼게 해 주고 싶은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깔끔하고 편안해 보이기는 했어도, 엘리자베스는 뉘우치는 한숨 한 번으로 그를 흐뭇하게 해 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런 반려를 두고도 그렇게 쾌활한 얼굴을 할 수 있는 친구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콜린스 씨가 아내로서 부끄러워할 만한 말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았는데, 엘리자베스는 저도 모르게 샬럿에게 눈길을 돌렸다. 한두 번은 샬럿의 얼굴이 희미하게 붉어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대개 샬럿은 현명하게도 못 들은 척했다. 찬장에서 난로 울에 이르기까지 방 안의 가구를 하나하나 다 감상하고 오는 길에 있었던 일과 런던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할 만큼 앉아 있고 나서, 콜린스 씨는 정원을 거닐자고 일행을 청했다. 정원은 넓고 잘 꾸며져 있었고, 그가 몸소 가꾸었다. 정원 일은 그의 가장 점잖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다. 샬럿이 그 일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며 되도록 많이 하라고 권한다고 털어놓을 때, 엘리자베스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는 샬럿의 침착함에 감탄했다. 콜린스 씨는 정원의 길과 샛길을 하나하나 앞장서 걸으며, 자기가 바라는 칭찬을 늘어놓을 틈도 거의 주지 않고 경치를 하나하나 가리켜 보였는데, 그 설명이 어찌나 꼼꼼한지 아름다움은 완전히 뒷전이 되었다. 그는 사방의 밭이 몇 뙈기인지 셀 수 있었고, 가장 멀리 있는 작은 숲에 나무가 몇 그루인지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정원이, 아니 이 고장이나 이 나라 전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경치도, 그의 집 정면 거의 맞은편에서 영지를 두른 나무들 사이로 트인 틈으로 내다보이는 로징스의 전망에는 견줄 수 없었다. 높직한 언덕 위에 자리를 잘 잡은, 근래에 지은 훌륭한 건물이었다.

콜린스 씨는 정원에서 나가 자기 풀밭 두 곳까지 일행을 데리고 돌고 싶어 했지만, 숙녀들은 서리가 녹다 남은 길을 걸을 만한 신발이 없어서 되돌아왔다. 윌리엄 경이 그를 따라가는 동안 샬럿은 동생과 친구를 데리고 집 안을 구경시켜 주었다. 아마 남편의 도움 없이 집을 보여 줄 기회가 생겨서 무척 흐뭇했을 것이다. 집은 작은 편이었지만 튼튼하게 지어졌고 쓰기 편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짜임새 있게 갖춰지고 정돈되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모두 샬럿의 공으로 돌렸다. 콜린스 씨를 잊을 수만 있다면 집 안 어디에나 정말로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고, 샬럿이 그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눈에 훤히 보여서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주 잊히는 게 틀림없다고 짐작했다.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영부인이 아직 이 고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자 콜린스 씨가 끼어들어 말했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다가오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을 뵙는 영광을 누리실 텐데, 영부인께 반하시리라는 것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그분은 상냥하게 굽어살피심 그 자체이시니, 예배가 끝나면 틀림없이 영부인께서 얼마간 눈길을 주시는 영광도 누리실 겁니다. 여기 머무시는 동안 영부인께서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영광을 베푸실 때마다 엘리자베스 양과 제 처제 마리아 양도 함께 불러 주시리라고 저는 거의 망설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 샬럿을 대하시는 태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씩 로징스에서 저녁을 먹는데, 걸어서 돌아가는 것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영부인의 마차가 어김없이 저희를 위해 준비됩니다. *바로잡자면* 영부인의 마차 가운데 한 대라고 해야겠군요. 여러 대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캐서린 영부인은 정말 존경할 만하고 분별 있는 분이야." 샬럿이 덧붙였다. "그리고 더없이 세심하게 챙겨 주시는 이웃이고."

"그렇고말고요, 여보. 내가 늘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공경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분이지요."

저녁 시간은 주로 하트퍼드셔 소식을 주고받고 이미 편지에 쓴 이야기를 다시 하며 지나갔다. 그 시간이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혼자 방에 앉아, 샬럿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샬럿이 남편을 이끄는 솜씨와 남편을 참고 견디는 침착함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머무는 동안 어떻게 지내게 될지도 미리 그려 보아야 했다. 늘 하는 일들의 조용한 흐름, 콜린스 씨가 끼어드는 성가신 일, 로징스와 오가며 누릴 즐거움까지. 생기 넘치는 상상력이 곧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다.

이튿날 한낮쯤, 엘리자베스가 산책을 나가려고 방에서 채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란이 일어 온 집안이 뒤집힌 듯했다. 잠시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누군가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 올라오며 큰 소리로 엘리자베스를 불렀다. 문을 열자 층계참에 마리아가 서 있었는데, 흥분해서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아, 일라이저 언니! 어서 식당으로 와 봐요, 굉장한 구경거리가 있어요! 뭔지는 말 안 할래요. 어서요, 당장 내려와요."

엘리자베스가 아무리 물어도 소용없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둘은 이 놀라운 구경거리를 찾아 좁은 길 쪽으로 난 식당으로 뛰어 내려갔다. 그것은 낮은 포장 없는 경마차를 타고 정원 대문 앞에 멈춰 선 두 숙녀였다.

"겨우 이거야?"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적어도 돼지들이 정원에 들어온 줄 알았더니, 캐서린 영부인하고 따님뿐이잖아!"

"어머, 언니," 마리아는 그런 착각에 기겁하며 말했다. "캐서린 영부인이 아니에요. 나이 든 분은 그 댁에 함께 사는 젠킨슨 부인이에요. 다른 분은 드 버그 양이고요. 저 아가씨 좀 봐요. 정말 조그맣지요. 저렇게 마르고 작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바람 속에 샬럿을 밖에 세워 두다니 정말 지독하게 무례하구나. 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지?"

"아, 샬럿 언니 말로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대요. 드 버그 양이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주 큰 호의래요."

"생김새가 마음에 드는데." 엘리자베스가 다른 생각이 떠올라 말했다. "병약하고 심술궂어 보여. 그래, 그 사람한테 아주 잘 어울리겠다. 딱 알맞은 아내가 되겠어."

콜린스 씨와 샬럿은 둘 다 대문 앞에 서서 숙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로서는 참으로 재미있게도, 윌리엄 경은 현관에 버티고 서서 눈앞의 위대함을 경건하게 바라보다가 드 버그 양이 이쪽을 볼 때마다 연신 허리를 굽혔다.

마침내 더 할 말이 없어지자 숙녀들은 마차를 몰아 떠났고, 다른 사람들은 집 안으로 돌아왔다. 콜린스 씨는 두 아가씨를 보자마자 큰 행운을 얻었다고 축하하기 시작했고, 샬럿이 무슨 행운인지 설명해 주었는데, 일행 모두가 이튿날 로징스에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했다.

# 제29장

이 초대로 콜린스 씨의 승리는 완벽해졌다. 감탄하는 손님들에게 후원자의 위엄을 보여 주고, 영부인이 자기와 아내를 얼마나 정중하게 대하는지 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바라던 바였다. 그런데 그럴 기회가 이렇게 빨리 주어졌으니, 이것은 캐서린 영부인의 굽어살핌을 보여 주는 본보기로서 아무리 찬탄해도 모자랄 일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콜린스 씨가 말했다. "일요일에 영부인께서 차를 마시며 저녁 시간을 로징스에서 보내자고 저희를 부르셨다면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영부인께서 얼마나 상냥하신지 아는 터라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지요. 하지만 이런 호의를 누가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착하시자마자 이렇게 곧바로 그곳에서 저녁을 들자는 초대를 (게다가 일행 모두를 부르시는 초대를) 받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이번 일이 그리 놀랍지 않소." 윌리엄 경이 대답했다. "내 처지 덕분에 지체 높은 분들의 예절이 실제로 어떠한지 알게 되었으니 말이오. 궁정 언저리에서는 그런 우아한 예의의 본보기가 드물지 않소."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이튿날 아침까지 로징스 방문 말고는 거의 아무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다. 콜린스 씨는 그토록 훌륭한 방들과 그토록 많은 하인과 그토록 화려한 정찬을 보고 일행이 완전히 기가 질리지 않도록 무엇을 보게 될지 꼼꼼히 일러 주었다.

숙녀들이 옷을 차려입으러 흩어질 때 콜린스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사촌 아가씨, 옷차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캐서린 영부인께서는 영부인과 따님께 어울리는 그런 우아한 차림을 저희에게 바라시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옷 가운데 가장 나은 것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수수하게 차려입었다고 해서 캐서린 영부인께서 아가씨를 나쁘게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영부인께서는 신분의 차이가 지켜지는 것을 좋아하시니까요."

일행이 옷을 입는 동안 콜린스 씨는 두세 번이나 각자의 방문 앞에 와서, 캐서린 영부인께서는 저녁 식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신다며 서두르라고 했다. 영부인과 그 생활에 대한 이토록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사람 많은 자리에 별로 나가 본 적이 없는 마리아 루커스는 완전히 겁에 질렸고, 아버지가 세인트제임스 궁에서 왕을 알현할 날을 기다리던 때만큼이나 떨면서 로징스에서 인사드릴 순간을 기다렸다.

날씨가 좋아서 일행은 영지를 가로질러 반 마일쯤 기분 좋게 걸었다. 영지는 어디나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경치가 있게 마련이어서 엘리자베스도 마음에 드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콜린스 씨가 그 경치를 보면 터져 나오리라 기대한 만큼 황홀해할 수는 없었고, 그가 저택 정면의 창문을 하나하나 세어 보이며 그 유리를 다 끼우는 데 루이스 드 버그 경이 처음에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이야기해도 그리 감동하지 않았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 마리아의 두려움은 시시각각 커졌고, 윌리엄 경조차 아주 침착해 보이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캐서린 영부인에게 남다른 재능이나 놀라운 덕이

있어서 두려워할 만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고, 돈과 신분에서 나오는 위엄쯤이야 떨지 않고 지켜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현관 홀에 들어서자 콜린스 씨는 황홀한 표정으로 그 훌륭한 균형과 정교한 장식을 가리켜 보였고, 일행은 하인들을 따라 곁방을 지나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딸과 젠킨슨 부인이 앉아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영부인은 크게 굽어살펴 몸소 일어나 일행을 맞았다. 소개하는 일은 자기가 맡기로 콜린스 부인이 미리 남편과 정해 두었으므로, 소개는 그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을 온갖 사과와 감사의 말 없이 격식에 맞게 치러졌다.

세인트제임스 궁에까지 다녀온 윌리엄 경이었지만 주위를 둘러싼 위엄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아주 깊이 허리를 굽혀 절하고 한마디도 못 한 채 자리에 앉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의 딸은 넋이 나갈 만큼 겁에 질려 의자 끝에 걸터앉은 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엘리자베스는 이 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느꼈고, 눈앞의 세 숙녀를 침착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캐서린 영부인은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여자였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한때는 아름다웠을지도 몰랐다. 사람을 편하게 해 주는 기색은 없었고, 손님을 맞는 태도도 손님들이 자기네의 낮은 신분을 잊게 해 줄 만한 것이 아니었다. 말없이 있어서 무서운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위압적인 말투여서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위컴 씨를 떠올렸고, 그날 하루 본 것을 모두 미루어 보아 캐서린 영부인이 그가 말한 그대로의 사람이라고 믿었다.

어머니를 찬찬히 살피다가 그 얼굴과 몸가짐에서 다아시 씨와 닮은 데를 곧 찾아낸 뒤 딸에게 눈을 돌린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마르고 작다고 놀라던 마리아의 말에 하마터면 맞장구칠 뻔했다. 두 숙녀는 몸매로도 얼굴로도 조금도 닮지 않았다. 드 버그 양은 창백하고

병약했다. 못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이렇다 할 데가 없었고, 젠킨슨 부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할 때 말고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젠킨슨 부인은 생김새에 눈에 띄는 데가 하나도 없었고, 드 버그 양이 하는 말을 듣고 드 버그 양의 눈앞에 가리개를 알맞은 방향으로 세워 주는 일에만 온통 매달려 있었다.

몇 분 앉아 있다가 일행은 모두 창가로 가서 경치를 감상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콜린스 씨가 따라가서 그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가리켰고, 캐서린 영부인은 여름에 보면 훨씬 볼만하다고 친절하게 일러 주었다.

정찬은 대단히 훌륭했고, 콜린스 씨가 장담한 그 모든 하인과 그 모든 은식기가 다 있었다. 또 그가 미리 말한 대로 그는 영부인의 뜻에 따라 식탁 끝자리에 앉았는데, 인생이 이보다 더 큰 것을 줄 수는 없다고 느끼는 얼굴이었다. 그는 신이 나서 고기를 썰고 먹고 칭찬했다. 요리마다 그가 먼저 칭찬하고 다음에 윌리엄 경이 칭찬했는데, 이제 웬만큼 정신을 차린 윌리엄 경은 사위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풀이했고,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영부인이 어떻게 그것을 참고 들을 수 있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캐서린 영부인은 그 지나친 찬탄이 흐뭇한 모양이었고, 특히 식탁의 어떤 요리가 그들에게 처음 보는 것일 때면 더없이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별로 오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틈만 나면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샬럿과 드 버그 양 사이에 앉아 있었다. 샬럿은 캐서린 영부인의 말을 듣느라 바빴고, 드 버그 양은 식사 시간 내내 엘리자베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젠킨슨 부인은 주로 드 버그 양이 얼마나 조금 먹는지 지켜보면서 다른 요리를 좀 들어 보라고 권하고 몸이 불편한 게 아닌지 걱정하느라 바빴다. 마리아는 말을 꺼내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신사들은 먹고 감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숙녀들이 응접실로 돌아오자 캐서린 영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말고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영부인은 커피가 들어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했고, 무슨 문제든 워낙 단호하게 의견을 내놓아서 자기 판단에 누가 반박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영부인은 샬럿의 살림살이를 허물없이 꼬치꼬치 캐물었고, 그 살림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조언을 잔뜩 늘어놓았다. 그렇게 작은 식구는 모든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일러 주었고, 젖소와 닭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까지 가르쳤다. 엘리자베스는 남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구실만 생긴다면 이 위대한 숙녀가 마다할 만큼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콜린스 부인과 이야기하는 틈틈이 영부인은 마리아와 엘리자베스에게 이것저것 물었는데, 특히 집안에 대해 가장 아는 것이 없고 영부인이 콜린스 부인에게 평한 대로라면 아주 품위 있고 예쁘장한 아가씨인 엘리자베스에게 많이 물었다. 영부인은 틈틈이 엘리자베스에게, 자매가 몇이냐, 언니들이냐 동생들이냐, 그 가운데 곧 결혼할 사람이 있느냐, 다들 아름다우냐,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아버지는 어떤 마차를 두고 있느냐,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은 무엇이었느냐고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질문들이 하나같이 무례하다고 느꼈지만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캐서린 영부인이 말했다.

"아버지의 영지는 콜린스 씨에게 한정상속되었다지요? 콜린스 부인을 생각하면," 영부인은 샬럿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잘된 일이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영지를 여자 쪽에서 떼어 내 한정상속할 까닭이 나는 하나도 보이지 않소. 루이스 드 버그 경 집안에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소. 베넷 양은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오?"

"조금 합니다."

"아, 그럼… 언젠가 한번 들어 보면 좋겠구려. 우리 피아노는 일품이라, 아마 …보다도 나을 거요. 언젠가 한번 쳐 보시오. 동생들도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오?"

"한 명이 합니다."

"왜 다 같이 배우지 않았소? 다들 배웠어야 했소. 웹 집안 아가씨들은 모두 피아노를 치는데, 그 아버지는 베넷 양 아버지만큼 수입이 많지도 않소. 그림은 그리오?"

"아니요, 전혀 못 합니다."

"뭐요, 아무도 안 그린단 말이오?"

"한 사람도 안 그립니다."

"그것참 이상하구려. 하지만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지. 어머니가 봄마다 런던에 데려가서 선생들한테 배우게 했어야 했소."

"어머니는 마다하지 않으셨을 텐데, 아버지가 런던을 싫어하십니다."

"가정교사는 그만두고 떠났소?"

"가정교사를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정교사가 없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딸 다섯을 가정교사도 없이 집에서 키웠다니! 그런 말은 처음 듣소. 어머니가 딸들 교육에 완전히 매여 노예처럼 지냈겠구려."

엘리자베스는 웃음을 참기 어려웠지만, 그렇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럼 누가 가르쳤소? 누가 돌봐 주었소? 가정교사가 없었으니 내버려져 있었겠지."

"어떤 집안들에 비하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운데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울 방도가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늘 책을 읽으라는 격려를 받았고, 필요한 선생님은 다 모셨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야 물론 그럴 수 있었지요."

"그렇지, 그야 그렇겠지. 하지만 가정교사가 있으면 그런 걸 막아 주오. 내가 베넷 양 어머니를 알았다면 가정교사를 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했을 거요. 나는 늘 말하오. 꾸준하고 규칙적인 가르침 없이는 교육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그런 가르침은 가정교사만이 줄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가정교사를 구해 준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요. 나는 젊은 사람이 좋은 자리를 얻는 걸 보면 늘 기쁘오. 젠킨슨 부인의 조카딸 넷이 내 덕분에 아주 좋은 자리를 얻었고, 바로 요전 날에도 어쩌다 이름이 나왔을 뿐인 젊은 사람 하나를 추천했는데 그 집에서 아주 흡족해한다오. 콜린스 부인, 어제 멧커프 부인이 고맙다고 인사하러 찾아왔다는 얘기를 했던가? 포프 양이 보물이라고 하더이다. '캐서린 영부인, 저한테 보물을 주셨어요.' 하고 말이오. 베넷 양, 동생들 가운데 사교계에 나간 사람이 있소?"[1]

"네, 영부인, 모두 나갔습니다."

"모두! 뭐요, 다섯이 한꺼번에 다 나갔단 말이오? 참 별일이구려! 베넷 양은 겨우 둘째인데. 언니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동생들이 나가다니! 동생들은 아주 어리겠구려?"

"네, 막내는 열여섯 살도 안 됐습니다. *그 애*는 사람 많은 자리에 자주 나가기에는 너무 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부인, 언니들이 일찍 결혼할 형편이 못 되거나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해서 동생들이 사교 생활과 즐거움을 누릴 몫을 갖지 못한다면 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내도 맏이만큼 젊음의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까닭으로 붙잡혀 있어야 한다니요! 그래서는 자매간의 우애도, 섬세한 마음도 길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시오," 영부인이 말했다. "그 젊은 나이에 의견을 아주 단호하게 내놓는구려. 그래, 나이가 몇이오?"

"다 큰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나이를 털어놓으리라고 영부인께서 기대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캐서린 영부인은 곧바로 대답을 듣지 못한 데 몹시 놀란 듯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토록 위엄 있는 무례를 감히 가볍게 받아넘긴 사람은 아마 자기가 처음일 거라고 생각했다.

"스물은 넘지 않았을 게 틀림없소. 그러니 나이를 숨길 것 없소."

"스물한 살은 안 됐습니다."

신사들이 합류하고 차를 다 마시자 카드 탁자가 놓였다. 캐서린 영부인과 윌리엄 경, 콜린스 씨 부부는 카드리유 판에 앉았다. 드 버그 양이 카지노를 하겠다고 해서, 두 아가씨는 젠킨슨 부인을 도와 드 버그 양의 판을 채우는 영광을 누렸다. 그 탁자는 더할 나위 없이 따분했다. 젠킨슨 부인이 드 버그 양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을까, 불빛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지 않을까 걱정하는 말 말고는 놀이와 상관없는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다른 탁자에서는 훨씬 많은 말이 오갔다. 대개 캐서린 영부인이 말을 했다. 다른 세 사람이 저지른 실수를 지적하거나 자기 일화를 들려주었다. 콜린스 씨는 영부인이 하는 말마다 맞장구치고, 셈패를 하나 딸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너무 많이 땄다 싶으면 사과하느라 바빴다. 윌리엄 경은 별로 말이 없었다. 일화와 귀한 이름들을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 두는 중이었다.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딸이 하고 싶은 만큼 놀이를 하고 나자 탁자가 치워졌고, 콜린스 부인에게 마차를 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콜린스 부인은 고맙게 받아들였고 마차는 곧바로 준비되었다. 그러고 나서 일행은 난롯가에 둘러앉아 내일 날씨가 어떠할지 캐서린 영부인이 정해 주는 것을 들었다. 그 가르침을 듣던 일행은 마차가 왔다는 전갈에 불려 나갔고, 콜린스 씨는 감사의 말을 숱하게 늘어놓고 윌리엄 경은 그만큼 숱하게 허리를 굽힌 뒤 일행은 떠났다. 마차가 문 앞을 떠나자마자

사촌은 엘리자베스에게 로징스에서 본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 보라고 했고, 엘리자베스는 샬럿을 생각해서 실제보다 좋게 말해 주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얼마쯤 애를 써서 한 칭찬도 콜린스 씨를 조금도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는 곧 영부인 찬양을 제 손으로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

1. 사교계에 나간다는 것은 무도회와 방문 자리에 정식으로 나선다는 뜻이다.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동생이 대개 나가지 않았다.

# 제30장

윌리엄 경은 헌스퍼드에 한 주밖에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딸이 더없이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고 흔히 만나기 어려운 남편과 이웃을 두었다고 확신하기에는 그만한 방문으로도 충분했다. 윌리엄 경이 머무는 동안 콜린스 씨는 오전마다 그를 이륜마차에 태우고 나가 이 고장을 구경시켜 주었다. 하지만 윌리엄 경이 떠나자 식구들은 모두 늘 하던 일로 돌아갔고,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바뀌었어도 사촌의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되지는 않아서 고마웠다. 이제 콜린스 씨는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의 시간 대부분을 정원에서 일하거나, 길 쪽으로 난 자기 서재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창밖을 내다보며 보냈다. 숙녀들이 앉아 지내는 방은 집 뒤쪽에 있었다. 처음에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왜 식당을 거실로 쓰지 않는지 좀 의아했다. 식당이 더 넓고 볕도 더 잘 들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친구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아주 그럴듯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숙녀들이 그만큼 쾌적한 방에 앉아 있었다면 콜린스 씨는 틀림없이 자기 방에 훨씬 덜 붙어 있었을 테니,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방을 정한 샬럿의 솜씨를 높이 샀다.

응접실에서는 좁은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으므로, 어떤 마차가 지나가는지, 특히 드 버그 양이 포장 없는 경마차를 타고 얼마나 자주 지나가는지는 콜린스 씨 덕분에 알 수 있었다. 콜린스 씨는 그 일이 거의 날마다 있는데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와서 알려 주었다. 드 버그 양은 목사관 앞에 멈춰 샬럿과 몇 분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드물지 않았지만, 아무리 권해도 마차에서 내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콜린스 씨가 로징스까지 걸어가지 않는 날은 아주 드물었고, 그 아내가 같이 가야겠다고 여기지 않는 날도 많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 집안에 내줄 성직록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바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따금 영부인이 몸소 찾아오는 영광을 베풀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방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영부인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영부인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캐묻고, 하고 있는 바느질을 들여다보고는 다르게 하라고 일렀다. 가구 배치를 트집 잡기도 하고 하녀가 게으름을 피운 것을 찾아내기도 했으며, 다과를 받아들일 때에도 오로지 콜린스 부인이 식구 수에 비해 고기를 너무 큼직하게 덩어리로 들인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는 곧 알아차렸다. 이 위대한 숙녀는 주의 치안판사로 임명된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교구에서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판관이었다. 교구의 아무리 사소한 일도 콜린스 씨가 영부인에게 낱낱이 날라다 바쳤다. 그리고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다투려 들거나 불만을 품거나 너무 가난해지면, 영부인은 몸소 마을로 출동해서 다툼을 가라앉히고 불평을 잠재우고 꾸짖어서 화목하고 넉넉하게 만들었다.

로징스에서 저녁을 먹는 대접은 한 주에 두 번쯤 되풀이되었다. 윌리엄 경이 빠지고 저녁에 카드 탁자가 하나만 놓인다는 것을 빼면 그런 대접은 매번 첫날과 판박이였다. 그 밖의 약속은 많지 않았는데, 이웃의 생활 형편이 대체로 콜린스 부부의 손이 닿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에게는 그것이 조금도 나쁘지 않았고, 대체로 꽤 편안하게 지냈다. 샬럿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30분이 있었고,

이맘때치고는 날씨가 워낙 좋아서 바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 엘리자베스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길, 다른 사람들이 캐서린 영부인을 찾아가 있는 동안 자주 가던 곳은 영지의 그쪽 가장자리를 두른 트인 숲을 따라 난 길이었다. 거기에는 바람을 막아 주는 아늑한 오솔길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말고는 아무도 그 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고, 그곳에서는 캐서린 영부인의 호기심이 미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사이 머무는 기간의 첫 2주가 금세 지나갔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부활절 앞 주에는 로징스 식구가 한 사람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작은 모임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아시 씨가 몇 주 안에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아는 사람 가운데 그보다 낫다 싶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오면 로징스 모임에서 비교적 새로운 얼굴을 하나 보게 될 테고, 사촌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그에게 품은 빙리 양의 속셈이 얼마나 가망 없는지 알 수 있을 테니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 사촌은 분명 캐서린 영부인이 그의 짝으로 정해 둔 사람이었다. 캐서린 영부인은 그가 온다는 이야기를 더없이 흐뭇하게 했고, 그를 한껏 찬탄하는 말로 이야기했으며, 루커스 양과 엘리자베스가 이미 그를 자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거의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은 곧 목사관에도 알려졌다. 누구보다 먼저 그 소식을 확인하려고 콜린스 씨가 아침 내내 헌스퍼드 길로 열린 문지기 집들이 보이는 곳을 서성인 터였다. 마차가 영지로 들어서자 콜린스 씨는 허리를 굽혀 절한 뒤 이 대단한 소식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그는 인사를 드리러 서둘러 로징스로 갔다. 인사를 받을 캐서린 영부인의 조카가 두 사람이었다. 다아시 씨가

외삼촌인 ○○ 경의 작은아들 피츠윌리엄 대령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콜린스 씨가 돌아올 때 두 신사가 함께 따라와서 일행 모두를 크게 놀라게 했다. 샬럿은 남편의 방에서 그들이 길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곧장 다른 방으로 달려가 아가씨들에게 어떤 영광을 맞게 되었는지 알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예의는 네 덕분인 것 같아, 일라이저. 다아시 씨가 나를 보러 이렇게 빨리 오실 리가 없잖아."

엘리자베스가 그런 찬사를 받을 까닭은 전혀 없다고 손사래를 칠 겨를도 없이 초인종이 울려 그들이 온 것을 알렸고, 곧이어 세 신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앞장선 피츠윌리엄 대령은 서른 살쯤으로,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풍채와 말씨가 참으로 신사다웠다. 다아시 씨는 하트퍼드셔에서 늘 그랬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여느 때처럼 말을 아끼며 콜린스 부인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 친구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 더없이 침착한 기색으로 엘리자베스를 맞았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굽혀 인사만 했다.

피츠윌리엄 대령은 교양 있는 사람답게 스스럼없이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무척 유쾌하게 말을 이어 갔다. 하지만 그의 사촌은 집과 정원에 대해 콜린스 부인에게 가벼운 말 한마디를 건넨 뒤로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예의도 그만큼은 깨어났는지 엘리자베스에게 가족들은 다 평안하냐고 물었고, 엘리자베스는 늘 하던 대로 대답한 뒤 잠시 뜸을 들였다가 덧붙였다.

"큰언니가 석 달째 런던에 가 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언니를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가 언니를 본 적이 없다는 것쯤은 엘리자베스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빙리 집안 사람들과 제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가 알고 있다는 기색을 조금이라도 내비칠지 보고 싶었다. 베넷 양을 만나는 행운은

아직 누리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그가, 엘리자베스의 눈에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그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 않았고, 두 신사는 얼마 뒤 돌아갔다.

# 제31장

피츠윌리엄 대령의 몸가짐은 목사관에서 크게 칭찬을 받았고, 그곳 숙녀들은 모두 그가 로징스에 초대받아 가는 즐거움을 적잖이 보태 주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저택에 손님이 머무는 동안에는 목사관 사람들이 필요할 리 없었으므로, 그곳에서 초대가 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신사들이 도착하고 거의 한 주가 지난 부활절 날에야 그들은 그런 관심을 받는 영광을 누렸는데, 그나마도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길에 저녁에 건너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들은 캐서린 영부인도 그 딸도 거의 보지 못했고, 그사이 피츠윌리엄 대령은 목사관에 여러 차례 들렀지만 다아시 씨는 교회에서밖에 보지 못했다.

초대는 당연히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알맞은 시각에 캐서린 영부인의 응접실로 가서 일행에 끼었다. 영부인은 그들을 정중하게 맞았지만, 달리 부를 사람이 없을 때만큼 그들이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사실 영부인은 조카들에게 거의 정신이 팔려서, 방 안의 다른 누구보다 그들에게, 특히 다아시에게 훨씬 더 많이 말을 걸었다.

피츠윌리엄 대령은 그들을 보고 정말 반가운 눈치였다. 로징스에서는 무엇이든 반가운 기분 전환이었고, 게다가 콜린스 부인의 예쁜 친구가 대령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은 터였다. 이번에 대령은 엘리자베스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켄트와 하트퍼드셔 이야기, 여행 다니는 일과 집에 머무는 일, 새로 나온 책과 음악 이야기를 어찌나 유쾌하게 늘어놓는지,

엘리자베스는 그 방에서 그 절반만큼도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이 워낙 생기 있게 술술 이야기를 주고받자 캐서린 영부인은 물론 다아시 씨까지 그쪽에 눈길을 주었다. *그의* 눈길은 금세, 그리고 거듭 호기심을 띠고 두 사람에게 향했고, 영부인도 얼마 뒤 같은 궁금증을 품었다는 것은 한결 드러내 놓고 표가 났다. 영부인은 거리낌 없이 이렇게 소리쳤다.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피츠윌리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겐가? 베넷 양에게 무얼 들려주고 있나? 나도 좀 들어 보세."

"음악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더는 대답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대령이 말했다.

"음악이라! 그럼 크게 말하게. 내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이야기일세. 음악 이야기라면 나도 한몫 끼어야지. 영국에서 나만큼 음악을 진정으로 즐기고 타고난 안목이 좋은 사람은 드물 걸세. 내가 배우기만 했더라면 대단한 솜씨가 되었을 게야. 앤도 그랬을 걸세, 건강이 허락해서 열심히 익힐 수만 있었다면. 그 애가 연주했다면 틀림없이 훌륭했을 걸세. 조지애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아시?"

다아시 씨는 누이의 솜씨를 다정하게 칭찬했다.

"그 애 이야기를 그렇게 좋게 들으니 무척 반갑군." 캐서린 영부인이 말했다.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뛰어나기를 바랄 수 없다고 내가 그러더라고 꼭 전해 주게."

"그런 충고는 필요 없을 겁니다, 이모님." 다아시가 대답했다. "그 애는 아주 꾸준히 연습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좋지. 연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네. 다음에 편지를 쓸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야겠군. 나는 젊은 아가씨들에게 꾸준히 연습하지 않고서는 음악에서 뛰어날 수 없다고 자주 말한다네. 베넷 양에게도 연습을 더 하지 않으면 정말로 잘

치게 되지는 못할 거라고 여러 번 말했고, 콜린스 부인한테도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 날마다 로징스에 와서 젠킨슨 부인 방에 있는 피아노를 쳐도 얼마든지 좋다고 자주 말했지. 저택의 그쪽이라면 아무한테도 방해가 되지 않을 테니 말이야."

다아시 씨는 이모의 무례함이 조금 부끄러운 듯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커피를 다 마시자 피츠윌리엄 대령은 엘리자베스에게 연주해 주겠다던 약속을 일깨웠고,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대령은 의자를 끌어다 곁에 앉았다. 캐서린 영부인은 노래를 절반쯤 듣다가 아까처럼 다른 조카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윽고 그 조카는 영부인 곁을 떠나 늘 그렇듯 느긋한 걸음으로 피아노 쪽으로 다가가더니, 아름다운 연주자의 얼굴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자리에 버티고 섰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리고, 처음으로 적당히 쉬어 가는 대목에서 짓궂은 미소를 띤 채 그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다아시 씨, 이렇게 위엄을 잔뜩 갖추고 들으러 오시다니 저를 겁주실 작정이군요. 하지만 누이동생께서 *정말로* 그렇게 잘 치신다 해도 저는 겁먹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는 남이 겁을 주려 한다고 해서 겁먹는 것만은 절대 못 견디는 고집이 있어서, 누가 저를 겁주려 할 때마다 제 용기는 오히려 더 솟아난답니다."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제가 겁을 드릴 속셈을 품었다고 정말로 믿으실 리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알고 지내는 기쁨을 누린 지도 꽤 되었으니, 실은 본인 생각도 아닌 의견을 이따금 내세우면서 큰 즐거움을 느끼신다는 것쯤은 저도 압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를 그렇게 그려 낸 말에 소리 내어 웃고는 피츠윌리엄 대령에게 말했다. "대령님 사촌께서 저에 대해 아주 근사한

인상을 심어 주시겠네요. 제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말라고 가르쳐 주실 테고요. 이 고장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으로 행세해 볼까 했는데, 하필 여기서 제 사람됨을 이렇게 잘 들춰낼 수 있는 분을 만나다니 저는 운이 참 없나 봐요. 정말이지 다아시 씨, 하트퍼드셔에서 아신 제 흠을 죄다 꺼내시다니 너그럽지 못하세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된다면, 아주 현명하지 못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시면 저도 앙갚음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러다 친척분들이 들으시면 기겁하실 이야기가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 친구를 무슨 일로 고발하실지 꼭 들려주세요." 피츠윌리엄 대령이 힘주어 말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구는지 알고 싶군요."

"그럼 들려 드릴게요. 하지만 아주 끔찍한 이야기니 각오하세요.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트퍼드셔에서 이분을 처음 본 건 어느 무도회에서였어요. 그런데 그 무도회에서 이분이 무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춤을 딱 네 곡만 추셨어요! 마음 아프게 해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신사들이 모자랐는데도 딱 네 곡만 추셨고, 제가 확실히 아는데 짝이 없어 앉아 있던 아가씨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다아시 씨, 이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시겠지요."

"그때 저는 그 무도회에서 제 일행 말고는 어느 숙녀와도 아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무도회장에서는 아무도 남에게 소개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피츠윌리엄 대령님, 다음엔 뭘 칠까요? 제 손가락이 분부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다아시가 말했다. "소개를 청했더라면 더 현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저를 내세우는 데 서툽니다."

"그 까닭을 사촌분께 여쭤볼까요?"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피츠윌리엄 대령에게 대고 말했다. "분별 있고 교육도 받았고 세상 물정도 아는 분이 어째서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세우는 데 서투신지 여쭤볼까요?"

"그 질문이라면," 피츠윌리엄이 말했다. "이 친구한테 묻지 않고도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수고를 하기 싫어서예요."

"저는 분명," 다아시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처럼 처음 보는 이와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재주가 저한테는 없어서, 남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상대의 말투에 장단을 맞추거나 상대의 관심사에 흥미 있는 척하지를 못합니다."

"제 손가락은,"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많은 여자분들의 손가락이 그러는 것처럼 이 피아노 위를 능숙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만한 힘도 빠르기도 없어서 그만한 표현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늘 연습하는 수고를 마다한 제 탓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 손가락이 다른 어느 여자의 손가락만큼 뛰어나게 연주할 능력이 없다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다아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시간을 훨씬 더 잘 쓰셨습니다. 연주를 들을 특권을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모자란 점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둘 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때 캐서린 영부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큰 소리로 묻는 바람에 두 사람의 대화가 끊겼고,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캐서린 영부인은 다가와서 몇 분 동안 듣더니 다아시에게 말했다.

"베넷 양도 연습을 더 하고 런던 선생한테 배울 수만 있다면 영 못 치지는 않겠군. 손가락 쓰는 법은 아주 잘 아네. 다만 취향이 앤만은 못해. 앤은 건강이 허락해서 배울 수만 있었다면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을 걸세."

엘리자베스는 사촌을 칭찬하는 말에 다아시가 얼마나 진심으로 맞장구치는지 보려고 그쪽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른 어느 때에도 사랑의 기미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드 버그 양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두루 보고 엘리자베스는 빙리 양을 위한 위안을 하나 얻었는데, 빙리 양이 그의 친척이었더라도 그가 *빙리 양*과 결혼할 가능성은 딱 그만큼은 되었으리라는 위안이었다.

캐서린 영부인은 엘리자베스의 연주를 두고 계속 한마디씩 했고, 손놀림과 취향에 관한 가르침도 잔뜩 섞었다. 엘리자베스는 예의를 지키느라 꾹 참으며 그 말을 다 받아들였고, 신사들의 청에 따라 영부인의 마차가 모두를 집에 데려다줄 채비를 마칠 때까지 피아노 앞을 지켰다.

# 제32장

이튿날 아침, 콜린스 부인과 마리아가 볼일을 보러 마을에 나간 사이 엘리자베스는 혼자 앉아 제인에게 편지를 쓰다가, 손님이 왔다는 틀림없는 신호인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다. 마차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캐서린 영부인일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까 봐 이런저런 무례한 질문을 피하려고 반쯤 쓴 편지를 치우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정말 놀랍게도 다아시 씨가, 그것도 다아시 씨 혼자서 방으로 들어왔다.

그도 엘리자베스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눈치였고, 숙녀들이 모두 집에 있는 줄 알았다며 불쑥 찾아온 것을 사과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엘리자베스가 로징스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나자 이내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을 판이었다. 그러니 무엇이든 꼭 생각해 내야 했다. 이 다급한 사정에서 엘리자베스는 하트퍼드셔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떠올렸고, 그들이 서둘러 떠난 일을 두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운을 뗐다.

"지난 11월에는 모두들 네더필드를 참 갑작스럽게 떠나셨습니다, 다아시 씨! 여러분이 그렇게 금방 뒤따라오신 걸 보고 빙리 씨는 무척 반갑게 놀라셨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빙리 씨는 바로 전날 떠나셨으니까요. 런던을 떠나실 때 빙리 씨와 누이분들은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모두 잘 지냅니다. 고맙습니다."

그 밖의 대답은 들을 수 없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엘리자베스는 잠시 뒤에 덧붙였다.

"빙리 씨는 네더필드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는 건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은 아주 적을 겁니다. 친구가 많은 데다, 친구와 약속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나이니까요."

"네더필드에 거의 머물지 않으실 작정이라면, 아예 그곳을 내놓으시는 편이 이웃을 위해서는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눌러살 집안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빙리 씨는 이웃의 편의보다 자기 편의를 위해 그 집을 빌리셨을 테니, 그 집을 두든 내놓든 같은 원칙을 따르시리라 각오해야 할 겁니다."

"사들일 만한 마땅한 영지가 나오는 대로 그 집을 내놓는다 해도," 다아시가 말했다. "저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친구 이야기를 더 오래 하기가 두려웠고, 달리 할 말도 없었으므로 이제 화제를 찾는 수고는 그에게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눈치를 채고 곧 이렇게 말을 꺼냈다. "아주 아늑한 집 같습니다. 콜린스 씨가 처음 헌스퍼드에 왔을 때 이모님께서 손을 많이 보아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을 그보다 더 고마워할 사람에게 베푸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콜린스 씨는 아내를 아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콜린스 씨를 받아들였을 분별 있는 여자, 받아들이고 나서 그를 행복하게 해 줄 분별 있는 여자는 아주 드문데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으니, 콜린스 씨 주변 분들은 기뻐하실

만합니다. 제 친구는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콜린스 씨와 결혼한 일이 그 친구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여겨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친구는 더없이 행복해 보이고, 실리를 따져 보면 그 친구에게 아주 좋은 혼처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무척 좋겠습니다."

"가깝다고 하셨습니까? 50마일 가까이 됩니다."

"길만 좋다면 50마일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반나절 남짓한 길입니다. 네, 저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 거리를 이 혼처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콜린스 부인이 친정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는 말도 저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베넷 양이 하트퍼드셔를 그만큼 아낀다는 증거입니다. 롱번 바로 근처를 벗어나기만 하면 어디든 멀게 느껴지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 어렴풋한 미소 같은 것이 떠올랐고, 엘리자베스는 그 뜻을 알 것 같았다. 자기가 제인과 네더필드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가 짐작하는 게 틀림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여자가 친정에서 너무 가까운 데 자리를 잡을 수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멀고 가까움은 상대적이어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행 비용쯤은 대수롭지 않을 만큼 재산이 넉넉하다면 거리는 아무 흠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콜린스 씨 부부는 수입이 넉넉하기는 해도 자주 오갈 수 있을 만큼은 아니고, 제 친구는 지금 거리의 *절반*보다 가깝지 않으면 스스로 친정 *가까이에* 산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아시 씨는 의자를 엘리자베스 쪽으로 조금 당기며 말했다. "*베넷 양께서* 그렇게까지 고향에 매여 계실 까닭은 없습니다. *베넷 양께서* 늘 롱번에만 계셨을 리는 없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놀란 얼굴이 되었다. 그 신사는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었는지, 의자를 도로 물리고 탁자에서 신문을 집어 훑어보며 한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켄트는 마음에 드십니까?"

이 고장을 두고 양쪽 모두 차분하고 간결한 짧은 대화가 이어졌지만, 산책에서 막 돌아온 샬럿과 그 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곧 끝이 났다. 두 사람이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샬럿과 마리아는 놀랐다. 다아시 씨는 착오가 있어서 베넷 양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는, 누구에게도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은 채 몇 분 더 앉아 있다가 돌아갔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다아시가 떠나자마자 샬럿이 말했다. "일라이저, 그 사람 너한테 반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허물없이 우리 집을 찾아올 리가 없지."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그가 내내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샬럿이 아무리 그러기를 바란다 해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짐작을 하다가 결국 할 일을 찾기가 어려워서 들렀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철을 생각하면 그쪽이 더 그럴듯했다. 들판에서 하는 사냥은 모두 끝난 때였다. 집 안에는 캐서린 영부인과 책과 당구대가 있었지만, 신사들이 늘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목사관이 가까워서인지, 목사관까지 걷는 길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서인지, 두 사촌은 이때부터 거의 날마다 그리로 걸어오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들은 아침나절 이런저런 시각에 찾아왔고, 때로는 따로, 때로는 함께 왔으며,

이따금 이모와 함께 오기도 했다. 피츠윌리엄 대령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서 온다는 것은 모두가 똑똑히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믿으니 대령이 더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대령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흐뭇함과 대령이 드러내 놓고 보내는 호감 때문에 한때 마음에 두었던 조지 위컴을 떠올리게 되었다. 둘을 견주어 보면 피츠윌리엄 대령의 몸가짐에는 사람을 사로잡는 부드러움이 덜했지만, 아는 것은 대령이 가장 많을지도 모른다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그러나 다아시 씨가 왜 그렇게 자주 목사관에 오는지는 알기가 더 어려웠다.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오는 것일 리는 없었다. 곧잘 10분씩이나 입도 열지 않고 앉아 있었고, 말을 할 때도 마음이 내켜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았다. 자기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예의를 위해 바치는 희생 같았다. 정말로 생기 있어 보이는 일은 드물었다. 콜린스 부인은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몰랐다. 피츠윌리엄 대령이 이따금 그가 멍하니 굼뜨게 구는 것을 놀리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콜린스 부인이 아는 다아시 씨만으로는 그 점을 알 길이 없었다. 콜린스 부인은 이 변화가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 친구 일라이저라고 믿고 싶었으므로, 진지하게 그것을 알아내는 일에 나섰다. 로징스에 갈 때마다, 또 다아시 씨가 헌스퍼드에 올 때마다 지켜보았지만 그다지 소득은 없었다. 그가 그 친구를 많이 바라보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따져 볼 여지가 있었다. 진지하고 흔들림 없는 눈길이었지만 그 안에 흠모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콜린스 부인은 자주 의심스러웠고, 어떤 때는 그저 넋을 놓고 있는 것으로만 보였다.

콜린스 부인은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두 번 넌지시 말해 보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럴 때마다 웃어넘겼다. 콜린스 부인은 그 이야기를 더 밀어붙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다.

실망으로만 끝날지 모르는 기대를 부추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데, 콜린스 부인이 보기에는 그가 자기 손안에 들어왔다고 엘리자베스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친구가 품은 반감이 남김없이 사라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콜린스 부인은 엘리자베스를 위해 친절한 궁리를 하다가 이따금 엘리자베스를 피츠윌리엄 대령과 맺어 줄 계획도 세워 보았다. 대령은 견줄 데 없이 유쾌한 남자였고, 엘리자베스에게 호감을 품은 것이 분명했으며, 처지도 더할 나위 없이 알맞았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과 저울질해 볼 것이 있었으니, 다아시 씨는 교회의 성직록을 나누어 줄 권한을 상당히 쥐고 있었고 그 사촌에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었다.

# 제33장

엘리자베스는 영지 안을 거닐다가 뜻밖에 다아시 씨와 마주친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하필 그 사람을 데려다 놓는 얄궂은 운이 엘리자베스는 영 못마땅했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 마주쳤을 때 그곳이 자기가 즐겨 찾는 곳이라고 일부러 일러 두었다. 그런데도 두 번째로 그런 일이 생기다니 참으로 이상했다! 그러나 정말 그랬고, 세 번째까지 있었다. 일부러 심술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럴 때면 다아시 씨는 의례적인 안부 몇 마디에 어색한 침묵을 잠시 두고 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몸을 돌려 엘리자베스와 함께 걸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다아시 씨는 말을 많이 하는 법이 없었고, 엘리자베스도 굳이 애써 말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로 마주쳤을 때, 엘리자베스는 그가 앞뒤 없는 이상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헌스퍼드에 와 있는 게 즐거운지, 혼자 걷기를 좋아하는지, 콜린스 씨 부부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것들이었다. 게다가 로징스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자베스가 그 저택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한다고 하자, 다음에 켄트에 오면 엘리자베스가 *그곳에서도* 머물게 되리라고 여기는 눈치였다. 하는 말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듯했다. 피츠윌리엄 대령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 무슨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면, 그쪽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넌지시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었으므로, 엘리자베스는 그 생각에 조금 마음이 어지러웠고 목사관 맞은편 울타리 문 앞에 이르자 무척 반가웠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걸으면서 제인이 보낸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으며, 제인이 기운 없이 썼다는 것을 보여 주는 몇몇 대목을 곰곰이 곱씹고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보니, 이번에는 다아시 씨가 또 놀라게 하는 대신 피츠윌리엄 대령이 마주 오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얼른 편지를 치우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쪽으로도 산책을 나오시는 줄은 몰랐어요."

"영지를 한 바퀴 돌던 참이에요." 대령이 대답했다. "해마다 대개 그러듯이요. 마지막에는 목사관에 들를 생각이었고요. 더 멀리 가시나요?"

"아뇨, 곧 돌아서려던 참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말대로 몸을 돌렸고, 두 사람은 함께 목사관 쪽으로 걸었다.

"토요일에 켄트를 떠나시는 건 확실한가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네, 다아시가 또 미루지만 않는다면요. 하지만 저야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이에요. 일은 그 친구가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하니까요."

"정한 대로 일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고르는 힘이 자기한테 있다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끼시겠지요. 다아시 씨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힘을 즐기는 것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하기를 무척 좋아하기는 하지요." 피츠윌리엄 대령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친구는 부자고 다른 많은 사람은 가난하니, 남들보다 제 뜻을 이룰 수단을 더 많이 쥐고 있을 뿐인데, 이건 제 처지에서 절실하게 하는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작은아들[1]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남에게 기대어 사는 데 익숙해져야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 백작의 작은아들은 그 어느 쪽도 거의 모를 것 같은데요. 자,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대령님이 하고 싶은 걸 참거나 남에게 기대어 본 적이 대체 언제 있었나요?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거나 갖고 싶은 걸 못 가져 본 적이 언제 있었어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군요. 그런 종류의 고생은 많이 해 보지 못했다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에서는 돈이 없어서 괴로울 수 있어요. 작은아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하게 된다면 또 모르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많은 것 같던데요."

"우리는 돈 쓰는 버릇 때문에 남에게 너무 기대게 돼요. 제 신분에서 돈을 아예 따지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건,"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 엘리자베스는 그 생각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여쭤보는데, 백작의 작은아들은 보통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형님이 몹시 병약하지만 않다면 50,000파운드 넘게는 부르지 않으시겠지요."

대령도 같은 투로 대꾸했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그쳤는데, 엘리자베스는 방금 오간 말에 자기가 마음을 쓴다고 대령이 생각할까 봐 침묵을 깨려고 곧 이렇게 말했다.

"사촌께서 대령님을 데리고 오신 건 주로 마음대로 부릴 사람을 곁에 두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편리함을 오래 누리려면 결혼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누이동생으로도 충분하겠지요. 누이동생은 오로지 그분 혼자 돌보시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피츠윌리엄 대령이 말했다. "그 이점은 저와 나눠야 해요. 저도 그 친구와 함께 다아시 양의 후견을 맡고 있어요."

"어머, 그러세요? 그럼 어떤 후견인이신가요? 맡으신 아가씨가 속을 많이 썩이나요? 그 나이 아가씨들은 가끔 다루기가 좀 어려운 법이에요. 진짜 다아시 집안 기질을 타고났다면 제 뜻대로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보니 대령이 엘리자베스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아시 양이 왜 걱정을 끼칠 것 같으냐고 곧바로 묻는 대령의 태도를 보고,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어쩌다 진실에 꽤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확신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대답했다.

"놀라실 것 없어요. 그 아가씨에 대해 나쁜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분고분한 아가씨일 거예요. 제가 아는 숙녀분들 가운데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이 그 아가씨를 무척 아껴요. 대령님도 그분들을 아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조금 알지요. 그분들 집안의 빙리 씨는 유쾌하고 신사다운 사람이에요. 다아시와 아주 친한 친구고요."

"아, 네." 엘리자베스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다아시 씨는 빙리 씨한테 유난히 친절하시지요. 아주 끔찍이도 보살펴 주신다면서요."

"보살핀다라! 그래요, 이리로 오는 길에 다아시가 해 준 이야기로 보면 빙리는 그 친구한테 큰 신세를 진 것 같으니, 다아시는 빙리가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일에서 *정말로* 그 친구를 보살펴 준다고 믿어요. 하지만 빙리한테 사과해야겠군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빙리라고 짐작할 근거는 제게 없으니까요. 다 어림짐작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아시로서는 당연히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을 일이에요. 그 숙녀의 집안에 흘러 들어가기라도 하면 곤란해질 테니까요."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게 빙리라고 짐작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아시가 한 말은 이게 다예요. 얼마 전에 한 친구를 아주 경솔한 결혼이 불러올 곤란에서 구해 냈다고 스스로 대견해하면서도, 그 친구 이름이나 다른 자세한 사정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빙리라고 의심한 건 그 친구가 그런 곤경에 빠질 만한 젊은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이 지난여름 내내 함께 지냈다는 걸 알기 때문일 뿐이에요."

"다아시 씨가 그렇게 끼어든 이유를 말해 주던가요?"

"그 숙녀한테 아주 큰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고 무슨 수를 썼대요?"

"자기가 쓴 수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피츠윌리엄이 웃으며 말했다. "방금 제가 들려 드린 것만 이야기했어요."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부풀어 올랐다. 피츠윌리엄은 잠시 엘리자베스를 지켜보다가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해 주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사촌분의 처신은 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왜 그분이 심판을 맡아야 하나요?"

"참견이 지나쳤다고 하고 싶으신 건가요?"

"친구가 품은 마음이 마땅한지 아닌지 다아시 씨가 정할 무슨 권리가 있는지, 또 자기 판단 하나만으로 그 친구가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 정하고 이끌 권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정신을 차리고 말을 이었다. "자세한 사정은 하나도 모르니 그분을 나무라는 건 공정하지 않겠지요.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그리 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짐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피츠윌리엄이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 제 사촌이 거둔 승리의 영광이 너무 딱하게 깎이는데요."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다아시 씨를 너무나 정확히 그려 낸 말 같아서, 엘리자베스는 대답을 했다가는 자기를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불쑥 화제를 바꾸어 목사관에 닿을 때까지 이런저런 시시한 이야기만 했다. 목사관에 돌아와 손님이 떠나자마자 엘리자베스는 제 방에 틀어박혀, 들은 이야기를 아무 방해 없이 곰곰이 되짚었다. 엘리자베스와 이어진 사람들 말고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 리는 없었다. 다아시 씨가 그토록 한없이 휘두를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둘씩이나* 있을 리가 있을까? 빙리 씨와 제인을 떼어 놓으려고 꾸민 일에 다아시 씨가 끼어 있었다는 것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지만, 엘리자베스는 늘 그 일을 주로 꾸미고 처리한 사람은 빙리 양이라고 여겨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허영에 속아 착각한 게 아니라면, 제인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오만과 변덕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너그러운 마음에서 행복의 희망을 한동안 송두리째 앗아 간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끼친 해악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숙녀한테 아주 큰 결격 사유가 있었다." 피츠윌리엄 대령은 그렇게 말했다. 그 큰 결격 사유란 아마도 이모부 하나는 시골 변호사이고 외삼촌 하나는 런던에서 장사를 한다는 점이었으리라.

"언니 자체에는," 엘리자베스는 소리 내어 혼잣말을 했다. "흠잡을 데가 있을 리 없어. 그렇게 사랑스럽고 착하기만 한 사람인데! 분별이 뛰어나고 교양이 있고 몸가짐은 사람을 사로잡는데. 아버지한테도 트집 잡을 거리는 하나도 없어. 별난 데가 좀 있기는 해도 다아시 씨 본인도 업신여기지 못할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은 아마 영영 닿지 못할 점잖음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니 그 확신이 조금 흔들리기는 했다. 하지만 *그쪽*의 흠이 다아시 씨에게 큰 무게를 지녔으리라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아시 씨의 자존심은 친구의 인척들이 분별이 모자라다는

것보다 지체가 낮다는 데서 더 깊은 상처를 입을 사람이라고 엘리자베스는 확신했고, 그리하여 마침내 다아시 씨가 한편으로는 이 가장 질 나쁜 오만에, 또 한편으로는 빙리 씨를 누이동생의 짝으로 붙잡아 두고 싶은 바람에 휘둘렸다고 단정했다.

그 일로 마음이 들끓고 눈물까지 쏟은 탓에 두통이 났다. 저녁 무렵에는 두통이 훨씬 심해졌고, 다아시 씨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더해져서 엘리자베스는 차를 마시러 가기로 약속된 로징스에 사촌들을 따라가지 않기로 했다. 콜린스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정말 아픈 것을 보고 가자고 조르지 않았고, 남편이 조르는 것도 될 수 있는 한 막았다. 그러나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가 집에 남는 것을 캐서린 영부인이 언짢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

1. 영지와 작위는 장자 상속이 관습이어서 맏아들이 물려받았다. 작은아들은 직업을 갖거나 부유한 상대와 결혼해서 살길을 찾아야 했다.

# 제34장

사람들이 떠나자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에게 될 수 있는 한 화를 돋우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 켄트에 온 뒤로 제인이 보낸 편지를 모조리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이렇다 할 하소연도 없었고, 지난 일을 되살리는 말이나 지금의 괴로움을 털어놓는 말도 없었다. 그러나 편지마다, 거의 줄마다 언니의 글을 늘 특징짓던 그 밝음이 빠져 있었다. 그 밝음은 스스로에게 평온하고 누구에게나 너그러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서 여태 흐려진 적이 거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 읽을 때는 거의 기울이지 않았던 주의를 기울여, 불안한 기색이 묻어나는 문장을 하나하나 짚어 냈다. 자기가 얼마나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었는지 뽐낸 다아시 씨의 그 수치스러운 자랑 때문에 언니의 괴로움이 한층 아프게 느껴졌다. 다아시 씨가 로징스에 머무는 것도 모레면 끝난다는 생각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고, 2주도 안 되어 자기가 다시 제인 곁에 가서 애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언니가 기운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더 큰 위안이 되었다.

다아시가 켄트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그 사촌도 함께 떠난다는 것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피츠윌리엄 대령은 자기에게 아무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었으니, 아무리 호감 가는 사람이라 해도 엘리자베스는 대령 때문에 마음 아파할 생각이 없었다.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엘리자베스를 일깨웠다. 혹시 피츠윌리엄 대령이 직접 온 것일까 싶어 마음이 조금

설레었다. 대령은 전에도 한 번 저녁 늦게 들른 적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일부러 엘리자베스의 안부를 물으러 온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너무도 놀랍게도 다아시 씨가 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 생각은 곧 달아났고, 마음은 전혀 다르게 술렁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허둥지둥 몸은 좀 어떠냐고 물으며, 나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차갑게 예의만 차려 대답했다. 다아시 씨는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엘리자베스는 놀랐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몇 분 동안 말이 없다가, 다아시 씨는 몹시 흔들리는 모습으로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꺼냈다.

"애써 싸워 보았지만 헛일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습니다. 이 감정은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렬히 당신을 흠모하고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엘리자베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랐다. 빤히 쳐다보며 얼굴을 붉혔고, 제 귀를 의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아시 씨는 그것을 충분한 격려로 여기고, 지금 품고 있고 오래전부터 품어 온 감정을 곧바로 모두 털어놓았다. 말은 훌륭했다. 그러나 털어놓을 감정은 마음의 감정만이 아니었고, 애틋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나 자존심을 이야기할 때나 열띠기는 마찬가지였다. 엘리자베스가 자기보다 처지가 낮다는 것, 그 결혼이 자기를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것, 분별이 늘 마음에 맞서 내세워 온 집안의 걸림돌을 두고 그는 열을 올려 길게 늘어놓았는데, 그 열기는 자기가 상처 입히는 체면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했지만 청혼에 보탬이 될 리는 만무했다.

엘리자베스는 뿌리 깊은 반감을 품고 있었지만, 그런 남자의 애정을 받는다는 것이 영광임을 모를 수는 없었다. 마음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도, 처음에는 상대가 겪게 될 고통이 안쓰러웠다. 그러다 이어지는 말에 분이 치밀자 연민은 분노 속에 남김없이 사라졌다.

그래도 엘리자베스는 말이 끝나면 참을성 있게 대답하려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다아시 씨는 온갖 노력에도 이겨 낼 수 없었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털어놓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청혼을 받아들여 그 애착이 보답받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좋은 대답을 들으리라는 데 털끝만큼도 의심이 없다는 것이 훤히 보였다. 입으로는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말했지만*, 얼굴에는 진짜 자신감이 드러나 있었다. 그러니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말을 멈추자 엘리자베스는 두 뺨이 붉게 달아오른 채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대의 마음에 똑같이 보답하지는 못하더라도 고백하신 감정에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정해진 예법입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니, 제가 고마움을 *느낄* 수만 있다면 지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호의를 바란 적이 한 번도 없고, 당신 또한 분명 마지못해 그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누구에게든 고통을 드린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었고, 그 고통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호감을 털어놓지 못하게 막아 온 그 감정들이라면,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으니 그 호감을 이겨 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벽난로 선반에 기대어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던 다아시 씨는 놀라움 못지않은 분노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고, 마음이 어지러운 기색이 이목구비 하나하나에 드러났다. 겉으로나마 침착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을 때까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엘리자베스에게는 끔찍했다. 마침내 그는 억지로 가라앉힌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제가 들으리라 기대해도 될 영광스러운 대답의 전부란 말씀입니까! 예의를 차리려는 *노력*조차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를

거절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어쩌면 알고 싶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수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도 똑같이 여쭙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되받았다. "저를 불쾌하게 하고 모욕하려는 뜻이 그토록 뻔히 보이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이성을 거스르고, 심지어 당신의 사람됨까지 거스르면서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정말 *무례했다면*, 그것으로 무례에 핑계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계십니다. 제 마음이 당신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아무 마음이 없었거나 심지어 호의를 품고 있었더라도, 더없이 사랑하는 언니의 행복을 어쩌면 영원히 망쳐 놓은 장본인을 제가 무슨 까닭으로든 받아들이고 싶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자베스가 이 말을 하자 다아시 씨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나 그 동요는 잠깐이었고, 엘리자베스가 말을 잇는 동안 그는 끼어들려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저는 당신을 나쁘게 생각할 까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일*에서 당신이 한 부당하고 옹졸한 처사는 어떤 동기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을 서로 갈라놓은 장본인이, 유일한 장본인은 아니라 해도 주된 장본인이 당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 사람은 변덕스럽고 지조 없다는 세상의 비난을 받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이 꺾였다는 세상의 비웃음을 사게 해 두 사람 모두를 더없이 쓰라린 불행에 빠뜨린 것이 당신이라는 것을, 당신은 감히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가 후회 따위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태도로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이 분개했다. 다아시 씨는 짐짓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미소까지 띠고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하신 것을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엘리자베스가 되풀이했다.

그러자 그는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다. "제 친구를 당신 언니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제 힘이 닿는 한 무엇이든 다 했다는 것도, 그 일이 뜻대로 된 것을 기뻐한다는 것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 *그 친구*에게 더 친절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정중한 빈정거림을 알아챈 기색조차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뜻을 놓치지는 않았고 그 말에 마음이 누그러질 리도 없었다.

"하지만 제 반감은," 엘리자베스는 말을 이었다. "이 일 하나에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기 훨씬 전에 당신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 달 전에 위컴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당신의 사람됨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상상 속의 우정을 내세워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거짓을 꾸며 남을 속이시겠습니까?"

"그 신사의 일에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다아시가 아까보다 덜 침착한 어조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분이 어떤 불행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인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불행이라!" 다아시가 경멸하듯 되뇌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불행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안긴 사람은 당신입니다."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당신이 그분을 지금처럼 가난하게, 그러니까 남들에 견주어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 몫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 혜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마땅히 누려야 했고 누릴 자격도 있었던 자립을,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에 빼앗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도 그분의 불행 이야기가 나오면 경멸하고 비웃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아시는 성큼성큼 방을 가로지르며 소리쳤다. "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란 말씀입니까! 이것이 저를 보는 당신의 평가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낱낱이 설명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셈법대로라면 제 잘못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걸음을 멈추고 엘리자베스에게 돌아서며 덧붙였다. "제가 오랫동안 진지한 뜻을 품지 못하게 막아 온 망설임을 솔직히 고백해서 당신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허물쯤은 눈감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더 약삭빠르게 제 갈등을 감추고, 아무 조건 없는 순수한 마음에, 이성에, 숙고에, 모든 것에 떠밀려 청혼한다고 믿게끔 비위를 맞추었더라면 이런 신랄한 비난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꾸밈이든 질색입니다. 제가 털어놓은 감정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정당한 감정이었습니다. 당신 집안의 낮은 지위를 제가 기뻐하기라도 하기를 바라셨습니까? 처지가 저보다 그토록 분명히 낮은 사람들과 친척이 되리라는 희망에 흐뭇해하기를 바라셨습니까?"

엘리자베스는 시시각각 화가 치밀었지만, 할 수 있는 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입을 열었다.

"다아시 씨, 당신이 청혼하신 태도가 제게 무슨 다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아신 겁니다. 그 태도 덕분에, 좀 더 신사답게 행동하셨더라면 당신을 거절하면서 느꼈을지도 모를 마음의 가책을 덜었을 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어떻게 청혼하셨더라도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또다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굴욕감이 뒤섞인 얼굴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다. 엘리자베스는 말을 계속했다.

"처음부터, 당신을 알게 된 바로 그 첫 순간부터라고 해도 좋을 만큼 처음부터, 저는 당신의 태도를 보고 당신의 거만함과 자만, 남의 감정을 제멋대로 업신여기는 이기심을 더없이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함의 바탕이 되었고, 그 위에 뒤이은 일들이 쌓여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반감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안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저는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제가 아무리 설득을 당해도 결혼할 리 없는 마지막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감정이 어떠했는지 부끄러워할 일만 남았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많이 빼앗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서둘러 방을 나갔고, 곧이어 현관문을 열고 집을 떠나는 소리가 엘리자베스의 귀에 들렸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이제 고통스러울 만큼 크게 요동쳤다.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할지 몰랐고, 정말로 기운이 빠져 주저앉아 30분 동안 울었다. 방금 있었던 일을 되새길 때마다 놀라움은 더 커졌다. 다아시 씨에게서 청혼을 받다니! 그 사람이 몇 달 동안이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친구가 언니와 결혼하지 못하게 막은 그 모든 결격 사유가 자기 경우에도 적어도 똑같은 무게로 보였을 텐데, 그것을 무릅쓰고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했다니, 거의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토록 강한 애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흐뭇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오만, 그 가증스러운 오만, 제인에게 한 일을 뻔뻔하게 털어놓은 것, 정당화하지도 못하면서 시인하던 그 용서할 수 없는 태연함, 그리고 위컴 씨를 입에 올리던 그 매정한 태도, 위컴에게 저지른 잔인한 처사를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던 그 태도가, 그 애정을 생각하며 잠시 일었던 연민을 곧 눌러 버렸다.

엘리자베스는 몹시 어지러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캐서린 영부인의 마차 소리가 들리자 샬럿의 눈길을 견뎌 낼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제 방으로 들어갔다.

# 제35장

엘리자베스는 이튿날 아침, 간밤에 마침내 눈을 감게 한 바로 그 생각과 상념 속에서 깨어났다. 일어난 일이 주는 놀라움에서 아직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무슨 일에도 손이 가지 않아서, 엘리자베스는 아침을 먹고 나서 곧 바깥바람을 쐬며 걷기로 했다. 곧장 즐겨 걷는 길로 가려다가 다아시 씨가 이따금 그곳에 온다는 생각이 나서 걸음을 멈추었고, 영지로 들어가는 대신 큰길에서 더 멀어지는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한쪽으로는 여전히 영지의 울타리가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곧 영지 안으로 통하는 문 하나를 지나쳤다.

오솔길의 그 구간을 두세 번 오가고 나니 아침 날씨가 하도 좋아서, 엘리자베스는 문 앞에 멈춰 영지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켄트에서 보낸 5주 동안 시골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고, 일찍 잎이 돋는 나무들은 날마다 푸르름을 더해 갔다. 막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데, 영지 가장자리를 두른 작은 숲 같은 곳에서 한 신사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신사는 이쪽으로 오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일까 봐 곧바로 물러섰다. 그러나 다가오는 사람은 이제 엘리자베스를 알아볼 만큼 가까이 와 있었고, 서둘러 앞으로 나서며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불렀다. 엘리자베스는 돌아선 참이었지만, 부르는 소리를 듣자 그 목소리로 다아시 씨임을 알면서도 다시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쯤 다아시 씨도 문에 이르러 있었다. 그가 편지 한 통을 내밀자 엘리자베스는 저도

모르게 받아 들었고, 그는 거만하리만치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한참 동안 숲속을 걸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 주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러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나무숲으로 들어가 곧 보이지 않게 되었다.

즐거움은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호기심만은 더없이 강하게 느끼며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펼쳤고,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봉투 안에 편지지 두 장이 들어 있었는데, 빽빽한 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었다. 봉투에도 글씨가 가득했다. 엘리자베스는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로징스에서 아침 여덟 시에 쓴 것이었고, 내용은 이러했다.

"이 편지를 받고 놀라지 마십시오. 어젯밤 그토록 불쾌하게 여기신 감정을 되풀이하거나 청혼을 다시 하려는 편지는 아닙니다.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잊혀야 할 바람을 늘어놓아 당신을 괴롭히거나 저 자신을 낮출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 사람됨에 관해 꼭 밝혀야 할 것이 없었다면, 이 편지를 쓰는 수고도 읽는 수고도 마땅히 덜어 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거리낌 없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마지못해 응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의 공정함에 기대어 이것을 요구합니다."

"어젯밤 당신은 성격이 전혀 다르고 무게도 결코 같지 않은 두 가지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먼저 드신 것은 제가 두 사람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빙리 씨를 당신 언니에게서 떼어 놓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 마땅한 권리를 무시하고 명예와 인정을 저버린 채 위컴 씨의 당장의 형편을 망치고 앞날을 짓밟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벗이자 제 아버지께서 누구나 알 만큼 아끼시던 사람, 저희 집안의 후원 말고는 기댈 데가 거의 없고 그

후원을 받으리라 믿으며 자라 온 젊은이를 일부러, 매정하게 내쳤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몇 주 사이에 싹텄을 애정을 나눈 두 젊은이를 떼어 놓은 일과는 견줄 수도 없는 타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적는 제 행동과 그 동기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나시면, 어젯밤 그토록 아낌없이 퍼부으신 그 혹독한 비난을 두 가지 일 모두에서 앞으로는 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이 해명에서 당신의 감정을 거스를지도 모르는 제 감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 미안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법이니, 더 사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하트퍼드셔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빙리가 그 고장의 어느 젊은 여자보다 당신 언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진지한 애착을 품고 있을까 걱정하게 된 것은 네더필드에서 무도회가 열린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전에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무도회에서 당신과 춤을 추는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저는 윌리엄 루커스 경이 우연히 흘린 말을 듣고 처음으로, 빙리가 당신 언니에게 보인 관심 때문에 모두가 두 사람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경은 그 결혼을 이미 정해진 일처럼,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인 일처럼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친구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폈고, 빙리가 베넷 양에게 품은 마음이 제가 그 친구에게서 본 어떤 마음보다 깊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 언니도 지켜보았습니다. 언니의 표정과 몸가짐은 언제나처럼 숨김없고 밝고 사람을 끌었지만 각별한 호감을 보이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그날 저녁 꼼꼼히 살핀 끝에 저는 언니가 빙리의 관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해도 같은 감정으로 그 관심을 청하지는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당신이* 잘못 보신 것이 아니라면 *제가* 잘못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언니를 훨씬 잘 아시니 제가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잘못에 이끌려 제가 언니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당신이 분개하신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건대, 언니의 얼굴과 태도가 워낙 평온해서 아무리 예리한 사람이 보았더라도 언니가 성품은 상냥할지언정 마음이 쉽게 움직일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제가 언니에게 아무 마음이 없다고 믿고 싶어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엇을 살피고 판단할 때 제 바람이나 두려움에 휘둘리는 일이 보통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랐기 때문에 언니가 무심하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그러기를 바란 만큼이나 진실로, 치우치지 않은 확신에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그 결혼에 반대한 이유는 어젯밤 제 경우에는 열정의 힘을 다해야만 물리칠 수 있었다고 털어놓은 그 이유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보잘것없다는 것은 제 친구에게 저에게만큼 큰 흠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꺼리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지금도 여전하고 두 경우에 똑같은 정도로 있는 것이지만, 당장 눈앞에 있지 않았기에 저 스스로 잊으려 애써 온 것들입니다. 짧게나마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쪽 집안의 처지도 흠이기는 하지만, 어머니 자신과 세 동생, 그리고 이따금 아버지까지 그토록 자주, 거의 한결같이 드러내 보이는 그 예의의 철저한 결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의 결점을 걱정하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적은 것을 언짢아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당신과 큰언니가 그런 비난을 조금도 받지 않도록 처신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두 분에게 보내는 칭찬이며 그만큼 두 분의 분별과 성품에 영예로운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으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제 생각은 굳어졌고, 제가 보기에 몹시 불행한 인연에서 친구를 지켜 내려고 전부터 품어 온 마음은 한층 커졌습니다. 당신도 분명 기억하시겠지만, 빙리는 그 이튿날 곧 돌아올 생각으로 네더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갔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빙리의 누이들도 저 못지않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같다는 것은 곧 드러났고, 빙리를 떼어 놓으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다 같이 생각이 미쳐 우리는 곧장 런던으로 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로 갔고, 거기서 저는 그런 선택이 불러올 틀림없는 불행을 친구에게 짚어 주는 일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저는 그 불행을 열심히 설명하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고가 그 친구의 결심을 흔들거나 늦출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당신 언니가 무심하다고 제가 서슴없이 장담한 말이 뒷받침하지 않았다면 끝내 결혼을 막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빙리는 그전까지 언니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진실한 호의로 자기 애정에 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빙리는 타고나기를 몹시 겸손한 데다, 자기 판단보다 제 판단을 더 믿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속였다고 그 친구를 납득시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납득시키고 나자, 하트퍼드셔로 돌아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데는 잠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한 것을 두고 저 자신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을 통틀어 제가 흡족하게 돌아볼 수 없는 처신은 한 가지뿐인데, 당신 언니가 런던에 와 있다는 것을 그 친구에게 숨기려고 제 격을 낮추어 술책까지 썼다는 점입니다. 빙리 양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도 알고 있었지만, 빙리는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두 사람이 만났더라도 별 탈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친구의 마음은 언니를 만나도 위험하지 않을 만큼 꺼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숨기고 꾸민 것은 제게

어울리지 않는 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한 일이고, 최선을 바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할 말도, 드릴 사과도 없습니다. 제가 당신 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모르고 한 일입니다. 저를 움직인 동기가 당신에게는 아주 당연히 모자라 보이겠지만, 저는 아직 그 동기를 나무랄 줄 모릅니다."

"위컴 씨를 해쳤다는 그 다른, 더 무거운 비난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저희 집안의 관계를 낱낱이 보여 드리는 것으로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저를 비난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증인을 한 사람 넘게 불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컴 씨는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여러 해 동안 펨벌리의 모든 영지를 관리했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낸 덕분에 제 아버지께서는 자연히 그분을 돕고 싶어 하셨으며,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자 아버지의 대자인 조지 위컴에게도 아낌없는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위컴을 학교에 보내셨고, 그 뒤에는 케임브리지에도 보내셨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었습니다. 위컴의 친아버지는 아내의 낭비 때문에 늘 가난해서 아들에게 신사다운 교육을 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사람을 끄는 몸가짐을 지닌 이 젊은이와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을 뿐 아니라 무척 높이 평가하셨고, 그 젊은이가 성직을 직업으로 삼기를 바라며 그 길에서 돌봐 주실 작정이셨습니다. 저로 말하면, 그 사람을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한 지 여러 해, 아주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약한 성향과 원칙 없는 행실을 가장 좋은 벗인 제 아버지께서 모르시도록 조심스럽게 감추었지만, 나이가 거의 같아서 아버지께서는 가질 수 없었던 기회, 곧 그 사람이 방심한 순간을 볼 기회가 있었던 젊은이의 눈까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당신에게 고통을 드리게 될 텐데, 얼마나

아플지는 당신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위컴 씨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든, 그 감정이 어떤 것일지 짐작이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짜 사람됨을 밝히기를 그만두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짐작이 이유를 하나 더 보태 줍니다."

"훌륭하셨던 제 아버지께서는 다섯 해쯤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컴 씨를 아끼시는 마음이 마지막까지 변함없으셔서, 유언장에서 특별히 제게 당부하시기를, 그 사람이 택한 직업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길로 출세를 도와주고 성직에 나간다면 집안이 내줄 수 있는 좋은 성직록 하나가 비는 대로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1,000파운드의 유산도 있었습니다. 위컴의 아버지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래 살지 못했고, 이 일들이 있고 반년도 안 되어 위컴 씨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직에 나가지 않기로 마침내 결심했으니,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성직 임용 대신 좀 더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바라더라도 무리한 요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을 공부할 생각도 있다면서, 1,000파운드의 이자로는 그 공부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을 제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진심이라고 믿기보다는 진심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은 충분했습니다. 위컴 씨가 성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은 곧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컴 씨는 혹시 성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더라도 그 도움을 일절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관계는 모두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너무 나쁘게 생각했으므로 펨벌리에 초대하지도, 런던에서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주로 런던에서 지낸 것 같은데, 법률 공부는 핑계에 지나지 않았고, 이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게 되자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세 해쯤은 그 사람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주기로 했던 성직록을 받던 목사가 세상을 떠나자 위컴 씨는 다시 편지를 보내 그 자리에 자기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형편이 몹시 어렵다고 했고, 저도 그 말은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공부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제가 그 성직록에 추천해 준다면 이제는 기필코 성직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자신했는데, 제게는 따로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고 제가 존경하는 선친의 뜻을 잊었을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거듭된 간청을 번번이 물리친 것도 당신은 나무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의 원한은 처지가 어려운 만큼 깊었습니다. 틀림없이 제게 퍼부은 비난만큼이나 남들 앞에서도 저를 사납게 헐뜯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는 아는 사이라는 시늉조차 모두 끊겼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여름 그 사람은 다시 더없이 고통스럽게 제 눈앞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저 자신도 잊고 싶은 일, 지금과 같은 의무가 아니라면 세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을 일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 당신이 비밀을 지켜 주시리라는 데 의심이 없습니다. 저보다 열 살 넘게 어린 제 누이동생은 어머니의 조카인 피츠윌리엄 대령과 제가 후견을 맡았습니다. 한 해쯤 전에 누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런던에 따로 살림을 차려 주었고, 지난여름 누이는 그 살림을 맡은 부인과 함께 램즈게이트에 갔습니다. 위컴 씨도 그리로 갔는데, 틀림없이 노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위컴 씨는 영 부인과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우리는 영 부인의 사람됨에 대해 더없이 불행하게도 속고 있었습니다. 영 부인이 눈감아 주고 거들어 준 덕분에 그 사람은 조지애나의 마음을 얻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조지애나는 다정한 아이라 어릴 적 그 사람이 잘해 주던 일을 깊이 새기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믿고 함께 달아나는 데 동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누이는 겨우 열다섯 살이었으니 그것으로 변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이의 경솔함을 밝혔으니, 제가 그 일을 알게 된 것도 누이 덕분이었다는 것을 기쁘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달아나기로 한 날을 하루 이틀 앞두고 뜻밖에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조지애나는 아버지처럼 우러러보다시피 하는 오라비를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할 생각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이의 평판과 마음을 생각해서 일을 세상에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컴 씨에게 편지를 썼고, 위컴 씨는 곧바로 그곳을 떠났으며, 영 부인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위컴 씨가 노린 것은 틀림없이 30,000파운드에 이르는 제 누이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앙갚음하려는 바람도 강한 동기였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의 복수는 참으로 완벽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얽혔던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적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단호히 물리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는 위컴 씨에게 잔인하게 굴었다는 혐의를 벗겨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거짓말로 당신을 속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두 사람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으니 그 사람이 성공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당신으로서는 꿰뚫어 볼 수 없었을 테고, 의심하는 것은 분명 당신의 성미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어젯밤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는지 의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무엇을 밝힐 수 있고 밝혀야 하는지 알 만큼 저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적은 모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은 특히 피츠윌리엄 대령의 증언에 기댈 수 있습니다. 대령은 가까운 친척이고 늘 가까이 지내 왔으며, 무엇보다 제 아버지 유언의 집행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다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혐오하시는 마음 때문에 *제* 말이 아무 값어치가 없어진다 해도, 같은 이유로 제 사촌을 믿지 못하실 까닭은 없습니다. 대령에게 물어보실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중에 이 편지를 당신 손에 건넬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부디 신의 축복이 있기를."

"피츠윌리엄 다아시"

# 제36장

다아시 씨가 편지를 건넸을 때 엘리자베스는 청혼을 되풀이하는 편지이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내용일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용이 그러했으니,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정신없이 읽어 내려갔을지, 그 내용이 얼마나 엇갈린 감정을 불러일으켰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읽는 동안의 감정은 무어라 규정하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다아시 씨가 무슨 변명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데 어안이 벙벙했고, 마땅한 수치심이 있다면 감추었을 해명밖에 내놓을 것이 없으리라고 굳게 믿었다. 무슨 말을 하든 다 믿지 않겠다는 강한 편견을 품고, 엘리자베스는 네더필드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대목을 읽기 시작했다. 너무 다급하게 읽느라 무슨 뜻인지 헤아릴 겨를조차 거의 없었고, 다음 문장에 무엇이 나올지 조바심이 나서 눈앞의 문장에 담긴 뜻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었다. 언니가 무심했다고 믿었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곧바로 단정했고, 그 결혼에 반대한 진짜 이유, 가장 나쁜 이유를 늘어놓은 대목에는 너무 화가 나서 그를 공정하게 대해 줄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자기가 한 일을 두고 엘리자베스가 흡족할 만큼 뉘우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글투는 참회하는 투가 아니라 거만했다. 온통 오만과 무례뿐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끝나고 위컴 씨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자, 사실이라면 위컴의 됨됨이에 대해 아껴 온 생각을 모조리 뒤엎을 수밖에 없고 위컴이 스스로 들려준 내력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사건들을 조금

더 또렷한 정신으로 읽어 나가자, 엘리자베스의 감정은 한층 날카롭게 아프고 더욱 규정하기 어려워졌다. 놀라움과 불안, 심지어 공포까지 엘리자베스를 짓눌렀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깡그리 믿지 않고 싶어서 "이건 거짓말이야! 이럴 리 없어!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 틀림없어!" 하고 몇 번이고 소리쳤다. 그리고 편지를 끝까지 다 읽고 나서는, 마지막 한두 쪽은 무슨 내용인지 거의 알지도 못하면서 서둘러 편지를 치우고,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워 생각이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채 엘리자베스는 계속 걸었다. 그러나 그래 봐야 소용없었다. 30초도 안 되어 편지는 다시 펼쳐졌고, 엘리자베스는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가다듬고 위컴에 관한 대목을 굴욕을 곱씹으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스스로를 다잡아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따져 보았다. 펨벌리 집안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위컴이 직접 들려준 것과 똑같았고, 돌아가신 다아시 씨의 친절도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지만 위컴 자신의 말과 잘 들어맞았다. 여기까지는 두 이야기가 서로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유언장 대목에 이르자 차이가 컸다. 위컴이 성직록을 두고 한 말은 아직 생생했다. 위컴이 한 말을 그대로 떠올려 보니 어느 한쪽이 지독하게 표리부동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잠시나마 엘리자베스는 자기 바람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대목, 위컴이 성직록에 대한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그 대신 3,000파운드라는 상당한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없이 꼼꼼하게 읽고 또 읽자, 다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내려놓고, 공정하려고 애쓰며 모든 사정을 저울질했다. 각각의 진술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따져 보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양쪽 다 주장일 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읽어 나갔다. 그러나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어떤 꾀를 부려 그려 내도 다아시 씨의 처신이 파렴치하지

않게 보일 수는 없으리라고 믿었던 그 일이, 다아시 씨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허물이 없게 만드는 쪽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다아시 씨가 서슴없이 위컴 씨에게 덮어씌운 낭비와 방탕은 엘리자베스에게 몹시 충격이었다. 그 말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하나도 댈 수 없으니 더욱 그랬다. 위컴이 ○○셔 민병대에 들어오기 전의 일은 엘리자베스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위컴은 런던에서 우연히 만나 얕은 친분을 되살린 어떤 젊은이의 권유로 민병대에 들어온 터였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트퍼드셔에서 위컴 자신이 한 이야기 말고는 아무도 아는 것이 없었다. 진짜 사람됨이 어떤지는, 알아볼 방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엘리자베스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얼굴과 목소리와 몸가짐만으로 위컴은 단번에 온갖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 버렸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의 공격에서 위컴을 구해 줄 만한 선행 하나, 정직함이나 너그러움이 두드러진 면모 하나라도 떠올려 보려 했다. 아니면 적어도 미덕이 더 커서, 다아시 씨가 여러 해 이어진 게으름과 악덕이라고 묘사한 것을 엘리자베스가 어쩌다 저지른 실수쯤으로 쳐 보려는 그 잘못들을 벌충해 줄 만한 무엇이라도 떠올려 보려 했다. 그러나 도움이 될 만한 기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온갖 매력을 풍기는 풍채와 말씨로 서 있는 위컴의 모습은 눈앞에 곧바로 그릴 수 있었지만, 이웃들의 두루뭉술한 호평과 사교 솜씨로 장교들 사이에서 얻은 인기 말고는 그보다 실속 있는 장점을 하나도 떠올릴 수 없었다. 이 점을 두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엘리자베스는 다시 읽어 나갔다. 그러나 아아!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위컴이 다아시 양을 노렸다는 이야기는 바로 전날 아침 피츠윌리엄 대령과 나눈 이야기로 얼마간 뒷받침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편지는 모든 세부가 사실인지 피츠윌리엄 대령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대령이 사촌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깊이 관여한다는 것은 엘리자베스도 전에 대령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고, 대령의 사람됨을 의심할 까닭도 없었다. 한때는 대령에게 물어보기로 마음을 거의 굳혔지만 그렇게 묻는 것이 어색하다는 생각에 멈칫했고, 사촌이 뒷받침해 주리라고 굳게 믿지 않았다면 다아시 씨가 그런 제안을 감히 하지 않았으리라는 확신이 들자 결국 그 생각을 완전히 접었다.

엘리자베스는 필립스 씨 댁에서 처음 만난 그날 저녁에 위컴과 나눈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위컴이 한 말 가운데 많은 대목이 아직 생생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깨닫고는, 전에는 어떻게 그걸 놓쳤을까 의아했다. 위컴이 그렇게 나서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 얼마나 염치없는 일이었는지, 내세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았는지가 보였다. 위컴은 다아시 씨를 마주치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다아시 씨라면 이 고장을 떠날지 몰라도 *자기는* 버티고 서 있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런데도 바로 다음 주에 네더필드 무도회를 피했다. 또 네더필드 사람들이 이 고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엘리자베스 말고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떠난 뒤로는 그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다는 것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의 허물을 드러낼 수는 없을 거라고 엘리자베스에게 장담했으면서도 그때부터는 다아시 씨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데 아무 거리낌도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도 기억났다.

위컴과 얽힌 일이 이제는 모두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킹 양에게 보인 관심은 이제 오로지 돈만 노린 가증스러운 속셈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아가씨의 재산이 변변치 않다는 것도 이제는 위컴의 바람이 소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탐욕의 증거였다. 엘리자베스 자신을 대한 태도에도 이제는 봐줄 만한 동기가

있었을 리 없었다. 엘리자베스의 재산을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엘리자베스가 몹시 조심성 없이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그 호감을 부추겨 제 허영을 채웠거나, 둘 중 하나였다. 위컴을 편들려는 마지막 몸부림도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리고 다아시 씨를 더 변호해 주는 것으로, 엘리자베스는 이런 점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래전에 제인이 물었을 때 빙리 씨는 이 일에서 다아시 씨에게 아무 허물이 없다고 단언했다. 다아시 씨의 태도가 오만하고 쌀쌀맞기는 했어도, 알고 지낸 그 모든 동안, 요즘 들어 자주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의 버릇을 어느 정도 가까이 알게 된 그 동안, 원칙이 없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도, 신앙심이 없거나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다아시 씨는 자기 친지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소중히 여겨졌다. 위컴조차 다아시 씨가 오빠로서는 훌륭하다고 인정했고, 엘리자베스도 다아시 씨가 누이동생 이야기를 다정하게 하는 것을 자주 들었으니 그에게도 상냥한 감정이 있다는 증거였다. 다아시 씨의 행동이 위컴이 말한 그대로였다면 모든 정의를 그토록 심하게 짓밟은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리 없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빙리 씨처럼 상냥한 사람이 친구로 지낸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졌다. 다아시를 생각하든 위컴을 생각하든, 자기가 눈이 멀었고, 한쪽으로 치우쳤고, 편견에 사로잡혔고, 어리석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굴었던가!" 엘리자베스는 소리쳤다. "내 안목을 자랑으로 여기던 내가! 내 능력을 높이 쳐 온 내가! 언니의 너그러운 솔직함을 번번이 깔보고, 쓸데없거나 탓할 것도 없는 의심으로 내 허영을 채워 온 내가! 이 깨달음은 얼마나 굴욕적인가! 하지만 얼마나 마땅한 굴욕인가! 사랑에 빠졌더라도 이보다 더 비참하게 눈이 멀 수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내 어리석음은 사랑이 아니라 허영이었어.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데 우쭐하고 다른 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데 마음이 상해서, 두 사람 일이라면 나는 지레짐작과 무지를 끌어안고 이성은 내쫓아 버렸어. 이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을 몰랐어."

자기 자신에서 제인으로, 제인에서 빙리로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 *그 일*에 대한 다아시 씨의 해명이 몹시 모자라 보였다는 것이 곧 떠올랐고, 엘리자베스는 그 대목을 다시 읽었다. 두 번째로 읽으니 느낌이 전혀 달랐다. 한쪽 일에서는 다아시 씨의 주장을 믿어 줄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쪽 일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거둘 수 있단 말인가? 다아시 씨는 언니의 애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고,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늘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제인을 묘사한 말이 옳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다. 제인의 감정은 뜨거워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고, 표정과 몸가짐에는 늘 흡족한 듯한 평온함이 있었는데, 그런 평온함은 깊은 감수성과 함께 가는 일이 흔치 않았다.

편지에서 엘리자베스의 가족을 그토록 굴욕스러우면서도 마땅한 비난조로 언급한 대목에 이르자 엘리자베스는 심한 수치를 느꼈다. 그 비난이 옳다는 것이 너무도 강하게 와닿아 부인할 수가 없었다. 다아시 씨가 네더필드 무도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특히 넌지시 가리킨, 그래서 처음의 못마땅함을 굳혀 주었다는 그 일들은, 다아시 씨의 마음에 남긴 인상보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남긴 인상이 결코 약하지 않았다.

자기와 언니에게 보낸 찬사도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은 마음을 달래 주기는 했지만, 나머지 가족이 스스로 불러들인 경멸을 위로해 주지는 못했다. 제인의 실망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만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예의 없는 처신 때문에 두

사람의 평판이 얼마나 크게 다칠지 돌아보자, 엘리자베스는 여태 느껴 본 적이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웠다.

두 시간 동안 오솔길을 이리저리 거닐며 온갖 생각에 몸을 맡기고, 일어난 일들을 다시 짚어 보고, 무엇이 더 그럴듯한지 가늠하고, 그토록 갑작스럽고 중대한 변화에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맞추어 보다가, 엘리자베스는 지치기도 하고 너무 오래 집을 비웠다는 생각도 들어서 마침내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밝아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남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만들 그런 생각들은 눌러 두기로 다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들어서자마자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로징스의 두 신사가 각각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다. 다아시 씨는 작별 인사를 하러 몇 분만 머물렀지만, 피츠윌리엄 대령은 엘리자베스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적어도 한 시간은 함께 앉아 있었고, 엘리자베스를 찾을 때까지 뒤따라 걸어가 볼까 하는 마음까지 먹었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대령을 만나지 못해 아쉬운 *척*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피츠윌리엄 대령은 이제 관심 밖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오로지 그 편지 생각뿐이었다.

# 제37장

두 신사는 이튿날 아침 로징스를 떠났다. 깍듯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문지기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콜린스 씨는, 두 사람이 무척 건강해 보였고 로징스에서 막 치른 슬픈 이별을 생각하면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은 봐줄 만한 기분이더라는 반가운 소식을 집에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고는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딸을 위로하러 로징스로 서둘러 갔고, 돌아와서는 영부인이 너무 적적해서 목사관 식구들이 모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으면 한다는 전갈을 몹시 흡족해하며 전했다.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영부인을 보면, 자기가 마음만 먹었다면 지금쯤 영부인에게 장래의 조카며느리로 소개되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랬다면 영부인이 얼마나 분개했을지 생각하면 웃음이 났다. "영부인이 뭐라고 했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엘리자베스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혼자 즐거워했다.

맨 먼저 나온 이야기는 로징스 식구가 줄어든 일이었다. "정말이지 몹시 허전하오." 캐서린 영부인이 말했다. "벗을 떠나보내고 나만큼 서운해하는 사람도 없을 거요. 하지만 나는 이 젊은이들을 특히 아끼고, 저 애들도 나를 무척 따른다는 걸 알고 있소! 떠나면서 몹시 서운해들 했소! 하기야 늘 그렇소만. 우리 대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런대로 기운을 냈소. 그런데 다아시는 가장 아프게 느끼는 것 같았소. 작년보다 더한 것 같았소. 로징스를 아끼는 마음이 갈수록 깊어지는 게 틀림없소."

콜린스 씨는 여기에 찬사 한마디와 넌지시 빗대는 말 한마디를 끼워 넣었고, 어머니와 딸은 그 말에 너그러이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캐서린 영부인은 베넷 양이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니, 그렇게 빨리 집에 돌아가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라고 곧바로 혼자 짐작해 버리고는 덧붙였다.

"하지만 그런 거라면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조금 더 머물게 해 달라고 청해야 하오. 콜린스 부인도 베넷 양이 함께 있어 주면 틀림없이 무척 기뻐할 거요."

"친절하게 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부인."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는 런던에 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 고작 6주밖에 있지 않은 셈이 되잖소. 나는 두 달은 머물 줄 알았소. 베넷 양이 오기 전에 콜린스 부인에게도 그렇게 말했소. 그렇게 빨리 갈 까닭이 없소. 베넷 부인이야 2주쯤 더 딸 없이 지낼 수 있을 게 분명하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러지 못하십니다. 지난주에 어서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아, 어머니가 그럴 수 있다면 아버지야 당연히 그럴 수 있소. 아버지에게 딸이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오. 그리고 *한 달*만 꼬박 더 머문다면 둘 가운데 하나를 런던까지 데려다줄 수 있소. 6월 초에 한 주 동안 런던에 갈 참이니 말이오. 도슨이 바루시 마차의 마부석에 앉는 걸 마다하지 않으니 한 사람이 탈 자리는 넉넉하오. 아니, 날씨가 서늘하기라도 하면 둘 다 데려가도 상관없소. 둘 다 몸집이 크지 않으니 말이오."

"더없이 친절하십니다, 영부인. 하지만 저희는 처음 계획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캐서린 영부인은 체념한 듯했다. "콜린스 부인, 하인을 하나 딸려 보내야 하오. 알다시피 나는 늘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오만, 젊은 여자 둘이서만 역마차로 여행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소. 아주 당치 않은 일이오. 어떻게든 누군가를 딸려 보내도록 하시오. 나는 세상에서 그런 일을 가장 싫어하오. 젊은 여자는 언제나 신분에 맞게 제대로 보호받고 시중을 받아야 하오. 지난여름 내 조카 조지애나가 램즈게이트에 갈 때도 나는 남자 하인을 둘이나 딸려 보내라고 단단히 일렀소. 펨벌리의 다아시 씨와 앤 영부인의 딸인 다아시 양이 달리 다녔다가는 체면이 서지 않았을 거요. 나는 그런 일이라면 몹시 신경을 쓰오. 콜린스 부인, 아가씨들에게 존을 딸려 보내시오. 이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다행이오. 둘만 보냈다가는 정말 *부인의* 체면이 깎일 테니 말이오."

"외삼촌께서 하인을 보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외삼촌이! 남자 하인을 두고 있단 말이오? 그런 일까지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무척 다행이오. 말은 어디서 갈아타오? 아, 당연히 브롬리겠구려. 벨 여관에서 내 이름을 대면 잘 대접해 줄 거요."

캐서린 영부인은 여행에 관해 물을 것이 그 밖에도 많았고, 모든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지는 않았으므로 귀를 기울여야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잊었을지 몰랐다. 생각은 혼자 있는 시간을 위해 아껴 두어야 했다. 엘리자베스는 혼자 있을 때마다 더없는 안도감을 느끼며 생각에 몸을 맡겼고,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 산책을 나가 불쾌한 기억이 주는 온갖 즐거움에 마음껏 빠져들었다.

다아시 씨의 편지는 머잖아 줄줄 외울 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었고,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한 감정은 때에 따라 크게

달랐다. 청혼하던 말투를 떠올리면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사람을 얼마나 부당하게 단죄하고 몰아세웠는지 생각하면 분노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고, 다아시 씨의 꺾인 마음이 가엾게 여겨졌다. 그 애정은 고마움을, 사람됨 전반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도 그 사람을 좋게 볼 수는 없었고, 거절한 것을 한순간도 후회할 수 없었으며,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조금도 없었다. 지난날 자기가 한 행동은 끊임없이 속상하고 후회스러웠고, 가족의 불행한 결점은 그보다 더 무거운 근심거리였다. 바로잡을 희망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런 결점을 비웃는 것으로 만족할 뿐 막내딸들의 들뜬 경박함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법이 없었고, 어머니는 자기 몸가짐부터 바르지 못하니 그 해악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과 힘을 합쳐 키티와 리디아의 경솔함을 바로잡으려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오냐오냐 받아 주는 한 무슨 나아질 가망이 있겠는가? 키티는 의지가 약하고 성마른 데다 리디아에게 완전히 휘둘려서 언니들이 충고할 때마다 늘 뾰로통해졌고, 리디아는 제멋대로에다 무심해서 언니들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두 아이는 무지하고 게으르고 허영이 많았다. 메리턴에 장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장교에게 꼬리를 칠 테고, 메리턴이 롱번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리로 쏘다닐 터였다.

제인을 걱정하는 마음도 엘리자베스를 짓누르는 또 하나의 근심이었다. 다아시 씨의 해명으로 빙리에 대한 예전의 좋은 생각을 고스란히 되찾고 나니, 제인이 잃은 것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빙리의 애정은 진실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친구를 너무 철석같이 믿은 것을 허물로 치지 않는다면 그 처신에는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그토록 바람직하고, 그토록 이로운 점이 많고, 그토록

행복을 약속하던 자리를 제인이 다름 아닌 자기 가족의 어리석음과 무례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원통한 일이었던가!

이런 기억에 위컴의 사람됨이 드러난 일까지 더해졌으니, 전에는 좀처럼 가라앉는 법이 없던 엘리자베스의 밝은 기분이 이제는 몹시 흔들려 그럭저럭 밝은 얼굴을 하기도 거의 어려웠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엘리자베스가 머무는 마지막 주에도 로징스에 가는 일은 처음 못지않게 잦았다. 마지막 날 저녁도 그곳에서 보냈다. 영부인은 다시 한번 여행의 세세한 사항을 꼬치꼬치 묻고 짐을 가장 잘 싸는 법을 일러 주더니, 드레스는 꼭 단 하나뿐인 옳은 법대로 넣어야 한다고 어찌나 다그치는지, 마리아는 돌아오자마자 아침에 한 일을 모두 풀어 버리고 트렁크를 새로 꾸려야 한다고 여겼다.

작별할 때 캐서린 영부인은 더없이 굽어살피는 태도로 두 사람에게 즐거운 여행을 하라고 빌어 주고, 내년에도 헌스퍼드에 다시 오라고 초대했다. 드 버그 양은 애써 두 사람에게 무릎을 굽혀 인사하고 손까지 내밀었다.

# 제38장

토요일 아침, 엘리자베스와 콜린스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분 먼저 아침 식탁에서 마주쳤다. 콜린스 씨는 이 기회를 틈타, 반드시 차려야 한다고 여긴 작별의 예를 차렸다.

"엘리자베스 양." 그가 말했다. "저희 집에 와 주신 친절에 대해 제 아내가 벌써 고마운 마음을 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가씨께서 이 집을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아내의 감사 인사를 받으시리라는 것만은 확신합니다. 아가씨께서 함께 계셔 주신 호의를 저희는 참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저희의 누추한 거처에 누구든 마음이 끌릴 만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저희도 잘 압니다. 소박한 살림살이, 작은 방들, 몇 안 되는 하인, 세상 구경을 거의 못 하는 처지이니 아가씨처럼 젊은 숙녀께는 헌스퍼드가 몹시 따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굽어살펴 주신 데 저희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가씨께서 불쾌하게 시간을 보내시지 않도록 저희 힘이 닿는 한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는 서둘러 감사를 표하며 정말 즐거웠다고 거듭 말했다. 6주를 무척 즐겁게 보냈고, 샬럿과 함께 지낸 기쁨과 받은 친절한 보살핌을 생각하면 고마워해야 할 쪽은 오히려 *자기*였다. 콜린스 씨는 흐뭇해하며 한결 웃음 띤 엄숙함으로 대답했다.

"아가씨께서 불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셨다니 더없이 기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아가씨를 아주 고귀하신 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 로징스와 맺은 인연 덕분에 누추한 집안 풍경에서 벗어날 기회도 자주 마련해 드릴 수 있었으니, 아가씨의 헌스퍼드 방문이 아주 지루하지만은 않았으리라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캐서린 영부인 댁과 저희의 관계는 참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특별한 이점이자 축복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이인지 직접 보셨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자주 그 댁에 초대받는지도 보셨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이 누추한 목사관에 온갖 불편이 있다 해도 로징스와 저희가 나누는 친밀함을 함께 누리는 한, 이 집에 머무는 사람을 가엾게 여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콜린스 씨는 고양된 감정을 말로 다 담을 수 없어서 방 안을 서성거려야 했고, 그동안 엘리자베스는 예의와 진실을 몇 마디 짧은 문장에 함께 담아 보려 애썼다.

"사실 사촌 아가씨께서는 하트퍼드셔에 저희에 대해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적어도 그러실 수 있으리라고 자부합니다. 캐서린 영부인께서 제 아내에게 베푸시는 각별한 관심을 날마다 직접 보셨으니까요. 그리고 대체로 보아 아가씨 친구분이 불행한 제비를 뽑았다고는…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편이 낫겠습니다. 다만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양, 저는 아가씨께서도 결혼에서 똑같은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샬럿과 저는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입니다. 모든 일에서 저희 둘은 성품과 생각이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위해 지어진 짝인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렇다면 정말 큰 행복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고, 그 못지않게 진심을 담아 콜린스 씨 집안이 편안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기뻐한다고 덧붙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의 근원인

부인이 들어와 그 이야기가 끊긴 것이 서운하지는 않았다. 가엾은 샬럿! 이런 사람 곁에 남겨 두고 떠나자니 마음이 울적했다! 그러나 샬럿은 눈을 뜨고 그 길을 골랐다. 손님들이 떠나는 것을 분명 아쉬워하기는 했지만 동정을 바라는 기색은 없었다. 집과 살림, 교구와 닭들, 그리고 그것들에 딸린 온갖 일은 아직 그 매력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경마차가 도착했고, 트렁크를 묶어 싣고 꾸러미들을 안에 들여놓자 떠날 채비가 다 되었다는 말이 떨어졌다. 두 친구가 다정하게 작별한 뒤 콜린스 씨가 엘리자베스를 마차까지 배웅했다. 정원을 걸어 내려가면서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의 온 가족에게 깊은 경의를 전해 달라고 당부했고, 겨울에 롱번에서 받은 친절에 감사한다는 말도, 만난 적은 없지만 가디너 씨 부부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러고는 엘리자베스를 부축해 마차에 태웠고, 마리아가 뒤따라 올랐다. 문이 막 닫히려는 순간, 콜린스 씨는 갑자기 몹시 당황해하며 로징스의 숙녀들에게 전할 말을 아직 남기지 않았다고 일깨웠다.

"하지만," 그가 덧붙였다. "당연히 두 분께 삼가 경의를 전해 드리고, 여기 머무는 동안 베풀어 주신 친절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으실 줄 압니다."

엘리자베스가 반대하지 않자 그제야 문이 닫혔고, 마차가 출발했다.

"세상에!" 몇 분 동안 말이 없다가 마리아가 소리쳤다. "처음 온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았지." 길동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로징스에서 저녁을 아홉 번이나 먹었어요. 차 마시러 간 것도 두 번이나 되고요!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덧붙였다. "숨겨야 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여행은 별다른 대화도 탈도 없이 이어졌고, 헌스퍼드를 떠난 지 네 시간 만에 그들은 며칠 머물기로 한 가디너 씨 집에 닿았다.

제인은 건강해 보였다. 외숙모가 친절하게 마련해 둔 이런저런 약속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기분을 살필 겨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제인도 함께 집에 갈 테니, 롱번에 가면 살펴볼 여유는 충분할 터였다.

그러면서도 다아시 씨가 청혼한 일을 언니에게 털어놓는 것을 롱번에 갈 때까지 참는 데는 애가 쓰였다. 제인을 그토록 크게 놀라게 할 일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이성으로 다 떨쳐 내지 못한 자기 안의 허영을 한껏 채워 줄 일이라는 것을 아는 이상, 털어놓고 싶은 유혹은 무엇으로도 이겨 낼 수 없을 만큼 컸다. 그 유혹을 누를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망설임과, 일단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빙리에 관한 무언가를 엉겁결에 되풀이해 언니를 더 슬프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뿐이었다.

# 제39장

5월 둘째 주, 세 아가씨는 함께 그레이스처치 거리를 떠나 하트퍼드셔의 ○ ○ 읍으로 향했다. 베넷 씨의 마차가 마중 나오기로 한 여관에 가까워지자, 마부가 시간을 잘 지켰다는 표시로 키티와 리디아가 위층 식당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 금방 눈에 띄었다. 두 아가씨는 한 시간 넘게 그곳에 머물며 길 건너 모자 가게를 구경하고, 보초 서는 병사를 지켜보고, 샐러드와 오이를 무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참이었다.

두 아가씨는 언니들을 반갑게 맞고 나서, 여관 찬장에서 으레 나오는 찬 고기를 한 상 차려 놓은 식탁을 의기양양하게 보여 주며 소리쳤다. "근사하지 않아? 깜짝 놀랐지?"

"그리고 우리가 다 대접할 거야." 리디아가 덧붙였다. "근데 돈은 언니들이 빌려줘야 해. 우리 돈은 방금 저기 가게에서 다 써 버렸거든." 그러고는 산 물건을 내보였다. "이것 봐, 이 보닛 샀어.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안 사느니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 집에 가자마자 다 뜯어서 좀 더 예쁘게 고칠 수 있나 볼 거야."

언니들이 보기 흉하다고 핀잔을 주자 리디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다. "어머, 가게에는 이것보다 훨씬 흉한 게 두세 개 더 있었어. 더 예쁜 색 공단을 사다가 새로 꾸미면 꽤 봐줄 만할 거고, 게다가 ○○셔 연대가 메리턴을 떠나고 나면 이번 여름에 뭘 입든 별 상관도 없는데, 2주 뒤면 떠난대."

"정말 그래?" 엘리자베스가 더없이 흡족해하며 소리쳤다.

"브라이턴 근처에 진을 친대. 아버지가 이번 여름에 우리를 다 그리로 데려가 주시면 정말 좋겠어! 얼마나 신나는 계획이야. 돈도 거의 안 들 거야. 어머니도 무엇보다 가고 싶어 하실걸! 안 그러면 여름이 얼마나 비참할지 생각해 봐!"

"그래."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거*야말로 정말 신나는 계획이겠지. 우리를 단번에 끝장낼 테니까. 맙소사! 변변찮은 민병대 연대 하나와 메리턴에서 달마다 열리는 무도회만으로도 벌써 넋이 나간 우리한테, 브라이턴에다 군인들이 빽빽이 들어찬 막사 하나를 통째로 안기다니!"

"이제 언니들한테 들려줄 소식이 있어." 식탁에 앉자 리디아가 말했다. "뭔지 맞혀 봐. 아주 좋은 소식, 끝내주는 소식이야. 우리 모두 좋아하는 어떤 사람 얘기야."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서로 눈짓을 하고는 급사에게 나가도 된다고 일렀다. 리디아가 웃으며 말했다.

"흥, 그렇게 격식 차리고 조심하는 거 딱 언니들답다. 급사가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 사람이 신경이나 쓴다고! 내가 하려는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도 늘 들을 텐데. 근데 그 사람 정말 못생겼더라! 나가서 다행이야. 그렇게 턱이 긴 사람은 난생처음 봐. 아무튼 이제 내 소식. 우리 위컴 얘기야. 급사가 듣기엔 아까운 얘기지, 안 그래? 위컴이 메리 킹하고 결혼할 위험은 이제 없어. 어때! 메리 킹은 리버풀에 있는 삼촌한테 가 버렸어. 아주 눌러살러 갔대. 위컴은 무사해."

"그리고 메리 킹도 무사하고!" 엘리자베스가 덧붙였다. "재산을 생각하면 경솔하기 짝이 없는 인연에서 말이야."

"그 애가 위컴을 좋아했다면 떠난 건 정말 바보짓이야."

"하지만 어느 쪽도 깊은 애정은 없었으면 좋겠다." 제인이 말했다.

"*위컴 쪽*은 분명히 없었어. 내가 장담하는데, 위컴은 그 애를 눈곱만큼도 신경 안 썼어. 그렇게 주근깨투성이 못난이를 누가 *좋아할 수나* 있겠어?"

엘리자베스는 자기라면 그토록 거친 *말*을 입에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거친 *속마음*은 전에 자기 가슴에 품고서 너그러운 생각이라고 여겼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모두 다 먹고 손위 언니들이 셈을 치르자 마차를 대령하게 했다. 한참 궁리한 끝에 일행은 모든 상자와 바느질 가방과 꾸러미, 그리고 반갑지 않게 덧붙은 키티와 리디아의 산 물건들까지 함께 싣고 마차에 올라앉았다.

"이렇게 꽉 끼어 앉으니 정말 좋다!" 리디아가 소리쳤다. "보닛 사 오길 잘했어. 모자 상자 하나 더 생긴 재미만으로도 말이야! 자, 이제 편하고 아늑하게 앉아서 집에 갈 때까지 내내 떠들고 웃자. 우선 언니들 떠나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 보자. 근사한 남자는 만났어? 연애 놀음은 좀 했어? 나는 언니들 가운데 하나는 돌아오기 전에 신랑감을 구할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제인 언니는 곧 노처녀 되겠어. 벌써 스물세 살이 다 됐잖아! 세상에! 나라면 스물셋 전에 결혼 못 하면 창피해서 어떡할지 몰라! 필립스 이모가 언니들이 시집가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상상도 못 할걸. 이모는 리지 언니가 콜린스 씨를 잡았어야 했대. 근데 *나는* 그랬으면 하나도 재미없었을 것 같아. 세상에! 내가 언니들 누구보다 먼저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무도회마다 내가 언니들 보호자 노릇을 해 줄 텐데. 어머! 며칠 전에 포스터 대령 댁에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키티랑 나랑 거기서 하루 놀기로 했고, 포스터 부인이 저녁에 조촐하게 춤판을 벌여 주기로 해서 (그건 그렇고, 포스터 부인하고 나는 *엄청* 친해!) 해링턴 자매 둘을 오라고 했는데, 해리엇이 아파서 펜 혼자 와야 했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했을 것 같아?

체임벌레인한테 여자 옷을 입혀서 숙녀인 척하게 했어. 얼마나 재밌었을지 생각해 봐! 포스터 대령 부부랑 키티랑 나 말고는 아무도 몰랐어. 아, 이모도 알았지. 이모 드레스를 하나 빌려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쪽같았는지 언니들은 상상도 못 할 거야! 데니랑 위컴이랑 프랫이랑 남자 두세 명이 더 들어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 세상에! 나 얼마나 웃었는지! 포스터 부인도 그랬어. 웃다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뭔가 수상하다고 눈치채서 금방 들통났어."

리디아는 키티가 귀띔하고 거드는 말에 힘입어 그런 파티 이야기며 재미난 장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롱번까지 가는 내내 일행을 즐겁게 해 주려고 애썼다. 엘리자베스는 될 수 있는 한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튀어나오는 위컴의 이름은 피할 길이 없었다.

집에서는 모두가 무척 반갑게 맞아 주었다. 베넷 부인은 제인이 조금도 시들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했고, 베넷 씨는 저녁을 먹는 동안 묻지도 않았는데 엘리자베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말했다.

"리지, 네가 돌아오니 기쁘구나."

루커스 집안 식구가 마리아를 맞고 소식을 들으려고 거의 다 와 있어서 식당에 모인 사람은 많았고, 이야깃거리도 가지가지였는데, 루커스 부인은 식탁 건너편의 마리아에게 맏딸이 잘 지내는지, 닭들은 잘 크는지 묻고 있었다. 베넷 부인은 두 가지 일로 바빴는데, 한쪽으로는 조금 떨어져 앉은 제인에게서 요즘 유행이 어떤지 듣고, 다른 쪽으로는 그것을 루커스 집안의 어린 아가씨들에게 하나하나 옮겨 주었다. 리디아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들어 줄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그날 아침 있었던 갖가지 즐거운 일을 늘어놓았다.

"아, 메리 언니." 리디아가 말했다. "언니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오는 길에 키티랑 나랑 가리개를 다 쳐 놓고 마차에 아무도 없는 척했는데, 키티가 멀미만 안 했으면 집에 올 때까지 내내 계속 그렇게 왔을 거야. 그리고 조지 여관에 도착해서는 우리가 정말 근사하게 굴었다니까. 다른 세 사람한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찬 점심을 대접했거든. 언니도 갔으면 언니도 대접해 줬을 거야. 그리고 나올 때도 얼마나 웃겼는데! 마차에 다 못 탈 줄 알았어. 웃다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집에 오는 내내 얼마나 신났는지! 어찌나 크게 떠들고 웃었는지 10마일 밖에서도 들렸을 거야!"

이 말에 메리는 아주 근엄하게 대답했다. "리디아, 그런 즐거움을 깎아내리는 건 내 뜻과 거리가 멀어. 그런 즐거움은 틀림없이 대다수 여성의 정신에 걸맞다 할 수 있지. 하지만 고백하건대 *나에게는* 아무 매력도 없었을 거야. 나는 책 한 권을 한없이 더 좋아하는 편이야."

그러나 리디아는 그 대답을 한 마디도 듣지 않았다. 리디아는 누구의 말이든 30초를 넘겨 들어 주는 일이 드물었고, 메리의 말에는 아예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다.

오후가 되자 리디아는 메리턴까지 걸어가서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자고 언니들을 졸라 댔지만, 엘리자베스는 끝까지 그 계획에 반대했다. 베넷 집안 아가씨들이 집에 온 지 반나절도 못 되어 장교들 꽁무니를 쫓아다닌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었다. 반대하는 까닭은 하나 더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다시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고, 될 수 있는 한 오래 피하리라 마음먹었다. 연대가 머잖아 이곳을 떠난다니, *엘리자베스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놓였다. 2주만 지나면 그들은 떠날 것이고, 일단 떠나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더는 시달릴 일이 없으리라고 엘리자베스는 기대했다.

집에 온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엘리자베스는 리디아가 여관에서 슬쩍 운을 뗐던 브라이턴 계획을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은 엘리자베스도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한편으로 워낙 흐릿하고 이리저리 둘러대는 것이어서, 어머니는 자주 풀이 죽으면서도 끝내 뜻을 이루리라는 희망을 아직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 제40장

일어난 일을 제인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을 엘리자베스는 더는 누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언니와 관련된 대목은 하나도 빠짐없이 덮어 두기로 하고, 놀랄 일이 있다고 미리 귀띔해 둔 다음, 이튿날 아침 다아시 씨와 자기 사이에 벌어진 장면의 줄거리를 언니에게 들려주었다.

동생을 감싸는 언니의 편애가 워낙 깊어서 누가 엘리자베스를 흠모한다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였으므로, 베넷 양의 놀라움은 곧 누그러졌고 이내 다른 감정들 속에 묻혀 버렸다. 제인은 다아시 씨가 자기 마음을 그렇게 조금도 호감을 사지 못할 태도로 털어놓았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생의 거절이 그에게 안겼을 불행이 그보다 더 마음 아팠다.

"꼭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건 잘못이야." 제인이 말했다. "그리고 그걸 드러내지도 말았어야 했고.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실망했을지 생각해 봐."

"그러게."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나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안됐다 싶어.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다른 감정들이 있으니까, 나를 좋아하던 마음 따위는 아마 그 감정들에 밀려 곧 사라져 버리고 말 거야. 그래도 언니는 내가 거절했다고 나를 나무라지는 않지?"

"너를 나무라다니! 아니, 절대."

"그럼 내가 위컴 편을 들어 그렇게 열을 올렸던 건 나무라겠네?"

"아니… 네가 한 말이 틀렸는지 어떤지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야. 바로 그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면."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편지 이야기를 꺼내, 조지 위컴에 관한 대목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려주었다. 가엾은 제인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이 세상 인류를 다 합쳐도 이만한 악이 있다고는 믿지 않고 한평생을 기꺼이 살아갔을 사람인데, 그 악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모여 있었다니! 다아시의 결백이 밝혀진 것은 반가웠지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데서 오는 괴로움을 달래 주지는 못했다. 제인은 어딘가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밝혀 보려고, 한쪽을 끌어들이지 않고 다른 한쪽의 누명만 벗겨 보려고 더없이 간절하게 애썼다.

"그렇게는 안 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언니가 아무리 애써도 두 사람을 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어. 골라. 하지만 한 사람으로 만족해야 해. 두 사람 몫의 장점은 딱 그만큼밖에 없거든. 괜찮은 남자 하나 만들 만큼뿐이야. 게다가 요즘 그게 이쪽저쪽으로 꽤 옮겨 다녔어. 나로서는 그게 전부 다아시 씨 거라고 믿고 싶은데, 언니는 언니 좋을 대로 해."

그러나 제인의 얼굴에 억지로라도 미소가 떠오르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제인이 말했다. "위컴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가엾은 다아시 씨! 리지,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만 해 봐. 그런 실망을 겪었는데! 게다가 네가 자기를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까지 알고서! 누이동생 이야기까지 털어놓아야 했고! 정말 너무 가슴 아파. 너도 분명 그렇게 느낄 거야."

"아니, 전혀. 언니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가엾어하는 걸 보니까 내 안타까움도 연민도 싹 없어져 버렸어. 언니가 그 사람을 그렇게 넉넉히 감싸 줄 걸 아니까, 나는 시시각각 갈수록 무심해지고 덤덤해지는걸. 언니가 아낌없이 쓰니까 나는 아껴 쓰게 되네. 언니가 그 사람 때문에 조금만 더 오래 슬퍼해 주면, 내 마음은 머잖아 깃털처럼 가벼워질 거야."

"가엾은 위컴! 얼굴에 그렇게 착한 표정이 있는데! 몸가짐도 그렇게 솔직하고 부드러운데."

"그 두 젊은이를 가르칠 때 뭔가 크게 잘못된 게 틀림없어. 한 사람은 착함을 다 가져갔고, 다른 한 사람은 착해 보이는 겉모습을 다 가져갔으니."

"나는 다아시 씨가 네가 늘 생각하던 것만큼 착해 *보이는* 데가 모자란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런데도 나는 아무 까닭 없이 그 사람을 그렇게 딱 잘라 싫어하는 게 남달리 영리한 짓인 줄 알았어. 그런 미움은 재능에는 박차가 되고 재치에는 길을 열어 주거든. 옳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줄곧 헐뜯을 수는 있지만, 한 남자를 늘 비웃다 보면 이따금 재치 있는 말 하나쯤에는 걸려 넘어지게 마련이야."

"리지, 그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없었을 거야."

"물론 그럴 수 없었지. 마음이 무척 불편했어. 아주 불편했어. 불행했다고 해도 될 만큼. 게다가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내가 그렇게까지 나약하고 허영에 차고 어리석지는 않았다고 달래 줄 언니도 없었어, 그랬다는 걸 나 스스로 뻔히 알았는데도! 아, 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다아시 씨한테 위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다니 참 안됐다. 이제 보니 정말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었잖아."

"그렇지. 하지만 내가 키워 온 편견을 생각하면, 그렇게 모진 말을 내뱉는 불행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야. 한 가지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위컴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두루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언니 생각을 듣고 싶어."

베넷 양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대답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들춰낼 까닭은 없을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떤데?"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야. 다아시 씨는 나한테 털어놓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도 좋다고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누이동생에 관한 일은 하나하나 될 수 있는 대로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뜻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의 다른 행실에 대해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 주려고 애쓴다 한들 누가 내 말을 믿겠어? 다아시 씨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워낙 심해서, 메리턴의 착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 들었다가는 그 사람들 절반이 까무러치고 말 거야. 나로서는 감당이 안 돼. 위컴은 곧 떠날 테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여기서 누구한테도 상관없는 일이 될 거야. 언젠가는 다 드러날 테고, 그때 가서 우리는 그걸 진작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실컷 비웃어 주면 돼.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네 말이 아주 옳아. 그 사람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 사람은 영영 끝장날 수도 있어. 어쩌면 지금쯤 자기가 한 일을 뉘우치면서 평판을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그 사람을 막다른 데로 몰아서는 안 돼."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엘리자베스의 어지럽던 마음은 가라앉았다. 2주 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비밀 가운데 두 가지를 털어 버렸고, 이제 어느 쪽이든 다시 이야기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 기꺼이 들어 줄 제인이

있었다. 그러나 뒤에는 아직 숨어 있는 것이 남아 있었고, 그것만은 신중함이 털어놓지 못하게 막았다. 엘리자베스는 감히 다아시 씨의 편지 나머지 절반을 들려줄 수도 없었고, 그의 친구가 언니를 얼마나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는지 언니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었다. 이것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앎이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당사자들 사이에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마지막 비밀의 짐을 내려놓을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엘리자베스는 혼잣말을 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빙리가 훨씬 더 기분 좋게 직접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이겠지. 털어놓을 자유는 그 이야기가 아무 값어치도 없어진 다음에야 내 것이 되는구나!"

이제 집에 자리를 잡고 나니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마음이 실제로 어떤지 찬찬히 살펴볼 여유가 생겼다. 제인은 행복하지 않았다. 제인은 아직도 빙리를 무척 애틋하게 마음에 품고 있었다. 전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기에, 그 마음에는 첫사랑의 뜨거움이 고스란히 있었고, 나이와 성품 덕분에 첫사랑이 흔히 자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한결같음도 있었다. 제인은 그를 떠올리는 일을 너무도 소중히 여겼고 다른 어떤 남자보다 그를 더 낫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 건강과 식구들의 평온을 해쳤을 그 회한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그 모든 분별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모든 배려를 다 쏟아야 했다.

"그래, 리지." 어느 날 베넷 부인이 말했다. "제인의 그 딱한 일을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로서는 앞으로 누구한테든 그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얼마 전에 필립스 이모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제인이 런던에서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는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구나. 하여간 아주 몹쓸 젊은이야, 그리고 제인이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잡을 가망은 이 세상에 눈곱만큼도 없을 거야.

여름에 그 사람이 네더필드로 다시 온다는 말도 없어, 알 만한 사람한테는 다 물어봤는데도 말이야."

"그분은 다시는 네더필드에 와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사람 마음대로 하라지. 누가 그 사람더러 오라고 한대?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딸을 아주 몹쓸 꼴로 대했다는 말은 나는 언제까지고 할 거고, 내가 제인이었으면 그런 꼴은 절대 참고 있지 않았을 거다. 그래, 나는 그걸로 위안을 삼는다. 제인은 틀림없이 상심해서 죽고 말 테고,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겠지."

그러나 그런 기대에서는 아무 위안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 리지." 조금 뒤에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콜린스네는 아주 편안하게 산다고, 그렇지? 그래, 그래, 그게 오래가기만 바랄 뿐이다. 그래서 식탁은 어떻게 차리고 사니? 샬럿은 살림을 아주 잘하겠지. 제 어머니 반만큼만 약아도 알뜰하기는 충분할 거야. *그 집* 살림에는 헤픈 구석이 하나도 없겠지."

"네, 전혀 없어요."

"살림 솜씨가 아주 대단하다니까, 두고 봐. 그래, 그래. *그 사람들은* 수입보다 더 쓰지 않으려고 조심할 거야. *그 사람들은* 돈에 쪼들릴 일이 절대 없을 거다. 하여간 그래서 잘살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롱번을 차지할 이야기를 자주 하겠지, 그날이 오기만 하면 롱번을 아주 제 것으로 여길 거야, 틀림없이."

"제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 그랬다면 이상한 일이지. 하지만 둘이서는 틀림없이 자주 그 얘기를 할 거다. 하여간 법으로 자기 것도 아닌 땅을 갖고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것도 잘된 일이지. *나라면* 한정상속으로 겨우 넘겨받은 땅을 갖는 건 부끄러울 거야."

# 제41장

돌아온 뒤 첫 주는 금세 지나갔다. 둘째 주가 시작되었다. 연대가 메리턴에 머무는 마지막 주였고, 이웃의 젊은 아가씨들은 하나같이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 갔다. 낙담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베넷 집안의 두 큰딸만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잠자고 늘 하던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다. 키티와 리디아는 자기들의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으므로, 식구 가운데 누가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언니들의 이 무심함을 툭하면 나무랐다.

"세상에!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뭘 하라고?" 두 사람은 비통함에 젖어 자주 그렇게 소리쳤다. "리지 언니, 어떻게 그렇게 웃고 있을 수가 있어?"

다정한 어머니는 두 딸의 슬픔을 고스란히 함께 나누었다. 스물다섯 해 전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자기가 견뎌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베넷 부인이 말했다. "밀러 대령의 연대가 떠났을 때 나는 이틀 내리 울었단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지."

"*내* 가슴은 정말 찢어지고 말 거예요." 리디아가 말했다.

"브라이턴에 갈 수만 있다면!" 베넷 부인이 말했다.

"아, 맞아요! 브라이턴에 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밉살스러워요."

"바닷물에 몸을 좀 담그면 나는 영영 기운이 날 텐데."

"필립스 이모도 바닷물에 들어가면 *나한테* 아주 좋을 거래요." 키티가 덧붙였다.

롱번 저택에는 날마다 이런 한탄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소리를 재미로 들어 넘기려 해 보았지만, 즐거운 마음은 부끄러움 속에 모조리 사라졌다. 다아시 씨가 내세운 반대가 옳았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새삼 느꼈고, 그가 친구의 일에 끼어든 것을 이번처럼 너그럽게 용서하고 싶어진 적은 전에 없었다.

그러나 리디아의 앞날을 덮은 먹구름은 곧 걷혔다. 연대장의 아내인 포스터 부인이 리디아에게 브라이턴에 함께 가자고 초대한 것이다. 이 더없이 귀한 벗은 아주 젊은 여자였고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둘 다 성격이 쾌활하고 기운이 넘친다는 점이 닮아서 서로 마음이 맞았고, 알고 지낸 *석* 달 가운데 *두* 달을 단짝으로 지냈다.

이 일로 리디아가 얼마나 황홀해했는지, 포스터 부인을 얼마나 떠받들었는지, 베넷 부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키티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는 이루 다 그려 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리디아는 언니의 마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들뜬 기쁨에 겨워 온 집 안을 날아다니며 모두에게 축하해 달라고 외쳤고, 여느 때보다 더 요란하게 웃고 떠들었다. 그동안 운 나쁜 키티는 거실에 남아, 뾰로통한 목소리 못지않게 터무니없는 말로 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왜 포스터 부인이 리디아만 부르고 *나는* 안 불렀는지 모르겠어." 키티가 말했다. "내가 특별히 친한 친구가 *아니긴* 해도 말이야. 나도 리디아만큼 초대받을 자격이 있어. 더 있지, 내가 두 살이나 위니까."

엘리자베스가 키티를 타일러 보려 했고 제인이 체념하게 해 보려 했지만 헛일이었다. 엘리자베스 자신은 어머니나 리디아와는 딴판으로 이 초대에서 기쁨은커녕 리디아의 분별이 깃들 가능성이란 가능성은 모조리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가

알려지면 얼마나 미움을 사게 될지 알면서도, 리디아를 보내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몰래 간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리디아의 평소 행실이 얼마나 볼썽사나운지, 포스터 부인 같은 여자와 어울려서는 얻을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집보다 유혹이 훨씬 많을 브라이턴에서 그런 친구와 함께 있으면 더 경솔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에게 낱낱이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서 대답했다.

"리디아는 어디든 사람들 많은 데서 한 번 망신을 당하기 전에는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게다. 그런데 지금처럼 집안에 돈도 덜 들고 번거로움도 덜 끼치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랄 기회는 다시없을 거다."

"리디아의 그 조심성 없고 경솔한 행동이 사람들 눈에 띄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게 될지, 아니, 벌써 입었는지 아신다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아버지도 분명 이 일을 달리 판단하실 거예요."

"벌써 입었다고!" 베넷 씨가 되물었다. "뭐야! 그 애가 네 구혼자라도 몇 쫓아 버렸단 말이냐? 가엾은 우리 리지! 하지만 기죽지 마라. 조금 어리석은 사람과 엮이는 것도 못 견디는 그런 까다로운 젊은 것들은 아쉬워할 값어치도 없다. 자, 리디아의 철없는 짓 때문에 멀리 달아난 그 한심한 녀석들 명단이나 좀 보자꾸나."

"정말 오해하셨어요. 저는 그런 일로 억울해할 게 없어요. 지금 제가 하소연하는 건 저 하나만의 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해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무게와 체면은 리디아의 성격에 박힌 그 걷잡을 수 없는 경박함, 그 뻔뻔함, 어떤 구속도 우습게 아는 태도 때문에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 넘치는 혈기를 누르시고, 지금 그 애가 쫓아다니는 것들이 평생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수고를 하지 않으시면, 그 애는 곧 고쳐 볼 길도 없게 될 거예요. 성격이 그대로 굳어

버리겠지요. 그러면 그 애는 열여섯 살에 이미, 자기와 집안을 웃음거리로 만든 여자 가운데 누구보다도 작정하고 남자에게 꼬리를 치는 아가씨가 될 거예요. 그것도 꼬리 치는 짓 가운데 가장 나쁘고 가장 천박한 꼴로요. 젊음과 봐줄 만한 외모 말고는 아무 매력도 없고, 머리가 무지하고 텅 비어 있어서 칭찬받고 싶어 안달하는 그 마음이 불러올 세상의 경멸을 조금도 막아 내지 못하는 아가씨가요. 키티도 이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애는 리디아가 이끄는 대로 어디든 따라갈 테니까요. 허영에 차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전혀 다잡을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 아버지, 그 애들을 아는 곳이면 어디서든 그 애들이 비난받고 경멸당하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언니들까지 그 망신에 자주 휘말리지 않으리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베넷 씨는 딸이 온 마음을 다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정하게 딸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걱정 마라, 얘야. 너와 제인을 아는 곳이면 어디서든 너희는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질 게다. 아주 어리석은 동생이 둘, 아니, 셋이라고 해야겠구나, 셋 있다고 해서 너희가 조금이라도 못나 보이지는 않을 거다. 리디아가 브라이턴에 가지 않으면 롱번에는 평화가 없을 게다. 그러니 보내자꾸나. 포스터 대령은 분별 있는 사람이니 그 애가 정말 큰 말썽은 일으키지 않게 막아 줄 거다. 게다가 다행히도 그 애는 너무 가난해서 누구의 먹잇감도 되지 못할 게다. 브라이턴에서는 그 애가 그저 흔한 바람둥이 아가씨로서도 여기서보다 대단치 않은 존재가 될 거다. 장교들은 더 눈여겨볼 만한 여자들을 찾아낼 테니까. 그러니 그곳에 가서 제가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기를 바라자꾸나. 어쨌든 그 애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면, 그때는 평생 가둬 둬도 될 명분이 우리한테 생기는 셈이다."

엘리자베스는 이 대답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각은 그대로였고,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아버지 곁을 떠났다. 그러나 속상한 일을 곱씹어 더 키우는 것은 엘리자베스의 천성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 할 도리는 다했다고 확신했고, 피할 수 없는 불행을 두고 애태우거나 걱정으로 그 불행을 부풀리는 것은 그 성미에 맞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의 요지를 리디아와 어머니가 알았더라면, 두 사람이 합세해 쏟아 내는 말로도 그 분노를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리디아의 상상 속에서 브라이턴에 가는 일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모두 품고 있었다. 리디아는 공상의 눈으로 그 화려한 해수욕장의 거리를 가득 메운 장교들을 보았다. 아직 얼굴도 모르는 장교들이 열 명씩, 스무 명씩 자기에게 눈길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다. 야영지의 온갖 영광을 보았다. 줄줄이 아름답게 가지런히 늘어선 천막들, 그 안을 가득 메운 젊고 쾌활한 사람들, 눈부시게 번쩍이는 붉은 군복. 그리고 그 광경을 완성하듯, 천막 아래 앉아 적어도 여섯 명의 장교와 한꺼번에 다정하게 시시덕거리는 자기 모습을 보았다.

언니가 자기를 그런 앞날과 그런 현실에서 떼어 놓으려 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리디아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 기분은 어머니만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도 거의 같은 기분을 느꼈을 테니까. 남편이 몸소 그곳에 갈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서글픈 확신 속에서 베넷 부인을 달래 주는 것은 리디아가 브라이턴에 간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고, 리디아가 집을 떠나는 바로 그날까지 거의 쉬지 않고 기뻐 날뛰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위컴 씨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었다. 돌아온 뒤로 그와 자주 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는 거의 가라앉았고, 예전에 그에게 끌렸던 데서 오는 동요는 완전히 사라졌다. 처음에

엘리자베스를 그토록 기쁘게 했던 바로 그 부드러움에서, 이제는 역겹고 지루한 꾸밈과 단조로움을 알아보는 법까지 배웠다. 게다가 요즘 그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엘리자베스는 새로운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곧 알고 지낸 초기에 보였던 그 살뜰한 관심을 다시 보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그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엘리자베스의 화를 돋울 뿐이었다. 그렇게 한가하고 경박한 친절의 대상으로 뽑혔다는 것을 알자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한 관심을 모조리 잃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친절을 꿋꿋이 물리치면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까닭으로 관심을 거두어 두었든 언제든 다시 보여 주기만 하면 엘리자베스의 허영심은 채워지고 그의 편을 드는 마음은 되찾아지리라고 그가 믿는다는 데서 담긴 모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연대가 메리턴에 머무는 바로 마지막 날, 그는 다른 장교 몇과 함께 롱번에서 저녁을 먹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와 기분 좋게 헤어질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므로, 헌스퍼드에서 어떻게 지냈느냐고 그가 묻자 피츠윌리엄 대령과 다아시 씨가 둘 다 3주 동안 로징스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꺼내고는, 피츠윌리엄 대령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놀라고, 언짢고, 겁먹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잠깐 생각을 가다듬고는 다시 미소를 띠며 예전에 자주 보았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아주 신사다운 분이라고 한마디 하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그를 어떻게 보았느냐고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대령을 따뜻하게 칭찬했다. 조금 뒤에 위컴은 무심한 척하며 덧붙였다. "로징스에 얼마나 있었다고 하셨죠?"

"3주 가까이요."

"그분을 자주 보셨나요?"

"네, 거의 날마다요."

"그분은 사촌하고는 몸가짐이 아주 다르죠."

"네, 아주 달라요. 하지만 다아시 씨도 알고 보니 나아지는 분이더군요."

"그래요!" 위컴이 소리쳤다. 그 표정을 엘리자베스는 놓치지 않았다. "그럼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다 말을 멈추고 한결 쾌활한 어조로 덧붙였다. "말씨가 나아지던가요? 그 양반이 평소 말투에 예의를 조금이라도 보태 주시기로 하셨나 보죠? 왜냐하면 감히 바랄 수가 없거든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그 양반이 근본부터 나아졌으리라고는요."

"아, 아니에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근본은 제가 보기에 예나 지금이나 거의 그대로예요."

엘리자베스가 말하는 동안 위컴은 그 말을 기뻐해야 할지 그 속뜻을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엘리자베스의 표정에 무언가가 있어서 위컴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귀를 기울였고, 엘리자베스는 말을 덧붙였다.

"알고 보니 나아지는 분이라고 한 건 그분의 생각이나 몸가짐이 나아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을 더 잘 알게 되니까 그분의 성품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위컴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빛이 흔들려 이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없던 그는 이윽고 당혹감을 떨쳐 내고 다시 엘리자베스 쪽으로 돌아앉아 더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아시 씨에 대한 제 심정을 그토록 잘 아시니, 그 양반이 옳은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할 만큼 영리하다니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쉽게 짐작하시겠지요. 그런 방향으로라면 그 양반의 오만도 쓸모가 있을지 몰라요. 그 양반 자신에게는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에게는요. 그 오만이 있으니 제가 당한 것 같은 그런 비열한 짓은 삼갈 테니까요. 다만 걱정스러운 건, 짐작건대 베넷 양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심성은 이모님 댁을 찾아갈 때만 꾸며 내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이에요. 그 양반은 이모님의 평판과 판단을 아주 두려워하거든요. 두 분이 함께 계실 때면 늘 그 두려움이 작용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드 버그 양과의 혼사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 탓으로 돌려야 할 거예요. 그 양반이 그 혼사를 무척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이 말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이는 것으로만 대답했다. 위컴이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이라는 그 옛이야기로 자기를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비위를 맞춰 줄 기분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의 나머지는, 위컴 쪽에서는 여느 때처럼 쾌활한 *겉모습*을 보였지만 엘리자베스를 따로 떠받들려는 시도는 더 하지 않은 채 지나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 예의를 지키며,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서로 바라며 헤어졌다.

모임이 끝나자 리디아는 포스터 부인과 함께 메리턴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곳에서 떠날 예정이었다. 리디아와 식구들의 작별은 애처롭다기보다는 시끄러웠다. 눈물을 흘린 사람은 키티뿐이었는데, 그것도 속상하고 샘이 나서 운 것이었다. 베넷 부인은 딸의 행복을 비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고, 될 수 있는 대로 실컷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는데, 그 충고만큼은 틀림없이 지켜지리라고 믿을 만한 까닭이 충분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는 리디아 자신의 떠들썩한 행복 속에서 언니들의 더 조용한 작별 인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은 채 묻혀 버렸다.

# 제42장

엘리자베스가 자기 집안만 보고 생각을 굳혔다면 부부의 행복이나 가정의 안락에 대해 그리 흐뭇한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젊음과 아름다움에, 그리고 젊음과 아름다움이 대개 함께 풍기는 그 상냥해 보이는 겉모습에 사로잡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의 모자란 이해력과 옹졸한 마음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에 대한 진정한 애정은 모조리 끝나 버렸다. 존경도, 존중도, 믿음도 영영 사라졌고, 가정의 행복에 대해 그가 품었던 생각은 모두 무너졌다. 그러나 베넷 씨는 자기 자신의 경솔함이 불러온 실망을 두고, 불행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리석음이나 악덕을 너무도 자주 달래곤 하는 그런 쾌락에서 위안을 찾는 성미가 아니었다. 그는 시골과 책을 좋아했고, 그의 큰 즐거움은 그 취미에서 나왔다. 아내에게 신세 진 것이라고는, 아내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그를 즐겁게 해 주었다는 것 말고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대개 남자가 아내에게서 얻고 싶어 하는 행복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즐길 거리가 없을 때 참된 철학자는 주어진 것에서 이득을 얻는 법이다.

그렇다고 엘리자베스가 남편으로서 아버지가 보이는 행동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모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늘 그것을 괴롭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능을 존경했고 자기를 다정하게 대해 주는 데 고마움을 느꼈기에, 못 본 체할 수 없는 것은 잊으려고 애썼고, 아내를 그 자식들 앞에서 경멸받게 만드는 일이니 몹시

비난받아 마땅한, 부부 사이의 도리와 체면을 끊임없이 저버리는 그 모습을 생각에서 밀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결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불리함을 지금처럼 절실하게 느낀 적은 없었고, 재능을 그토록 잘못 쓰는 데서 생기는 해악을 지금처럼 똑똑히 깨달은 적도 없었다. 그 재능을 올바르게 썼다면, 아내의 생각을 넓혀 주지는 못했을지언정 적어도 딸들의 체면만은 지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위컴이 떠난 것을 반긴 다음에는, 연대가 사라진 데서 엘리자베스가 흐뭇해할 까닭은 그 밖에 별로 없었다. 바깥 모임은 전보다 단조로워졌다. 집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있었는데, 둘이 주위의 모든 것이 따분하다고 끊임없이 투덜대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가 정말로 어두워졌다. 키티는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것들이 치워졌으니 언젠가는 타고난 만큼의 분별을 되찾을지도 모르지만, 성미로 보아 더 큰 해악이 걱정되는 다른 동생은 해수욕장과 야영지라는 이중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그 온갖 어리석음과 뻔뻔함이 더욱 굳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대체로 엘리자베스는, 전에도 이따금 사람들이 깨달아 온 대로, 애타게 기다려 온 일도 막상 일어나고 나면 스스로 기대했던 만족을 다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진짜 행복이 시작될 날을 다른 때로 다시 잡아야 했다. 바람과 희망을 걸어 둘 다른 지점을 정해 두고, 기대하는 즐거움을 다시 누리면서 지금의 자신을 달래고, 또 한 번의 실망에 대비해야 했다. 이제 호수 지방 여행은 엘리자베스가 가장 즐겁게 떠올리는 일이 되었다. 어머니와 키티의 불평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시간들을 견디게 해 주는 가장 큰 위안이었고, 그 계획에 제인까지 넣을 수만 있었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이야,"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아직 바랄 거리가 남아 있다는 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실망하고 말

테니까. 하지만 이렇게 언니가 없다는 아쉬움 하나를 줄곧 데리고 다니면, 즐거우리라 기대했던 것은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바라도 무리가 아니겠지. 어느 구석 하나 빠짐없이 즐거움만 약속하는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자그마한 속상함 하나를 방패로 삼아야만 전체가 실망으로 끝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야."

리디아는 떠날 때 어머니와 키티에게 아주 자주, 아주 자세히 편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편지는 늘 한참을 기다려야 왔고, 늘 아주 짧았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방금 대여 도서관에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러이러한 장교들이 자기들을 모시고 다녔고 거기서 너무 예뻐서 미칠 것 같은 장신구들을 보았다는 이야기, 새 드레스나 새 양산을 샀는데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포스터 부인이 부르고 다들 야영지로 가는 길이라 몹시 서둘러 그만 써야겠다는 이야기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키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알아낼 것이 더욱 적었다. 키티에게 보낸 편지는 조금 더 길기는 했지만, 낱말마다 밑줄이 너무 많이 그어져 있어서 남들에게 보여 줄 수가 없었다.

리디아가 떠나고 2주나 3주가 지나자 롱번에는 건강과 웃음과 쾌활함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한결 즐거운 빛을 띠었다. 겨울 동안 런던에 가 있던 집안들이 돌아오면서 여름옷 차림과 여름 모임들이 시작되었다. 베넷 부인은 늘 투덜대면서도 태평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6월 중순쯤 되자 키티는 눈물 없이 메리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앞날이 몹시 밝아 보이는 일이어서, 엘리자베스는 육군성의 어떤 잔인하고 짓궂은 처분으로 또 다른 연대가 메리턴에 주둔하지만 않는다면 다음 크리스마스쯤이면 키티도 꽤 철이 들어 하루에 한 번 넘게 장교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되리라고 기대할 정도였다.

북쪽 여행을 떠나기로 정한 날이 빠르게 다가왔다. 2주만 남겨 둔 때에 가디너 부인에게서 편지가 왔고, 그 편지 때문에 여행은 시작이 늦춰지고 일정도 줄어들었다. 가디너 씨는 일 때문에 7월로 2주 늦게야 떠날 수 있고, 한 달 안에 다시 런던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계획했던 만큼 멀리 가서 그만큼 많이 구경하기에는, 적어도 기대했던 만큼 여유 있고 편안하게 구경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으므로, 그들은 호수 지방을 포기하고 더 짧은 여행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북쪽으로는 더비셔보다 멀리 가지 않게 되었다. 그 주에는 3주의 대부분을 채울 만큼 볼거리가 많았고, 가디너 부인에게는 남달리 강하게 끌리는 곳이었다. 가디너 부인이 예전에 몇 해를 살았고 이번에 며칠 머물기로 한 그 소도시는, 아마 매틀록, 채츠워스, 도브데일, 피크 지방[1]의 이름난 절경을 모두 합친 것만큼이나 가디너 부인의 호기심을 끌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몹시 실망했다. 호수 지방을 보리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었고, 지금도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만족하는 것이 엘리자베스가 할 일이었고, 행복해하는 것은 틀림없이 엘리자베스의 기질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곧 다시 괜찮아졌다.

더비셔라는 말에는 떠오르는 생각이 많았다. 그 낱말을 보면 펨벌리와 그 주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설마," 엘리자베스는 혼잣말을 했다. "그 사람 고장에 들어가서 돌로 굳은 결정 몇 조각쯤 슬쩍 가져온다고 무슨 탈이 나겠어. 그 사람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되지."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두 배로 늘었다. 외삼촌 부부가 오기까지 4주가 지나야 했다. 그러나 4주는 결국 지나갔고, 가디너 씨 부부는 마침내 네 아이를 데리고 롱번에 나타났다. 아이들은 여섯 살과 여덟 살 난 딸 둘에 그보다 어린 아들 둘이었는데, 사촌 언니 제인이 특별히 맡아 돌보기로 했다. 제인은 아이들 모두가 좋아했고, 차분한 분별과 상냥한 성품

덕분에 가르치고 함께 놀아 주고 사랑해 주는 모든 면에서 아이들을 돌보기에 꼭 알맞은 사람이었다.

가디너 부부는 롱번에서 하룻밤만 묵고, 이튿날 아침 엘리자베스와 함께 새로운 것과 즐거움을 찾아 길을 떠났다. 서로 길동무로 잘 맞는다는 즐거움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그 맞음새에는 불편을 견딜 건강과 기질, 모든 즐거움을 더 크게 해 줄 쾌활함, 그리고 바깥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들끼리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애정과 지성이 모두 들어 있었다.

더비셔를 그려 보이는 것은 이 책이 할 일이 아니고, 그곳까지 가는 길에 지나친 이름난 곳들을 그려 보이는 것도 이 책이 할 일이 아니다. 옥스퍼드, 블레넘, 워릭, 케닐워스[2], 버밍엄 같은 곳은 충분히 알려져 있다. 지금 관심을 둘 곳은 더비셔의 작은 한 귀퉁이뿐이다. 그 고장의 이름난 볼거리를 다 둘러본 뒤 그들은 가디너 부인이 예전에 살았고 아직 아는 사람이 몇 남아 있다고 최근에 알게 된 작은 소도시 램턴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램턴에서 5마일도 안 되는 곳에 펨벌리가 있다는 것을 외숙모에게서 들었다. 펨벌리는 그들이 가는 길에 곧장 놓여 있지는 않았지만, 길에서 1~2마일밖에 벗어나 있지 않았다. 전날 저녁 일정을 의논하면서 가디너 부인은 그곳을 다시 보고 싶다고 했다. 가디너 씨는 기꺼이 그러자고 했고, 엘리자베스에게도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얘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은 곳을 보고 싶지 않니?" 외숙모가 말했다. "네가 아는 사람들 여럿과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 위컴도 젊은 시절을 거기서 다 보냈다던데."

엘리자베스는 난처했다. 펨벌리에 갈 일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느꼈고, 그곳을 보고 싶지 않은 척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큰 저택이라면 이제 지쳤다고 털어놓아야 했다. 그렇게 많은 저택을

둘러보고 나니 고급 양탄자나 공단 커튼에서 정말 아무 재미도 느낄 수 없다고 했다.

가디너 부인은 엘리자베스더러 바보 같은 소리 한다고 나무랐다. "그냥 가구만 호화롭게 들여놓은 멋진 집이라면 나도 관심 없어." 가디너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거기는 영지가 정말 근사하단다. 이 나라에서 손꼽히게 멋진 숲이 있어."

엘리자베스는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수긍할 수 없었다. 그곳을 둘러보다가 다아시 씨와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곧바로 떠올랐다. 그건 끔찍한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느니 외숙모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걸리는 점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결국 그 집안 사람들이 집에 없는지 몰래 알아보고, 그 대답이 좋지 않을 때에만 마지막 수단으로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밤에 방으로 물러갔을 때, 엘리자베스는 객실 하녀에게 펨벌리가 아주 멋진 곳이 아니냐고, 주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는, 적잖이 조마조마해하며 그 집안 사람들이 여름을 나러 내려와 있느냐고 물었다. 마지막 물음에는 더없이 반가운 부정의 대답이 돌아왔다. 이제 걱정을 덜고 나니 엘리자베스는 그 저택을 직접 보고 싶은 호기심을 마음껏 느낄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와 또 의견을 묻자, 엘리자베스는 마땅히 무심한 척하는 얼굴로 그 계획이 정말 싫지는 않다고 선뜻 대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펨벌리로 가게 되었다.

---

1. 매틀록과 도브데일, 피크 지방은 더비셔의 명승지이고, 채츠워스는 데번셔 공작의 대저택이다.

2. 블레넘은 말버러 공작의 대저택이고, 워릭과 케닐워스는 이름난 중세의 성이다.

# 제43장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펨벌리 숲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기를 지켜보았고, 마침내 문지기 집 앞에서 마차가 안으로 꺾어 들어가자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영지는 무척 넓었고 땅의 생김새가 아주 다채로웠는데, 그들은 영지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숲 사이로 한동안 마차를 몰았다.

엘리자베스는 머릿속이 너무 가득 차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지만, 눈에 띄는 곳이며 바라보기 좋은 자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감탄했다. 그들은 반 마일쯤 천천히 오르막을 올라 꽤 높은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고, 거기서 숲이 끝나자 골짜기 맞은편에 자리 잡은 펨벌리 저택이 곧바로 눈에 들어왔고, 길은 그 골짜기를 향해 조금 가파르게 굽이져 내려갔다. 펨벌리 저택은 크고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솟아오른 땅 위에 보기 좋게 서 있었고 뒤로는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높은 산등성이가 든든히 받치고 있었다. 앞쪽에는 원래도 제법 큰 시내를 더 넓게 불려 놓았는데, 사람 손이 간 티는 조금도 나지 않았다. 물가는 딱딱하게 다듬어지지도, 억지로 꾸며지지도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기뻤다. 자연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준 곳도, 서툰 취향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토록 해치지 않은 곳도 엘리자베스는 본 적이 없었다. 다들 열렬히 감탄했다. 그리고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펨벌리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 하찮은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느꼈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가 다리를 건너 현관까지 마차를 몰았다. 가까이에서 저택을 살펴보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그 주인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다시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객실 하녀가 잘못 알았을까 봐 두려웠다. 저택을 구경하고 싶다고 청하자 그들은 현관 홀로 안내되었고, 엘리자베스는 하녀장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가 지금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

하녀장이 나왔다. 점잖아 보이는 나이 지긋한 부인이었는데, 엘리자베스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덜 화려하고 훨씬 더 정중했다. 그들은 하녀장을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다. 크고 균형이 잘 잡힌 방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방을 가볍게 둘러본 뒤 창가로 가서 바깥 경치를 즐겼다. 그들이 내려온 언덕은 숲을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 한층 가팔라 보여서 무척 아름다웠다. 땅의 생김새는 어디나 다 좋았다. 엘리자베스는 강과 그 강가에 흩어져 선 나무들, 눈길이 닿는 데까지 구불구불 이어진 골짜기, 그 모든 풍경을 기쁘게 바라보았다. 다른 방으로 옮겨 갈 때마다 그 풍경들은 자리를 바꾸어 보였지만, 어느 창문에서나 아름다운 것이 보였다. 방들은 천장이 높고 아름다웠으며, 가구는 그 주인의 재산에 걸맞게 갖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가구가 요란하지도 쓸데없이 화려하지도 않다는 것을, 로징스의 가구보다 호화로움은 덜하고 진정한 우아함은 더하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의 취향에 감탄했다.

"그러니까 이곳의,"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안주인이 될 수도 있었던 거구나! 이 방들이 지금쯤 나한테 익숙했을 수도 있었어! 낯선 사람처럼 구경하는 대신 내 것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외삼촌과 외숙모를 손님으로 맞아들였을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아니야." 엘리자베스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럴 수는 없었을 거야. 외삼촌과 외숙모를 잃었겠지. 두 분을 초대하는 건 허락받지 못했을 테니까."

다행히 이 생각이 떠올랐다.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후회 비슷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주인이 정말 집에 없는지 하녀장에게 묻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내 외삼촌이 그것을 물었다. 엘리자베스가 놀라서 고개를 돌리는 사이 레이놀즈 부인은 없다고 대답하고는 덧붙였다. "하지만 내일 친구분들을 여럿 데리고 오실 예정입니다." 무슨 사정으로든 자기들 여행이 하루 늦어지지 않은 것이 엘리자베스는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랐다!

그때 외숙모가 그림을 보라고 엘리자베스를 불렀다. 엘리자베스가 다가가 보니, 벽난로 선반 위에 걸린 작은 초상화 여러 점 가운데 위컴 씨의 초상이 있었다. 외숙모가 웃으며 그 그림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녀장이 앞으로 나와, 돌아가신 주인어른의 영지 관리인 아들인 젊은 신사의 초상인데 주인어른이 손수 비용을 대어 키우신 분이라고 일러 주었다. "지금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하녀장이 덧붙였다. "그런데 아주 방탕해졌다니 걱정입니다."

가디너 부인은 웃으며 조카를 바라보았지만, 엘리자베스는 웃음으로 답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저건," 레이놀즈 부인이 다른 초상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희 주인님이십니다. 아주 꼭 닮았지요. 아까 그것과 같은 무렵에 그린 겁니다. 한 여덟 해 전쯤이지요."

"이 댁 주인이 풍채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가디너 부인이 그림을 보며 말했다. "잘생긴 얼굴이네요. 그런데 리지, 이게 닮았는지 아닌지는 네가 말해 줄 수 있겠구나."

엘리자베스가 주인을 안다는 이 암시에 레이놀즈 부인은 엘리자베스를 한층 더 존중하는 눈치였다.

"저 아가씨께서 주인님을 아십니까?"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조금요."

"아가씨도 주인님이 아주 잘생긴 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네, 아주 잘생기셨어요."

"*저*는 저렇게 잘생긴 분은 정말 한 분도 모릅니다. 위층 화랑에 가시면 이것보다 더 훌륭하고 큰 초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은 돌아가신 주인어른께서 가장 아끼시던 방이고, 이 작은 초상화들도 그때 걸려 있던 그대로입니다. 주인어른께서 무척 아끼셨지요."

그래서 위컴 씨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구나 하고 엘리자베스는 알아들었다.

이어서 레이놀즈 부인은 다아시 양이 겨우 여덟 살이었을 때 그린 초상화를 가리켰다.

"다아시 양도 오빠만큼 아름다운가요?" 가디너 씨가 물었다.

"아, 그럼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다시없을 겁니다. 교양도 얼마나 갖추셨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시지요. 옆방에 아가씨를 위해 새 피아노가 막 들어왔는데, 주인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가씨는 내일 주인님과 함께 오십니다."

가디너 씨는 몸가짐이 스스럼없고 유쾌한 사람이어서 이것저것 묻고 맞장구를 쳐 가며 하녀장이 말을 더 하도록 북돋웠고, 레이놀즈 부인은 자부심에서인지 애정에서인지, 주인과 그 누이동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척 즐거운 눈치였다.

"이 댁 주인은 1년 중에 펨벌리에 자주 머무나요?"

"제가 바라는 만큼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해의 반쯤은 여기서 지내실 겁니다. 다아시 아가씨는 여름철이면 늘 내려와 계시고요."

"램즈게이트에 갈 때만 빼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이 댁 주인이 결혼을 하면 더 자주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인님께 어울릴 만큼 훌륭한 분이 누구일지 모르겠어요."

가디너 씨 부부는 웃었다. 엘리자베스는 저도 모르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그분한테는 정말 큰 자랑이겠네요."

"저는 사실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주인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녀장이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녀장이 이렇게 덧붙이자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놀라며 귀를 기울였다. "저는 살면서 주인님한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님이 네 살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도요."

이것은 그 어떤 칭찬보다도 남다르고, 엘리자베스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칭찬이었다. 그가 성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엘리자베스가 가장 굳게 믿어 온 생각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더 듣고 싶어 견딜 수 없었는데, 고맙게도 외삼촌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지요. 그런 주인을 모시다니 운이 좋으시군요."

"네, 저도 압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그보다 나은 분은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보니까, 어릴 때 성품이 좋은 사람은 커서도 성품이 좋더군요. 주인님은 늘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마음 넓은 도련님이셨어요."

엘리자베스는 하녀장을 거의 빤히 쳐다보았다. "이게 정말 다아시 씨 이야기일까?"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주인님의 아버님도 훌륭한 분이셨지요." 가디너 부인이 말했다.

"네, 부인, 정말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꼭 아버님을 닮아 가실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상냥하신 것까지 꼭 그대로요."

엘리자베스는 귀를 기울이며 놀라고 의심했고, 더 듣고 싶어 안달이 났다. 레이놀즈 부인은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 방의 크기가 얼마인지, 가구 값이 얼마인지 늘어놓았지만, 다른 이야기로는 엘리자베스의 관심을 조금도 끌 수 없었다. 가디너 씨는 하녀장이 주인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을 그 집안 사람다운 편견 탓이라 여기고 무척 재미있어하며 곧 다시 그 이야기로 이끌었고, 하녀장은 다 함께 큰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주인의 숱한 장점을 열을 올려 늘어놓았다.

"그렇게 좋은 지주, 그렇게 좋은 주인은," 하녀장이 말했다. "세상에 또 없습니다. 요즘 제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방탕한 젊은이들하고는 달라요. 소작인이든 하인이든 주인님을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님이 거만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정말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저 다른 젊은이들처럼 수다를 떨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훌륭하게 말하는 건," 걸어가면서 외숙모가 속삭였다. "가엾은 우리 친구한테 한 짓과는 영 맞지 않는구나."

"어쩌면 저희가 속았을지도 몰라요."

"그럴 리는 별로 없지. 말해 준 사람이 너무 믿을 만했으니까."

널찍한 위층 복도에 이르자 그들은 아주 예쁜 거실로 안내되었다. 아래층 방들보다 한층 우아하고 산뜻하게 새로 꾸민 방이었다. 다아시

양이 지난번 펨벌리에 왔을 때 이 방을 마음에 들어 해서, 아가씨를 기쁘게 해 주려고 막 꾸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정말 좋은 오빠네요." 엘리자베스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레이놀즈 부인은 다아시 양이 이 방에 들어서면 얼마나 기뻐할지 미리 그려 보였다. "주인님은 늘 이러십니다." 하녀장이 덧붙였다. "누이동생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해 주시지요. 누이동생을 위해서라면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화랑과 큰 침실 두세 개뿐이었다. 화랑에는 훌륭한 그림이 많았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림을 전혀 몰랐고, 아래층에서 이미 본 그런 그림들보다는 다아시 양이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몇 점을 기꺼이 들여다보았다. 다아시 양의 그림은 대개 주제가 더 흥미로웠고 알아보기도 더 쉬웠다.

화랑에는 집안의 초상화가 많았지만 낯선 사람의 눈길을 붙잡을 만한 것은 별로 없었으므로,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얼굴을 찾아 계속 걸었다. 마침내 그 얼굴이 엘리자베스의 발길을 붙잡았다. 다아시 씨와 놀랍도록 닮은 초상화였는데, 그가 엘리자베스를 바라볼 때 이따금 보았던 기억이 나는 그 미소가 얼굴에 떠올라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그림 앞에서 몇 분 동안 꼼짝 않고 서서 골똘히 바라보았고, 화랑을 나서기 전에 다시 돌아와 보았다. 레이놀즈 부인은 그 그림이 그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려졌다고 일러 주었다.

이 순간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그 그림의 주인에 대해, 서로 가장 가까이 지내던 때에도 느껴 본 적 없는 부드러운 감정이 분명히 있었다. 레이놀즈 부인이 그에게 바친 칭찬은 결코 가벼이 넘길 만한 것이 아니었다. 영리한 하인의 칭찬보다 더 값진 칭찬이 어디 있을까? 오빠로서, 지주로서, 주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행복이 그의 손에 맡겨져 있는지 엘리자베스는 생각해 보았다! 그가 얼마나 많은 기쁨이나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선이나 악을 행하게 될지! 하녀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하나같이 그의 사람됨을 좋게 보여 주었다. 그가 그려진 화폭 앞에 서서 자기에게 눈길을 고정한 그를 마주하자,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기에게 품었던 마음을 전에 없이 깊은 고마움으로 떠올렸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되새겼고, 그 마음을 털어놓던 말이 온당치 못했던 것은 너그럽게 누그러뜨렸다.

일반 손님에게 공개된 곳을 다 둘러보고 나서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하녀장과 작별하고, 현관문에서 맞아 준 정원사에게 넘겨졌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강 쪽으로 걸어가다가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고 외삼촌과 외숙모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외삼촌이 저택이 언제 지어졌을지 짐작해 보는 사이, 저택 뒤편에서 마구간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저택의 주인이 몸소 불쑥 나타났다.

두 사람은 20야드도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가 너무도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로서는 그의 눈길을 피할 길이 없었다. 두 사람의 눈이 곧바로 마주쳤고, 두 사람의 뺨이 다 새빨갛게 물들었다. 그는 그야말로 흠칫 놀라 잠시 놀라움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일행 쪽으로 다가와, 아주 침착하지는 못해도 아주 정중한 말로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는 저도 모르게 돌아섰지만, 그가 다가오자 걸음을 멈추고 어쩔 도리 없는 당혹감 속에서 그의 인사를 받았다. 처음 나타난 그의 모습이나 방금 본 초상화와 닮은 얼굴만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다아시 씨라는 것을 나머지 두 사람이 확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인을 보고 놀라는 정원사의 표정이 곧바로 그것을 알려 주었을 것이다. 그가 조카와 이야기하는 동안 두 사람은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고 당황해서 감히 그의 얼굴로 눈을 들지도 못했고,

가족들 안부를 묻는 그의 정중한 물음에 자기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지난번 헤어진 뒤로 달라진 그의 태도에 놀란 엘리자베스는 그가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더 당황스러웠다. 자기가 이런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온당치 못한 일인지 자꾸만 머리에 떠올라, 함께 서 있던 그 몇 분은 엘리자베스가 살면서 겪은 가장 불편한 시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도 그리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이 조금도 없었고, 엘리자베스가 언제 롱번을 떠났는지, 더비셔에는 얼마나 머무는지를 너무 여러 번, 너무 다급하게 되풀이해 물어서 생각이 흐트러져 있다는 것이 뻔히 드러났다.

마침내 그는 더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제야 다른 두 사람이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그의 풍채를 칭찬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한 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온통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채 잠자코 두 사람을 따라갔다. 부끄러움과 속상함이 엘리자베스를 짓눌렀다. 이곳에 온 것은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쁘고 가장 생각 없는 짓이었다! 그 사람 눈에는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 그토록 허영심 많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창피한 꼴로 비쳤을까! 일부러 다시 그 사람 앞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랐다! 아! 대체 왜 왔을까? 아니, 그 사람은 왜 예정보다 하루 먼저 이렇게 와 버렸을까? 10분만 일찍 왔더라도 그 사람 눈에 띄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해서, 바로 그 순간에 말이나 마차에서 내린 게 분명했다. 엘리자베스는 일이 그렇게 공교롭게 어긋난 것을 생각하며 몇 번이고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그토록 눈에 띄게 달라진 그 사람의 태도는, 대체 무슨 뜻일까?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토록 정중하게 말하고, 가족들 안부까지 묻다니! 이번처럼 뜻밖에 마주친

자리에서만큼 그의 태도가 위엄을 덜 내세운 적도, 그가 그토록 부드럽게 말한 적도 엘리자베스는 평생 본 적이 없었다. 로징스 파크에서 편지를 엘리자베스의 손에 쥐여 주며 마지막으로 건넨 말과는 얼마나 다른가! 엘리자베스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물가를 따라 난 아름다운 산책길로 들어섰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더 웅장하게 내려앉는 땅이나 그들이 다가가는 숲의 더 멋진 자락이 나타났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한참 동안 그 어느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외삼촌과 외숙모가 거듭 말을 걸면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두 사람이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기는 했지만, 풍경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의 생각은 온통 다아시 씨가 지금 있을 펨벌리 저택의 그 한 곳,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만 쏠려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오가고 있는지, 그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도 그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마음이 편해서 정중했을 뿐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편안함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엘리자베스를 보고 그가 괴로움을 더 느꼈는지 기쁨을 더 느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엘리자베스를 침착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마침내 일행이 엘리자베스더러 넋이 나갔다고 한마디씩 하자, 엘리자베스는 정신을 차렸고 좀 더 평소의 자기답게 보여야겠다고 느꼈다.

그들은 숲으로 들어가 잠시 강과 작별하고 좀 더 높은 땅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나무 사이가 트여 눈길이 마음껏 노닐 수 있는 자리마다 골짜기와 맞은편 언덕들, 그 언덕 여럿을 덮으며 길게 늘어선 숲, 그리고 이따금 시내의 한 자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졌다. 가디너 씨는 영지를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싶다고 했지만 걸어서 돌기에는 너무 멀지 않을까 걱정했다. 정원사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한 바퀴가 10마일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것으로 일은 정해졌다. 그들은 늘 다니는 산책로를 따라갔고, 한참 뒤 그 길은 비탈에 매달린 숲 사이를 내려가 다시 물가로, 물길이 가장 좁은 곳 가운데 하나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들은 주위 풍경과 잘 어울리는 소박한 다리를 건넜다. 지금까지 거쳐 온 곳 가운데 가장 덜 꾸민 곳이었고, 골짜기는 여기서 좁은 협곡으로 오그라들어 시냇물과, 시내를 둘러싼 거친 덤불숲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만 겨우 들어설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굽이굽이를 따라 더 들어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를 건너고 나서 저택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게 되자, 걷기를 그리 잘하지 못하는 가디너 부인은 더 갈 수가 없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차로 돌아갈 생각만 했다. 그래서 조카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강 건너편 쪽으로 저택을 향해 가장 가까운 길을 잡았다. 그러나 걸음은 더뎠다. 가디너 씨는 그 취미를 즐길 기회가 좀처럼 없었지만 낚시를 무척 좋아해서, 이따금 물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송어를 지켜보며 정원사와 송어 이야기를 나누느라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느릿느릿 거닐고 있을 때 그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다아시 씨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처음 못지않게 놀랐다. 이쪽 산책길은 건너편보다 가려진 데가 적어서, 마주치기 전에 그를 미리 볼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기는 했지만 적어도 아까보다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가 정말 자기들 쪽으로 오려는 것이라면 침착하게 보이고 침착하게 말하리라 마음먹었다. 사실 잠깐 동안은 그가 아마 다른 길로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길모퉁이가 그를 시야에서 가린 동안만 이어졌다. 모퉁이를 돌자 그가 바로 그들 앞에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한눈에 그가 아까의 정중함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의 공손함을 본받아 마주치자마자 이곳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 시작했지만, "아주 즐거운"이니 "정말 아름다운"이니 하는 말을 넘기도 전에 공교로운 기억 몇 가지가 끼어들었다. 자기 입에서 나온 펨벌리 칭찬이 짓궂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는 얼굴빛이 바뀌었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가디너 부인은 조금 뒤에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말을 멈추자, 그는 일행분들을 자기에게 소개해 주는 영광을 베풀어 주겠느냐고 물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중함의 한 수였다. 엘리자베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자기에게 청혼할 때 그의 오만이 들고일어났던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몇과 이제 그가 안면을 트려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누군지 알면 얼마나 놀랄까!"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지금은 상류층 사람들인 줄 알고 있겠지."

그러나 소개는 곧바로 이루어졌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자기와 어떤 사이인지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려고 슬쩍 그를 훔쳐보았다. 그리고 그가 그런 창피한 일행에게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달아나 버리리라는 기대가 없지도 않았다. 그가 그 인척 관계에 *놀랐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견뎌 냈다. 그리고 떠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발길을 돌려 가디너 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흐뭇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의기양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굴 붉힐 필요가 없는 친척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 위안이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고, 외삼촌의 지성이나 취향이나 좋은 몸가짐을 드러내는 표현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자랑스러웠다.

이야기는 곧 낚시로 옮겨 갔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더없이 정중하게 외삼촌에게, 이 근처에 머무는 동안 언제든 원하는 만큼 와서

낚시를 하라고 권하고, 낚시 도구도 대 드리겠다고 하며, 시내에서 대개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곳들을 가리켜 보이는 것을 들었다. 엘리자베스와 팔짱을 끼고 걷던 가디너 부인은 놀랍다는 표정으로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았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몹시 흐뭇했다. 그 호의는 모두 자기를 위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도 엘리자베스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대체 무엇 때문에? *나* 때문일 리는 없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태도가 부드러워졌을 리는 없어. 헌스퍼드에서 내가 한 비난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 리 없어.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할 리는 없어."

이렇게 두 숙녀가 앞서고 두 신사가 뒤에서 한동안 걷다가, 신기한 물풀을 더 잘 보려고 강가로 내려갔다가 다시 자리를 잡을 때 우연히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가디너 부인 때문이었다. 아침부터 걷느라 지친 가디너 부인은 엘리자베스의 팔로는 몸을 지탱하기에 모자라서 남편의 팔을 잡는 편을 택했다. 다아시 씨가 그 조카의 곁에 가디너 부인 대신 섰고,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잠깐 말이 없다가 숙녀 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엘리자베스는 이곳에 오기 전에 그가 집에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아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가 오신 것이 정말 뜻밖이었다는 말부터 꺼냈다. "하녀장께서 내일까지는 틀림없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셔서요." 엘리자베스는 덧붙였다. "베이크웰을 떠나기 전에도 곧 이쪽으로 오실 일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는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영지 관리인과 볼일이 있어서 함께 여행하던 일행보다 몇 시간 먼저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행은 내일 아침 일찍 저와 만날 거예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중에는 베넷 양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빙리 씨와 그 누이들이에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이는 것으로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의 생각은 곧장 두 사람 사이에서 빙리 씨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오갔던 때로 되돌아갔고, 그의 얼굴빛으로 미루어 보면, *그의* 생각도 그리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잠시 뒤에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특히 베넷 양과 알고 지내고 싶어 해요. 램턴에 머무시는 동안 제 누이동생을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너무 큰 부탁일까요?"

그런 청을 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너무 놀라워서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어떤 말로 승낙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아시 양이 자기와 알고 지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오빠가 한 일이 틀림없다고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느꼈는데, 더 따져 보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흡족했다. 그가 원망 때문에 자기를 정말 나쁘게 생각하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흐뭇했다.

두 사람은 이제 저마다 생각에 잠겨 말없이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쭐하고 기뻤다. 누이동생을 소개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최고의 찬사였다. 두 사람은 곧 다른 이들을 훌쩍 앞질렀고, 마차에 이르렀을 때 가디너 씨 부부는 8분의 1마일쯤 뒤에 있었다.

그러자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피곤하지 않다고 했고, 두 사람은 잔디밭에 함께 서 있었다. 그런 때라면 할 말이 많았을 테고, 그래서 말이 없으니 더욱 어색했다. 엘리자베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떤 화제든 다 금지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마침내 자기가 여행 중이라는 것이 떠올라, 두 사람은 매틀록과 도브데일 이야기를 끈질기게 이어 갔다. 그러나 시간도 외숙모도 느릿느릿 움직였고, 단둘이 마주한 그 자리가 끝나기 전에 엘리자베스는 참을성도 할 말도 거의 바닥이 났다.

가디너 씨 부부가 다가오자 그는 모두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다과를 들고 가라고 간곡히 권했다. 그러나 그 청은 사양했고, 양쪽은 더없이 공손하게 헤어졌다. 다아시 씨는 숙녀들이 마차에 오르도록 손을 잡아 주었고, 마차가 떠날 때 엘리자베스는 그가 저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제 외삼촌과 외숙모의 품평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저마다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비할 데 없이 훌륭하다고 했다.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잘난 체도 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외삼촌이 말했다.

"위엄 있는 데가 조금 *있긴* 하지요." 외숙모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풍채에만 있는 것이고 보기 싫지도 않아요. 이제 나도 하녀장처럼, 거만하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런 걸 하나도 못 봤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이렇게 놀란 적이 없어요. 정중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뜰했지요.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리지하고는 아주 잠깐 안면이 있었을 뿐이라던데."

"그래, 리지." 외숙모가 말했다. "위컴만큼 잘생기지는 않았구나. 아니, 위컴 같은 얼굴은 아니라고 해야겠다. 생김새는 흠잡을 데 없으니까. 그런데 넌 어쩌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밉살스럽다고 했니?"

엘리자베스는 최대한 둘러댔다. 켄트에서 만났을 때 그 전보다 더 좋게 보였고, 오늘 아침처럼 그가 유쾌한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의를 차리는 데 좀 변덕스러울지도 몰라요." 외삼촌이 대답했다. "높으신 분들은 흔히 그렇거든요. 그러니 나는 낚시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생각이에요. 다른 날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그의 성품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본 걸로는," 가디너 부인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가엾은 위컴한테 한 것처럼 누구한테든 그렇게 모질게 굴 수 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겠어. 심술궂은 얼굴이 아니야. 오히려 말할 때 입가에 뭔가 기분 좋은 데가 있고, 얼굴에는 위엄 같은 것도 있어서 마음씨가 나쁘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아. 하지만 그 집을 구경시켜 준 그 착한 부인은 정말 그 사람을 하늘 높이 칭찬하더구나! 이따금 소리 내어 웃지 않으려고 혼났다니까. 그래도 아마 씀씀이가 후한 주인이겠지. 하인 눈에는 *그거* 하나로 온갖 미덕이 다 들어 있는 거니까."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위컴에게 한 그의 행동을 위해 뭐라도 변호를 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켄트에서 그의 친척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의 행동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며, 그의 사람됨은 하트퍼드셔에서 여기던 것만큼 결코 흠이 많지 않고 위컴도 그렇게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알렸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려고,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믿을 만한 데서 들은 이야기라고만 하며,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 문제를 낱낱이 이야기했다.

가디너 부인은 놀라고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즐겁게 지낸 곳에 가까워지자, 모든 생각이 추억의 매력 앞에 물러났다. 가디너 부인은 그 근방의 흥미로운 곳을 남편에게 하나하나 가리켜 보이느라 바빠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아침에 걷느라 그렇게 지쳤는데도, 저녁을 먹자마자 가디너 부인은 옛 친구들을 찾아 다시 나섰고, 그날 저녁은 여러 해 끊겼던 교분을 다시 잇는 즐거움 속에 지나갔다.

그날 일어난 일들이 워낙 흥미로워서 엘리자베스는 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그리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의 정중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기 누이동생을 엘리자베스와 알고

지내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놀라워하며 거듭 생각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 제44장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누이동생이 펨벌리에 도착한 바로 이튿날 누이동생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리라고 정해 두고, 그래서 그날 오전 내내 여관에서 눈을 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짐작은 틀렸다. 손님들은 엘리자베스 일행이 램턴에 도착한 바로 이튿날 아침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일행은 새로 사귄 친구 몇과 함께 이곳저곳을 거닐다가 바로 그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여 옷을 갈아입으려고 막 여관에 돌아온 참이었는데, 마차 소리에 창가로 가 보니 신사 한 사람과 숙녀 한 사람이 두 바퀴 경마차를 타고 거리를 올라오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하인 제복을 곧바로 알아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고, 자기가 기다리던 영광이 무엇인지 외삼촌 부부에게 알려 주어 두 사람을 적잖이 놀라게 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그저 놀랄 뿐이었다. 그리고 말하는 엘리자베스의 당황한 태도가 그 일 자체와, 또 전날 있었던 여러 일과 겹치자, 두 사람의 머리에는 이 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 곳에서 그런 관심을 보이는 까닭은 조카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이제는 느꼈다. 이 갓 태어난 생각들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오가는 동안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시시각각 더 어지러워졌다.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이토록 침착하지 못하다는 것에 무척 놀랐다. 그러나 다른 불안의 까닭들 가운데서도 특히, 오빠의 편애가 자기를 너무 좋게 말해 놓았을까 봐 두려웠다. 그리고 여느

때보다 더 호감을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호감을 살 수 있는 재주란 재주가 모두 자기를 저버릴 것만 같은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했다.

엘리자베스는 남의 눈에 띌까 봐 창가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외삼촌과 외숙모가 캐묻는 듯 놀란 얼굴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

다아시 양과 그 오빠가 나타났고, 그 무시무시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엘리자베스는 새로 알게 된 그 아가씨가 적어도 자기만큼은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램턴에 온 뒤로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양이 몹시 거만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몇 분 지켜보고는 그저 몹시 수줍음을 탈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아시 양에게서는 한 마디짜리 대답 말고는 말 한마디 얻어 내기가 어려웠다.

다아시 양은 키가 크고 엘리자베스보다 몸집이 컸다. 이제 열여섯을 조금 넘겼을 뿐이었지만 몸매는 다 자랐고, 모습은 여성스럽고 우아했다. 오빠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얼굴에는 분별과 상냥함이 깃들어 있었고, 몸가짐은 더없이 겸손하고 부드러웠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양이 다아시 씨가 늘 그랬던 것처럼 날카롭고 거리낌 없이 사람을 관찰하는 아가씨일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와 사뭇 다른 감정을 알아보고 무척 마음이 놓였다.

함께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아시는 빙리도 엘리자베스를 찾아뵈러 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기쁘다는 말을 하고 그런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할 겨를도 없이 계단에서 빙리의 빠른 발소리가 들렸고, 다음 순간 그가 방으로 들어왔다. 엘리자베스가 빙리에게 품었던 노여움은 진작 다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 해도, 엘리자베스를 다시 보고 꾸밈없이 반가워하는 그의 다정함 앞에서는 버텨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다정하게, 그러나

두루뭉술하게 엘리자베스의 가족들 안부를 물었고, 예전과 똑같이 쾌활하고 스스럼없는 얼굴과 말투였다.

가디너 씨 부부에게도 빙리는 엘리자베스 못지않게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를 보고 싶어 했다. 사실 눈앞의 일행 모두가 두 사람의 관심을 한껏 끌었다. 다아시 씨와 조카를 두고 방금 떠오른 의심 때문에 두 사람은 진지하지만 조심스럽게 캐묻는 눈으로 양쪽을 살폈고, 그렇게 살핀 끝에 적어도 둘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곧 확신하게 되었다. 숙녀 쪽의 마음은 아직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신사 쪽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넘쳐흐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뻔했다.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대로 할 일이 많았다. 손님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알아내고 싶었고, 자기 마음도 가라앉히고 싶었고, 모두에게 호감을 사고 싶었다. 그리고 가장 실패할까 봐 두려웠던 마지막 일에서 엘리자베스는 성공을 가장 확신할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기쁘게 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미 엘리자베스에게 호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빙리는 기꺼이, 조지애나는 간절히, 다아시는 굳은 결심으로 엘리자베스를 마음에 들어 하려 했다.

빙리를 보자 엘리자베스의 생각은 자연스레 언니에게로 날아갔다. 아! 빙리의 생각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엘리자베스는 얼마나 간절히 알고 싶었던가. 이따금 엘리자베스는 그가 예전보다 말수가 적다고 느낄 수 있었고, 한두 번은 그가 자기를 바라보며 닮은 데를 찾고 있다는 생각에 흐뭇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일지도 몰랐지만, 제인의 맞수로 세워졌던 다아시 양을 대하는 그의 태도만큼은 잘못 볼 수 없었다. 어느 쪽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는 눈길은 보이지 않았다. 빙리 양의 바람을 정당화해 줄 만한 일은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엘리자베스는 곧 안심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자그마한 일이 두세 가지 일어났는데, 애타는 엘리자베스의 해석으로는 그것이 애틋함이 배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제인의 추억을, 그리고 그가 용기만 냈다면 제인의 이야기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말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틈에 그는 정말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엘리자베스에게 "뵙는 기쁨을 누린 지 정말 오래되었네요"라고 말했고, 엘리자베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덧붙였다. "여덟 달이 넘었어요. 네더필드에서 다 함께 춤을 추었던 11월 26일 이후로 한 번도 못 뵈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그가 그토록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기뻤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를 틈타, 언니와 동생들이 *모두* 롱번에 있느냐고 엘리자베스에게 물었다. 그 물음에도, 그 앞의 말에도 대단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말들에 뜻을 실어 주는 눈빛과 태도가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다아시 씨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언뜻 볼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얼굴에서 누구에게나 기꺼이 맞춰 주려는 표정을 보았고, 그가 하는 말에서는 거만한 태도나 함께 있는 사람들을 깔보는 기색과는 거리가 먼 말씨를 들었다. 그래서 어제 목격한 그의 몸가짐의 변화가 아무리 잠깐 동안의 것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는 넘겨 살아남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몇 달 전이라면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수치였을 사람들과 이렇게 안면을 트려 하고 그들의 좋은 평판을 얻으려 애쓰는 그를 보았을 때, 엘리자베스 자신에게뿐 아니라 그가 대놓고 경멸했던 바로 그 인척들에게까지 이렇게 정중한 그를 보면서 헌스퍼드 목사관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마지막 격렬한 장면을 떠올렸을 때, 그 차이, 그 변화는 너무도 커서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세차게 때렸고, 엘리자베스는 놀라움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게 누르기도 힘들었다. 네더필드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로징스에서 지체 높은 친척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엘리자베스는 그가 이렇게 남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고, 이렇게 거들먹거림이나 꼿꼿한 침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그런 노력이 성공한다 해도 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고, 그가 공을 들이는 사람들과 알고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네더필드와 로징스의 숙녀들에게 비웃음과 비난을 살 판인데도 말이다.

손님들은 30분 넘게 머물렀다. 그리고 일어설 때 다아시 씨는 누이동생에게, 가디너 씨 부부와 베넷 양이 이 고장을 떠나기 전에 펨벌리에서 함께 저녁을 들고 싶다는 바람을 같이 전하자고 했다. 다아시 양은 초대하는 데 익숙지 않은 티가 나는 수줍음 속에서도 선뜻 오빠의 말을 따랐다. 가디너 부인은 그 초대에 누구보다도 관계가 깊은 *조카*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어 조카를 바라보았지만,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가디너 부인은 이렇게 짐짓 피하는 것이 그 제안이 싫어서라기보다 잠깐 당황한 탓이라고 짐작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남편이 기꺼이 응하려는 것을 보고 과감히 조카도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날짜는 모레로 정해졌다.

빙리는 엘리자베스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무척 기쁘다고 했다. 아직 엘리자베스에게 할 말이 많고, 하트퍼드셔의 모든 친구들 안부도 물어볼 것이 많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것을 언니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또 그 밖의 몇 가지 까닭으로, 손님들이 떠나고 나자 지나간 30분을 얼마간 흐뭇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 30분이 흐르는 동안에는 즐거움이라고는 거의 없었는데도 말이다. 엘리자베스는 혼자 있고 싶었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캐묻거나 넌지시 떠볼까 봐 두려웠으므로, 두 사람이 빙리를 좋게

평하는 말을 들을 만큼만 함께 있다가 옷을 갈아입으러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러나 가디너 씨 부부의 호기심을 두려워할 까닭은 없었다. 두 사람은 엘리자베스에게 억지로 이야기를 끌어낼 생각이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다아시 씨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가 엘리자베스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다. 두 사람이 보기에 흥미로운 것은 많았지만, 캐물어도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제 두 사람으로서는 다아시 씨를 좋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리고 알고 지낸 범위 안에서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다. 두 사람은 그의 공손함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따지지 않고 자기들 느낌과 그 집 하인의 말만으로 그의 사람됨을 그려 냈다면, 그를 아는 하트퍼드셔 사람들은 그것이 다아시 씨라고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녀장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네 살 때부터 그를 알아 왔고 몸가짐으로 보아 점잖은 사람이 분명한 하인의 말을 함부로 물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곧 깨달았다. 램턴의 친구들에게서 들은 소식에도 그 말의 무게를 크게 덜어 낼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를 탓할 것이라고는 오만밖에 없었다. 아마 오만하기는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집안이 드나들지 않는 작은 장터 마을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를 오만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씀씀이가 후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다들 인정했다.

위컴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그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두 여행자는 곧 알게 되었다. 그가 후원자의 아들과 얽힌 일의 대부분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가 더비셔를 떠날 때 빚을 많이 남겨

두었고 나중에 다아시 씨가 그 빚을 갚아 주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엘리자베스로 말하면, 이날 저녁 엘리자베스의 생각은 전날 저녁보다 더 펨벌리에 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저녁은 지나는 동안에는 길게 느껴졌지만, 그 저택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자기 감정을 정하기에는 길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 감정을 헤아려 보려고 꼬박 두 시간을 뜬눈으로 누워 있었다.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래, 미움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미움이라 부를 만한 반감을 그에게 품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진 지도 거의 그만큼 오래되었다. 그의 훌륭한 자질을 확신하면서 생긴 존경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었지만 얼마 전부터는 더 이상 엘리자베스의 감정에 거슬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들은, 그에게 그토록 유리하고 그의 성품을 그토록 호감 가게 드러내 보인 증언 덕분에, 그 존경은 이제 조금 더 다정한 무엇으로 높아져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존경과 존중보다도 더 앞서,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지나칠 수 없는 호의의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고마움이었다. 한때 자기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거절할 때 자기가 보였던 그 모든 성마름과 신랄함, 그리고 거절과 함께 퍼부었던 그 모든 부당한 비난까지 용서할 만큼 아직도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데 대한 고마움이었다. 자기를 철천지원수처럼 피하리라고 엘리자베스가 굳게 믿었던 그 사람이, 이번에 우연히 만나자 오히려 그 인연을 이어 가고 싶어 몹시 애쓰는 것 같았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일에서는 상스럽게 마음을 드러내거나 별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일 없이, 엘리자베스의 친척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 하고 누이동생에게 엘리자베스를 소개하려고 마음을 쏟고 있었다. 그토록 오만한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움만이 아니라 고마움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사랑, 뜨거운 사랑 덕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변화가 엘리자베스에게 남긴 인상은, 딱 잘라 정의할 수는 없어도 결코 불쾌하지 않은 것으로서 북돋워 줄 만한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존경했고, 존중했고, 고마워했으며, 그의 행복에 진심으로 마음을 썼다. 다만 그 행복이 자기에게 얼마나 달려 있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아직 자기에게 남아 있다고 상상 속에서 믿는 그 힘, 그가 다시 청혼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쓰는 것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일지, 그것만은 알고 싶었다.

저녁에 외숙모와 조카는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다아시 양이 펨벌리에 도착한 바로 그날, 그것도 늦은 아침 식사 때에야 도착했는데도 자기들을 찾아와 준 그 남다른 정중함에는, 똑같이 갚을 수는 없더라도 자기들 쪽에서도 얼마간 공손함을 다해 본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니 이튿날 아침 펨벌리로 다아시 양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가기로 했다. 엘리자베스는 기뻤다. 하지만 왜 기쁜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은 거의 없었다.

가디너 씨는 아침 식사가 끝나자 곧 그들과 헤어졌다. 낚시 계획이 전날 다시 거론되어, 정오까지 펨벌리에서 신사 몇과 만나기로 확실히 약속해 두었기 때문이다.

# 제45장

이제 엘리자베스는 빙리 양이 자기를 싫어한 것이 질투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자기가 펨벌리에 나타나는 것이 빙리 양에게 얼마나 달갑지 않을지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 다시 만나면 그 숙녀 쪽에서 얼마나 예의를 차려 알은체를 할지 궁금했다.

저택에 이르자 그들은 현관 홀을 지나 큰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북쪽을 향하고 있어 여름에 지내기 아주 좋은 방이었다. 바닥까지 트인 창문으로는 저택 뒤편의 나무 우거진 높은 언덕들과, 그 사이 잔디밭에 흩어져 선 아름다운 참나무와 스페인 밤나무가 무척 시원스럽게 내다보였다.

이 방에서 그들을 맞은 것은 다아시 양이었다. 다아시 양은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 그리고 런던에서 함께 지내는 부인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다. 조지애나는 그들을 아주 정중하게 맞았지만, 그 태도에는 당혹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 당혹감은 수줍음과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자기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다아시 양이 거만하고 쌀쌀맞다고 믿게 만들기 쉬웠다. 그러나 가디너 부인과 그 조카는 다아시 양을 제대로 보았고 안쓰럽게 여겼다.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은 그들에게 무릎을 굽혀 인사만 했을 뿐이었다. 모두 자리에 앉자, 그런 침묵이 늘 그렇듯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그 침묵을 처음 깬 사람은 앤슬리 부인이었다. 품위 있고 호감

가는 인상의 부인이었는데, 어떻게든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다른 두 사람 누구보다도 참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앤슬리 부인과 가디너 부인 사이에서, 이따금 엘리자베스가 거들어 가며 이야기가 이어졌다. 다아시 양은 이야기에 끼어들 용기가 있었으면 하는 얼굴이었고,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은 때에는 이따금 짧은 한마디를 과감히 꺼내 보기도 했다.

엘리자베스는 곧 빙리 양이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특히 다아시 양에게 말을 걸면 반드시 빙리 양의 주의를 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이 앉은 자리가 불편할 만큼 떨어져 있지만 않았다면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다아시 양에게 말을 걸어 보려는 마음을 접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서운하지 않았다. 제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신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나저제나 방으로 들어오리라 기대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집 주인도 있기를 바랐고, 또 두려워했다. 그것을 더 바라는지 더 두려워하는지는 스스로도 거의 가늠할 수 없었다. 그렇게 15분 동안 빙리 양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앉아 있던 엘리자베스는, 빙리 양이 가족들은 안녕하냐고 쌀쌀하게 묻는 바람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엘리자베스는 똑같이 무심하고 짧게 대답했고, 빙리 양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방문 중에 일어난 다음 변화는 하인들이 차가운 고기와 케이크, 그리고 제철의 가장 좋은 과일들을 갖가지로 들고 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앤슬리 부인이 다아시 양에게 안주인 노릇을 일깨우려고 의미심장한 눈짓과 미소를 여러 번 보낸 뒤에야 일어났다. 이제 모두에게 할 일이 생겼다. 다들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어도 먹을 수는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도와 승도복숭아와 복숭아를 아름답게 쌓아 올린 탑들이 곧 사람들을 탁자 둘레로 불러 모았다.

그렇게 과일을 먹고 있을 때,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나타나기를 자기가 더 두려워하는지 더 바라는지 가늠해 볼 좋은 기회를 얻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설 때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으로 판가름하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믿었는데, 그가 들어오자 엘리자베스는 그가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동안 가디너 씨와 함께 있었다. 가디너 씨는 이 집의 다른 신사 두세 명과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다아시 씨는 집안의 숙녀들이 그날 아침 조지애나를 찾아올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서야 가디너 씨 곁을 떠났다. 그가 나타나자마자 엘리자베스는 아주 편안하고 당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고 현명하게 마음먹었다. 일행 모두의 의심이 두 사람에게 쏠렸고, 그가 처음 방에 들어설 때 그의 행동을 지켜보지 않는 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심은 더욱 필요했지만, 어쩌면 그만큼 지키기도 더 어려웠다. 주의 깊은 호기심이 빙리 양의 얼굴에서만큼 뚜렷이 드러난 얼굴은 없었다. 그 호기심의 대상인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 말을 걸 때마다 얼굴 가득 미소를 띠었는데도 그랬다. 질투가 아직 빙리 양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지는 않았고, 다아시 씨에게 공을 들이는 일도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아시 양은 오빠가 들어오자 훨씬 더 애써 이야기를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누이동생과 자기가 서로 알고 지내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는 양쪽에서 이야기를 꺼내려는 시도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대로 거들었다. 빙리 양도 이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화가 나서 분별을 잃은 빙리 양은 처음 찾아온 기회에 비웃음 섞인 공손한 말투로 말했다.

"그런데 일라이저 양, ○○셔 민병대가 메리턴을 떠나지 않았나요? 댁 식구들한테는 큰 손실이겠어요."

다아시 앞에서 빙리 양은 감히 위컴의 이름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빙리 양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위컴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와 얽힌 여러 기억이 떠올라 엘리자베스는 잠깐 괴로웠지만, 그 심술궂은 공격을 물리치려고 힘껏 마음을 다잡아, 곧 그 물음에 꽤 무심한 어조로 대답했다. 대답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길을 돌리니, 얼굴이 붉어진 다아시가 자기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누이동생은 당혹감에 휩싸여 눈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빙리 양이 자기가 그때 사랑하는 친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그런 암시를 삼갔을 것이다. 그러나 빙리 양은 그저 엘리자베스가 마음에 두고 있다고 믿은 남자를 떠올리게 해서 엘리자베스를 당황하게 만들고, 다아시가 엘리자베스를 나쁘게 볼 만한 감정을 엘리자베스가 드러내게 하고, 어쩌면 엘리자베스 집안의 몇몇 사람이 그 부대와 얽혀 저지른 온갖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짓들을 다아시에게 일깨울 생각이었을 뿐이다. 다아시 양이 몰래 달아나려 했던 일은 빙리 양의 귀에 한 마디도 들어간 적이 없었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한 엘리자베스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진 적이 없었고, 다아시는 특히 빙리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그 일을 숨기고 싶어 했다. 엘리자베스가 오래전부터 그의 속뜻이라고 짐작해 온 바로 그 바람, 언젠가 그들이 누이동생의 집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가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빙리를 베넷 양에게서 떼어 놓으려 애쓴 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의 행복을 생각하는 그의 각별한 걱정에 얼마간 보탬이 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침착하게 처신하자 다아시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빙리 양이 속상하고 실망한 채 위컴 이야기에 더는 다가가지 못하자 조지애나도 차츰 정신을 차렸다. 다만 다시 입을 열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다. 조지애나는 오빠와 눈이 마주칠까 봐 두려웠지만, 오빠는 그 일이 조지애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거의 떠올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엘리자베스에게서 돌려놓으려고 꾸민 바로 그 일이 오히려 그의 생각을 더욱더 즐겁게 엘리자베스에게 붙박아 놓은 것 같았다.

앞서 말한 그 문답이 오간 뒤로 방문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다아시 씨가 손님들을 마차까지 배웅하는 동안 빙리 양은 엘리자베스의 생김새며 행동이며 옷차림을 헐뜯으며 분을 풀었다. 그러나 조지애나는 맞장구를 치려 하지 않았다. 오빠가 좋게 말했다면 조지애나가 호감을 갖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빠의 판단은 틀릴 리가 없었고, 오빠가 엘리자베스를 그런 말로 이야기했으니 조지애나로서는 엘리자베스를 사랑스럽고 상냥한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다. 다아시가 응접실로 돌아오자 빙리 양은 그의 누이동생에게 하던 말 가운데 얼마를 다아시에게도 되풀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오늘 아침 일라이저 베넷은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상했을까요, 다아시 씨." 빙리 양이 소리쳤다. "겨울 이후로 저렇게 변한 사람은 평생 처음 봐요. 얼굴이 그렇게 거무스름하고 거칠어지다니! 언니하고 저는 다시 만났으면 못 알아봤을 거라고 서로 맞장구를 쳤답니다."

다아시 씨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조금도 달갑지 않았겠지만, 볕에 좀 그을린 것 말고는 달라진 점을 모르겠다고, 여름에 여행을 하면 으레 그렇게 되는 법이라고 차갑게 대답하는 것으로 그쳤다.

"저로서는," 빙리 양이 되받았다. "솔직히 말해서 저 아가씨가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굴은 너무 갸름하고, 안색에는 윤기가 없고, 이목구비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코는 개성이 없어요. 선이 뚜렷한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는 봐줄 만하지만 남다를 건 없고요. 이따금 아름다운 두 눈이라는 말까지 듣던 그 눈도, 저는 남다른

데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날카롭고 앙칼진 눈빛이라 정말 싫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는 세련되지도 못한 주제에 잘난 체하는 데가 있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다아시가 엘리자베스를 흠모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빙리 양으로서는 이것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데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화난 사람이 늘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조금 언짢아하는 기색을 보이자 빙리 양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고, 빙리 양은 어떻게든 그의 입을 열게 하려고 말을 이었다.

"생각나네요, 하트퍼드셔에서 처음 저 아가씨를 알았을 때 저 아가씨가 이름난 미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이 네더필드에서 저녁을 먹고 간 어느 날 밤에 다아시 씨가 하신 말씀이 특히 기억나요. '*저* 아가씨가 미인이라니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를 재치 있는 분이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 아가씨가 다아시 씨 눈에 점점 나아 보였나 봐요. 한때는 꽤 예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아시는 더는 참지 못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처음 알았을 때뿐입니다.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저는 그분을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 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는 나가 버렸고, 빙리 양에게는 자기 말고는 아무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 말을 그에게서 억지로 끌어냈다는 만족만이 고스란히 남았다.

가디너 부인과 엘리자베스는 돌아오는 길에 방문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히 흥미로웠던 일만 빼고. 만난 사람 모두의 모습과 행동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사람만 빼고. 두 사람은 그의 누이동생과 친구들과 저택과 과일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 자신만 빼고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가디너 부인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었고, 가디너 부인은 조카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 주었다면 무척 흐뭇했을 것이다.

# 제46장

엘리자베스는 램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인의 편지가 와 있지 않아서 꽤 실망했고, 그 뒤로 그곳에서 맞은 아침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실망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한꺼번에 두 통의 편지를 받으면서 엘리자베스의 서운함은 끝났고 언니의 결백도 밝혀졌는데, 그 가운데 한 통에는 다른 곳으로 잘못 갔었다는 표시가 적혀 있었다. 제인이 주소를 유난히 엉망으로 썼으니 엘리자베스는 놀랍지도 않았다.

편지가 왔을 때 그들은 막 산책을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두고 자기들끼리 나섰다. 잘못 배달된 편지부터 읽어야 했다. 닷새 전에 쓴 편지였다. 앞부분에는 그동안 있었던 자그마한 모임과 약속들, 그리고 시골에서 들을 수 있을 법한 소식들이 적혀 있었지만, 날짜가 하루 뒤로 적혀 있고 누가 보아도 허둥대며 쓴 뒷부분에는 더 중대한 소식이 담겨 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사랑하는 리지, 위에까지 쓰고 나서 정말 뜻밖의 심각한 일이 생겼어. 하지만 너를 놀라게 할까 봐 걱정이야. 우리는 다 무사하니까 안심해. 내가 하려는 얘기는 가엾은 리디아 일이야. 어젯밤 열두 시, 우리가 다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포스터 대령한테서 급보가 왔어. 리디아가 대령 휘하 장교 한 사람하고 스코틀랜드로 떠나 버렸다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면, 위컴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봐. 그런데 키티한테는 그렇게까지 뜻밖의 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정말, 정말

마음이 아파. 양쪽 다 이렇게 경솔한 결혼이라니! 하지만 나는 좋은 쪽으로 믿고 싶고, 그 사람이 오해를 받았던 거라고 믿고 싶어. 생각 없고 분별없는 사람이라는 건 쉽게 믿을 수 있지만, 이번 일은(그러니 우리 이걸 기뻐하자) 마음속까지 나쁜 사람이라는 표시는 아니야. 적어도 돈을 보고 고른 건 아니니까. 아버지가 리디아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을 테니 말이야. 가엾은 어머니는 몹시 슬퍼하셔. 아버지는 좀 더 잘 견디고 계셔. 그 사람에 대해 들은 얘기를 아버지 어머니께 한 번도 알려 드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도 그 얘기는 잊어야 해. 짐작으로는 두 사람이 토요일 밤 열두 시쯤 떠났는데, 어제 아침 여덟 시가 되어서야 없어진 걸 알았대. 급보는 바로 보냈고. 리지, 두 사람은 우리 집에서 10마일도 안 되는 곳을 지나갔을 거야. 포스터 대령이 곧 여기로 오실 거래. 리디아는 대령 부인 앞으로 몇 줄 남겨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생각인지 알렸대. 이만 줄여야겠어. 가엾은 어머니 곁을 오래 비울 수가 없거든. 네가 알아보지 못할까 봐 걱정이지만, 나도 내가 뭘 썼는지 잘 모르겠어."

엘리자베스는 이 편지를 다 읽자마자 생각할 틈도 없이, 자기가 무엇을 느끼는지도 거의 모르는 채 곧바로 다른 편지를 움켜쥐었고, 더없이 조급하게 뜯어 다음과 같이 읽어 내려갔다. 첫 편지를 끝맺은 날보다 하루 뒤에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동생, 지금쯤이면 내가 급히 쓴 편지를 받았겠지. 이번 편지는 좀 더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에 쫓기지는 않지만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앞뒤가 맞게 쓸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하겠어. 사랑하는 리지,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고, 미룰 수도 없어. 위컴 씨와 가엾은 리디아의 결혼이 아무리 경솔한 일이라 해도, 이제 우리는 둘이 결혼했다는 확인이라도 받고 싶어 애가 타. 두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가지 않았다고 걱정할 까닭이

너무도 많거든. 포스터 대령이 어제 오셨어. 급보를 보내고 몇 시간 지나지 않은 그 전날 브라이턴을 떠나셨대. 리디아가 포스터 부인에게 남긴 짧은 편지로는 둘이 그레트나 그린[1]으로 간다고 알았는데, 데니가 위컴은 처음부터 그곳에 갈 생각이 없었고 리디아와 결혼할 생각도 전혀 없었을 거라는 말을 흘렸대. 그 말이 포스터 대령 귀에 들어가자 대령은 곧바로 놀라서 두 사람이 간 길을 더듬어 보려고 브라이턴을 떠나셨어. 클래펌까지는 쉽게 뒤를 밟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됐대. 클래펌에 들어서자 엡섬에서 타고 온 경마차를 돌려보내고 삯마차로 갈아탔거든. 그 뒤로 알려진 거라고는 두 사람이 런던 가는 길을 따라 계속 가는 걸 누가 보았다는 것뿐이야.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포스터 대령은 런던 이쪽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알아본 다음 하트퍼드셔로 오셔서, 통행료 징수소마다, 바넷과 해트필드의 여관마다 애타게 다시 물어보셨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대.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대령은 더없이 친절하게 걱정해 주시면서 롱번까지 오셨고, 그 다정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점들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셨어. 대령과 포스터 부인한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지만, 누구도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

"리지, 우리 괴로움이 정말 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장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지만,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수가 없어. 처음 계획대로 하기보다 런던에서 남몰래 결혼하는 편이 나을 만한 사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리디아 같은 집안의 젊은 아가씨를 두고 그런 못된 꿍꿍이를 품을 수 있다 해도, 그럴 리는 없지만, 리디아가 모든 걸 내팽개칠 만큼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럴 리 없어! 그런데 포스터 대령은 두 사람이 결혼할 거라고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내가 바라는 바를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저으시면서, 위컴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걱정이라고 하셨어. 가엾은 어머니는 정말로 앓아누우셔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셔. 어머니가 기운을 좀 내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바랄 수도 없는 일이고,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충격을 받으신 모습은 처음 봐. 가엾은 키티는 두 사람 사이를 숨겼다고 꾸중을 들었지만, 비밀을 털어놓은 일이니 그럴 만도 하지. 사랑하는 리지, 네가 이 괴로운 광경을 조금이라도 겪지 않아도 되니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이제 첫 충격은 지나갔으니, 네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털어놓아도 될까? 그렇다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도 서두르라고 조를 만큼 이기적이지는 않아. 이만 줄일게!"

"그런데 방금 안 하겠다고 한 일을 하려고 다시 펜을 들었어. 사정이 사정인지라, 모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외삼촌과 외숙모를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두렵지 않아. 외삼촌께는 부탁드릴 게 하나 더 있지만. 아버지는 리디아를 찾으러 포스터 대령과 함께 지금 바로 런던으로 가셔. 무엇을 하실 생각인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상심하셔서 어떤 일도 가장 좋고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실 테고, 포스터 대령은 내일 저녁에 다시 브라이턴에 가 계셔야 해. 이렇게 급한 때에는 외삼촌의 조언과 도움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할 거야. 외삼촌은 내 심정을 곧바로 헤아려 주실 테니, 그 너그러운 마음에 기댈게."

"아! 외삼촌, 외삼촌은 어디 계시지?" 편지를 다 읽자 엘리자베스는 그 소중한 시간을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외삼촌 뒤를 쫓아가려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문에 이르렀을 때 하인이 문을 열었고, 다아시 씨가 나타났다. 엘리자베스의 창백한 얼굴과 다급한 몸짓에 그는 흠칫 놀랐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려 입을 열기도 전에, 리디아의 처지 말고는 아무 생각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엘리자베스는 서둘러 소리쳤다. "죄송하지만 가 봐야겠어요.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지금 당장 가디너 씨를 찾아야 해요. 한시가 급해요."

"맙소사! 무슨 일이에요?" 그는 예의보다 감정이 앞선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고는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잠시도 붙잡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가 가거나, 아니면 하인을 보내 가디너 씨 부부를 모셔 오게 하세요.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직접 가실 수는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망설였다. 그러나 무릎이 후들거렸고, 자기가 쫓아가 봐야 얻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느꼈으므로, 엘리자베스는 하인을 다시 불러, 숨이 차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주인 내외를 당장 모셔 오라고 일렀다.

하인이 방을 나가자 엘리자베스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너무도 핏기 없이 아파 보여서 다아시는 그 곁을 떠날 수도 없었고, 부드럽고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지 않을 수도 없었다. "하녀를 불러 드릴게요. 당장 좀 나아지게 드실 만한 건 없을까요? 포도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몹시 편찮아 보여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을 추스르려 애쓰며 대답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괜찮아요. 방금 롱번에서 끔찍한 소식을 받아서 마음이 괴로울 뿐이에요."

그 이야기를 꺼내자 엘리자베스는 울음을 터뜨렸고, 몇 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다아시는 애타게 마음을 졸이며 걱정된다는 말을 흐릿하게 몇 마디 웅얼거렸을 뿐, 안쓰러운 마음으로 말없이 엘리자베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엘리자베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방금 언니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정말 끔찍한 소식이에요. 누구한테도 숨길 수 없는 일이에요. 막내 동생이 식구들을 다 버리고… 달아났어요. 그 사람 손아귀에 제 몸을… 위컴 씨 손아귀에 제 몸을 던졌어요. 둘이 브라이턴에서 함께 달아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아시 씨가* 너무 잘 아시니 그다음은 의심하실 것도 없겠지요. 그 애는 돈도 없고 집안도 변변치 않고, 그 사람을 끌 만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 그 애는 영영 끝장이에요."

다아시는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 버렸다.

"생각하면," 엘리자베스는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가*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던 *제가*요. 조금만, 제가 알게 된 것 가운데 조금만이라도 식구들한테 설명했더라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알려져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 다 너무 늦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다아시가 소리쳤다.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에요. 그런데 확실한가요, 정말 확실해요?"

"아, 네! 일요일 밤에 둘이 함께 브라이턴을 떠났고, 런던 가까이까지는 뒤를 밟았는데 그다음은 몰라요. 스코틀랜드로 가지 않은 건 확실해요."

"그 애를 되찾으려고 무슨 일을 했나요? 무슨 시도라도 해 보았나요?"

"아버지는 런던으로 가셨고, 언니는 외삼촌께 당장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썼어요. 저희는 30분 안에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 둘을 어떻게 찾아내기라도 하겠어요? 저는 조금도 희망이 없어요. 무엇 하나 끔찍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아시는 말없이 고개를 저어 수긍했다.

"*제* 눈이 그 사람의 본모습에 뜨였을 때, 아! 제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 무엇을 감히 할 수 있었는지 알았더라면!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너무 지나친 짓을 할까 봐 두려웠어요. 비참한, 정말 비참한 실수였어요!"

다아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이마를 찌푸리고 침울한 얼굴로 깊은 생각에 잠겨 방 안을 이리저리 걷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곧 그것을 보았고, 곧바로 그 뜻을 알아들었다. 자기가 지닌 힘은 가라앉고 있었다. 집안의 허물이 이렇게 드러나고 더없이 깊은 수치가 이렇게 확실해진 마당에는 모든 것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놀랄 수도 탓할 수도 없었지만, 그가 제 마음을 이겨 내고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해서 엘리자베스의 가슴에 위안이 되지는 않았고, 괴로움이 조금도 덜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믿음은 엘리자베스에게 자기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 깨닫게 하기에 꼭 알맞았고, 모든 사랑이 헛될 수밖에 없는 지금처럼, 자기가 그를 사랑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이토록 솔직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기는 했어도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다. 리디아, 리디아가 식구 모두에게 안겨 주고 있는 굴욕과 불행이 곧 엘리자베스 자신의 걱정을 모두 집어삼켰고, 엘리자베스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곧 다른 모든 것을 잊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말이 끊겼다가, 곁에 있던 그의 목소리에 비로소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안쓰러워하는 마음과 함께 자제하는 마음도 드러나는 태도로 말했다.

"아까부터 제가 가 주기를 바라셨을 텐데, 제가 여기 머문 데 대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지만 진심인 걱정 말고는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이런 괴로움에 위안이 될 만한 말이나 일을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늘에라도 빌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일부러 고맙다는 말을 바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를 헛된 바람으로 괴롭혀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불행한 일 때문에 오늘 제 누이동생이 펨벌리에서 베넷 양을 뵙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 같네요."

"아, 네! 다아시 양께 저희 대신 사과 좀 해 주세요. 급한 일로 당장 집에 가야 한다고 전해 주세요. 이 불행한 사실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숨겨 주세요. 오래 숨길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는 비밀을 지키겠다고 선뜻 약속했고, 엘리자베스의 괴로움에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바랄 까닭이 있는 것보다 더 좋게 일이 끝나기를 빈다고 말하고는, 엘리자베스의 친척들에게 안부를 남기고 진지한 작별의 눈길을 한 번 보낸 뒤 떠났다.

그가 방을 나서자 엘리자베스는 더비셔에서 몇 번 만나는 동안 보였던 그런 다정한 사이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모순과 곡절로 가득한 두 사람의 인연을 처음부터 돌이켜 보며, 예전 같았으면 그 인연이 끝나는 것을 기뻐했을 감정이 이제는 그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 마음의 엇나감에 한숨을 쉬었다.

고마움과 존경이 애정의 좋은 바탕이라면,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일도 아니고 나무랄 일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데서 우러난 호감이, 상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두 마디 말을 나누기도 전에 생긴다고들 흔히 그려지는 감정에 비해 터무니없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엘리자베스를 위해 변호할 말은 하나도 없다. 다만 엘리자베스가 위컴을 마음에 두었을 때 그 뒤쪽 길을 어느 정도 시험해 보았고, 그것이 잘되지 않았으니 덜 흥미롭더라도 다른 길로 애정을 찾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 어찌 됐든 엘리자베스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리디아의 수치가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일의 이 첫 본보기를 보며, 그 비참한 일을 생각할수록 괴로움이 더해졌다. 제인의 두 번째 편지를 읽은 뒤로 엘리자베스는 위컴이 리디아와 결혼할 생각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한 번도 품지 않았다. 그런 기대로 스스로를 달랠 수

있는 사람은 제인밖에 없으리라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 엘리자베스가 느낀 감정 가운데 놀라움은 가장 작은 것이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위컴이 돈을 보고는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아가씨와 결혼하려 한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어리둥절했고, 리디아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었는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도 당연했다. 이런 종류의 애착이라면 리디아에게도 매력이 충분할지 몰랐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리디아가 결혼할 생각도 없이 일부러 사랑의 도피에 나섰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리디아의 정숙함도 분별도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아 주지 못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었다.

연대가 하트퍼드셔에 있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리디아가 위컴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리디아는 부추기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에게든 마음을 붙였을 것이라고 엘리자베스는 확신했다. 어떤 때는 이 장교가, 어떤 때는 저 장교가 리디아의 눈에 들었다. 그들이 관심을 보여 주면 그만큼 리디아의 눈에 높아 보였다. 리디아의 애정은 줄곧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대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아이를 내버려 두고 잘못 오냐오냐한 해악을, 아! 엘리자베스는 지금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던가!

엘리자베스는 집에 가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집에 가서 듣고, 보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엉망이 된 집안에서 이제 오롯이 제인의 몫으로 떨어졌을 걱정을 나누고 싶었다. 아버지는 집에 없고, 어머니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시중을 받아야 했다. 리디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의 믿게 되었지만, 그래도 외삼촌이 나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였고, 외삼촌이 방에 들어설 때까지 엘리자베스는 조바심에 몹시 괴로웠다. 가디너 씨 부부는 하인의 말을

듣고 조카가 갑자기 병이 난 줄 알고 놀라서 서둘러 돌아왔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점에서는 곧바로 두 사람을 안심시킨 다음, 두 사람을 부른 까닭을 서둘러 알렸다. 두 통의 편지를 소리 내어 읽었고, 두 번째 편지의 추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힘주어 되풀이했다. 리디아는 한 번도 두 사람의 귀여움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가디너 씨 부부는 깊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리디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걸린 일이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처음 탄성을 터뜨린 뒤, 가디너 씨는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무엇이든 돕겠다고 선뜻 약속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만큼은 해 주리라 기대했으면서도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한마음으로 움직였으므로 길 떠날 일은 금세 다 정해졌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펨벌리는 어떻게 하지?" 가디너 부인이 소리쳤다. "존이 그러는데, 우리를 부르러 보냈을 때 다아시 씨가 여기 있었다며. 그랬니?"

"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은 다 정리됐어요."

"다 정리됐다니, 뭐가?" 가디너 부인은 채비를 하러 제 방으로 뛰어 들어가며 그 말을 되뇌었다. "그 사람한테 사실을 털어놓을 만큼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란 말인가? 아,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만 있다면!"

그러나 바란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이어진 한 시간의 부산함과 혼란 속에서 잠깐 마음을 붙잡아 두는 정도였다. 엘리자베스가 손 놓고 한가로이 있을 처지였다면, 자기처럼 비참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끝까지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도 외숙모 못지않게 맡은 일이 있었고, 그중에는 갑자기 떠나게 된 까닭을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쪽지를 램턴의 지인들에게 빠짐없이 써 보내는 일도 있었다. 그래도 한 시간 만에 모든 일이 끝났고, 그사이 가디너 씨가 여관 셈을 치르고 나니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았다. 그리하여 아침

내내 그 모든 비참함을 겪은 끝에,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마차에 올라 롱번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

1. 잉글랜드와 맞닿은 스코틀랜드 국경 마을. 스코틀랜드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어 몰래 결혼하려는 남녀가 찾아갔다.

# 제47장

"리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다." 마차가 읍내를 빠져나갈 때 외삼촌이 말했다. "정말이지, 진지하게 따져 보니 아까보다 훨씬 더 큰언니처럼 생각하고 싶어지는구나. 결코 돌봐 줄 사람도 기댈 친척도 없지 않은 아가씨를, 그것도 바로 자기 연대장 댁에 머물고 있던 아가씨를 두고 젊은 남자가 그런 꿍꿍이를 품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법하지 않아서, 나는 좋은 쪽으로 기대를 걸고 싶은 마음이 크다. 리디아 친척들이 가만있으리라고 그 사람이 생각했겠니? 포스터 대령에게 그런 모욕을 안기고 나서 연대에서 다시 얼굴을 들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겠니? 그런 위험을 무릅쓸 만큼 큰 유혹은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엘리자베스가 잠깐 얼굴이 밝아지며 물었다.

"나도 외삼촌 생각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 가디너 부인이 말했다. "체면과 명예와 제 이익을 그렇게까지 저버리는 일이니,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리 없어. 나는 위컴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수가 없구나. 리지, 너 자신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그 사람을 완전히 단념할 수 있겠니?"

"제 이익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밖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정말 외숙모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감히 그런 기대는 못 하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왜 스코틀랜드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우선," 가디너 씨가 대답했다. "두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

"아, 하지만 경마차에서 삯마차로 갈아탔다는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가잖아요! 게다가 바넷 길에서는 두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그럼 좋아, 두 사람이 런던에 있다고 쳐 보자. 런던에 있는 건 몸을 숨기려는 뜻일 수 있지, 그보다 더 나쁜 뜻은 아닐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돈이 아주 넉넉할 것 같지는 않으니, 스코틀랜드보다 런던에서 결혼하는 편이 빠르지는 않아도 돈은 덜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왜 그렇게 숨어요? 왜 들킬까 봐 겁을 내요? 왜 결혼을 남몰래 해야 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언니 편지로 보셨겠지만,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그 사람이 리디아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확신했어요. 위컴은 돈 없는 여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요. 그리고 리디아한테 젊음과 건강과 쾌활함 말고 무슨 내세울 것이, 무슨 매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리디아를 위해 좋은 데 장가가서 한몫 볼 기회를 다 버리겠어요? 연대 안에서 망신당할 걱정이 리디아를 데리고 부끄럽게 달아나는 일을 얼마나 막아 줄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짓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외삼촌의 다른 반론은 들어맞기 어려울 것 같아요. 리디아한테는 나서 줄 오빠도 남동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늘 게으르시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걸 보고, 이런 일이 생겨도 *아버지*는 세상 어느 아버지보다 손을 덜 쓰고 생각도 덜 하실 거라고 짐작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리디아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말고는 모든 걸 잊어버려서, 결혼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그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할 정도라고 생각하니?"

"동생이 그런 일에서 체면과 정숙함을 지킬지 의심스러워 보인다니, 정말 기막힌 일이에요." 엘리자베스는 눈물이 맺힌 채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이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애를 너무 박하게 보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애는 아주 어린 데다 진지한 일을 생각하라고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반년, 아니 한 해 내내 놀고 멋부리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더없이 한가하고 경박하게 써도, 눈에 띄는 대로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여도 다들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셔 연대가 처음 메리턴에 주둔한 뒤로는 머릿속에 연애와 시시덕거림과 장교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일을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타고나기를 쉽게 들뜨는 그 애 감정을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더 쉽게 달아오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위컴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생김새와 말솜씨를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건 우리 모두 알잖아요."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제인은," 외숙모가 말했다. "위컴이 그런 짓을 꾀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

"언니가 언제 누구를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예전에 어떻게 처신했든, 증거가 나오기 전에 그런 짓을 꾀할 수 있다고 언니가 믿을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위컴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언니도 저만큼 알아요.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온갖 뜻에서 방탕했고, 성실함도 명예도 없고, 남의 마음에 파고드는 솜씨만큼이나 거짓되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아요."

"너 정말 그걸 다 알고 있니?" 가디너 부인이 소리쳤다. 엘리자베스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정말 알아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지난번에 그 사람이 다아시 씨한테 얼마나 파렴치하게 굴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외숙모도 지난번 롱번에 오셨을 때, 자기한테 그토록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해 준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직접 들으셨고요. 다른 사정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말할 처지가… 굳이 이야기할 만한 게 못 돼요. 하지만 펨벌리 집안 전체에 대한 그 사람의 거짓말은 끝이 없어요. 다아시 양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오만하고 쌀쌀하고 불쾌한 아가씨를 보게 되리라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자신은 그 반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아시 양이 우리가 직접 보았듯이 상냥하고 꾸밈없는 아가씨라는 걸 모를 리 없어요."

"하지만 리디아는 이런 걸 하나도 모른단 말이니? 너하고 제인이 그렇게 잘 아는 걸 리디아는 모를 수가 있니?"

"아, 네! 그게, 그게 가장 나쁜 점이에요. 켄트에 가서 다아시 씨와 그분 친척인 피츠윌리엄 대령을 그렇게 자주 보기 전까지는 저도 진실을 몰랐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셔 연대가 한 주나 2주 뒤면 메리턴을 떠날 참이었어요. 사정이 그러니, 제가 모든 걸 털어놓은 언니도 저도 우리가 아는 걸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있는데, 그때 와서 그 평판을 뒤엎는 게 누구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보였겠어요? 리디아가 포스터 부인을 따라가기로 정해졌을 때도, 그 애한테 그 사람의 사람됨을 똑똑히 알려 줘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리디아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건 외숙모도 쉽게 믿으실 거예요."

"그럼 다들 브라이턴으로 옮겨 갔을 때,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 믿을 까닭은 전혀 없었다는 말이구나?"

"조금도요. 어느 쪽에서도 애정의 기미를 본 기억이 없고, 그런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우리 집이 그런 걸 그냥 흘려 넘길 집안이 아니라는 건 외숙모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 연대에 들어왔을 때는 리디아도 곧잘 그 사람한테 반했지만, 그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두 달 동안은 메리턴과 그 근방의 아가씨란 아가씨는 다 그 사람한테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리디아한테* 특별히 관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정신없이 들떠 반해 있다가 마음이 식었고, 리디아를 더 특별하게 대해 주는 연대의 다른 장교들이 다시 리디아의 마음에 들게 되었어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거듭 주고받아 봤자 두려움과 희망과 짐작에 새로 보탤 것은 거의 없었지만, 여행하는 내내 다른 어떤 이야기도 그들을 이 이야기에서 오래 떼어 놓지 못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생각에서는 이 일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고통인 자책이 그 생각을 붙박아 두었으므로, 엘리자베스는 잠시도 마음을 놓거나 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길을 갔고, 길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이튿날 저녁 식사 무렵 롱번에 닿았다. 제인이 오래 기다리느라 지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엘리자베스는 위안이 되었다.

그들이 방목장으로 들어서자 경마차를 보고 끌려 나온 가디너 씨네 어린아이들이 현관 계단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차가 문 앞으로 다가가자, 아이들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깡충깡충 뛰고 껑충거리는 온몸으로 드러난 즐거운 놀라움이, 그들을 맞는 반가움의 첫 기분 좋은 표시였다.

엘리자베스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서둘러 입을 맞춘 뒤 현관으로 달려갔는데, 마침 어머니 방에서 계단을 뛰어내려오던 제인이 곧장 엘리자베스를 맞았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 눈에 다 눈물이 고인 채 언니를 다정하게 끌어안으면서, 달아난 두 사람에 대해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느냐고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물었다.

"아직 없어." 제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외삼촌이 오셨으니 다 잘될 거야."

"아버지는 런던에 계셔?"

"응, 편지에 쓴 대로 화요일에 가셨어."

"아버지한테서 소식은 자주 왔어?"

"딱 한 번 왔어. 수요일에 몇 줄 써 보내셨는데,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과 내가 꼭 알려 달라고 부탁드렸던 거처를 알려 주셨어. 그리고 중요한 일이 생기기 전에는 편지를 다시 쓰지 않겠다는 말만 덧붙이셨어."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떠셔? 다들 어떻게 지내?"

"어머니는 그럭저럭 괜찮으신 것 같아. 마음은 몹시 흔들리셨지만. 위층에 계신데, 다들 보시면 아주 반가워하실 거야. 아직 옷 방에서 나오지는 않으셔. 메리하고 키티는 아주 잘 있어. 하늘에 감사할 일이지!"

"하지만 언니는, 언니는 어때?"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얼굴이 창백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언니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엘리자베스를 안심시켰다. 가디너 씨 부부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이어지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일행이 모두 다가오자 끝이 났다. 제인은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달려가, 웃다가 울다가 하며 두 사람을 맞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모두 응접실에 모이자 엘리자베스가 이미 했던 질문을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되풀이했는데, 곧 제인에게는 전해 줄 소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제인의 착한 마음이 불러일으킨 좋은 일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은 아직 제인을 떠나지 않았다. 제인은 모든 일이 잘 끝나리라고, 그리고 아침마다 리디아나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 주고 어쩌면 결혼 소식도 전해 주리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

몇 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 모두 베넷 부인의 방으로 올라갔는데, 베넷 부인은 짐작할 수 있는 그대로 그들을 맞았다. 눈물을 쏟으며 애통해했고, 위컴의 악랄한 짓을 욕했고, 자기가 겪는 괴로움과 부당한 대접을 하소연했으며, 딸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사람, 곧 분별없이 딸을 오냐오냐한 그 사람만 빼고는 모두를 탓했다.

"내가 우리 식구들을 다 데리고 브라이턴에 가겠다는 뜻만 이루었어도," 베넷 부인이 말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불쌍한 우리 리디아는 돌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포스터 부부는 대체 왜 그 애를 눈에서 놓쳤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뭔가 크게 소홀했던 거야. 잘 보살펴 주기만 했어도 그 애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거든. 나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 애를 맡기에는 영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늘 그렇듯 내 말은 묵살당했지. 불쌍한 우리 아기! 그런데 이제 그이마저 떠나 버렸으니, 그이는 어디서든 위컴을 만나기만 하면 결투를 할 테고, 그러다 죽고 말 텐데,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이 몸이 무덤 속에서 식기도 전에 콜린스 부부가 우리를 쫓아낼 거야. 동생, 동생마저 우리한테 잘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두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하지 말라고 입을 모아 말렸다. 그리고 가디너 씨는 누님과 누님의 가족 모두를 아낀다고 두루 다짐한 다음, 바로 이튿날 런던으로 가서 리디아를 되찾으려는 베넷 씨의 노력을 무엇이든 돕겠다고 말했다.

"쓸데없이 겁내지 마세요." 가디너 씨가 덧붙였다. "가장 나쁜 경우에 대비하는 건 옳지만, 그걸 확실한 일로 볼 까닭은 없어요. 두 사람이 브라이턴을 떠난 지 아직 한 주도 안 됐어요. 며칠만 더 지나면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이 일을 끝난 일로 치지 맙시다. 런던에 닿는 대로 매형을 찾아가서 그레이스처치 거리 우리 집으로 모셔 올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함께 의논하면 돼요."

"아, 동생," 베넷 부인이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내가 제일 바라던 거야. 그러니 런던에 가거든 꼭 두 사람을 찾아내 줘. 어디 있든지.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억지로라도* 결혼시켜. 혼례 옷은 그것 때문에 기다리게 하지 말고, 리디아한테 결혼하고 나면 옷 살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전해 줘. 그리고 무엇보다 그이가 결투하지 못하게 막아 줘. 내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말해 줘. 내가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온몸이 그렇게 떨리고 그렇게 두근거리고, 옆구리가 그렇게 결리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그렇게 뛰어서 밤에도 낮에도 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 리디아한테, 나를 만나기 전에는 옷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맡기지 말라고 전해 줘. 그 애는 어느 가게가 제일 좋은지 모르거든. 아, 동생, 정말 고마워! 동생이 다 알아서 해 줄 줄 알았어."

가디너 씨는 이 일에 힘껏 애쓰겠다고 다시 다짐하면서도 희망이든 두려움이든 조금 누그러뜨리라고 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식탁이 차려질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 모두 베넷 부인을 남겨 두고 내려왔다. 베넷 부인은 딸들이 없는 동안 곁을 지키는 하녀장에게 마음껏 하소연을 쏟아 놓았다.

동생 부부는 베넷 부인이 그렇게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까닭이 정말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굳이 말리려 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시중드는 하인들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만큼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 일에 대한 베넷 부인의 온갖 두려움과 걱정을 집안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그것도 가장 믿을 만한 한 사람만 다 알고 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식당에는 곧 메리와 키티가 합류했다. 두 사람은 저마다 제 방에서 너무 바빠서 그때까지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한 사람은 책을 보다 왔고, 다른 한 사람은 몸단장을 하다 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얼굴은 그런대로 차분했고, 어느 쪽에서도 달라진 데는 보이지 않았는데, 다만 가장 아끼던 동생을 잃은 탓인지 이 일로 자기가 산 노여움 탓인지, 키티의 목소리에는 여느 때보다 짜증이 조금 더 묻어났다. 메리로 말하면, 식탁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자베스에게 진지하게 생각에 잠긴 얼굴로 이렇게 속삭일 만큼 자신을 다스리고 있었다.

"정말 불행한 일이야. 아마 말들이 많겠지. 하지만 우리는 악의의 물결을 막아 내고, 자매의 위로라는 향유를 상처 입은 서로의 가슴에 부어 주어야 해."

그러고는 엘리자베스가 대꾸할 생각이 없어 보이자 메리는 이렇게 덧붙였다. "리디아에게는 불행한 일이 틀림없지만, 우리는 이 일에서 유익한 교훈을 하나 끌어낼 수 있어. 여자가 정조를 잃으면 다시 되찾을 수 없고, 한 번 발을 헛디디면 끝없는 파멸에 빠지게 되며, 여자의 평판은 아름다운 만큼이나 깨지기 쉽고, 그럴 자격이 없는 남자들 앞에서는 아무리 몸가짐을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교훈 말이야."

엘리자베스는 어이가 없어 눈을 들었지만, 너무 짓눌려 있어서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메리는 눈앞의 불행에서 그런 도덕적 교훈을 뽑아내며 계속 스스로를 위로했다.

오후가 되자 베넷 집안의 두 큰딸은 30분 동안 단둘이 있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그 틈을 타서 이것저것 물었고, 제인도 그만큼 대답해 주고 싶어 했다. 엘리자베스는 거의 틀림없다고 여기고 베넷

양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지 못한, 이 사건의 끔찍한 결말을 두고 함께 탄식한 뒤에, 엘리자베스가 이야기를 이어 갔다. "하지만 내가 아직 못 들은 걸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말해 줘. 더 자세히 알려 줘. 포스터 대령은 뭐라고 하셨어? 둘이 달아나기 전에 다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대? 두 사람이 붙어 다니는 걸 줄곧 보았을 텐데."

"포스터 대령님은 무슨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특히 리디아 쪽에서 그런 것 같다고 자주 생각하긴 했지만 걱정할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털어놓으셨어. 대령님한테 정말 미안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을 써 주시고 친절하셨어. 두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가지 않았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셨을 때, 대령님은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정말로 우리한테 *오시던 길이었어*. 그 걱정이 처음 퍼지자 걸음을 더 서두르신 거고."

"그리고 데니는 위컴이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대? 두 사람이 달아날 생각인 걸 알고 있었대? 포스터 대령이 데니를 직접 만나 보셨어?"

"응. 그런데 *대령님이* 물으셨을 때 데니는 두 사람의 계획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 그 일에 대한 진짜 생각은 말하려 하지 않았대.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다시 말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그걸* 보면, 전에 데니 말이 잘못 전해졌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싶어."

"그럼 포스터 대령이 직접 오시기 전까지는, 두 사람이 정말 결혼했다는 걸 의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어떻게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리에 들어올 수 있었겠어? 나는 조금 불안했어. 그 사람의 처신이 늘 아주 옳지만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과 결혼해서 동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조금 두려웠던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건 전혀 모르셨고, 그저 얼마나 경솔한 결혼인지만 생각하셨어. 그러자 키티가 자기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아주 당연하게 으스대면서, 리디아가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일을 미리 귀띔해 두었다고 털어놓았어. 키티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하지만 브라이턴에 가기 전부터는 아니었지?"

"응,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포스터 대령도 위컴을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 그 사람의 진짜 사람됨을 아셔?"

"솔직히 말하면 위컴을 예전처럼 좋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 경솔하고 낭비가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 그리고 이 슬픈 일이 생긴 뒤로, 위컴이 메리턴에 빚을 잔뜩 지고 떠났다는 말이 돌아.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 언니, 우리가 덜 숨겼더라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걸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랬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지." 언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지난 잘못을 들춰내는 건 옳지 않은 일 같았어. 우리는 가장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거야."

"포스터 대령은 리디아가 부인한테 남긴 쪽지 내용을 자세히 전해 주실 수 있었어?"

"우리 보라고 그 쪽지를 가지고 오셨어."

그러고 나서 제인은 수첩에서 쪽지를 꺼내 엘리자베스에게 건넸다. 내용은 이러했다.

"해리엇에게."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면 너 웃을 거야. 내일 아침 내가 없어진 걸 알고 네가 놀랄 걸 생각하면 나도 웃음이 나서 못 참겠어. 나 그레트나 그린으로 가. 누구랑 가는지 못 맞히면 너 바보야.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딱 한 사람뿐이고, 그 사람은 천사거든. 그 사람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으니까 떠나는 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키지 않으면 롱번에는 내가 떠났다는 걸 알리지 않아도 돼. 그래야 내가 편지를 쓰면서 리디아 위컴이라고 서명할 때 다들 더 놀랄 테니까. 진짜 재밌겠지! 웃겨서 글씨를 제대로 못 쓰겠어, 깔깔. 오늘 밤 프랫하고 춤추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킨다고 프랫한테 잘 좀 말해 줘. 사정을 다 알면 이해해 줄 거라고, 다음 무도회에서 만나면 기꺼이 같이 춤추겠다고 전해 줘. 옷은 롱번에 가서 가지러 보낼게. 그런데 짐 싸기 전에 수놓은 모슬린 드레스에 크게 찢어진 데가 있으니까 샐리한테 꿰매 두라고 말해 주면 좋겠어. 안녕. 포스터 대령님께 안부 전해 줘. 우리 여행이 잘되라고 건배해 줘."

"너를 아끼는 친구가, 리디아 베넷."

"아, 생각 없는, 정말 생각 없는 리디아!" 다 읽고 나서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이런 때 이런 편지를 쓰다니! 하지만 적어도 *리디아*는 이번 길을 떠나면서 진지했다는 건 알 수 있어. 나중에 그 사람이 무슨 말로 꾀었든, 리디아 쪽에서 부끄러운 짓을 *꾸민* 건 아니었어. 불쌍한 아버지!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

"그렇게 충격받은 사람은 처음 봤어. 꼬박 1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어. 어머니는 곧바로 앓아누우셨고, 온 집안이 얼마나 뒤죽박죽이었는지!"

"아, 언니,"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그날이 다 가기 전에 이 집 하인 가운데 그 일을 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을까?"

"모르겠어.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때에 조심하기란 정말 어려워. 어머니는 발작을 일으키셨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돌봐 드리려고 애썼지만 할 수 있었던 만큼 해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거의 놓고 있었거든."

"어머니 시중이 언니한테는 너무 힘에 겨웠던 거야. 얼굴이 안 좋아. 아, 내가 언니 곁에 있었더라면! 언니 혼자 그 모든 수고와 걱정을 다 짊어졌잖아."

"메리와 키티도 아주 잘해 줬고, 힘든 일은 무엇이든 함께 나누려고 했을 거야. 그건 틀림없어. 하지만 나는 두 사람 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키티는 몸이 가냘프고 약하고, 메리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쉬는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거든. 필립스 이모가 아버지 떠나신 뒤 화요일에 롱번에 오셔서, 고맙게도 목요일까지 나하고 함께 계셔 주셨는데, 우리 모두한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어. 루커스 부인도 아주 친절하셨어. 수요일 아침에 걸어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쓸모가 있다면 자기든 딸들이든 무엇이든 돕겠다고 하셨어."

"집에 가만히 계시는 편이 나았을 텐데."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뜻은 좋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런 불행을 당했을 때는 이웃을 아무리 덜 봐도 지나치지 않아. 도움은 받을 수 없고, 위로는 견딜 수가 없어. 멀리서 우리를 보며 고소해하라지. 그걸로 만족하라고 해."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런던에 있는 동안 딸을 되찾으려고 어떤 방법을 쓸 생각이었는지 물었다.

"내 생각에는," 제인이 대답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을 바꾼 엡섬에 가서 역마차 마부들을 만나 무엇이라도 알아낼 수 있을지 해 보실 생각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가 가장 알아내고 싶으신 건 두 사람을 클래펌에서 태우고 간 삯마차의 번호일 거야. 그 마차는 런던에서 손님을 태우고 왔대. 신사와 숙녀가 마차를 바꿔 타면 사람들 눈에 띄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셔서, 클래펌에서 수소문해 보실 생각이었어. 어떻게든 그 마부가 앞서 태운 손님을 어느 집에 내려 주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그 집에 가서 물어보기로 마음먹으셨고, 그 마차가 서 있던 자리와 번호를 알아내는 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셨어. 아버지가 세우신 다른 계획은 나도 몰라. 워낙 서둘러 떠나셨고 마음도 몹시 어지러우셔서, 그만큼 알아내는 것도 힘들었거든."

# 제48장

이튿날 아침 모두 베넷 씨의 편지를 기다렸지만, 우편은 베넷 씨가 쓴 글 한 줄 없이 도착했다. 식구들은 베넷 씨가 평소에는 편지를 몹시 게을리하고 미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때만큼은 애써 주리라 기대했다. 반가운 소식이 없어서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만이라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면 차라리 반가웠을 터였다. 가디너 씨는 편지가 오기만 기다렸다가 길을 떠났다.

가디너 씨가 떠나자 적어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끊임없이 전해 듣게 되리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외삼촌은 떠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롱번으로 돌아가도록 베넷 씨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남편이 결투로 목숨을 잃지 않을 유일한 보장이라고 여기던 누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가디너 부인은 조카딸들에게 자기가 곁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으므로, 아이들과 함께 며칠 더 하트퍼드셔에 머물기로 했다. 가디너 부인은 조카들과 함께 베넷 부인 시중을 들었고, 조카들이 시중에서 놓여난 시간에는 큰 위로가 되어 주었다. 또 한 사람의 이모도 자주 찾아왔고, 본인 말로는 언제나 조카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힘을 내게 하려고 온다고 했다. 그러나 올 때마다 위컴이 돈을 헤프게 쓰고 행실이 문란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꼭 하나씩 들고 왔으므로, 필립스 부인은 오기 전보다 조카들을 더 풀 죽게 만들어 놓지 않고 돌아가는 일이 드물었다.

석 달 전만 해도 거의 빛의 천사였던 그 남자를, 이제 메리턴 사람들은 모두 앞다투어 시커멓게 칠하려는 것 같았다. 위컴이 동네 장사꾼이란 장사꾼에게 다 빚을 졌다는 말이 돌았고, 하나같이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높여 불린 그의 정분은 장사꾼 집집마다 뻗쳐 있었다는 말도 돌았다. 누구나 그가 세상에서 가장 못된 젊은이라고 단언했고, 누구나 자기는 그 착해 보이는 겉모습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떠도는 말의 절반도 믿지 않았지만, 동생이 끝장났다고 진작부터 굳게 믿던 생각을 더욱 굳히기에는 충분할 만큼은 믿었다. 그보다도 덜 믿은 제인조차 거의 희망을 잃었는데, 두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갔다면, 제인이 그때까지 그 희망을 아주 버린 적은 없었지만, 아마 무슨 소식이든 들려왔어야 할 때가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가디너 씨는 일요일에 롱번을 떠났고, 화요일에 가디너 부인은 남편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런던에 닿자마자 곧바로 매형을 찾아내 그레이스처치 거리로 오게 했다고 적혀 있었다. 베넷 씨는 가디너 씨가 오기 전에 엡섬과 클래펌에 다녀왔지만 이렇다 할 소식은 얻지 못했고, 이제는 런던의 큰 여관을 빠짐없이 돌며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두 사람이 런던에 처음 왔을 때 하숙을 구하기 전에 그런 여관 가운데 한 곳에 묵었을지도 모른다고 베넷 씨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가디너 씨 자신은 그렇게 찾아다녀 봐야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매형이 워낙 열을 올리니 거들어 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베넷 씨가 지금으로서는 런던을 떠날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이고, 곧 다시 편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신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포스터 대령에게 편지를 보내, 될 수 있다면 연대에서 그 젊은이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서, 위컴이 지금 런던 어디에 숨었는지 알 만한 친척이나 연고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 실마리를

얻을 가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 찾아갈 수 있다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스터 대령은 틀림없이 이 일에서 우리 뜻을 채워 주려고 힘닿는 대로 다 해 주겠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지금 살아 있는 그 사람 친척이 누구누구인지는 어쩌면 리지가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알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식견을 이렇게 떠받드는 까닭이 어디서 나왔는지 짐작하지 못할 리 없었다. 그러나 그 찬사에 걸맞을 만큼 흡족한 소식을 줄 수는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말고 다른 친척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두 분 다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만 ○○셔 연대의 동료 가운데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알려 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엘리자베스는 그 기대를 그리 높이 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부탁은 기다려 볼 만한 무엇이기는 했다.

이제 롱번에서는 날마다 불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지만, 하루 가운데 가장 불안한 때는 우편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편지가 오는 것이 아침마다 애태우는 마음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전해질 것은 다 편지로 전해질 테고, 다음 날이면 무언가 중요한 소식이 오리라고 날마다 기대했다.

그러나 가디너 씨에게서 다시 소식이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곧 콜린스 씨에게서 아버지 앞으로 편지가 왔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아버지에게 오는 편지는 모두 뜯어 보라는 당부를 받아 둔 제인이 그 편지를 읽었고, 콜린스 씨의 편지가 언제나 얼마나 진기한지 잘 아는 엘리자베스도 언니 어깨 너머로 함께 읽었다.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존경하는 어르신께"

"저희 사이의 친척 관계와 저의 처지로 보아, 어르신께서 지금 겪고 계신 비통한 고난에 위로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제 하트퍼드셔에서 온 편지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콜린스 부인과 저는 지금 어르신과 존경스러운 가족분들 모두가 처하신 곤경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어떤 세월로도 없앨 수 없는 까닭에서 비롯된 일이니 그 괴로움은 더없이 쓰라리실 것입니다. 그토록 혹독한 불행을 덜어 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무엇보다 괴롭힐 수밖에 없는 이 일 앞에서 어르신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말이라면 저는 무엇이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에 비하면 따님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차라리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샬럿이 일러 주기로는 따님의 이 방종한 행실이 지나친 응석받이 양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까닭이 있다고 하니,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베넷 부인께 위안이 되시도록 덧붙이자면, 저는 따님의 기질 자체가 본디 나빴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극악한 짓을 저지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어찌 되었든 어르신의 처지는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으며, 이 생각에는 콜린스 부인뿐 아니라 제가 이 일을 말씀드린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따님께서도 뜻을 같이하십니다. 두 분께서도 따님 한 분의 이 실족이 다른 따님들의 앞날에까지 해를 끼치리라고 저와 함께 우려하셨습니다. 캐서린 영부인께서 친히 굽어살피시어 말씀하셨듯이, 누가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으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저는 지난 11월의 어떤 일을 더욱 흡족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달리 되었더라면 저 또한 어르신의 모든 슬픔과 불명예에 휘말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르신, 감히 권해 드리건대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달래시고, 그 못난 자식을 어르신의 애정에서 영영 내치시어, 제가 저지른 극악한 죄의 열매를 제 손으로 거두게 내버려 두십시오."

"삼가 이만 줄입니다." 운운.

가디너 씨는 포스터 대령에게서 답장을 받고 나서야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반가운 소식은 하나도 없었다. 위컴이 연락을 주고받는 친척은 한 사람도 알려지지 않았고, 가까운 친척 가운데 살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민병대에 들어온 뒤로는 그 가운데 누구와도 특별히 친하게 지낸 것 같지 않았다. 그러니 그의 소식을 알 만하다고 꼽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그의 주머니 사정이 형편없었으므로, 리디아의 친척들에게 들킬까 두려운 마음 말고도 몸을 숨길 아주 강한 동기가 있었다. 그가 상당히 큰 액수의 노름빚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이 막 드러난 터였다. 포스터 대령은 그가 브라이턴에서 쓴 돈을 다 갚으려면 1,000파운드가 넘게 들 것으로 보았다. 그는 시내에도 빚을 꽤 졌지만, 체면을 걸고 진 노름빚은 그보다 더 무서웠다. 가디너 씨는 이런 자세한 사정을 롱번 식구들에게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제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몸서리쳤다. "노름꾼이라니!" 제인이 소리쳤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야. 전혀 몰랐어."

가디너 씨는 편지에,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과가 없자 기운이 빠진 베넷 씨는, 집으로 돌아가 있고 추적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해 보이는 일은 무엇이든 자기에게 맡겨 달라는 처남의 간청에 따랐다. 베넷 부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 전까지 남편의 목숨을 그토록 걱정하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기대한 만큼 기뻐하지 않았다.

"뭐라고! 불쌍한 리디아도 없이 집에 온다고?" 베넷 부인이 소리쳤다. "설마 두 사람을 찾기도 전에 런던을 떠나지는 않겠지. 그이가 와 버리면 누가 위컴하고 결투를 해서 그 애하고 결혼하게 만들어?"

가디너 부인이 슬슬 집에 가고 싶어 했으므로, 베넷 씨가 런던에서 돌아오는 때에 맞춰 가디너 부인과 아이들이 런던으로 가기로 정해졌다. 그래서 마차가 그들을 첫 역참까지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주인을 롱번으로 모셔 왔다.

가디너 부인은 더비셔를 떠날 때부터 품어 온 엘리자베스와 그 더비셔 친구에 대한 궁금증을 고스란히 안은 채 떠났다. 조카는 그들 앞에서 스스로 그의 이름을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가 뒤따라 편지를 보내오지 않을까 하고 가디너 부인이 반쯤 품었던 기대도 아무 일 없이 끝나 버렸다. 엘리자베스는 집에 돌아온 뒤로 펨벌리에서 왔을 법한 편지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지금 집안이 처한 불행만으로도 엘리자베스가 풀이 죽어 있는 까닭은 따로 둘러댈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무엇을 짐작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무렵 제 마음을 그럭저럭 잘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다아시를 몰랐더라면 리디아의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더 잘 견딜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다. 그랬다면 이틀에 하룻밤은 뜬눈으로 지새우지 않아도 되었으리라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베넷 씨는 돌아왔을 때 여느 때처럼 철학자 같은 평정을 고스란히 지닌 모습이었다. 늘 하던 만큼만 말했고, 자기를 떠나게 만든 그 일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으므로, 딸들은 한동안 그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오후가 되어 베넷 씨가 차를 마시러 딸들과 함께 앉았을 때에야 비로소 엘리자베스가 용기를 내어 그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엘리자베스가 짧게 말하자 베넷 씨가 대답했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나 말고 누가 괴로워해야 하겠니? 내가 자초한 일이니 내가 느껴야 마땅하지."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는 마세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런 잘못을 조심하라고 일러 줄 만도 하구나. 사람이란 워낙 그런 데 빠지기 쉬우니까! 아니다, 리지, 평생에 한 번쯤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느껴 보게 해 다오. 그 느낌에 짓눌릴까 봐 걱정하지는 않는다. 금세 지나갈 테니까."

"두 사람이 런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그 밖에 어디서 그렇게 감쪽같이 숨을 수 있겠니?"

"그리고 리디아는 늘 런던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키티가 덧붙였다.

"그럼 그 애는 행복하겠구나." 아버지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마 거기서 꽤 오래 살게 될 게다."

그러고 나서 잠시 말이 없다가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리지, 지난 5월에 네가 나한테 한 충고가 옳았다고 해서 너를 조금도 원망하지는 않는다. 일이 이렇게 된 걸 생각하면 이것도 꽤 너그러운 마음이지."

그때 어머니에게 갖다 드릴 차를 가지러 온 베넷 양 때문에 이야기가 끊겼다.

"이렇게 격식을 차리니 기운이 다 나는구나." 베넷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불행에 이토록 우아한 멋을 더해 주니 말이다! 나도 언젠가 똑같이 해 봐야겠다. 잠옷 모자를 쓰고 분 바를 때 입는 가운을 걸치고 서재에 앉아서, 될 수 있는 대로 너희를 성가시게 하는 거다. 아니면 키티가 달아날 때까지 미뤄 둘까."

"저는 달아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키티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제가* 브라이턴에 가게 되면 리디아보다는 얌전하게 굴 거예요."

"*네가* 브라이턴에 간다고! 50파운드를 준대도 이스트본만큼 가까운 데도 너를 보내지 않겠다! 아니다, 키티, 나도 적어도 조심하는 법은 배웠고, 너도 그걸 톡톡히 느끼게 될 게다. 이제 장교는 누구든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 이 마을을 지나가지도 못한다. 무도회는 언니들 가운데 하나하고 춤추는 게 아니면 절대 금지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분별 있게 보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너는 문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이 모든 으름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키티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래." 아버지가 말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앞으로 십 년 동안 착하게 지내면 십 년이 끝날 때 열병식 구경에 데려가 주마."

# 제49장

베넷 씨가 돌아온 지 이틀 뒤,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집 뒤 관목 숲길을 함께 거닐고 있는데 하녀장이 그들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고, 두 사람은 어머니가 부르시니 오라고 하러 오는 줄 알고 마주 걸어갔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하녀장은 짐작했던 부름 대신 베넷 양에게 이렇게 말했다. "산책하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혹시 런던에서 좋은 소식이라도 들으셨나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여쭈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힐? 런던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

"아이고, 아가씨." 힐 부인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가디너 씨한테서 나리 앞으로 급보가 온 걸 모르셨어요? 급사가 온 지 30분이나 됐고, 나리께서 편지를 받으셨는데요."

딸들은 말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현관을 지나 아침 식사실로, 거기서 다시 서재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두 사람이 위층 어머니 방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가려던 참에 집사와 마주쳤고, 집사가 말했다.

"나리를 찾으시면, 아가씨, 나리께서는 작은 숲 쪽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자 두 사람은 곧바로 다시 홀을 지나, 방목장 한쪽의 작은 숲을 향해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던 아버지를 쫓아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제인은 엘리자베스만큼 몸이 가볍지도 않고 뛰는 데 익숙하지도 않아서 곧 뒤처졌고, 동생은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를 따라잡자마자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 아버지, 무슨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에요? 외삼촌한테서 소식 들으셨어요?"

"그래, 급보로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기대할 게 뭐가 있겠니?"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네가 읽어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구나."

엘리자베스는 조바심을 내며 아버지 손에서 편지를 낚아챘다. 그때 제인이 다가왔다.

"소리 내어 읽어 보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레이스처치 거리에서, 8월 2일 월요일."

"매형께"

"마침내 조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매형께서 흡족해하시리라 믿는 소식입니다. 토요일에 매형께서 떠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두 사람이 런던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는데, 자세한 사정은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을 찾아냈다는 것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늘 바라던 대로야." 제인이 소리쳤다. "두 사람이 결혼했구나!"

엘리자베스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저는 두 사람을 다 만나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감히 매형을 대신해 약속한 조건들을 매형께서

지켜 주시겠다면 머지않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매형께서 하실 일은, 매형과 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 자녀분들 몫으로 정해 둔 5,000파운드 가운데 따님이 똑같이 나눌 몫을 혼인 계약[1]으로 따님에게 보장해 주시고, 아울러 매형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따님에게 1년에 100파운드를 주시겠다고 약정하시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정을 헤아려 볼 때, 이 조건들은 제게 허락된 권한이 닿는 한에서 매형을 대신해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으며, 회답을 받는 데 조금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이 편지는 급보로 보냅니다. 이런 자세한 사정만 보셔도, 위컴 씨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만큼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쉽게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세상이 잘못 알고 있었던 셈이고, 기쁘게도 그의 빚을 다 갚고 나서도 조카 자신의 재산에 더해 조카 몫으로 정해 줄 돈이 얼마쯤은 남을 것입니다. 제가 짐작하는 대로 이 일 전체에서 매형의 이름으로 일을 처리할 전권을 맡겨 주신다면, 곧바로 해거스턴에게 일러 알맞은 혼인 계약서를 마련하게 하겠습니다. 매형께서 다시 런던에 오실 일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롱번에서 조용히 지내시면서 제가 부지런히 살피는 것을 믿고 맡겨 주시고, 회답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보내 주시되 뜻을 분명히 적어 주십시오. 저희는 조카가 이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매형께서도 찬성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조카는 오늘 저희 집으로 옵니다. 무엇이든 더 정해지는 대로 다시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에드워드 가디너 올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다 읽고 나서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그 사람이 리디아와 결혼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위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몹쓸 사람은 아닌가 봐." 언니가 말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그럼 회답은 보내셨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아니. 하지만 곧 보내야겠지."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더 지체하지 말고 회답을 써 달라고 아버지에게 간곡히 졸랐다.

"아! 아버지,"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돌아가서 당장 쓰세요. 이런 일에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번거로우시면," 제인이 말했다. "제가 대신 쓸게요."

"정말 번거롭구나." 아버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딸들과 함께 발길을 돌려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런데… 여쭤 봐도 될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 조건은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겠지요."

"받아들이다니! 그 사람이 겨우 그것밖에 요구하지 않은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래도 두 사람은 결혼*해야만* 하는군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도요."

"그래, 그래. 결혼해야지.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내가 꼭 알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너희 외삼촌이 돈을 얼마나 내놓았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돈을 내가 대체 무슨 수로 갚아야 하느냐는 거다."

"돈이라니요! 외삼촌이요!" 제인이 소리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정신이 박힌 남자라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1년에 100파운드, 내가 죽은 뒤에는 50파운드라는 그 하찮은 미끼를 보고 리디아와 결혼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다."

"정말 그래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지만요. 그 사람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남는다니! 아, 외삼촌이 하신 일이 틀림없어요! 너그럽고 좋은 분이니, 그러다 외삼촌이 곤란해지실까 봐 걱정이에요. 적은 돈으로는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아버지가 말했다. "10,000파운드에서 한 푼이라도 모자란 돈을 받고 리디아를 데려간다면 위컴은 바보일 텐데, 이제 막 사돈을 맺게 된 마당에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기는 싫구나."

"10,000파운드라니요! 하늘이 막아 주셔야죠! 그 절반이라도 대체 어떻게 갚아요?"

베넷 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세 사람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집에 닿을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편지를 쓰러 서재로 갔고, 딸들은 아침 식사실로 들어갔다.

"그럼 두 사람이 정말 결혼하게 되는구나!" 둘만 남자마자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야! 그런데 *이런* 일에 고마워해야 하다니, 행복해질 가망은 그렇게 적고 그 사람의 사람됨은 그렇게 형편없는데도,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 아, 리디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아." 제인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리디아를 정말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결혼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야. 다정한 외삼촌이 그 사람 빚을 갚는 데 얼마쯤 보태 주셨겠지만, 10,000파운드나 그 비슷한 큰돈을 미리 내주셨다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외삼촌한테도 자식들이 있고, 앞으로 더 생길지도 모르잖아. 10,000파운드의 절반이라도 외삼촌이 무슨 수로 내놓으시겠어?"

"위컴의 빚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 쪽에서 리디아한테 얼마를 정해 주는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가디너 외삼촌이 두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

위컴은 제 돈이라고는 6펜스 한 닢도 없으니까. 외삼촌과 외숙모의 친절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 리디아를 집에 데려다가 몸소 지켜주고 뒤를 봐주시다니, 리디아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하신 건 몇 해를 두고 고마워해도 다 갚지 못할 만큼 큰 일이야. 지금쯤 리디아는 정말로 그 댁에 가 있을 텐데, 그런 너그러움을 받고도 지금 비참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애는 앞으로 행복해질 자격이 영영 없어! 외숙모를 처음 마주할 때 그 애 심정이 어떨까!"

"양쪽에서 지난 일은 다 잊으려고 애써야 해." 제인이 말했다. "나는 두 사람이 그래도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어. 그 사람이 리디아와 결혼하겠다고 한 건 바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증거라고 믿을래. 서로 아끼는 마음이 두 사람을 잡아 줄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이 아주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아주 분별 있게 살아서, 시간이 지나면 지난번의 경솔한 일도 잊히리라고 나는 기대해."

"두 사람이 한 짓은,"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언니도 나도, 그 누구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이야기는 해 봐야 소용없어."

그때 두 사람은 어머니가 아마 이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재로 가서 어머니에게 알려 드려도 되겠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고개도 들지 않고 덤덤하게 대답했다.

"좋을 대로 해라."

"외삼촌 편지를 가져가서 읽어 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든 가져가고 어서 나가거라."

엘리자베스가 책상에서 편지를 집어 들었고, 두 사람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메리와 키티도 베넷 부인 곁에 있었으므로 한 번만 알리면 다 같이 알게 될 터였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살짝 운을 뗀 뒤 편지를 소리 내어 읽었다. 베넷 부인은 좀처럼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리디아가 곧 결혼하게 되리라는 가디너 씨의 기대를 제인이 읽자마자 베넷 부인의 기쁨이 터져 나왔고, 한 문장 한 문장 이어질 때마다 그 기쁨은 더욱 넘쳐흘렀다. 이제 베넷 부인은 예전에 걱정과 속상함으로 안절부절못했던 것 못지않게 기쁨으로 걷잡을 수 없이 들떠 있었고, 딸이 결혼하게 된다는 것만 알면 그만이었다. 딸이 행복할지 걱정하는 마음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딸이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아이고, 우리 리디아, 우리 리디아!" 베넷 부인이 외쳤다. "이렇게 기쁜 일이 있나! 그 애가 결혼을 한대! 그 애를 다시 보게 되는구나! 열여섯에 시집을 가다니! 우리 착하고 고마운 동생!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동생이 다 알아서 해 줄 줄 알았어. 그 애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우리 위컴도 보고 싶고! 그런데 옷, 혼례 옷은! 당장 올케한테 옷 얘기를 써 보내야겠어. 리지, 얘야, 아버지한테 뛰어 내려가서 그 애한테 얼마를 주실 건지 여쭤 봐. 아니, 잠깐, 잠깐, 내가 직접 갈게. 키티, 종을 울려서 힐을 불러. 금방 옷을 차려입을 테니까. 아이고, 우리 리디아, 우리 리디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지낼까!"

큰딸은 가디너 씨가 해 준 일로 온 식구가 얼마나 큰 신세를 지게 되었는지로 어머니의 생각을 돌려, 이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애썼다.

"이 일이 이렇게 다행스럽게 끝난 건," 제인이 덧붙였다. "외삼촌의 친절 덕분이 크다고 봐야 해요. 외삼촌이 위컴 씨를 돈으로 돕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그래,"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야 아주 당연한 일이지. 친외삼촌 말고 누가 그런 일을 하겠니? 동생이 제 식구가 없었으면 그 돈은 다 나하고 우리 애들 차지가 됐을 텐데, 몇 가지 선물 말고는 동생한테서 무언가 받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니. 아! 나는 정말 행복해. 얼마 안 있으면

시집간 딸이 생기는 거야. 위컴 부인! 듣기도 좋지! 그 애는 지난 6월에야 열여섯 살이 됐는데. 제인, 얘야, 나는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도저히 못 쓰겠으니 내가 불러 줄 테니까 네가 대신 써라. 돈 문제는 나중에 아버지하고 정하면 되지만, 물건은 당장 주문해야 해."

그러고 나서 베넷 부인은 옥양목이며 모슬린이며 고운 아마포며 하나하나 자세히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제인이 애를 좀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짬이 나서 의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곧 아주 푸짐한 주문서를 불러 주었을 것이다. 하루 늦어진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제인은 말했고, 어머니는 너무 행복한 나머지 여느 때처럼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다른 계획들도 머리에 떠올랐다.

"옷을 차려입는 대로 메리턴에 가야겠다." 베넷 부인이 말했다. "가서 너희 필립스 이모한테 이 좋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루커스 부인하고 롱 부인 댁에도 들를 수 있겠다. 키티, 뛰어 내려가서 마차를 대라고 일러라. 바람을 좀 쐬면 틀림없이 기운이 훨씬 날 거야. 얘들아, 메리턴에서 뭐 해다 줄 거 없니? 아! 힐이 오는구나. 힐, 좋은 소식 들었어? 리디아 아가씨가 결혼한단다. 혼례 때는 너희도 다들 펀치 한 사발씩 마시고 흥겹게 놀게 해 주마."

힐 부인은 곧바로 기쁨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다른 식구들과 함께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이 어리석은 소동에 넌더리가 나서 마음 놓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 방으로 피했다. 불쌍한 리디아의 처지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딱하기 그지없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더 나빠지지 않은 것만도 고마워해야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느꼈다. 앞날을 내다보면 동생이 분별 있는 행복도 세상살이의 넉넉함도 바랄 수 없으리라는 것이 분명했지만, 겨우 두 시간 전만 해도

두려워했던 일을 돌아보면 지금 얻은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엘리자베스는 절절히 느꼈다.

---

1. 결혼할 때 신부 몫으로 돌아갈 재산과 그 쓰임을 미리 정해 두는 법적 문서.

# 제50장

베넷 씨는 살아오면서 이때까지도, 수입을 다 써 버리지 말고 해마다 얼마씩 떼어 모아 아이들과, 아내가 자기보다 오래 산다면 아내의 살림까지 넉넉히 마련해 두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바란 적이 아주 많았다.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을 바랐다. 그 점에서 제 도리를 다했더라면, 지금 리디아를 위해 돈으로 살 수 있는 명예나 체면이 얼마나 되든 그것을 두고 외삼촌에게 신세를 질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영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젊은이 가운데 하나를 설득해 리디아의 남편이 되게 했다는 만족도 그랬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렀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별 이득이 없는 일을 처남 혼자 비용을 다 대며 밀고 나간다는 것이 베넷 씨는 진심으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처남이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알아내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빚을 갚으리라 마음먹었다.

베넷 씨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아껴 쓰는 일이 전혀 쓸데없다고 여겨졌다. 당연히 아들이 태어날 테니까. 그 아들이 성년이 되는 대로 아버지와 함께 한정상속을 풀어 버릴 것이고, 그러면 미망인과 아래 자식들의 살길도 마련될 터였다. 딸 다섯이 차례로 세상에 나왔지만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베넷 부인은 리디아가 태어난 뒤로도 여러 해 동안 아들이 태어나리라고 굳게 믿었다. 마침내 그 일은 단념하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돈을 모으기에 너무 늦었다. 베넷 부인은 살림을

아끼는 데 소질이 없었고, 남에게 기대기 싫어하는 남편의 성미 덕분에 그나마 수입을 넘겨 쓰지 않았을 뿐이었다.

혼인 계약서에는 베넷 부인과 자녀들 몫으로 5,000파운드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을 자녀들끼리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부모의 뜻에 달려 있었다. 적어도 리디아에 관해서는 이제 이 점을 정해야 했고, 베넷 씨는 눈앞에 놓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조금도 망설일 까닭이 없었다. 그는 아주 간결하게나마 처남의 친절에 고마움을 표하는 말로, 처남이 한 일을 모두 전적으로 승인하며 자기 대신 맺어 둔 약속을 기꺼이 지키겠다고 종이에 적어 보냈다. 위컴을 설득해 딸과 결혼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조건처럼 자기에게 이토록 불편이 적게 일이 성사되리라고는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에게 주기로 한 100파운드 때문에 손해 볼 돈은 1년에 10파운드도 되지 않을 터였다. 먹고 지내는 비용과 용돈, 그리고 어머니 손을 거쳐 끊임없이 리디아에게 건너간 돈 선물까지 합치면, 리디아가 써 온 돈은 그 액수에서 크게 모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자기 쪽에서 하찮은 수고만 들이면 된다는 것도 무척 반가운 놀라움이었다. 지금 그는 무엇보다 이 일로 될 수 있는 대로 성가신 일을 덜 겪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딸을 찾아 나서게 했던 첫 분노가 가라앉자, 그는 자연히 예전의 게으름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편지는 곧 보내졌다. 일을 시작하는 데는 굼떠도 일단 시작하면 처리하는 데는 빨랐다. 그는 처남에게 진 신세를 더 자세히 알려 달라고 청했지만, 리디아에게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다.

좋은 소식은 순식간에 온 집안에 퍼졌고, 그에 걸맞은 속도로 온 동네에도 퍼졌다. 동네 사람들은 체면에 걸맞은 담담함으로 그 소식을 견뎌 냈다. 이야깃거리로만 따진다면야, 리디아 베넷 양이 거리의 여자가 되었거나, 그보다 더 바랄 나위 없게는 세상과 떨어진 먼 시골

농가에 갇혀 지내게 되었더라면 더 나았을 터였다. 그러나 리디아가 결혼하는 데도 할 이야기는 많았다. 메리턴의 심술궂은 노부인들이 앞서 너나없이 보내던, 리디아가 잘되기를 바라는 선량한 소망도 사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기세가 별로 꺾이지 않았다. 그런 남편을 만났으니 리디아가 불행해지리라는 것은 틀림없다고들 여겼기 때문이었다.

베넷 부인은 2주째 아래층에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 기쁜 날 다시 식탁 윗자리에 앉았고, 기운은 보는 사람이 숨이 막힐 만큼 높았다. 부끄러운 마음 따위는 베넷 부인의 의기양양함에 찬물 한 방울 끼얹지 못했다. 제인이 열여섯 살이 된 뒤로 베넷 부인이 무엇보다 바라던 일, 딸의 결혼이 이제 막 이루어지려는 참이었다. 베넷 부인의 생각과 말은 온통 우아한 혼례에 따르는 것들, 곧 고운 모슬린과 새 마차와 하인들 이야기에만 쏠려 있었다. 베넷 부인은 딸이 살 만한 집을 찾아 근방을 부지런히 뒤졌는데, 두 사람의 수입이 얼마나 될지는 알지도 못하고 따져 보지도 않은 채, 크기와 격이 모자라다며 많은 집을 퇴짜 놓았다.

"굴딩 집안이 비켜 주기만 하면 헤이 파크도 괜찮겠어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응접실만 좀 더 넓으면 스토크의 큰 저택도 좋고요. 그런데 애시워스는 너무 멀어요. 그 애가 나한테서 10마일이나 떨어져 사는 건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퍼비스 로지는 다락방들이 끔찍해요."

남편은 하인들이 방에 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계속 떠들도록 끼어들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하인들이 물러가자 아내에게 말했다. "부인, 사위와 딸을 위해 그 집들 가운데 하나든 전부든 얻기 전에, 우리 서로 분명히 해 둡시다. 이 근방에서 그 두 사람이 결코 발을 들이지 못할 집이 *한* 채 있소. 그 두 사람을 롱번에 맞아들여서 어느 쪽의 경솔함도 부추기지는 않겠소."

이 선언 뒤에 긴 말다툼이 이어졌다. 그러나 베넷 씨는 단호했다. 그 말다툼은 곧 또 다른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베넷 부인은 남편이 딸의 혼례 옷을 사라고 1기니도 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쳤다. 베넷 씨는 이번 일로 딸이 자기에게서 애정의 표시는 무엇 하나 받지 못하리라고 못 박았다. 베넷 부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남편의 노여움이 상상도 못 할 만큼 깊은 원한에 이르러, 그것 없이는 결혼이 결혼 같지도 않을 특권을 딸에게 허락하지 않을 정도가 되다니, 베넷 부인이 믿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이었다. 베넷 부인은 딸이 위컴과 달아나 혼례를 올리기 전 2주 동안 함께 지냈다는 데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 새 옷이 없으면 딸의 혼례에 미칠 망신을 훨씬 더 절실하게 느꼈다.

엘리자베스는 그때 괴로운 나머지 동생 일로 식구들이 품은 두려움을 다아시 씨에게 알리고 만 것을 이제 진심으로 후회했다. 머잖아 리디아의 결혼으로 그 도피가 그럴듯하게 마무리될 테니, 그 자리에 직접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볼썽사나운 시작을 숨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어 볼 만했기 때문이었다.

그를 통해 그 일이 더 퍼질까 봐 두렵지는 않았다. 그만큼 비밀을 지켜 주리라고 굳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러나 동시에 동생의 그런 약점을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만큼 엘리자베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 일로 엘리자베스 자신에게 어떤 불리함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는 아니었다. 어찌 됐든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골이 가로놓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리디아의 결혼이 더없이 명예로운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온갖 반대 이유에 더해 이제는 그가 그토록 마땅히 경멸하는 남자와 가장 가까운 인척 관계까지 맺게 될 집안과 다아시 씨가 인연을 맺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 인연이라면 그가 뒷걸음질 친다 해도 엘리자베스는 놀랄 수 없었다. 더비셔에서 그에게 있다고 엘리자베스가 확신했던 마음, 자기의 호감을 얻고 싶어 하던 그 바람은, 분별 있게 생각해 보면 이런 타격을 받고 살아남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굴욕을 느꼈고, 슬펐다. 무엇을 뉘우치는지도 잘 모르면서 뉘우쳤다. 그 존중에서 더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게 되자 그의 존중을 잃을까 봐 애가 탔다. 소식을 들을 가망이 가장 적어 보이자 그의 소식을 듣고 싶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성싶지 않게 되자,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겨우 넉 달 전에 자기가 오만하게 물리쳤던 청혼을 이제라면 기쁘게, 고마워하며 받아들였으리라는 것을 그가 알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얼마나 큰 승리일까! 엘리자베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다. 그가 세상 남자들 가운데 가장 너그러운 사람만큼 너그럽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 이상, 승리감이 없을 수는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야 그가 성품으로 보나 재능으로 보나 바로 자기에게 가장 잘 맞았을 남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지성과 기질은 자기와 다르지만 자기가 바라는 것을 다 채워 주었으리라.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결합이었을 것이 틀림없었다. 엘리자베스의 스스럼없고 활기찬 성격으로 그의 마음은 누그러지고 태도는 나아졌을 것이고, 엘리자베스는 그의 판단력과 식견과 세상 물정에 대한 앎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행복한 결혼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부의 행복이 참으로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는 없게 되었다. 그와는 성격이 다른, 그리고 다른 결합의 가능성을 아예 막아 버리는 결합이 곧 그들 집안에서 이루어질 참이었다.

위컴과 리디아가 어떻게 봐줄 만한 정도로라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엘리자베스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숙함보다 정념이 더 강했다는 이유 하나로 맺어진 두 사람에게 오래가는 행복이 얼마나 적게 돌아갈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가디너 씨는 곧 매형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다. 베넷 씨의 감사에는, 가족 누구의 행복이든 돕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짧게 답했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맺었다. 편지의 주된 용건은 위컴 씨가 민병대를 그만두기로 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었다.

"결혼이 정해지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저는 몹시 바랐습니다." 가디너 씨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 연대를 떠나는 것이 위컴 씨를 위해서나 조카를 위해서나 아주 바람직하다는 데 매형께서도 저와 뜻을 같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컴 씨는 정규군[1]에 들어갈 생각이고, 예전 친구들 가운데 군에서 그를 도울 힘도 있고 뜻도 있는 사람이 아직 몇 있습니다. 위컴 씨는 지금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 장군 연대의 소위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지방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위컴 씨는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저는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저마다 지켜야 할 평판이 생기면 두 사람 모두 더 신중해지리라 기대합니다. 포스터 대령에게도 편지를 보내 지금 우리가 정한 일들을 알리고, 브라이턴과 그 근방에 있는 위컴 씨의 여러 채권자들에게 곧 갚겠다는 다짐으로 안심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지불은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턴에 있는 채권자들에게도 매형께서 수고스럽더라도 같은 다짐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위컴 씨가 알려 준 대로 그 명단을 아래에 덧붙이겠습니다. 위컴 씨는 자기 빚을 모두 밝혔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속이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 해거스턴에게는 저희가 지시를 해 두었으니, 한 주 안에 모든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두 사람은, 그 전에 롱번에 초대받지 않는다면, 곧바로 위컴 씨의 연대로 가게

됩니다. 아내에게 듣기로는 조카가 남부를 떠나기 전에 가족들을 꼭 만나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조카는 잘 지내고 있으며, 매형과 누님께 공손히 안부를 여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 이만."

"에드워드 가디너 올림."

베넷 씨와 딸들은 위컴이 ○○셔 연대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이로운지 가디너 씨만큼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그것이 그리 달갑지 않았다. 딸이 곁에 있어 가장 큰 기쁨과 자부심을 누리리라 기대하던 바로 그때, 두 사람이 하트퍼드셔에 자리 잡게 하겠다는 계획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베넷 부인에게 리디아가 북부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몹시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리디아가 모든 사람과 알고 지내고 좋아하는 사람도 그토록 많은 연대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된 일이었다.

"그 애는 포스터 부인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베넷 부인이 말했다. "그 애를 멀리 보내다니 정말 기막혀요! 그리고 그 애가 아주 좋아하는 젊은 장교들도 몇 있는데. ○○ 장군 연대의 장교들은 그렇게 상냥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북부로 떠나기 전에 다시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딸의 부탁은, 그것을 부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당했다. 그러나 동생의 마음과 체면을 생각해서 결혼할 때 부모가 동생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두 사람이 결혼하는 대로 롱번에 맞아 달라고 너무도 간곡하게, 그러면서도 너무도 분별 있고 온화하게 아버지를 졸랐으므로, 아버지는 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딸들이 바라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집간 딸이 북부로 쫓겨 가기 전에 동네에 자랑해 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흡족해했다. 그래서 베넷 씨는 처남에게 다시 편지를 쓸 때 두 사람이 와도 좋다고 허락했고, 혼례가 끝나는 대로 두

사람이 롱번으로 오기로 정해졌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위컴이 그런 계획에 동의했다는 데 놀랐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자신의 마음만 따졌다면, 그와 마주치는 일이야말로 엘리자베스가 가장 바라지 않는 일이었으리라.

---

1. 지방 방위군인 민병대와 달리 정규군의 장교 자리는 대개 돈을 치르고 사는 것이었다.

# 제51장

동생의 결혼식 날이 왔다.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아마 리디아가 스스로를 두고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리디아를 두고 마음을 썼다. 마차를 ○○까지 보내 두 사람을 맞게 했고, 두 사람은 그 마차를 타고 저녁 식사 때까지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베넷 집안의 두 큰딸은 두 사람이 오는 것이 두려웠는데, 특히 제인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면 느꼈을 감정을 리디아도 느끼리라 여겼으므로, 동생이 견뎌야 할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들이 왔다. 식구들은 그들을 맞으려고 아침 식사실에 모여 있었다. 마차가 문 앞에 닿자 베넷 부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남편은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엄숙한 얼굴이었으며, 딸들은 놀라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얼굴이었다.

현관에서 리디아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리고 리디아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어머니는 앞으로 나서서 리디아를 끌어안고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맞았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 들어온 위컴에게 다정한 미소로 손을 내밀고, 두 사람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는데, 그 선선한 태도에는 두 사람이 행복하리라는 데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었다.

두 사람이 이어서 돌아선 베넷 씨의 맞이는 그만큼 살갑지 않았다. 베넷 씨의 얼굴은 오히려 더 엄해졌고, 입은 거의 열지도 않았다. 사실 젊은 부부의 거리낌 없는 뻔뻔함은 베넷 씨의 화를 돋우기에 충분했다.

엘리자베스는 역겨웠고, 베넷 양조차 충격을 받았다. 리디아는 여전히 리디아였다. 길들지 않았고, 부끄러움을 몰랐고, 거칠고 시끄럽고 겁이 없었다. 리디아는 언니들에게 차례로 돌아서며 축하해 달라고 졸랐고, 마침내 모두 자리에 앉자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조금 달라진 데를 알아보더니, 여기 온 지 정말 오래됐다고 깔깔 웃으며 말했다.

위컴은 리디아보다 조금도 더 거북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늘 그렇게 호감을 주었으므로, 그의 사람됨과 결혼이 마땅히 그래야 할 그대로였다면, 인척이 되었다며 짓는 미소와 스스럼없는 말솜씨에 모두 반했으리라. 엘리자베스는 그가 이 정도로 뻔뻔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에는 미처 믿지 않았지만, 자리에 앉으면서 앞으로는 뻔뻔한 남자의 뻔뻔함에 어떤 한계도 긋지 않으리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혔고 제인도 얼굴을 붉혔지만, 두 사람을 그렇게 당황하게 만든 두 사람의 뺨은 조금도 빛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야깃거리는 모자라지 않았다. 신부와 어머니는 둘 다 말이 입에서 나오는 속도가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지경이었다. 마침 엘리자베스 곁에 앉게 된 위컴은 이 근방의 아는 사람들 안부를 묻기 시작했는데, 그 너무도 태연하고 사람 좋은 말투에 엘리자베스는 대답하면서 도저히 그만큼 태연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저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만 지닌 것 같았다. 지난 일 가운데 무엇 하나 괴롭게 떠올리지 않았고, 리디아는 언니들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입에 올리지 않았을 이야기로 제 발로 화제를 끌고 갔다.

"내가 떠난 지 벌써 석 달이라니, 생각만 해도 신기해!" 리디아가 소리쳤다. "정말이지 2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일은 정말 많이 일어났어. 어머나! 떠날 때만 해도 돌아오기 전에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렇게 되면 정말 재밌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아버지는 눈을 들었고, 제인은 괴로워했고, 엘리자베스는 뜻이 담긴 눈길로 리디아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도 듣지도 않는 리디아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아, 어머니, 이 동네 사람들 내가 오늘 결혼한 거 알아요? 모를까 봐 걱정했는데, 오다가 두 바퀴 경마차를 탄 윌리엄 굴딩을 앞질렀거든요. 그래서 꼭 알게 해 줘야겠다 싶어서 그 사람 쪽 옆 창을 내리고, 장갑을 벗고, 반지가 보이게 손을 창틀에 딱 얹어 놓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얼마나 생글생글 웃었는지 몰라요."

엘리자베스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뛰쳐나간 엘리자베스는, 식구들이 홀을 지나 식당으로 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식구들 틈에 끼었는데, 그때 마침 리디아가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어머니 오른쪽 자리로 걸어가 큰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

"아, 제인 언니, 이제 내가 언니 자리야. 언니는 아래로 내려가야 해. 나는 결혼한 여자니까."

처음부터 그토록 조금도 쑥스러워하지 않던 리디아가 시간이 지난다고 쑥스러워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리디아는 갈수록 거리낌 없고 들떠서, 필립스 부인과 루커스 집안 사람들, 그 밖의 이웃들을 모두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컴 부인"이라고 불리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동안에는 저녁 식사가 끝나자 힐 부인과 하녀 둘을 찾아가서 반지를 보여 주며 결혼했다고 자랑했다.

"그래서, 어머니," 다들 아침 식사실로 돌아왔을 때 리디아가 말했다. "제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멋진 사람이죠? 언니들은 다 내가 부러울 거예요. 언니들도 내 운의 절반만이라도 닮으면 좋겠어요. 언니들은 다 브라이턴에 가야 해요. 남편 구하기엔 거기가 딱이라니까요. 어머니, 우리 다 같이 가지 못한 게 정말 아까워요!"

"정말 그래. 내 뜻대로만 됐어도 다 같이 갔을 텐데. 그런데 우리 리디아, 네가 그렇게 먼 데로 가는 건 정말 싫구나. 꼭 그래야 하니?"

"어머, 세상에! 그럼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나는 무엇보다 좋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언니들도 우리 보러 와야 해요. 겨울 내내 뉴캐슬에 있을 텐데, 틀림없이 무도회도 몇 번 열릴 테니까 내가 언니들한테 좋은 춤 상대를 꼭 구해 줄게요."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언니들 가운데 한둘은 두고 가셔도 돼요. 겨울이 끝나기 전에 내가 틀림없이 남편감을 구해 줄 테니까요."

"내 몫까지 챙겨 줘서 고맙긴 한데,"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네가 남편 구하는 방법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손님들은 열흘 넘게 머물지는 않을 예정이었다. 위컴 씨는 런던을 떠나기 전에 임관장을 받았고, 2주가 지나면 연대에 합류해야 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짧게 머문다는 것을 아쉬워한 사람은 베넷 부인뿐이었고, 베넷 부인은 딸을 데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집에서도 아주 자주 모임을 열며 그 시간을 한껏 누렸다. 이런 모임은 모두에게 반가웠다. 식구끼리만 둘러앉는 자리를 피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바랄 만한 일이었다.

리디아를 향한 위컴의 애정은 엘리자베스가 짐작했던 그대로였다. 리디아가 위컴을 향한 애정에는 미치지 못했다. 두 사람이 달아난 것은 위컴의 사랑이 강해서가 아니라 리디아의 사랑이 강해서였다는 것쯤은, 지금 이렇게 지켜보지 않아도 사리로 따져 보아 엘리자베스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위컴이 리디아를 몹시 아끼지도 않으면서 왜 굳이 리디아를 데리고 달아났는지 엘리자베스는 의아했을 테지만, 위컴이 궁한 사정에 몰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만은 확신했고, 그렇다면 길동무를 얻을 기회를 마다할 젊은이가 아니었다.

리디아는 위컴을 끔찍이 좋아했다. 어느 때든 위컴은 리디아의 "우리 위컴"이었고, 누구도 위컴과 견줄 수 없었으며, 위컴은 무엇이든 세상에서 가장 잘했고, 9월 1일 사냥철이 열리면 이 나라 누구보다 새를 많이 잡으리라고 리디아는 굳게 믿었다.

두 사람이 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아침, 두 언니와 함께 앉아 있던 리디아가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리지 언니, *언니한테는* 내 결혼식 얘기를 아직 안 해 준 것 같네. 어머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때 언니는 곁에 없었잖아. 어떻게 치렀는지 궁금하지 않아?"

"정말 안 궁금해."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 일은 아무리 적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

"어머! 언니는 정말 이상해! 그래도 어떻게 치렀는지 얘기해 줘야겠어. 있잖아, 우리는 세인트클레멘트 교회에서 결혼했어. 위컴 하숙집이 그 교구에 있었거든. 그리고 다들 열한 시까지 거기 모이기로 정했어. 외삼촌하고 외숙모하고 나는 같이 가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나는 얼마나 안절부절못했는지 몰라! 무슨 일이 생겨서 결혼식이 미뤄질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 그랬으면 나는 정말 미쳐 버렸을 거야. 그런데 내가 옷을 입는 내내 외숙모는 꼭 설교집이라도 읽는 것처럼 훈계를 늘어놓으셨어. 그래도 나는 열 마디에 한 마디도 안 들었어. 짐작하겠지만 우리 위컴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이가 파란 코트를 입고 결혼식을 올릴지 너무 궁금했어."

"아무튼 그래서 여느 때처럼 열 시에 아침을 먹었는데, 아침 식사가 영영 안 끝날 것 같았어. 그건 그렇고, 언니도 알아 둬. 내가 그 집에 있는 동안 외삼촌하고 외숙모는 내내 지독하게 불쾌하게 굴었어. 믿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2주를 지내는 동안 문밖에 한 발짝도 나가 보지

못했어. 모임 한 번, 나들이 한 번, 아무것도 없었어! 런던에 사람이 좀 적긴 했지. 그래도 리틀 극장은 문을 열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마차가 막 문 앞에 왔는데, 외삼촌이 그 끔찍한 스톤 씨 일로 불려 나가셨지 뭐야. 그리고 언니도 알잖아, 그런 사람들은 한번 만나면 끝이 없는 거. 나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외삼촌이 나를 신랑한테 넘겨주셔야 했고, 시간을 넘기면 그날은 결혼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외삼촌이 10분 만에 돌아오셔서 다 같이 출발했어. 하지만 나중에 생각났는데, 외삼촌이 정말로 못 오시게 *됐더라도* 결혼식을 미룰 필요는 없었을 거야. 다아시 씨가 대신 해 줘도 됐으니까."

"다아시 씨!" 엘리자베스는 너무 놀라 그 이름을 되뇌었다.

"아, 그래! 그 사람이 위컴하고 같이 거기 오기로 했거든. 그런데 어머, 세상에! 깜빡했네! 이 얘기는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위컴이 뭐라고 할까? 절대 비밀이었는데!"

"비밀이라면," 제인이 말했다. "그 얘기는 더 하지 마. 나는 더 캐묻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아, 그럼." 엘리자베스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으면서도 말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고마워." 리디아가 말했다. "언니들이 물어보면 나는 틀림없이 다 털어놓을 거고, 그럼 위컴이 엄청 화낼 테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부추기니, 엘리자베스는 물어볼 수 없게 아예 자리를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모르는 채 지내기란 불가능했다. 적어도 알아보려고 애쓰지 않을 수는 없었다. 다아시 씨가 동생의 결혼식에 와 있었다니, 그가 상관할 일도 가장 적고 갈 마음이 들 까닭도 가장 적어 보이는 바로

그런 자리, 바로 그런 사람들 틈에! 그것이 무슨 뜻일지, 빠르고 터무니없는 짐작들이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지만 어느 것도 흡족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을 가장 고귀하게 비추어 주어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가장 드는 짐작들은 가장 있을 법하지 않아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궁금한 채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서둘러 종이 한 장을 집어 들고 외숙모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지키기로 한 비밀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리디아가 흘린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였다.

"저희 누구와도 아무 연고가 없고, 굳이 말하자면 저희 집안에는 남이나 다름없는 분이 그런 때에 어떻게 외숙모님 일행 가운데 계셨는지, 제가 얼마나 알고 싶을지 쉽게 짐작하실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부디 바로 답장을 써서 알려 주시되, 리디아 생각처럼 꼭 비밀로 남겨 두어야 할 아주 마땅한 까닭이 있다면 그때는 저도 모르는 채로 만족하도록 애써 볼게요."

"그렇다고 만족할 리는 *없겠지만*." 엘리자베스는 혼잣말로 이렇게 덧붙이고 편지를 마저 썼다. "그리고 외숙모, 정정당당하게 알려 주시지 않으면 저는 틀림없이 꾀를 내고 계략을 꾸며서라도 알아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인은 명예를 지키는 데 섬세했으므로, 리디아가 흘린 말을 엘리자베스와 따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반가웠다. 자기가 물은 것에 흡족한 답이 올지 알게 될 때까지는 차라리 털어놓을 상대가 없는 편이 나았다.

# 제52장

엘리자베스는 더할 나위 없이 빨리 답장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편지를 손에 넣자마자 엘리자베스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을 일이 가장 적은 작은 숲으로 서둘러 가서 벤치에 앉아, 행복해질 채비를 했는데, 편지가 긴 것을 보니 거절하는 내용은 아니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레이스처치 거리에서, 9월 6일."

"사랑하는 조카에게"

"방금 네 편지를 받았어. 하려는 이야기가 몇 줄로는 *조금도* 다 담기지 않을 것 같으니, 오늘 아침은 통째로 답장 쓰는 데 바칠 생각이야. 솔직히 네 부탁을 받고 놀랐다는 걸 털어놓아야겠구나. *너한테서* 그런 부탁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 그렇다고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는 마. 그저 *네 쪽에서*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는 걸 알려 주려는 것뿐이니까. 내 말을 알아듣고 싶지 않다면, 주제넘은 말을 용서해 주렴. 외삼촌도 나만큼 놀랐어. 네가 이 일에 얽힌 당사자라고 믿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네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상관도 없다면, 좀 더 분명하게 말해야겠지."

"내가 롱번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외삼촌한테 아주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 다아시 씨가 와서 몇 시간 동안이나 외삼촌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거야. 내가 닿았을 때는 이야기가 다 끝나 있었으니, 내 호기심은 *네 호기심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들볶이지는 않았지. 다아시

씨는 네 동생과 위컴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고 두 사람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위컴은 여러 번, 리디아는 한 번 만났다고 가디너 씨에게 알리러 온 거였어. 내가 알아낸 바로는, 다아시 씨는 우리가 떠나고 겨우 하루 뒤에 더비셔를 떠나 두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런던으로 왔대. 그 사람이 내세운 동기는, 위컴이 몹쓸 인간이라는 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평판 있는 젊은 여자들이 위컴을 사랑하거나 믿게 되는 일을 막지 못한 건 자기 탓이라는 확신이었어. 그 사람은 너그럽게도 모든 걸 자기의 그릇된 오만 탓으로 돌리면서, 예전에는 자기 사사로운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체면이 깎이는 일로 여겼다고 털어놓았어. 자기 사람됨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리라 여겼으니, 앞에 나서서 자기가 불러온 화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게 자기 의무라는 거였어. 그 사람에게 *다른 동기가 있었다* 해도, 그건 틀림없이 그 사람한테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거야. 다아시 씨는 런던에 와서 며칠이 지나서야 두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그 사람한테는 *우리한테는* 없던 실마리가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뒤를 따라오기로 마음먹은 또 하나의 까닭이었어."

"영 부인이라는 여자가 있는 모양인데, 얼마 전까지 다아시 양의 가정교사였다가 무슨 못마땅한 일로, 그게 무슨 일인지는 다아시 씨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쫓겨났대. 그 뒤로 에드워드 거리에 큰 집을 얻어서 하숙을 치며 살아왔대. 다아시 씨는 이 영 부인이 위컴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런던에 닿자마자 위컴 소식을 알아보려고 그 여자를 찾아갔어. 하지만 원하는 것을 그 여자한테서 얻어 내기까지 이삼 일이 걸렸어. 그 여자는 정말로 제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 아마 돈을 받고 매수당하지 않고서는 믿고 맡긴 비밀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겠지. 사실 위컴은 런던에 처음 닿았을 때 그 여자를 찾아갔고, 그 여자가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일 수만 있었다면

두 사람은 거기 눌러앉았을 거야. 하지만 마침내 우리의 친절한 벗은 바라던 주소를 손에 넣었어. 두 사람은 ○○ 거리에 있었어."

"다아시 씨는 위컴을 만났고, 그다음에 리디아를 꼭 만나야겠다고 우겼어. 리디아를 만난 첫째 목적은, 그 사람 말로는, 지금의 그 수치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 식구들이 받아 주겠다고 하는 대로 곧장 식구들한테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거였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리디아는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어. 리디아는 식구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고, 다아시 씨의 도움도 바라지 않았고, 위컴을 떠난다는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언젠가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테니 언제 하든 별 상관없다는 거였어. 리디아 마음이 그러니, 다아시 씨는 결혼을 확실하게, 그리고 서둘러 성사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위컴하고 처음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결혼은 *위컴*이 애초에 꾀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쉽게 알아냈대. 위컴은 몹시 급한 노름빚 때문에 연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고, 리디아가 달아나서 생긴 나쁜 결과는 모두 리디아 자신의 어리석음 탓으로 돌리는 데 거리낌이 없었어. 위컴은 곧바로 장교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거의 짐작도 못 하고 있었어.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 먹고살 길이 하나도 없으리라는 것만은 안다는 거였지. 다아시 씨는 왜 당장 네 동생과 결혼하지 않느냐고 물었어. 베넷 씨가 그리 큰 부자라고는 여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 줄 수는 있을 테고 결혼하면 위컴의 처지도 나아질 게 틀림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듣고 다아시 씨는, 위컴이 다른 고장에서 결혼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한몫 잡겠다는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런 처지에서는 당장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유혹을 이겨 낼 수 없을 것 같았지."

"의논할 게 많아서 두 사람은 여러 번 만났는데, 당연히 위컴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바랐지만 결국 분수를 차릴 수밖에 없었어."

"*두 사람* 사이에 모든 게 정해지자 다아시 씨는 다음으로 외삼촌한테 그 일을 알리려고,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날 저녁에 처음 그레이스처치 거리를 찾아왔어. 하지만 가디너 씨를 만날 수 없었고, 더 알아보니 네 아버지가 아직 외삼촌 집에 계시지만 다음 날 아침에 런던을 떠나신다는 걸 알게 됐대. 다아시 씨는 네 아버지가 외삼촌만큼 이 일을 알맞게 의논할 상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네 아버지가 떠나실 때까지 기꺼이 만남을 미뤘어. 이름은 남기지 않았고, 이튿날까지는 어떤 신사가 볼일이 있어 다녀갔다는 것만 알려졌어."

"토요일에 다아시 씨가 다시 왔는데, 네 아버지는 떠나셨고 외삼촌은 집에 있었으니 아까 말한 대로 두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

"두 사람은 일요일에 또 만났는데, 그때는 *나도* 그 사람을 봤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모든 일이 정해져서 정해지자마자 롱번으로 급보를 보낸 거야. 그런데 우리 손님은 정말 고집이 셌어. 리지, 결국 고집이야말로 그 사람 성품의 진짜 흠이 아닌가 싶어. 그 사람은 이런저런 때 온갖 흠으로 비난을 받아 왔지만, 진짜 흠은 *바로 이거야*. 무슨 일이든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 외삼촌이었다면 틀림없이 기꺼이 다 처리했을 텐데도 말이야(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 이 일은 입 밖에 내지 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옥신각신했는데, 그 일에 얽힌 신사에게도 숙녀에게도 과분한 실랑이였지. 하지만 마침내 외삼촌이 질 수밖에 없었어. 조카를 위해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는커녕, 남들이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는 공만 떠안는 데 만족해야 했으니 외삼촌은 영 내키지 않았지. 그러니 오늘 아침 네 편지를 받고 외삼촌이 정말

기뻐했을 거라고 나는 믿어. 네 편지가 해명을 요구했으니, 남의 공으로 얻은 칭찬을 벗겨 내고 칭찬을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리지, 이 얘기는 너만 알고 있어야 해. 기껏해야 제인까지만."

"두 젊은이를 위해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너도 꽤 잘 알고 있을 거야. 위컴의 빚을 갚아 주기로 했는데, 그게 1,000파운드를 훌쩍 넘는 것 같아. *리디아 몫으로* 리디아 자신의 재산에 더해 또 1,000파운드를 정해 주고, 위컴의 장교 자리도 사 주기로 했어. 이 모든 걸 다아시 씨 혼자 다 떠맡아야 하는 까닭은 위에 적은 그대로야. 위컴의 사람됨이 그렇게 잘못 알려져 그 사람이 그렇게 환대받고 관심을 받게 된 건 다 자기 탓, 자기가 말을 아끼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탓이라는 거지.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 사람의* 과묵함이든 *누구의* 과묵함이든 이번 일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워. 그러나 리지, 이렇게 근사한 말들을 늘어놓았어도, 그 사람에게 이 일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리라는 것만은 안심하고 믿어도 돼."

"이 모든 일이 정해지자 그 사람은 아직 펨벌리에 머물고 있는 일행에게 돌아갔어. 하지만 결혼식 때 런던에 다시 와서, 그때 돈 문제를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어."

"이제 다 이야기한 것 같구나. 네 말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라고 했는데, 적어도 언짢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리디아는 우리 집에 와 있었고, 위컴은 늘 우리 집에 드나들었어. *위컴은* 내가 하트퍼드셔에서 알던 때와 똑같았어. 그리고 리디아가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애가* 하는 짓이 얼마나 못마땅했는지는 너한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난 수요일에 온 제인의 편지를 보니 집에 가서도 그 애 행동이 꼭 그대로라니,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너를 새삼 아프게 하지는

않겠지. 나는 리디아한테 몇 번이나 아주 진지하게 타이르면서, 그 애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지, 식구들한테 얼마나 큰 불행을 안겼는지 하나하나 일러 주었어. 그 애가 내 말을 들었다면 그건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야. 귀담아듣지 않은 건 틀림없으니까. 때로는 정말 화가 치밀었지만, 그럴 때면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와 제인을 떠올리고 너희를 생각해서 참았어."

"다아시 씨는 약속대로 어김없이 돌아왔고, 리디아가 말했듯이 결혼식에 참석했고, 이튿날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다시 런던을 떠날 예정이었어. 리지, 이 기회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하면(전에는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던 얘기야) 너나한테 많이 화낼 거니? 우리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더비셔에 있을 때처럼 호감이 갔어. 그 사람의 지성도 생각도 다 마음에 들어. 모자란 거라고는 활기가 조금 덜하다는 것뿐인데, *그건* 그 사람이 *현명하게* 결혼한다면 아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아주 능청스럽다고 생각했어. 네 이름은 거의 한 번도 꺼내지 않더라. 하지만 능청이 요즘 유행인가 봐. 내가 너무 주제넘었다면 용서해 주렴. 아니면 적어도 나를 P.[1]에서 빼놓는 벌까지 내리지는 말아 줘. 그 영지를 한 바퀴 다 돌아보기 전에는 나는 결코 온전히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조랑말 두 마리가 끄는 나지막한 포장 없는 경마차라면 딱 좋겠어."

"하지만 이제 그만 써야겠다. 아이들이 30분째 나를 찾고 있거든."

"진심을 담아, M. 가디너."

편지를 읽고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술렁였는데, 그 속에서 기쁨과 괴로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다아시 씨가 동생의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른다는, 확실하지 않아 막연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던 의심이, 너무 큰 선행이라 있을 법하지 않다고 여겨 부추기기를 두려워하던 동시에 신세를 진다는

괴로움 때문에 사실일까 봐 겁내던 그 의심이, 그 가장 큰 짐작조차 넘어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는 일부러 두 사람을 따라 런던까지 갔고, 그런 수소문에 따르는 온갖 수고와 굴욕을 스스로 떠맡았다. 그 일에서는 마땅히 혐오하고 경멸할 수밖에 없는 여자에게 사정해야 했고, 늘 가장 피하고 싶어 하던 남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그에게는 형벌인 그 남자를 만나야 했다. 자주 만나 따지고 설득하고, 끝내는 돈으로 매수까지 해야 했다. 그 모든 일을 그는 존중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는 아가씨를 위해 해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그가 자기를 위해 그 일을 했다고 정말로 속삭였다. 그러나 그 희망은 다른 생각들에 곧 꺾였다. 자기를 향한 그의 애정이, 이미 그를 한 번 거절한 여자를 향한 애정이, 위컴과 인척이 되는 데 대한 그토록 자연스러운 혐오를 이겨 낼 수 있으리라고 믿기에는 자기 허영으로도 모자란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곧 느꼈다. 위컴의 동서라니!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그런 인연에 반발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가 많은 일을 해 준 것은 사실이었다. 얼마나 많은 일인지 생각하면 엘리자베스는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끼어든 까닭을 밝혔고, 그 까닭은 별나게 애써 믿어야 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가 느끼는 것은 마땅했다. 그는 너그러웠고 그 너그러움을 베풀 수단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를 그가 나선 주된 동기로 여기지는 않겠지만, 자기에게 아직 남은 호감이 자기 마음의 평화가 크게 걸린 이 일에서 그의 노력에 힘을 보탰으리라고는 어쩌면 믿을 수 있었다. 보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는 것을 알기란 괴로웠다. 몹시 괴로웠다. 리디아를 되찾은 것도, 리디아의 평판도, 모든 것이 그의 덕이었다. 아,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그에게 품었던 온갖 곱지 않은 감정과 그에게 던졌던 온갖 건방진 말을 얼마나 뼈저리게 뉘우쳤던가! 자신으로서는 굴욕을 느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랑스러웠다. 연민과 명예가 걸린

일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이겨 낼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엘리자베스는 외숙모가 그를 칭찬한 대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것으로는 모자랐지만, 그래도 기뻤다. 외숙모와 외삼촌이 다아시 씨와 자기 사이에 애정과 믿음이 오간다고 얼마나 굳게 믿고 있었는지 알고서, 아쉬움이 섞이기는 했어도 얼마쯤 기쁜 마음이 드는 것까지 엘리자베스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바람에 엘리자베스는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생각에서 깨어났다. 다른 길로 접어들기도 전에 위컴이 엘리자베스를 따라잡았다.

"혼자 산책하시는 걸 방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처형." 위컴이 곁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방해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방해라고 해서 꼭 달갑지 않으란 법은 없지요."

"달갑지 않으시다면 정말 섭섭할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친구였고, 이제는 더 좋은 사이가 됐으니까요."

"그렇지요. 다른 식구들도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장모님하고 리디아는 마차를 타고 메리턴에 간대요. 그런데 처형, 외삼촌 내외분께 들으니 정말로 펨벌리를 보셨다면서요."

엘리자베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즐거움이 거의 부러울 지경이에요.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벅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뉴캐슬 가는 길에 들러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늙은 하녀장도 보셨겠지요? 가엾은 레이놀즈, 늘 저를 무척 아껴 주었는데. 하지만 설마 처형께 제 이름을 꺼내지는 않았겠지요."

"아니요, 꺼냈어요."

"그래서 뭐라던가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만… 잘되지는 못한 것 같아 걱정이라고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이상하게 잘못 전해지기도 하니까요."

"물론이지요." 위컴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이것으로 그의 입을 막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위컴은 곧 다시 말했다.

"지난달에 런던에서 다아시를 보고 놀랐어요. 몇 번이나 마주쳤거든요. 거기서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드 버그 양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이맘때 그곳에 간 걸 보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겠지요. 램턴에 계실 때 그 사람을 보셨어요? 가디너 씨 내외분께 들으니 보셨다는 것 같던데."

"네. 자기 누이동생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 그 아가씨는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많이요."

"사실 이 한두 해 사이에 몰라보게 나아졌다고 듣긴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리 장래가 밝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처형 마음에 드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잘 자라 주면 좋겠네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가장 힘든 나이는 넘겼으니까요."

"킴프턴 마을도 지나가셨어요?"

"지나간 기억은 없네요."

"그 얘기를 꺼낸 건, 거기가 원래 제가 받았어야 할 성직록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목사관도 훌륭하고요! 모든 면에서 저한테 딱 맞았을 텐데."

"설교문 짓는 건 마음에 드셨을까요?"

"아주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제 의무의 일부로 여겼을 테니, 그 정도 수고는 금세 아무것도 아니게 됐겠지요. 불평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이지 저한테는 얼마나 좋은 자리였을까요! 그런 삶의 고요함과 한적함이라면 제가 그리는 행복에 꼭 들어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될 운명이 아니었지요. 켄트에 계실 때 다아시가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도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못지않게* 믿을 만한 데서요. 그 성직록은 조건을 붙여서만, 그리고 지금 후원자의 뜻에 맡겨서 남겨 준 것이라고요."

"들으셨군요! 그래요,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들었어요*. 한때는 설교문 짓는 일이 지금처럼 입맛에 맞지 않으셨다고요. 성직을 받지 않겠다고 실제로 단언하셨고, 그래서 그 일은 그에 맞게 타협을 보았다고요."

"들으셨군요! 그것도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처음 나누었을 때 제가 그 점을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거의 집 문 앞에 와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그를 떼어 내려고 빨리 걸었기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동생을 생각해서 그의 화를 돋우고 싶지 않았으므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만 대답했다.

"자, 위컴 씨, 우리는 이제 한 집안 식구잖아요. 지난 일로 다투지는 말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늘 한마음이기를 바라요."

엘리자베스가 손을 내밀자, 위컴은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거의 몰라 하면서도 다정하고 정중하게 그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1. 펨벌리를 머리글자로만 적었다.

# 제53장

위컴 씨는 이 대화에 아주 흡족했던지,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사랑하는 처형 엘리자베스의 비위를 건드리는 일이 없었고, 엘리자베스는 그의 입을 다물게 할 만큼은 말해 두었다는 것을 알고 기뻤다.

위컴과 리디아가 떠날 날이 곧 다가왔는데, 다 같이 뉴캐슬로 가자는 베넷 부인의 계획에 남편이 도무지 응하지 않았으므로 베넷 부인은 적어도 한 해는 이어질 듯한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 우리 리디아," 베넷 부인이 소리쳤다. "우리 언제 또 만나니?"

"어머, 세상에! 몰라요. 아마 이삼 년은 못 볼걸요."

"편지 자주 해라, 얘야."

"될 수 있는 대로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결혼한 여자는 편지 쓸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언니들이 *나한테* 쓰면 되죠. 언니들은 달리 할 일도 없을 테니까."

위컴 씨의 작별 인사는 아내의 인사보다 훨씬 다정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잘생긴 얼굴을 보이고, 듣기 좋은 말을 잔뜩 늘어놓았다.

"저렇게 훌륭한 녀석은," 두 사람이 집을 나서자마자 베넷 씨가 말했다.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실실 웃고 히죽거리고 우리 모두한테 살갑게 구애를 하니 말이다. 나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자랑스럽다. 윌리엄 루커스 경이라도 이보다 더 값진 사위를 내놓을 수 있거든 어디 내놓아 보라지."

딸을 떠나보낸 베넷 부인은 며칠 동안 몹시 시무룩했다.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베넷 부인이 말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너무 쓸쓸하거든."

"딸을 시집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다른 넷은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 그만큼 더 흡족하셔야겠네요."

"그런 게 아니야. 리디아는 결혼을 해서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저 남편 연대가 하필 그렇게 먼 데 있어서 떠나는 거야. 연대가 더 가까웠더라면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나 이 일로 빠져들었던 시름은 곧 가셨고, 그 무렵 돌기 시작한 소식 하나 덕분에 베넷 부인의 마음은 다시 희망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네더필드의 하녀장이, 하루 이틀 안에 내려와 몇 주 동안 그곳에서 사냥을 할 예정인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베넷 부인은 안절부절못했다. 제인을 쳐다보았다가, 미소를 지었다가, 고개를 저었다가 했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빙리 씨가 내려온단 말이지, 얘." (처음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필립스 부인이었다.) "그래, 그럼 더 잘됐지. 그렇다고 내가 신경 쓰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면 네더필드에 와도 얼마든지 좋지.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하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얘, 우리 오래전에 그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건 확실하니?"

"확실하다니까." 필립스 부인이 대답했다. "어젯밤에 니컬스 부인이 메리턴에 왔거든. 지나가는 걸 보고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나갔지. 그랬더니 틀림없는 사실이래. 늦어도 목요일, 아마 수요일에는

내려올 거래. 수요일에 쓸 고기를 주문하려고 일부러 푸줏간에 가는 길이라더라. 그리고 잡기 딱 좋은 오리를 세 쌍이나 마련해 뒀대."

베넷 양은 빙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고, 엘리자베스에게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은 지 여러 달이 되었지만 이제 둘만 있게 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리지, 오늘 이모가 그 소문을 전할 때 네가 나를 쳐다보는 걸 봤어. 내가 괴로워 보였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무슨 어리석은 까닭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다들 나를 *쳐다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당황했을 뿐이야. 정말이지 그 소식은 기쁘지도 괴롭지도 않아. 한 가지 다행인 건 그 사람이 혼자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덜 보게 될 테니까. *나 자신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겁나."

엘리자베스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더비셔에서 빙리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가 내세운 목적 말고는 다른 뜻 없이 그곳에 올 수도 있으리라고 여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가 여전히 제인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친구의 허락을 *받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허락 없이 올 만큼 대담해진 것인지,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가엾기도 하지." 엘리자베스는 이따금 이렇게 생각했다. "자기가 정당하게 빌린 집에 오는데도 이 온갖 억측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다니! 그 사람 일은 그 사람한테 *맡겨 둘* 거야."

빙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언니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고, 정말로 그것이 자기 마음이라고 믿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기분이 그 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언니의 기분은 엘리자베스가 흔히 보아 온 것보다 더 어지럽고 더 들쭉날쭉했다.

한 해쯤 전에 부모님 사이에서 그토록 열띠게 오갔던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다.

"빙리 씨가 오기만 하면 여보," 베넷 부인이 말했다. "당연히 찾아가 보셔야죠."

"아니, 아니오. 작년에 당신이 억지로 나를 그 사람한테 찾아가게 하면서, 내가 가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우리 딸 하나와 결혼할 거라고 약속했잖소. 그런데 결국 아무 일도 없었으니, 다시는 그런 헛걸음은 하지 않겠소."

아내는 빙리 씨가 네더필드에 돌아오면 이웃 신사들이 모두 그렇게 예를 표하는 것이 얼마나 꼭 필요한 일인지 남편에게 늘어놓았다.

"그건 내가 경멸하는 예법이오." 남편이 말했다. "우리하고 어울리고 싶으면 그 사람이 찾아오라고 하시오. 우리가 어디 사는지는 그 사람도 아니까. 이웃이 떠났다 돌아올 때마다 쫓아다니느라 *내* 시간을 쓰지는 않겠소."

"글쎄, 내가 아는 건 당신이 찾아가지 않으면 지독하게 무례한 일이 된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저녁에 초대하지 못할 건 없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곧 롱 부인하고 굴딩 집안 사람들을 불러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식구까지 열셋이니까 식탁에 그 사람 자리가 딱 하나 남아요."

베넷 부인은 이렇게 마음먹고 나니 위안이 되어 남편의 무례함을 그나마 견딜 수 있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웃들이 모두 *자기네보다* 먼저 빙리 씨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몹시 분했다. 빙리 씨가 도착할 날이 가까워졌을 때였다.

"그 사람이 아예 오지 않았으면 싶어지기 시작했어." 제인이 동생에게 말했다. "그 사람을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듣는 건 견디기가 힘들어. 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그러시지만, 어머니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셔. 누구도 알 수 없을 거야. 그 사람이 네더필드에 머무는 게 끝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언니를 위로할 말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어. 언니는 괴로울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참으라고 설교하는 흔한 재미도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아. 언니는 늘 참을성이 그렇게 많으니까."

빙리 씨가 왔다. 베넷 부인은 걱정하고 조바심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대로 길어지도록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누구보다 먼저 그 소식을 들었다. 베넷 부인은 초대장을 보낼 수 있을 때까지 남은 날을 손꼽아 세었다. 그 전에 그를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버렸다. 그런데 빙리가 하트퍼드셔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베넷 부인은 옷 방 창문으로 그가 방목장에 들어서서 말을 타고 집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베넷 부인은 함께 기뻐하자며 딸들을 다급하게 불렀다. 제인은 단호하게 식탁 앞 제자리를 지켰지만,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만족시키려고 창가로 갔다. 그리고 내다보았다. 다아시 씨가 함께 오는 것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언니 곁에 가서 앉았다.

"빙리 씨하고 같이 오는 신사가 있어요, 어머니." 키티가 말했다. "누구일까요?"

"아마 아는 사람이겠지, 얘. 난 정말 모르겠다."

"어머!" 키티가 대답했다. "전에 늘 빙리 씨하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 같아요. 그 뭐더라, 그 키 크고 거만한 사람."

"어머나! 다아시 씨잖아! 정말 그렇네. 그래, 빙리 씨 친구라면야 누구든 언제나 환영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제인은 놀라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다. 제인은 두 사람이 더비셔에서 만난 일을 잘 몰랐으므로, 해명하는 편지를 받은 뒤로 거의 처음 그를 마주하게 된 동생이 얼마나 거북할지를 헤아렸다. 두 자매는 둘 다 마음이 꽤 불편했다. 저마다 상대를 위해, 그리고 물론 자기를 위해 마음을 졸였다. 어머니는 다아시 씨가 싫다는 둥, 빙리 씨 친구이니 예의를 차려 주기는 하겠지만 그뿐이라는 둥 계속 떠들었지만, 두 사람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에게는 제인이 아직 짐작할 수 없는 불안의 씨앗이 있었으니, 엘리자베스는 가디너 부인의 편지를 제인에게 보여 줄 용기도, 그에 대한 자기 마음이 달라졌다고 털어놓을 용기도 아직 내지 못했다. 제인에게 그는 동생이 청혼을 거절했고 그 장점을 낮게 보았던 남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아는 엘리자베스에게 그는 온 식구가 더없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엘리자베스 자신도 제인이 빙리에게 품은 마음만큼 다정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만큼 분별 있고 정당한 관심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가 왔다는 것, 네더필드에, 롱번에 와서 스스로 자기를 다시 찾는다는 것에 엘리자베스는 더비셔에서 처음 그의 달라진 행동을 보았을 때만큼이나 놀랐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서 가셨던 핏기가 30초 동안 더 붉게 달아올라 돌아왔고, 그 짧은 동안 그의 애정과 바람이 여전히 흔들림 없으리라고 생각하자 기쁨의 미소가 두 눈을 더욱 빛나게 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믿고 마음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엘리자베스가 혼잣말을 했다. "기대는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엘리자베스는 차분해지려고 애쓰며 고개도 감히 들지 못한 채 바느질에만 열중하고 앉아 있다가, 하인이 문으로 다가올 무렵 애타는 호기심에 끌려 언니의 얼굴로 눈을 들었다. 제인은 여느 때보다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엘리자베스가 짐작했던 것보다는 차분했다. 신사들이 나타나자 제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도 그런대로 봐줄 만큼 편안하게 두 사람을 맞았고, 원망의 기색도 쓸데없는 비위 맞추기도 없는 반듯한 몸가짐을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 누구에게든 예의가 허락하는 만큼만 말하고 다시 앉아 바느질을 했는데, 바느질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를 딱 한 번 흘끗 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진지한 얼굴이었고,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펨벌리에서 본 모습보다는 하트퍼드셔에서 늘 보던 모습에 더 가까웠다. 그러나 어쩌면 어머니 앞에서는 외삼촌과 외숙모 앞에서처럼 굴 수 없었을지도 몰랐다. 괴로운 짐작이었지만, 있을 법하지 않은 짐작은 아니었다.

빙리도 잠깐 보았는데, 그 짧은 사이에 빙리는 기쁘면서도 쑥스러운 얼굴이었다. 베넷 부인은 두 딸이 부끄러울 만큼 정중하게 빙리를 맞았는데, 그의 친구에게 하는 차갑고 격식만 차린 인사와 말투에 견주면 더욱 그랬다.

특히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딸이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면한 것이 바로 그 친구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토록 엉뚱하게 대접을 가르는 것을 보고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

다아시는 가디너 씨 부부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엘리자베스에게 물었는데, 엘리자베스는 그 물음에 당황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엘리자베스 곁에 앉지 않았으니 어쩌면 그래서 말이 없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더비셔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거기서는 엘리자베스와 이야기할 수 없을 때면 엘리자베스의 일행과라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몇 분이 지나도록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따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그의 얼굴로 눈을 들 때면,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기만큼이나 자주 제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리고 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때가 많은 것을 보았다.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생각에 잠긴 기색은 짙고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애씀은 덜하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났다. 엘리자베스는 실망했고, 실망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달리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왔을까?"

엘리자베스는 그 사람 말고는 누구와도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었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는 말을 건넬 용기가 거의 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누이동생 안부를 물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었다.

"빙리 씨, 떠나신 지 정말 오래됐네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빙리는 선선히 그렇다고 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려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미카엘 축일에 이곳을 아주 떠나실 생각이라고들 정말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떠나신 뒤로 이 근방에 큰 변화가 많았어요. 루커스 양은 결혼해서 자리를 잡았고, 제 딸 하나도 그렇게 됐답니다. 들으셨겠지요. 아니, 신문에서 보셨겠네요. 『타임스』하고 『쿠리어』에 났거든요. 마땅히 실려야 할 대로 실리지는 않았지만요. 그저 '최근, 조지 위컴 씨, 리디아 베넷 양과 결혼'이라고만 나고, 그 애 아버지 이름이며 그 애가 살던 곳이며 아무것도 한 글자 없었어요. 그것도 제 동생 가디너가 쓴 건데, 어쩌다 그렇게 어설프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빙리는 보았다고 대답하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는 감히 눈을 들 수 없었다. 그래서 다아시 씨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딸을 좋은 데 시집보내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요."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빙리 씨, 그 애를 이렇게 빼앗기고 나니 정말 힘들어요. 두 사람은 뉴캐슬로 내려갔어요. 꽤 북쪽에 있는 곳인가 봐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오래 머물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연대가 거기 있거든요. ○ ○ 셔 연대를 떠나서 정규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으셨겠지요. 하늘에 감사할 일이지요! 그 사람한테도 친구가 몇은 있거든요. 마땅히 있어야 할 만큼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요."

그 말이 다아시 씨를 겨냥한 것임을 아는 엘리자베스는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서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다른 무엇으로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던 일, 곧 애써 입을 여는 일을 그 말이 끌어내어, 엘리자베스는 빙리에게 이번에는 시골에 얼마나 머물 생각이냐고 물었다. 빙리는 몇 주쯤 머물 것 같다고 했다.

"빙리 씨네 사냥터의 새를 다 잡으시거든," 어머니가 말했다. "부디 이리 오셔서 베넷 씨 사냥터에서 마음껏 사냥하세요. 그이도 기꺼이 그렇게 해 드릴 거고, 제일 좋은 새 떼는 다 빙리 씨를 위해 남겨 둘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주제넘은 친절에 엘리자베스는 더욱 괴로웠다! 1년 전 그들을 들뜨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밝은 앞날이 지금 다시 펼쳐진다 해도, 모든 것이 그때와 똑같이 속상한 결말로 서둘러 치달으리라고 엘리자베스는 확신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괴롭고 당혹스러운 순간들은 몇 해의 행복으로도 제인에게나 자기에게나 보상할 수 없으리라고 느꼈다.

"내 마음의 첫째 소원은,"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말했다. "다시는 그 두 사람 누구하고도 한자리에 있지 않는 거야. 두 사람과 어울려 봐야 이런 비참함을 보상해 줄 즐거움은 하나도 없어! 둘 중 누구도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를!"

그러나 몇 해의 행복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그 비참함은, 언니의 아름다움이 예전에 언니를 사랑했던 남자의 찬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곧 크게 누그러졌다. 처음 들어왔을 때 빙리는 제인에게 말을 거의 건네지 않았지만, 5분이 지날 때마다 제인에게 더 많이 마음을 쓰는 것 같았는데, 빙리가 보기에 제인은 작년만큼 아름다웠고, 그만큼 상냥하고 꾸밈이 없었다. 다만 말수가 그만큼 많지는 않았다. 제인은 자기에게서 달라진 데가 조금도 보이지 않기를 바랐고, 정말로 여느 때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마음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자기가 말없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신사들이 돌아가려고 일어서자 베넷 부인은 미리 마음먹었던 예의를 잊지 않았고, 두 사람은 며칠 뒤 롱번에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초대를 받고 그러기로 약속했다.

"빙리 씨는 저희 집에 방문을 한 번 빚지셨어요." 베넷 부인이 덧붙였다. "지난겨울 런던에 가실 때, 돌아오시는 대로 저희 식구끼리 먹는 저녁 자리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시다시피 저는 잊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돌아오셔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으니,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빙리는 그 핀잔에 조금 멋쩍은 얼굴이 되어, 일 때문에 오지 못해 유감이었다는 말을 몇 마디 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돌아갔다.

베넷 부인은 그날 당장 두 사람을 붙잡아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늘 식탁을 넉넉히 차리는 집이기는 해도, 그토록 애타게 공을 들이는 남자에게는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상을 내는 정찬이 아니면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았고, 1년에 10,000파운드를 버는 사람의 입맛과 자존심을 채우기에도 모자랄 것 같았다.

# 제54장

두 사람이 돌아가자마자 엘리자베스는 기분을 추스르려고, 다른 말로 하면 기분을 더 가라앉힐 수밖에 없는 일들을 아무 방해 없이 곱씹으려고 밖으로 나갔다. 다아시 씨의 태도에 엘리자베스는 놀랐고 속이 상했다.

"말없이, 심각하게, 무심하게 있으려고만 왔다면," 엘리자베스는 중얼거렸다. "대체 왜 온 걸까?"

어떻게 따져 보아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답은 나오지 않았다.

"런던에 있을 때는 외삼촌하고 외숙모한테 여전히 상냥하고 여전히 호감 가게 굴 수 있었으면서, 나한테는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두렵다면 여기는 왜 와? 이제 나한테 마음이 없다면 왜 말이 없어? 정말 애태우는, 애만 태우는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 생각은 더 안 할 거야."

그 결심은 언니가 다가오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잠시나마 지켜졌다. 밝은 얼굴로 다가와 곁에 선 제인은, 그 얼굴만 보아도 오늘 찾아온 손님들에게 엘리자베스보다 훨씬 흡족해하는 것이 훤히 드러났다.

"이제," 제인이 말했다. "첫 만남이 끝났으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 나는 내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 이제 그분이 와도 다시는 당황하지 않을 거야. 화요일에 그분이 여기서 저녁을 드신다니 다행이야. 그날이면 우리 두 사람이 어느 쪽이든 그저 예사롭고 데면데면한 아는 사이로 만날 뿐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다들 보게 될 테니까."

"그래, 아주아주 데면데면한 사이겠지."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다. "아, 언니! 조심해."

"리지, 설마 내가 지금도 위험할 만큼 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보기엔 언니가 그분을 예전만큼 언니한테 푹 빠지게 만들 위험이 아주 커."

자매는 화요일까지 그 신사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사이 베넷 부인은, 빙리가 30분 남짓 다녀가며 보여 준 쾌활함과 그저 예사로운 예의만으로 되살아난 온갖 행복한 계획에 날마다 마음껏 빠져 있었다.

화요일에 롱번에는 손님이 많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애타게 기다려진 두 사람은 사냥하는 신사들답게 시간을 잘 지켜 아주 넉넉히 일찍 도착했다. 다들 식당으로 옮겨 갈 때, 엘리자베스는 예전의 모임마다 빙리의 자리였던 언니 곁 자리에 빙리가 다시 앉을지 눈여겨 지켜보았다. 같은 생각에 골몰해 있던 신중한 어머니는 빙리에게 자기 옆에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방에 들어서면서 빙리는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마침 제인이 돌아보았고, 마침 미소를 지었다. 그것으로 정해졌다. 빙리는 제인 곁에 앉았다.

엘리자베스는 이겼다는 기분으로 그의 친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 친구는 의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것을 견뎠다. 빙리 역시 반쯤 웃음이 섞인 겁먹은 눈길로 다아시 씨 쪽을 돌아보는 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엘리자베스는 빙리가 행복해져도 좋다는 친구의 재가를 이미 받아 두었다고 여겼을 것이다.

저녁 식사 내내 빙리가 언니를 대하는 태도에는 흠모하는 마음이 드러났다. 예전보다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그것을 보고 엘리자베스는 빙리를 온전히 제 뜻에만 맡겨 둔다면 제인의 행복도 빙리 자신의 행복도 곧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했다. 그 결과를 감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빙리의 태도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기분이 영 밝지 않았으니 엘리자베스가 그날 낼 수 있는 기운은 그것이 전부였다. 다아시 씨는 식탁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는 한 거의 가장 먼 자리, 그러니까 어머니의 한쪽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 자리가 두 사람 누구에게도 즐거울 리 없고 어느 쪽도 돋보이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잘 알았다. 너무 멀어서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얼마나 드물게 하는지,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딱딱하고 차가운지는 볼 수 있었다. 어머니가 쌀쌀맞게 구는 것을 보니 식구들이 그에게 진 빚이 떠올라 엘리자베스는 더 괴로웠다. 그래서 그의 친절을 온 식구가 모르지도 않고 무심히 넘기지도 않는다고 그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만 얻을 수 있다면, 때로는 무엇이든 내주고 싶었다.

엘리자베스는 저녁 시간에 두 사람이 가까워질 기회가 생기기를 바랐다. 이번 방문이, 그가 들어올 때 오간 형식적인 인사 말고는 이야기다운 이야기를 조금도 더 나누지 못한 채 그대로 다 지나가 버리지는 않기를 바랐다. 신사들이 오기 전까지 응접실에서 보낸 시간은 불안하고 초조한 엘리자베스에게 하도 지루하고 따분해서, 하마터면 무례하게 굴 뻔했다. 엘리자베스는 신사들이 들어올 순간만 고대했다. 그날 저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모두 그 순간에 달려 있었다.

"*그때도* 나한테 오지 않으면," 엘리자베스는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영영 단념할 거야."

신사들이 들어왔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기 바람에 응해 줄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아! 베넷 양이 차를 끓이고 엘리자베스가 커피를 따르는 탁자 둘레에 숙녀들이 바짝 몰려들어 어찌나 단단히 한패를 이루었는지, 엘리자베스 곁에는 의자 하나 들어갈 틈도 없었다.

게다가 신사들이 다가오자 아가씨들 가운데 하나가 엘리자베스에게 더 바싹 붙어 앉으며 속삭였다.

"남자들이 와서 우리를 떼어 놓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남자는 아무도 필요 없죠, 안 그래요?"

다아시는 방의 다른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엘리자베스는 눈으로 그를 좇으며 그가 말을 건네는 사람이면 누구든 부러워했고, 누구에게 커피 한 잔 따라 줄 참을성마저 거의 바닥나 있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그렇게 어리석다는 데 화가 치밀었다!

"한 번 거절당한 남자야! 그 사람의 사랑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다니, 내가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지? 같은 여자에게 두 번 청혼하는 그런 나약함에 펄쩍 뛰지 않을 남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남자들한테 그보다 더 끔찍한 굴욕은 없을 텐데."

그래도 그가 다 마신 커피잔을 손수 돌려주러 오자 엘리자베스는 조금 기운이 났고, 그 기회를 붙잡아 말을 건넸다.

"누이동생분은 아직 펨벌리에 계세요?"

"네. 크리스마스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혼자서요? 친구분들은 다 떠났고요?"

"앤슬리 부인이 같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3주 전에 스카버러로 떠났고요."

엘리자베스는 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엘리자베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면 그 사람 쪽은 더 잘 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몇 분 동안 말없이 엘리자베스 곁에 서 있다가, 그 아가씨가 엘리자베스에게 또 속삭이자 결국 자리를 떴다.

찻그릇이 치워지고 카드 탁자가 놓이자 숙녀들이 모두 일어났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곧 그가 곁에 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휘스트 칠 사람을 찾는 어머니의 탐욕에 그가 희생되어 잠시 뒤 다른 사람들과 한

탁자에 앉는 것을 보고 그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 이제 즐거움을 누리리라는 기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내내 서로 다른 탁자에 붙들려 있었다. 엘리자베스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그의 눈길이 자꾸 방 이쪽으로 향하는 바람에 그도 자기만큼이나 카드를 형편없이 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다.

베넷 부인은 네더필드의 두 신사를 밤참까지 붙잡아 둘 작정이었다. 그러나 운 나쁘게도 두 사람의 마차가 누구보다 먼저 불려 오는 바람에 붙잡을 틈이 없었다.

"자, 얘들아," 식구끼리만 남자마자 베넷 부인이 말했다. "오늘 어땠니? 내 생각엔 모든 게 유난히 잘 풀렸어, 정말이야. 저녁 요리는 내가 여태 본 어느 상 못지않게 잘 차려졌어. 사슴 고기는 딱 알맞게 구워졌고, 다들 그렇게 기름진 넓적다리는 처음 본다고 했어. 수프는 지난주 루커스 댁에서 먹은 것보다 쉰 배는 나았지. 다아시 씨까지 자고새 요리가 아주 잘됐다고 인정하더라. 그 집엔 프랑스 요리사가 적어도 두셋은 있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제인, 너 오늘처럼 예뻐 보인 적이 없었어. 롱 부인도 그러더라. 내가 그렇지 않으냐고 물어봤거든. 그런데 롱 부인이 또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 베넷 부인, 이제 드디어 따님이 네더필드로 가겠네요!'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니까. 롱 부인은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사람이야. 그 집 조카딸들도 아주 얌전하게 구는 아가씨들이고, 얼굴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 난 그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

요컨대 베넷 부인은 기분이 아주 좋았다. 빙리가 제인을 대하는 태도를 볼 만큼 보았으니 마침내 그를 사위로 얻으리라고 확신했다. 기분이 좋을 때면 베넷 부인이 집안에 돌아올 이득을 기대하는 마음은 이성을 한참 넘어섰으므로, 이튿날 빙리가 청혼하러 다시 오지 않자 몹시 실망했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 베넷 양이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손님들도 참 잘 골라 모신 것 같고, 서로 잘 어울렸어. 앞으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었다.

"리지, 그러면 안 돼. 날 의심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속상해. 정말이야, 이제 나는 그분을 그저 호감 가고 분별 있는 젊은이로 여기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길 줄 알게 되었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지금 그분 태도를 보니 처음부터 내 애정을 얻으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 그저 그분이 다른 어떤 남자보다 말씨와 몸가짐이 다정하고,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클 뿐이야."

"언니는 정말 잔인해." 동생이 말했다. "웃지도 못하게 하면서, 매 순간 웃음이 나게 만들잖아."

"어떤 때는 남이 믿어 주게 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불가능하지!"

"그런데 너는 왜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느낀다고 나를 설득하려는 거야?"

"그건 나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다들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가르칠 수 있는 건 알 가치도 없는 것뿐인데도. 용서해 줘. 그리고 언니가 끝까지 무심하다고 우기겠다면, *나한테*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마."

# 제55장

그 방문이 있고 며칠 뒤, 빙리 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친구는 그날 아침 그를 남겨 두고 런던으로 떠났는데, 열흘 뒤에는 돌아올 예정이었다. 빙리는 한 시간 넘게 앉아 있었고 기분이 유난히 좋았는데, 베넷 부인이 저녁을 먹고 가라고 청하자 정말 아쉽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며 다른 곳에 선약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다음에 오실 때는," 베넷 부인이 말했다. "저희한테 운이 좀 더 따랐으면 좋겠네요."

언제 찾아뵙든 더없이 기쁘겠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늘어놓은 뒤, 부인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머잖아 기회를 잡아 꼭 찾아뵙겠다고 빙리는 대답했다.

"내일 오실 수 있어요?"

물론이었다. 내일은 아무 약속도 없었다. 빙리는 그 초대를 냉큼 받아들였다.

빙리는 왔다. 그것도 어찌나 일찍 왔는지 숙녀들 가운데 옷을 다 차려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베넷 부인은 실내복 차림에 머리도 반밖에 손질하지 못한 채 딸들 방으로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다.

"제인, 얼른, 서둘러 내려가거라. 그분이 오셨어. 빙리 씨가 오셨단다. 정말로 오셨어. 어서, 어서. 세라, 이리 와서 당장 베넷 양 옷 입는 것 좀 거들어라. 리지 아가씨 머리는 내버려 두고."

"되도록 빨리 내려갈게요." 제인이 말했다. "그런데 키티가 저희 둘보다는 훨씬 앞서 있을 거예요. 30분 전에 위층으로 올라갔거든요."

"아이고! 키티는 무슨 키티! 걔가 이 일하고 무슨 상관이니? 자, 빨리, 빨리! 얘야, 네 허리띠는 어디 있니?"

그러나 어머니가 방을 나가고 나자, 제인은 동생 가운데 하나가 함께 가 주지 않으면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두 사람만 따로 있게 하려는 그 조바심은 저녁에 또다시 드러났다. 차를 마신 뒤 베넷 씨는 늘 하던 대로 서재로 물러갔고, 메리는 피아노를 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다섯 가지 걸림돌 가운데 둘이 치워지자, 베넷 부인은 엘리자베스와 키티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눈짓을 보냈지만 두 딸에게는 아무 효과도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눈짓을 못 본 척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것을 알아챈 키티가 아주 천진하게 물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자꾸 저한테 눈짓을 하세요?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얘야, 아무것도. 너한테 눈짓한 적 없어." 베넷 부인은 그러고 나서 5분을 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귀한 기회를 허비할 수는 없었기에 갑자기 일어서며 키티에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얘야, 할 말이 있어." 그러고는 키티를 데리고 방을 나갔다. 제인은 곧바로 엘리자베스에게 눈길을 보냈는데, 그 눈길에는 이렇게 미리 꾸민 일이 괴롭다는 뜻과 *너만은* 거기 넘어가지 말아 달라는 간청이 담겨 있었다. 몇 분 뒤 베넷 부인이 문을 반쯤 열고 불렀다.

"리지, 얘야, 너하고도 할 얘기가 있구나."

엘리자베스는 나갈 수밖에 없었다.

"저 두 사람끼리 있게 두는 게 낫잖니, 안 그래?" 엘리자베스가 복도로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말했다. "키티하고 나는 위층 내 방에 올라가 앉아 있을 거야."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말로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와 키티가 계단 위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복도에 가만히 서 있다가 응접실로 돌아갔다.

그날 베넷 부인의 계획은 헛수고로 끝났다. 빙리는 모든 면에서 매력적이었다. 딸의 연인이라고 공언하지 않았다는 것만 빼면. 빙리가 편안하고 쾌활하게 굴어 준 덕분에 그날 저녁 모임은 더없이 즐거웠다. 게다가 빙리는 어머니의 분별없는 참견을 참아 주었고, 어머니의 어리석은 말을 모두 들으면서도 꾹 참고 얼굴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는데, 그 딸은 그것이 특히 고마웠다.

빙리에게는 밤참까지 들고 가라는 청이 거의 필요 없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는, 주로 빙리 자신과 베넷 부인이 애쓴 덕분에, 이튿날 아침 빙리가 다시 와서 베넷 씨와 함께 사냥을 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다.

이날 이후로 제인은 자기가 무심하다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다. 자매 사이에 빙리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말한 날짜 안에 돌아오지만 않는다면 모든 일이 곧 매듭지어지리라는 행복한 믿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이 그 신사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으리라고 엘리자베스는 제법 확신하고 있었다.

빙리는 약속을 지켰다. 빙리와 베넷 씨는 약속한 대로 아침나절을 함께 보냈다. 베넷 씨는 빙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빙리에게는 베넷 씨의 조롱을 부르거나 질려서 입을 다물게 할 만한 주제넘음이나 어리석음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베넷 씨는 빙리가 여태 본 어느 때보다도 말이 많았고 덜 괴팍했다. 빙리는 당연히 베넷

씨와 함께 돌아와 저녁을 먹었고, 저녁이 되자 모두를 빙리와 딸에게서 떼어 놓으려는 베넷 부인의 궁리가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편지를 써야 했던 엘리자베스는 차를 마시고 얼마 안 되어 그 일을 하러 아침 식사실로 갔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카드놀이를 하려고 자리를 잡던 참이라, 엘리자베스가 어머니의 계획을 막으러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편지를 다 쓰고 응접실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꾀가 자기보다 한 수 위였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 만한 광경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랐다. 문을 열자 언니와 빙리가 벽난로 앞에 나란히 서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만으로는 의심이 들지 않았더라도, 황급히 돌아서며 서로 떨어지는 두 사람의 얼굴만으로도 모든 것이 드러났을 터였다. *두 사람의* 처지도 어색하기 그지없었지만, *자기* 처지는 그보다 더 나쁘다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어느 쪽에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엘리자베스가 다시 나가려던 참에 언니처럼 자리에 앉아 있던 빙리가 갑자기 일어나 제인에게 몇 마디 속삭이고는 방을 뛰쳐나갔다.

털어놓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제인은 엘리자베스에게 아무것도 감출 수 없었다. 제인은 곧바로 동생을 끌어안고, 더없이 벅찬 목소리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털어놓았다.

"너무 과분해!" 제인이 덧붙였다. "너무너무 과분해.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아, 왜 모두가 이만큼 행복하지 않은 걸까?"

엘리자베스는 말로는 도무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심으로, 따뜻하게,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인에게는 새로운 행복의 샘이었다. 그러나 제인은 지금은 동생 곁에 더 머물지도, 남은 이야기의 반도 하지 않으려 했다.

"당장 어머니한테 가야 해." 제인이 힘주어 말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애정을 담아 마음 써 주시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서 이 소식을 들으시게 할 수도 없어. 그이는 벌써 아버지한테 갔어. 아, 리지, 내가 전할 이야기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를 그렇게 기쁘게 할 거라니! 이 많은 행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고는 서둘러 어머니에게 갔다. 베넷 부인은 일부러 카드놀이 판을 깨고 키티와 함께 위층에 앉아 있었다.

혼자 남은 엘리자베스는, 여러 달 동안 식구들을 그토록 애태우고 속 끓이게 한 일이 마침내 이렇게 빠르고 쉽게 매듭지어진 것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자베스는 중얼거렸다. "그 친구의 그 모든 조심스러운 신중함의 끝이구나! 그 누이의 그 모든 거짓과 술책의 끝이구나! 가장 행복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합당한 끝!"

몇 분 뒤 빙리가 엘리자베스에게로 왔다. 베넷 씨와 나눈 이야기는 짧았고 요점만 오갔다.

"언니분은 어디 계세요?" 문을 열면서 빙리가 서둘러 물었다.

"어머니하고 위층에 있어요. 곧 내려올 거예요."

그러자 빙리는 문을 닫고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이제 동생이 될 사람으로서 축하와 애정을 보내 달라고 청했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한 식구가 되리라는 것이 기쁘다고 정직하게, 진심으로 말했고,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언니가 내려올 때까지 엘리자베스는 빙리가 자기 행복이며 제인의 완벽함에 대해 하는 말을 모두 들어 주어야 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말인데도, 엘리자베스는 행복에 대한 빙리의 기대가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다고 정말로 믿었다. 그 기대의 바탕에는 제인의 뛰어난 분별과

더없이 뛰어난 성품이 있었고, 제인과 빙리 사이에 두루 통하는 감정과 취향이 있었다.

그날 저녁은 모두에게 예사롭지 않은 기쁨의 저녁이었다. 베넷 양은 마음이 흡족해서 얼굴에 달콤한 생기가 환히 피어올라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키티는 배시시 웃고 또 웃으며 자기 차례도 곧 오기를 바랐다. 베넷 부인은 30분 동안 빙리에게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에 찰 만큼 뜨거운 말로 승낙을 하거나 찬성을 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밤참 자리에 함께한 베넷 씨의 목소리와 태도에는 정말로 얼마나 기쁜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베넷 씨는 손님이 그날 밤 작별 인사를 하고 갈 때까지 그 일을 넌지시라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다 빙리가 떠나자마자 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제인, 축하한다. 너는 아주 행복한 여자가 될 거다."

제인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그 다정함에 고맙다고 말했다.

"너는 착한 아이야." 베넷 씨가 대답했다.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쁘구나. 너희 둘이 아주 잘 지내리라는 데는 의심이 없다. 너희는 성미가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까. 너희는 둘 다 남의 뜻을 어찌나 잘 따르는지 무슨 일이든 결정이 날 리가 없고, 어찌나 무던한지 하인이라는 하인은 다 너희를 속일 테고, 어찌나 너그러운지 늘 수입보다 더 쓰게 될 거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돈 문제에서 경솔하거나 생각 없이 구는 건 *저*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수입보다 더 쓰다니요! 여보," 베넷 부인이 소리쳤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1년에 4,000~5,000파운드를 버는걸요. 아마 그보다 더 될 거예요." 그러고는 딸에게 말했다. "아, 제인, 우리

제인, 나는 정말 행복하다! 오늘 밤에는 한숨도 못 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늘 말했잖니. 네가 괜히 그렇게 아름다울 리가 없다고 확신했어! 생각나는구나, 그분이 작년에 하트퍼드셔에 처음 왔을 때 그분을 보자마자 너희 둘이 맺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지. 아, 그분은 세상에 둘도 없이 잘생긴 젊은이야!"

위컴도 리디아도 모두 잊혔다. 제인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이 가장 귀여운 자식이 되었다. 그 순간 베넷 부인에게는 다른 자식은 안중에도 없었다. 동생들은 곧 제인이 앞으로 베풀 수 있을 행복의 몫을 얻어 내려고 언니에게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메리는 네더필드의 서재를 쓰게 해 달라고 청했고, 키티는 겨울마다 그곳에서 무도회를 몇 번 열어 달라고 몹시 졸라 댔다.

이때부터 빙리는 당연히 날마다 롱번을 찾아왔다. 아침 식사 전에 오는 일도 잦았고, 언제나 밤참이 끝날 때까지 머물렀다. 아무리 미워해도 모자랄 어느 몰인정한 이웃이 빙리를 저녁에 초대하는 바람에, 빙리가 차마 거절할 수 없다고 여길 때만 빼고는 말이다.

빙리가 곁에 있는 동안에는 제인이 다른 누구에게도 눈길을 줄 겨를이 없었으므로, 엘리자베스는 이제 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틈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따금 두 사람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에는 엘리자베스가 두 사람 모두에게 꽤 쓸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인이 없을 때 빙리는 제인 이야기를 하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늘 엘리자베스 곁에 붙어 있었고, 빙리가 가고 나면 제인도 늘 그렇게 마음을 달랬다.

"그이 말을 듣고 나 정말 행복했어." 어느 날 저녁 제인이 말했다. "지난봄에 내가 런던에 있었다는 걸 그이는 전혀 몰랐대!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

"나는 그럴 거라고 짐작했어."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걸 어떻게 설명했어?"

"그이 누이들이 한 일이 틀림없어. 그 사람들은 분명 그이가 나랑 가까이 지내는 걸 반기지 않았어. 그럴 만도 하지. 그이는 여러 면에서 훨씬 나은 혼처를 고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이가 나랑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믿지만, 그 사람들도 만족하는 법을 배울 테고 우리도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될 거야. 예전 같은 사이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겠지만."

"언니가 하는 말 중에 그렇게 용서 없는 말은 처음 들어봐."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잘했어! 언니가 또다시 빙리 양의 거짓 호의에 넘어가는 걸 본다면 정말 속상할 거야."

"리지, 믿어지니? 그이가 지난 11월에 런던에 갔을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내가* 무심하다고 믿지만 않았다면 틀림없이 다시 내려왔을 거래."

"그분이 작은 실수를 한 건 맞아. 그래도 그건 겸손한 사람이라는 증거지."

그러자 자연히 제인은 빙리가 얼마나 숫기 없는 사람인지, 자기 장점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지 한바탕 칭송을 늘어놓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빙리가 친구의 간섭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기뻤다. 제인이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잘 용서하는 마음을 지녔다 해도, 그 일을 알면 다아시에게 편견을 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분명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운 좋은 사람이야!" 제인이 힘주어 말했다. "아, 리지, 왜 식구들 가운데 나만 이렇게 골라 뽑혀서 누구보다 큰 복을 받는 걸까? 너도 이만큼 행복한 걸 볼 수만 있다면! 너한테도 그런 남자가 또 한 사람 있다면!"

"그런 남자를 마흔 명 준다 해도 나는 절대 언니만큼 행복할 수 없어. 언니의 성품, 언니의 착한 마음을 갖기 전에는 언니의 행복도 가질 수 없어. 아니, 아니,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아주 운이 좋으면, 언젠가는 콜린스 씨 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날지도 모르지."

롱번 집안의 이 일은 오래 비밀로 남을 수 없었다. 베넷 부인은 필립스 부인에게 그 소식을 귓속말로 전하는 특권을 누렸고, 필립스 부인은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메리턴의 이웃 모두에게 감히 똑같이 귓속말을 했다.

베넷 집안은 곧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집안이라는 평을 들었다. 불과 몇 주 전 리디아가 처음 달아났을 때만 해도 불행을 타고난 집안이라는 것이 두루 증명되었는데도 말이다.

# 제56장

빙리와 제인이 약혼한 지 한 주쯤 지난 어느 아침, 빙리가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차 소리가 나서 모두의 눈길이 창 쪽으로 쏠렸고, 내다보니 네 필이 끄는 경마차 한 대가 잔디밭 사이로 올라오고 있었다. 손님이 찾아오기에는 너무 이른 아침이었고, 게다가 그 마차의 차림새는 이웃 어느 집 것과도 맞지 않았으니, 말은 역마였고 마차도 마차보다 앞서 달려온 하인의 제복도 낯설었다. 그래도 누가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으므로, 빙리는 그런 불청객 때문에 갇혀 있지 말고 자기와 함께 관목 숲길로 걸어 나가자고 곧바로 베넷 양을 설득했다. 두 사람은 나갔고, 남은 세 사람은 이렇다 할 답도 얻지 못한 채 계속 짐작만 해 보다가 문이 활짝 열리며 손님이 들어섰다.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었다.

물론 다들 놀랄 채비는 하고 있었다. 그러나 놀라움은 예상을 훨씬 넘었고, 베넷 부인과 키티는 영부인을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두 사람의 놀라움은 엘리자베스가 느낀 놀라움에 오히려 미치지 못했다.

영부인은 여느 때보다 더 무뚝뚝한 기색으로 방에 들어와, 엘리자베스의 인사에는 고개를 살짝 숙여 보였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았다. 소개해 달라는 청은 없었지만, 영부인이 들어설 때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에게 그 이름을 일러 주었다.

베넷 부인은 어리둥절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토록 대단한 손님을 맞았다는 데 우쭐해서 더없이 공손하게 영부인을 맞아들였고, 영부인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엘리자베스에게 몹시 딱딱하게 말했다.

"잘 지냈으리라 믿소, 베넷 양. 저 부인이 어머니인 모양이오?"

엘리자베스는 그렇다고 아주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 아가씨는 동생 가운데 하나인 모양이고?"

"네, 영부인." 캐서린 영부인 같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쁜 베넷 부인이 말했다. "막내 바로 위 딸입니다. 막내는 얼마 전에 시집을 갔고, 맏이는 지금 이 근처 어디선가 젊은 남자분하고 산책하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머잖아 저희 식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집 영지는 아주 작구려." 잠시 말이 없다가 캐서린 영부인이 받았다.

"로징스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 영부인. 그래도 윌리엄 루커스 경 댁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름날 저녁에는 이 거실이 아주 불편하겠소. 창이 정서향이니."

베넷 부인은 저녁 식사 뒤에는 이 방에 절대 앉지 않는다고 영부인을 안심시키고 나서 덧붙였다.

"외람되지만 영부인께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콜린스 씨 부부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소, 아주 잘 있소. 그저께 밤에 보았소."

엘리자베스는 영부인이 이렇게 찾아온 까닭으로 그럴듯한 것은 그것 하나뿐인 것 같아서, 이제 영부인이 샬럿이 보낸 편지를 자기에게 꺼내 주려니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편지는 나오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베넷 부인은 무척 정중하게 영부인에게 다과를 좀 드시라고 청했지만, 캐서린 영부인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 정중하지는 않게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베넷 양, 잔디밭 한쪽에 제법 예쁘장한 작은 숲 같은 것이 있는 듯하던데. 베넷 양이 함께 가 준다면 한 바퀴 둘러보고 싶소."

"가 보렴, 얘야." 어머니가 힘주어 말했다. "영부인께 여러 산책로를 안내해 드려. 숲속 오두막을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엘리자베스는 시키는 대로 했다. 양산을 가지러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그 고귀한 손님을 모시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복도를 지나가며 캐서린 영부인은 작은 식당과 응접실 문을 차례로 열어 보더니, 잠깐 훑어보고는 그만하면 봐줄 만한 방들이라고 단언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영부인의 마차는 문간에 그대로 서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그 안에 영부인의 시녀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작은 숲으로 이어지는 자갈길을 따라 말없이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여느 때보다 더 오만하고 불쾌하게 구는 지금의 이 여자를 상대로 굳이 이야기를 붙여 보려고 애쓰지는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조카와 닮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엘리자베스는 영부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작은 숲에 들어서자마자 캐서린 영부인이 입을 열었다.

"베넷 양,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까닭을 모를 리 없을 거요. 베넷 양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양심이, 내가 왜 왔는지 말해 줄 테니까."

엘리자베스는 꾸밈없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다.

"영부인께서 잘못 아셨습니다. 이렇게 찾아 주신 영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저로서는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베넷 양," 영부인이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나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아야 하오. *당신*이 아무리 솔직하지 않게 굴기로 작정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소. 내 사람됨은 언제나 진실하고 솔직하기로 이름이 났고, 이토록 중대한 일에서 그 원칙을 저버릴

생각은 결단코 없소. 이틀 전에 아주 놀라운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소. 당신 언니가 아주 좋은 혼처에 시집가기 직전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 십중팔구 그 뒤를 이어 곧 내 조카와 맺어지리라는 것이었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조카, 다아시 씨와 말이오. 그것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여겨 조카를 그만큼 욕되게 할 생각도 없지만, 내 뜻을 당신에게 똑똑히 알리려고 당장 이리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소."

"사실일 리 없다고 믿으셨다면," 엘리자베스는 놀라움과 경멸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째서 그 먼 길을 수고롭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부인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런 소문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당장 부인하게 하려는 것이오."

"영부인께서 저와 제 식구들을 보러 롱번에 오셨으니," 엘리자베스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소문을 확인해 주는 셈이 될 겁니다. 정말로 그런 소문이 있다면 말입니다."

"있다면이라니! 그럼 모르는 척하겠다는 거요? 당신네가 부지런히 퍼뜨린 소문이 아니란 말이오?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오?"

"그런 소문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에 아무 *근거*도 없다고 똑같이 단언할 수 있소?"

"저는 영부인만큼 솔직하다고 자처하지는 않습니다. *영부인께서는* 무엇이든 물으실 수 있지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참을 수 없소. 베넷 양, 내가 납득할 대답을 들어야겠소. 그 애가, 내 조카가 당신에게 청혼했소?"

"영부인께서 직접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 하오. 그 애가 제정신인 한은 그럴 수밖에 없소. 하지만 *당신*의 술수와 유혹 때문에, 그 애가 홀린 한순간에 자기 자신과 온 집안에 지켜야 할 도리를 잊었을 수도 있고, 당신이 그 애를 꾀어 들였을지도 모르지."

"제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털어놓을 사람은 세상에서 제가 맨 마지막일 겁니다."

"베넷 양, 내가 누군지 아오? 나는 이런 말을 듣는 데 익숙하지 않소. 나는 그 애에게 세상에서 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그 애의 가장 소중한 일들을 모두 알 권리가 있소."

"하지만 *제* 일을 아실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속을 털어놓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똑똑히 알아들으시오. 당신이 감히 넘보는 이 혼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소. 그렇소, 절대로. 다아시 씨는 *내 딸*과 약혼한 사이요. 자, 이제 할 말이 있소?"

"이것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분이 저에게 청혼하리라고 생각하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캐서린 영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두 사람의 약혼은 좀 특별한 것이오. 두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서로의 짝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것은 *그 애* 어머니가 가장 바라던 소원이었으며 내 딸의 어미인 나 역시 마찬가지였소. 둘이 요람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그 혼사를 계획했소. 그런데 이제 두 자매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는 바로 그때, 집안도 변변찮고 세상에서 아무 중요할 것도 없고 그 집안과는 아무 연고도 없는 젊은 여자 하나가 그 결혼을 가로막겠다는 거요? 그 애를 아끼는 사람들의 바람은, 그 애와 드 버그 양 사이에 말없이 맺어진 약혼은 조금도 안중에 없소? 예의와 염치라는

것을 깡그리 잊었소? 그 애가 태어날 때부터 제 사촌과 맺어지게 되어 있었다고 내가 말하는 걸 듣지 못했소?"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영부인의 조카와 결혼하는 데 다른 걸림돌이 없다면,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님께서 그분이 드 버그 양과 결혼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결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두 분은 그 결혼을 계획하는 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지만, 그 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달린 일이었습니다. 다아시 씨가 명예로도 마음으로도 사촌에게 매여 있지 않다면, 왜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그 선택이라면, 왜 저는 그분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명예가, 체면이, 분별이, 아니, 이해득실이 그것을 금하기 때문이오. 그렇소, 베넷 양, 이해득실이오. 당신이 모든 사람의 뜻을 거슬러 고집을 부린다면, 그 애의 집안이나 친구들이 당신을 상대해 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시오. 그 애와 연이 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신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할 거요. 당신과 맺어지는 일은 그 애에게 수치가 될 테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당신 이름을 입에 올리지조차 않을 거요."

"정말 큰 불행이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아시 씨의 아내라면 그 자리에 으레 따르는 남다른 행복의 원천이 얼마든지 있을 테니, 대체로 보아 한탄할 까닭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고집 세고 제멋대로인 아가씨 같으니! 당신이 부끄럽소! 지난봄에 내가 그토록 마음 써 준 것에 대한 보답이 이거요? 그 일로 내게 진 빚은 하나도 없단 말이오? 앉읍시다. 베넷 양, 똑똑히 알아 두시오, 나는 반드시 내 뜻을 이루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고 누가 뭐라

해도 결코 단념하지 않을 거요. 나는 남의 변덕에 굽히는 데 익숙하지 않소. 실망을 참고 넘기는 버릇도 없소."

"*그렇다면* 지금 영부인의 처지가 더 딱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을 겁니다."

"말을 끊지 마시오! 잠자코 들으시오. 내 딸과 내 조카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소. 두 사람은 어머니 쪽으로는 같은 귀족 혈통에서 나왔고, 아버지 쪽으로는 작위는 없어도 존경받고 명예롭고 유서 깊은 집안에서 나왔으며, 양쪽 다 재산이 어마어마하오. 두 집안 사람 모두가 한목소리로 두 사람을 짝으로 정했소. 그런데 무엇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단 말이오? 집안도, 연줄도, 재산도 없는 젊은 여자의 벼락출세를 노리는 주제넘은 야심이오! 이걸 참으란 말이오? 그래서는 안 되오,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소! 당신이 자기 처지를 분별할 줄 안다면, 자기가 자라 온 테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을 거요."

"영부인의 조카와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그 테두리를 벗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사이고 저는 신사의 딸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대등합니다."

"그렇지. 당신은 신사의 딸이긴 *하오*.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소? 당신 외삼촌과 이모들은 누구요? 내가 그 사람들 처지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제 친척이 어떤 사람들이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영부인의 조카가 마다하지 않는다면 *영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시오. 그 애와 약혼했소?"

엘리자베스는 그저 캐서린 영부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 질문에 대답할 생각은 결코 없었지만, 잠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영부인은 흡족한 듯했다.

"그럼 앞으로도 절대 그런 약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소?"

"그런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베넷 양, 정말 충격이고 놀랍소. 좀 더 분별 있는 젊은 여자인 줄 알았소. 하지만 내가 물러서리라고 착각하지는 마시오. 내가 원하는 확답을 받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겠소."

"그리고 저는 결단코 *절대로* 그런 확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에 겁을 먹고 끌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영부인께서는 다아시 씨가 따님과 결혼하기를 바라시지만, 제가 바라시는 약속을 드린다고 해서 *두 분의* 결혼이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질 법해지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치고, *제가* 그분의 청혼을 거절한다면 그분이 그 손을 사촌에게 내밀고 싶어지겠습니까? 캐서린 영부인,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이 놀라운 요구를 뒷받침하려고 내세우신 논거는 요구 자체가 분별없었던 만큼이나 하찮았습니다. 이런 말에 제가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사람됨을 크게 잘못 보신 겁니다. 영부인께서 *조카분의* 일에 간섭하시는 것을 조카분이 얼마나 반기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 일에 상관하실 권리가 영부인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로 더는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소. 내가 이미 내세운 반대에 하나를 더 보태야겠소. 당신 막내 동생이 저지른 그 추잡한 사랑의 도피에 대해서도 나는 낱낱이 알고 있고, 그 젊은이가 그 애와 결혼한 것이 당신 아버지와 외삼촌이 돈을 대서 겨우 꿰매 맞춘 일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소. 그런데 *그런* 아이가 내 조카의 처제가 된단 말이오? 돌아가신 내 조카 아버지의 영지 관리인 아들인 *그 아이의* 남편이 내 조카의 동서가 된단 말이오? 하늘도 땅도 놀랄 일이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요? 펨벌리의 숲 그늘이 이렇게 더럽혀져도 된단 말이오?"

"*이제*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지요." 엘리자베스는 분개하여 대답했다. "영부인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저를 모욕하셨습니다. 저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말하며 일어섰다. 캐서린 영부인도 일어섰고,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렸다. 영부인은 몹시 노해 있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 조카의 명예와 평판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로군! 매정하고 이기적인 아가씨 같으니! 당신과 맺어지면 그 애가 세상 모든 사람 눈에 수치를 당하리라는 생각은 안 드오?"

"캐서린 영부인,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뜻은 아셨을 겁니다."

"그럼 그 애를 차지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영부인*이든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어느 누구든 개의치 않고, 제 생각에 제 행복이 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좋소. 그러니까 내 청을 거절하겠다는 거로군. 의무와 명예와 은혜의 요구를 따르기를 거부하겠다는 거로군. 그 애를 그 애 친구들 눈에 망가뜨리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기로 작정했다는 거로군."

"의무도, 명예도, 은혜도,"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제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아시 씨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 어느 원칙도 어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 집안의 분노나 세상의 분개로 말하자면, 그분이 저와 결혼하는 것으로 그 집안이 분노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순간도 마음 쓰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분별이 있어서 그런 멸시에 덩달아 끼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진심이란 말이지! 그게 마지막 결심이란 말이지! 좋소.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소. 베넷 양, 당신의 야심이 이루어지리라고는 꿈도 꾸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시험해 보러 왔소. 분별 있는 아가씨이기를 바랐는데. 하지만 두고 보시오, 나는 반드시 내 뜻을 관철할 거요."

캐서린 영부인은 마차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말을 이어 가다가, 홱 돌아서며 덧붙였다.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소, 베넷 양. 어머니께 안부도 전하지 않겠소.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소. 나는 대단히 불쾌하오."

엘리자베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영부인에게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라고 권해 보지도 않은 채 혼자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가 자기 방 문 앞에서 조바심을 내며 엘리자베스를 맞더니, 캐서린 영부인이 왜 다시 들어와 쉬었다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들어오고 싶지 않으셨어요." 딸이 대답했다. "가시겠대요."

"참 기품 있어 보이는 분이야! 그리고 여기 들러 주신 것도 어쩜 그렇게 정중하시니! 콜린스 씨 부부가 잘 있다고 알려 주려고 오신 것뿐인 것 같더라. 틀림없이 어디로 가시는 길에 메리턴을 지나다가 너를 한번 찾아봐도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겠지. 리지, 너한테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셨지?"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작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털어놓을 수는 도저히 없었다.

# 제57장

이 뜻밖의 방문으로 흐트러진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 일을 쉬지 않고 생각하는 버릇을 좀처럼 떨칠 수 없었다. 보아하니 캐서린 영부인은 엘리자베스와 다아시 씨 사이에 있다고 짐작한 약혼을 깨뜨리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로징스에서 이 먼 길을 수고롭게 온 것이 틀림없었다. 참으로 합리적인 계획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약혼했다는 소문이 대체 어디서 생겨났는지는 엘리자베스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결혼식 하나를 앞두고 다들 또 하나를 고대하는 이런 때에는 *그가* 빙리의 절친한 친구이고 *자기가* 제인의 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니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 더 자주 마주치게 되리라는 것은 엘리자베스 자신도 잊지 않고 느끼던 바였다. 그러니 루커스 로지의 이웃들은(소문은 그 집과 콜린스 씨 부부가 주고받은 편지를 거쳐 캐서린 영부인에게 닿았으리라고 엘리자베스는 결론지었다) *엘리자베스가* 먼 훗날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다보던 *그 일*을 거의 확실하고 당장 닥칠 일로 못 박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캐서린 영부인이 한 말을 곱씹을수록, 영부인이 끝까지 이렇게 간섭하고 나서면 어떤 결과가 올지 조금 불안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 결혼을 막겠다고 굳게 다짐하던 말로 미루어 보아, 영부인은 조카에게 직접 따지고 들 작정인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엘리자베스에게 떠올랐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맺어지는 데 따르는 해악을 그렇게 늘어놓는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감히 단언할 수 없었다. 그가 이모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모의 판단에 얼마나 기대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가 영부인을 *엘리자베스*가 보는 것보다 훨씬 높이 평가하리라고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바로 곁의 친척들이 그의 친척들과 그토록 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늘어놓을 때, 이모가 그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리라는 것도 분명했다. 체면을 중히 여기는 그의 생각으로는, 엘리자베스에게 허술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그 논거들이 아주 분별 있고 탄탄한 이치를 담고 있다고 느낄 공산이 컸다.

그가 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면, 그럴 법해 보인 적도 자주 있었는데, 그토록 가까운 친척의 충고와 간청이 모든 의심을 정리해 주어, 흠 하나 없는 체면이 허락하는 만큼만 행복해지기로 단번에 마음을 굳히게 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터였다. 캐서린 영부인은 런던을 지나는 길에 그를 만날 수도 있었고, 그러면 네더필드에 다시 오겠다던 빙리와의 약속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며칠 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핑계가 친구에게 날아온다면,"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덧붙였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변치 않으리라는 기대도 바람도 모두 접을 거야. 내 애정과 내 손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나를 아쉬워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나도 곧 그 사람을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게 될 거야."

손님이 누구였는지 들은 다른 식구들은 몹시 놀랐다. 그러나 베넷 부인의 호기심을 달래 준 것과 같은 짐작으로 고맙게도 저마다 그 놀라움을 달랬고, 엘리자베스는 그 일로 이것저것 시달리는 일을 면했다.

이튿날 아침 엘리자베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손에 편지를 든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다 마주쳤다.

"리지," 아버지가 말했다. "너를 찾으러 가던 참이다. 내 방으로 오너라."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하던 차에, 그것이 아버지가 든 편지와 어떻게든 이어져 있으리라는 짐작이 들자 궁금증은 더 커졌다. 문득 캐서린 영부인이 보낸 편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 늘어놓아야 할 온갖 해명을 떠올리니 앞이 캄캄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를 따라 벽난로 앞으로 가서 함께 앉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아침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깜짝 놀랐다. 주로 네 일에 관한 것이니 너도 내용을 알아야겠지. 결혼을 코앞에 둔 딸이 둘이나 있는 줄은 미처 몰랐구나. 아주 대단한 정복을 해냈으니 축하한다."

이제 엘리자베스의 두 뺨으로 피가 확 몰렸다. 이모가 아니라 조카가 보낸 편지라는 확신이 순간 든 탓이었다. 그가 어떻게든 제 뜻을 밝혔다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할지, 그 편지가 차라리 자기 앞으로 오지 않은 것을 가장 언짢아해야 할지 엘리자베스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짚이는 데가 있는 얼굴이구나. 젊은 아가씨들은 이런 일에 눈치가 아주 빠르지. 그래도 이번만은 *네* 날카로운 눈으로도 너를 흠모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낼 수는 없을 거다. 이 편지는 콜린스 씨가 보낸 거야."

"콜린스 씨가요! *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물론 아주 요긴한 말이지. 맨 먼저 내 큰딸의 혼례가 다가온 것을 축하하는구나. 사람 좋고 말 많은 루커스 집안 누군가한테 들은

모양이야. 그 대목을 읽어 주면서 네 조바심을 놀려 먹지는 않으마. 너에 관한 대목은 이렇다. '이 경사스러운 일에 대해 콜린스 부인과 제가 드리는 진심 어린 축하는 이로써 다 올렸으니, 이제 같은 출처에서 들은 또 한 가지 일에 대해 짧게 귀띔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의 따님 엘리자베스 양도 큰언니가 베넷이라는 성을 내려놓은 뒤 그 성을 오래 지니지는 않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양이 운명을 함께할 반려로 고른 분은 이 나라에서 가장 고명한 인물 가운데 한 분으로 우러러볼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리지,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짐작이 가니? '이 젊은 신사분은 인간의 마음이 가장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남달리 누리시는 분입니다. 막대한 재산, 고귀한 친척, 그리고 성직록을 여럿 나누어 줄 수 있는 너른 영향력까지 갖추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제 사촌 엘리자베스 양과 어르신께 경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사분의 청혼에 성급히 응하셨다가는 어떤 화를 입으실지 모릅니다. 물론 두 분께서는 당장 그 청혼을 붙잡고 싶으시겠지요.' 리지, 이 신사가 누군지 짐작이 가니? 자, 이제 나온다. '제가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의 이모님이신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께서 이 혼사를 그리 곱게 보지 않으신다고 여길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보거라, 그 남자가 바로 *다아시 씨*란다! 자, 리지, 이번에는 너를 정말로 놀라게 *했지*. 그 사람이든 루커스 집안이든,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름만 들어도 자기들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게 이보다 확실히 드러나는 남자를 고를 수 있었겠니? 흠을 찾을 때가 아니면 어떤 여자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아마 평생 *너를* 쳐다본 적도 없을 다아시 씨라니! 참으로 훌륭하구나!"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농담에 맞장구를 쳐 보려 했지만, 몹시 마지못한 웃음을 억지로 한 번 지어 보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아버지의

재치가 이토록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쪽을 겨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미있지 않니?"

"아, 재미있어요. 계속 읽어 주세요."

"'어젯밤 영부인께 이 결혼이 있을 법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영부인께서는 늘 그러시듯 상냥하게 굽어살피시어 그 일에 대한 심중을 곧바로 밝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사촌 쪽 집안에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영부인께서는 이른바 그토록 수치스러운 혼사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제 사촌에게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사촌과 그 고귀한 흠모자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깨닫고, 마땅한 허락도 받지 않은 결혼에 성급히 뛰어들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콜린스 씨는 이렇게 덧붙였구나. '제 사촌 리디아 양의 딱한 일이 그토록 잘 덮였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다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것이 그토록 널리 알려졌다는 것만이 염려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직분이 지운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어르신께서 그 젊은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댁에 들이셨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덕을 북돋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롱번의 교구 목사였다면 있는 힘을 다해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마땅하나, 결코 눈앞에 들이셔서는 안 되며 어르신 귀에 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두셔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용서란 *그런* 것이라는 게 그 사람 생각이구나! 편지의 나머지는 사랑하는 샬럿의 몸 상태와, 어린 올리브 가지를 고대한다는 이야기뿐이다. 그런데 리지, 너는 이게 재미있지 않은 얼굴이구나. 설마 아가씨인 척 새침을 떨면서 쓸데없는 소문에

모욕당한 척하려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사는 게 이웃의 웃음거리가 되어 주고, 우리 차례가 오면 또 이웃을 비웃는 것 말고 무엇이겠니?"

"아,"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정말 재미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그래, *그게* 재미있는 거란다. 다른 남자를 골랐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완벽한 무관심과 *너의* 노골적인 반감 때문에 이렇게 기막히게 터무니없어지는 거지! 나는 편지 쓰는 걸 질색하지만, 콜린스 씨와 주고받는 편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아니, 그 사람 편지를 읽을 때면 위컴보다도 그 사람을 더 쳐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 사위의 뻔뻔함과 위선을 나도 꽤 높이 사지만 말이다. 그건 그렇고, 리지, 캐서린 영부인은 이 소문을 두고 뭐라고 하더냐? 승낙할 수 없다고 말하러 온 게냐?"

이 질문에 딸은 웃음으로만 대답했다. 아버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물은 터라,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도 엘리자베스는 곤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제 마음을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하느라 이토록 쩔쩔맨 적이 없었다. 차라리 울고 싶은 때에 웃어야 했다. 아버지는 다아시 씨의 무관심을 두고 한 말로 엘리자베스에게 더없이 잔인한 굴욕을 안겼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눈치가 그토록 없다는 데 그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적게*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많이* 상상한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수밖에.

# 제58장

엘리자베스는 빙리 씨가 친구에게서 그런 핑계 편지를 받으리라고 반쯤은 예상했지만, 빙리는 그런 편지를 받기는커녕 캐서린 영부인이 다녀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아시를 데리고 롱번에 올 수 있었다. 두 신사는 일찍 도착했다. 다아시의 이모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베넷 부인이 꺼낼 틈도 없이(그 딸은 잠시 그 말이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다), 제인과 단둘이 있고 싶었던 빙리가 다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했다. 모두 그러자고 했고, 베넷 부인은 걷는 버릇이 없었으며 메리는 늘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나머지 다섯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다. 그러나 빙리와 제인은 곧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게 내버려 둔 채 자기들끼리 뒤처져 걸었고, 그동안 엘리자베스와 키티와 다아시가 서로 말벗이 되어야 했다. 셋 다 말이 거의 없었다. 키티는 다아시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했고, 엘리자베스는 남몰래 비장한 결심을 다지고 있었으며, 어쩌면 그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키티가 마리아를 찾아보고 싶어 해서 세 사람은 루커스 댁 쪽으로 걸었는데, 엘리자베스는 그 일에 다 같이 따라갈 까닭은 없다고 보았으므로 키티가 떠나자 다아시와 단둘이 대담하게 계속 걸었다. 이제 결심을 실행에 옮길 때였다. 엘리자베스는 용기가 꺾이기 전에 곧바로 입을 열었다.

"다아시 씨, 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 마음 편하자고, 그 때문에 당신 마음을 얼마나 다치게 할지는 아랑곳하지 않으려고 해요.

불쌍한 제 동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유례없는 친절에 더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그 일을 알게 된 뒤로 줄곧,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애가 탔어요. 다른 식구들도 그 일을 알았다면 저 혼자만의 고마움을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유감입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다아시가 놀라움과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못 보시면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렸을지도 모를 일을 알게 되셨다니요. 가디너 부인이 그렇게 믿지 못할 분인 줄은 몰랐어요."

"외숙모를 탓하시면 안 돼요. 다아시 씨가 그 일에 관여하셨다는 걸 처음 저한테 누설한 건 리디아의 경솔함이었고, 그러니 저야 당연히 자세한 사정을 알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죠. 두 사람을 찾아내시려고 그토록 큰 수고를 들이고 그토록 많은 굴욕을 견디게 한 그 너그러운 연민에 대해, 저희 식구 모두를 대신해 몇 번이고 감사드리게 해 주세요."

"*정* 고마워하시겠다면," 그가 대답했다. "당신 한 사람 몫으로만 해 주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은 바람이 저를 움직인 다른 동기들에 힘을 보탰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 *식구들*은 제게 빚진 게 없어요. 그분들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저는 오로지 *당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당황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잠시 말이 끊겼다가, 곁에서 걷던 그가 덧붙였다. "당신은 너그러운 분이니 저를 놀리지는 않으시겠지요. 당신의 마음이 지난 4월과 같다면 지금 바로 그렇다고 말해 주세요. *제* 애정과 바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마디만 하시면, 이 이야기는 다시는 영영 꺼내지 않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처지가 여느 때보다 훨씬 어색하고 애가 타리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이제 억지로라도 입을 열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리 유창하지는 못해도, 그가 말한 그때 이후로 자기 마음이 크게 달라져서 지금 그가 하는 다짐을 고마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답을 듣고 그는 아마 평생 처음 느껴 보았을 행복에 잠겼고, 열렬히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분별 있고 뜨겁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다. 엘리자베스가 그의 눈을 마주 볼 수 있었다면, 진심에서 우러난 기쁨이 얼굴 가득 번진 모습이 그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았을 터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바라볼 수는 없어도 들을 수는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 주는 감정들을 털어놓았고, 그 말을 들을수록 그의 애정은 순간순간 더 값지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걸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곧 두 사람이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 그의 이모가 애쓴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부인은 돌아가는 길에 런던에서 정말로 그를 *찾아갔고*, 롱번까지 간 일과 그 까닭, 엘리자베스와 나눈 이야기의 요지를 들려주었다. 영부인이 보기에 엘리자베스의 고집과 뻔뻔함을 유난히 드러낸다 싶은 말은 하나하나 힘주어 되풀이했는데, 그렇게 들려주면 *엘리자베스가* 거절한 약속을 조카에게서 받아 내려는 자기 노력에 보탬이 되리라는 믿음에서였다. 그러나 영부인에게는 운 나쁘게도, 그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전에는 감히 품어 보지도 못한 희망이었죠. 당신 성품을 알 만큼은 알았으니, 당신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이 저를 마다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캐서린 영부인께 솔직하고 떳떳하게 그렇다고 말했으리라고 확신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솔직한지* 아실 만큼은 아시니까, 제가 그 *정도*는 하리라고 믿으셨겠지요. 면전에서 그토록 지독하게 당신을 욕해 놓고, 당신 친척들 앞에서 당신을 욕하는 데 무슨 거리낌이 있었겠어요."

"제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무엇 하나 하셨나요? 당신의 비난은 근거가 없었고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때 당신을 대한 제 행동은 가장 혹독한 꾸지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진저리가 납니다."

"그날 저녁 잘못이 누구에게 더 많은지를 두고 다투지는 말기로 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엄격히 따지면 어느 쪽 행동도 나무랄 데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 우리 둘 다 예의만큼은 좀 나아졌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 쉽게 저 자신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 그 자리 내내 제가 한 행동과 태도와 말투를 떠올리면, 지금도 그렇고 벌써 여러 달째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그토록 정곡을 찌른 당신의 꾸지람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좀 더 신사답게 행동하셨더라면.' 당신이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다만 고백하자면,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할 만큼 분별을 되찾기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깊은 인상을 남기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아프게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 당신은 제가 마땅히 지녀야 할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지요. 틀림없이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청혼했더라도 저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을 거라고 말할 때 당신의 그 얼굴빛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아, 그때 제가 한 말은 되풀이하지 마세요. 그런 기억은 꺼내 봐야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정말이지 저는 오래전부터 그 일이 진심으로 부끄러웠거든요."

다아시가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그 편지가," 그가 말했다. "그 편지가 *곧바로* 저를 조금이라도 좋게 생각하게 해 주었나요? 읽으면서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믿으셨나요?"

엘리자베스는 그 편지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예전의 편견이 모두 얼마나 서서히 걷혔는지 설명했다.

"제가 쓴 글이 당신을 아프게 하리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편지는 없애 버리셨기를 바라요. 한 부분, 특히 첫머리는 당신이 다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당신이 저를 미워해도 할 말이 없을 표현들이 몇 군데 기억나요."

"제 호감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믿으신다면 편지는 꼭 태울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제 생각이 아주 꿈쩍도 않는 것은 아니라고 여길 까닭이 있다 해도, 그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기를 바라요."

"그 편지를 쓸 때," 다아시가 대답했다. "저는 제가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그 편지가 지독하게 쓰라린 마음으로 쓰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편지가 쓰라린 마음으로 시작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 작별 인사는 자비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편지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 편지를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마음이 지금은 그때와 너무도 달라졌으니, 그 편지에 얽힌 불쾌한 일은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잊어야 해요. 제 철학을 좀 배우셔야겠어요. 지난 일은 떠올려서 즐거운 것만 생각하세요."

"당신에게 그런 철학이 있다고는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의* 회상에는 자책할 거리가 하나도 없을 테니, 거기서 우러나는 흐뭇함은 철학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나은 것, 바로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괴로운 기억이 자꾸 밀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물리칠 수도 없고 물리쳐서도 안 됩니다. 저는 평생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에서는 아니었어도 행실에서는 그랬습니다. 어릴 때 무엇이 *옳은지*는 배웠지만, 제 성미를 바로잡으라고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좋은 원칙을 물려받았지만, 그 원칙을 오만과 자만에 젖은 채 따르도록 내버려졌습니다. 불행히도 외아들이었던(여러 해 동안은 아예 *외동*이었던) 저는 부모님 손에 응석받이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그분들 자신은 좋은 분들이었지만(특히 아버지는 너그럽고 다정함 그 자체셨지요), 제가 이기적이고 고압적인 사람이 되도록, 제 가족 테두리 밖의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도록,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모두 하찮게 여기도록, 적어도 그 사람들의 분별과 가치를 저와 견주어 하찮게 여기고 *싶어*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부추겼고, 거의 가르치다시피 했습니다. 여덟 살부터 스물여덟 살까지 저는 그런 사람이었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 제가 당신에게 빚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제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혹독했지만 더없이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마땅히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받아들여지리라는 데 아무 의심도 없이 당신에게 갔습니다. 기쁘게 해 드릴 가치가 있는 여인을 기쁘게 하기에 제가 내세운 것들이 모두 얼마나 모자랐는지, 당신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아들이리라고 정말 믿으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 허영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당신이 제 청혼을 바라고, 기다린다고 믿었어요."

"제 태도에 잘못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당신을 속일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다만 들뜬 기분 때문에 제가 엇나간 적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뒤로 저를 얼마나 미워하셨을까요!"

"미워하다니요! 처음에는 화가 났을지도 모르지만, 그 화는 곧 마땅히 향해야 할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펨벌리에서 만났을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기가 거의 겁나요. 제가 온 걸 탓하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저 놀랐을 뿐이에요."

"당신이 놀라신 게, 당신 눈에 띄어 *제가* 놀란 것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양심은 제가 특별한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고, 솔직히 말하면 제 몫 *이상*을 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목적은," 다아시가 대답했다. "제 힘이 닿는 한 온갖 예의를 다해서, 지난 일에 앙심을 품을 만큼 제가 비열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거였어요. 당신의 꾸지람을 귀담아들었다는 것을 보여 드려서 용서를 받고, 저를 나쁘게 보시는 마음을 덜어 보고 싶었어요. 다른 바람이 언제부터 끼어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고 30분쯤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조지애나가 엘리자베스를 알게 되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만남이 그렇게 갑자기 끊겨서 또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자연히 그 만남이 끊긴 까닭으로 이어졌고, 엘리자베스는 곧 그가 리디아를 찾으러 엘리자베스를 뒤따라 더비셔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여관을 나서기 전이었다는 것, 그곳에서 그가 심각하고 생각에 잠겨 보였던 것은 그런 결심이라면 으레 따를 갈등 말고는 다른 갈등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고마움을 표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아픈 이야기라 더 길게 이어 가지는 않았다.

느긋하게 몇 마일을 걸으면서도 너무 바빠서 그것조차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은, 마침내 시계를 꺼내 보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빙리 씨와 제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두 사람의* 일로 이야기가 넘어갔다. 다아시는 그 약혼을 기뻐했다. 친구가 맨 먼저 그 소식을 알려 주었다.

"놀라셨는지 여쭤봐야겠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전혀요. 떠날 때 곧 그렇게 되리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펄쩍 뛰었지만,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사실은 꽤 그랬던 모양이었다.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저녁에," 그가 말했다. "진작 했어야 했을 고백을 빙리에게 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친구 일에 간섭한 것을 터무니없고 주제넘은 짓으로 만들어 버린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빙리는 몹시 놀랐어요.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언니분이 그 친구에게 무심하다고 여겼던 것은 제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고, 그 친구의 애정이 조금도 식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니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리라는 데는 의심이 없었어요."

친구를 그토록 손쉽게 이끄는 그의 태도에 엘리자베스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언니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직접 보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니면 지난봄에 제가 드린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앞의 것이에요. 최근에 이곳을 두 번 찾아왔을 때 언니분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언니분의 애정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장담하시니 그분은 곧바로 믿었겠지요."

"그랬어요. 빙리는 꾸밈없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숫기가 없어서 그토록 마음 졸이는 일에서는 자기 판단을 믿지 못했지만, 제 판단에 기대니 모든 게 쉬워졌어요. 한 가지는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로 빙리는 한동안 기분이 상했고 그럴 만도 했어요. 지난겨울 언니분이 석 달 동안 런던에 있었다는 것, 제가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빙리에게 숨겼다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빙리는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그 화는 언니분의 마음을 의심하던 동안을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빙리가 저를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엘리자베스는 빙리 씨가 더없이 유쾌한 친구였다고, 그렇게 쉽게 이끌 수 있으니 참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지만 꾹 참았다. 그는 아직 웃음거리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빙리의 행복을 미리 그려 보며, 물론 자기 행복에만은 못 미칠 그 행복을 이야기하며 집에 이를 때까지 대화를 이어 갔다. 두 사람은 현관 복도에서 헤어졌다.

# 제59장

"리지, 대체 어디까지 걸어갔다 온 거야?" 엘리자베스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인에게서 그 질문을 받았고, 식탁에 앉았을 때는 다른 식구들 모두에게서 같은 질문을 받았다. 엘리자베스는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데까지 갔다고 대답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것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진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저녁은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드러내 놓고 사랑하는 두 사람은 이야기하고 웃었고, 드러내지 않은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다아시는 행복이 넘쳐 웃음으로 터져 나오는 성미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당장의 어색함 말고도 앞에 놓인 골칫거리가 또 있었던 터라, 마음이 술렁이고 어지러워서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 사정이 알려지면 식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엘리자베스는 미리 그려 보았다. 제인 말고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식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의 재산과 지위를 다 동원해도 없앨 수 없는 *반감*일까 봐 두렵기까지 했다.

밤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베넷 양은 남을 의심하는 버릇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지만 이번만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농담하지 마, 리지. 그럴 리가 없어! 다아시 씨하고 약혼을 하다니! 아니, 아니, 날 속이려 해도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시작부터 정말 비참하네! 내가 믿을 사람은 언니 하나뿐이었는데. 언니가 안 믿어 주면 아무도 안 믿어 줄 게 뻔해. 그래도 정말이야, 나 진지해. 사실만 말하고 있어. 그 사람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약혼했어."

제인은 미심쩍은 눈으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다. "아, 리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아는데."

"언니는 하나도 몰라. *그건* 다 잊어야 할 일이야. 내가 늘 지금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이런 일에서는 기억력이 좋은 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나도 그 일을 떠올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베넷 양은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진지하게 사실이라고 다짐했다.

"맙소사! 정말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이제는 믿어야겠다." 제인이 힘주어 말했다. "리지, 우리 리지, 축하해 주고 싶어, 아니, 축하해. 그런데 정말 확신하니? 이런 걸 물어서 미안하지만, 그 사람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정말 확신해?"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기로 둘이서 벌써 정해 놓았거든. 그런데 언니는 기뻐, 언니? 그런 제부를 맞는 게 좋아?"

"아주아주 좋아. 빙리 씨한테도 나한테도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 그런데 너는 정말로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니? 아, 리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애정 없이 결혼하는 일만은 하지 마. 마땅히 느껴야 할 걸 느끼고 있다고 정말 확신해?"

"아, 그럼! 다 들려주고 나면 언니는 오히려 내가 마땅히 느껴야 할 것보다 *더* 느낀다고 생각할걸."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빙리 씨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언니가 화낼까 봐 걱정이네."

"리지, 제발 좀, *제발* 진지하게 굴어. 나는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알아야 할 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당장 다 말해 줘. 그 사람을 언제부터 사랑했는지 말해 줄래?"

"아주 조금씩 스며들어서 언제 시작됐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굳이 날짜를 따지자면, 펨벌리에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영지를 처음 본 날부터인 것 같아."

그러나 제발 진지하게 말해 달라는 간청이 한 번 더 이어지자 바라던 효과가 나서, 엘리자베스는 곧 자기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엄숙하게 다짐해 제인을 만족시켰다. 그 점을 확신하고 나자 베넷 양은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해." 제인이 말했다. "너도 나만큼 행복해질 테니까. 나는 늘 그분을 높이 생각했어. 너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언제까지나 그분을 존중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빙리 씨의 친구이자 네 남편이 될 사람이니, 이 세상에서 나한테 그분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빙리 씨와 너, 두 사람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리지, 너는 나한테 정말 능청스럽게, 정말 입을 꼭 다물었구나. 펨벌리와 램턴에서 있었던 일은 거의 말해 주지 않았잖아! 내가 아는 건 다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거야."

엘리자베스는 왜 그동안 비밀로 했는지 털어놓았다. 빙리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고, 자기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한 터라 그 친구의 이름도 똑같이 피해 왔지만, 이제는 리디아의 결혼에서 그가 맡은 몫을

더는 언니에게 숨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을 반이나 지새웠다.

"어머나 세상에!" 이튿날 아침 창가에 서 있던 베넷 부인이 소리쳤다. "그 밉살스러운 다아시 씨가 우리 빙리 씨하고 또 오잖아! 뭘 어쩌자고 그렇게 성가시게 늘 여기 오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이 사냥을 가든가 어디 다른 데로 가든가 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을 줄만 알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리지, 네가 또 데리고 산책을 나가거라. 그래야 빙리 씨한테 방해가 안 되지."

엘리자베스는 이토록 안성맞춤인 제안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거의 참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그를 늘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정말 속상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마자 빙리가 의미심장하게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며 어찌나 따뜻하게 악수를 하는지, 그가 소식을 잘 전해 들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곧 빙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베넷 부인, 이 근처에 리지가 오늘 또 길을 잃을 만한 오솔길은 더 없나요?"

"다아시 씨하고 리지하고 키티는," 베넷 부인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오컴 언덕까지 걸어가 보는 게 좋겠어요. 꽤 걸을 만한 길이고, 다아시 씨는 거기 경치를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겠지만," 빙리 씨가 대답했다. "키티한테는 틀림없이 너무 멀 거예요. 안 그래요, 키티?"

키티는 차라리 집에 있겠다고 했다. 다아시는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몹시 궁금하다고 했고,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따랐다. 엘리자베스가 채비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가자 베넷 부인이 뒤따라와서 말했다.

"리지, 그 밉살스러운 남자를 너 혼자 떠맡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너무 언짢아하지는 마라. 다 제인을 위해서야, 알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이따금 한마디씩만 하면 되니까 괜히 애쓰지 말고."

산책하는 동안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베넷 씨의 승낙을 청하기로 정했다. 어머니의 승낙을 구하는 일은 엘리자베스가 맡기로 했다. 어머니가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엘리자베스는 가늠할 수 없었다. 그의 그 모든 재산과 위세로도 그 사람을 몹시 싫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겨 내기에는 모자랄지 모른다는 생각도 이따금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혼사에 펄펄 뛰며 반대하든 펄펄 뛰며 기뻐하든, 어머니의 태도가 어머니의 분별을 돋보이게 하는 데 똑같이 맞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기쁨에 겨워 처음 터뜨리는 환성을 다아시 씨가 듣는 것도, 처음 터뜨리는 격렬한 반대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견딜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베넷 씨가 서재로 물러가고 얼마 안 되어,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도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자 몹시 마음이 술렁였다. 아버지가 반대할까 봐 두려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 불행해질 참이었고, 그것도 엘리자베스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자식인 *자기*가 그런 선택으로 아버지를 괴롭히고, 자기를 떠나보내며 아버지가 걱정과 후회에 휩싸이게 한다는 생각은 비참했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괴로워하며 앉아 있었고, 그를 바라보니 그가 짓는 미소에 조금 마음이 놓였다. 몇 분 뒤 그는 엘리자베스가 키티와 함께 앉아 있는 탁자로 다가와, 엘리자베스의 바느질감을 칭찬하는 척하며 속삭였다. "아버님께 가 보세요. 서재에서 찾으세요."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나갔다.

아버지는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리지," 아버지가 말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게냐? 너 정신이 있는 게냐, 이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이다니? 너는 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니?"

그때 엘리자베스는 예전의 생각이 좀 더 분별 있었더라면, 예전의 말이 좀 더 절제되어 있었더라면 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몰랐다! 그랬다면 몹시 어색하기 그지없는 해명과 고백은 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꼭 필요했고 엘리자베스는 조금 허둥대며 다아시 씨를 사랑한다고 아버지에게 다짐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을 꼭 차지하겠다고 작정했다는 거로구나. 그 사람이 부자인 건 틀림없지. 너는 제인보다 더 고운 옷과 더 좋은 마차를 가질 수 있을 테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 주겠니?"

"제가 그분한테 마음이 없다고 믿으시는 것 말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다른 반대 이유가 있으세요?"

"전혀 없다. 그 사람이 오만하고 불쾌한 부류의 사내라는 건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네가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엘리자베스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대답했다. "사랑해요. 그분한테는 그릇된 오만 같은 건 없어요. 더없이 상냥한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는 모르세요. 그러니 제발 그분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리지,"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승낙을 해 주었다. 사실 그 사람은 굽어살펴 청하는 일이라면 내가 감히 무엇 하나 거절할 엄두도 못 낼 그런 사람이지. 네가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 *너*에게도 승낙을 해 주마.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충고하고 싶구나. 리지, 나는 네 성품을 안다.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으면, 남편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우러러보지 않으면, 너는 행복할 수도 떳떳할 수도 없다는 것도 나는 아주 잘 안다. 너의 활달한 재능은 격이 맞지 않는 결혼에서 너를 더없이 큰 위험에 빠뜨릴 테고, 너는 체면을 잃고 비참해지는 걸 거의 피할 수 없을 거야. 얘야,

평생의 짝을 존경하지 못하는 *너*를 보는 슬픔만은 내게 겪게 하지 마라. 너는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더욱 마음이 흔들려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대답했다. 다아시 씨가 정말로 자기가 고른 사람이라고 거듭 다짐하고, 그를 보는 자기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 온 과정을 설명하고, 그의 애정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불안한 시간을 견디며 시험을 거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그의 좋은 점을 하나하나 힘주어 늘어놓은 끝에,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아버지의 의심을 이겨 내고 그 혼사를 받아들이게 했다.

"그래, 얘야." 엘리자베스가 말을 마치자 아버지가 말했다. "더 할 말이 없구나.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너를 얻을 자격이 있다. 우리 리지를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었을 거다."

좋은 인상을 마저 굳히려고,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리디아를 위해 자진해서 한 일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었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였다.

"정말이지 놀라운 일투성이인 저녁이로구나! 그러니까 다아시가 다 했다는 거로군. 혼사를 성사시키고, 돈을 대고, 그 녀석 빚을 갚아 주고, 장교 자리까지 구해 주고! 그렇다면 더 잘됐다. 수고와 절약을 한 짐이나 덜게 생겼으니. 네 외삼촌이 한 일이었다면 나는 그 돈을 갚아야 했고, 또 *갚았을* 거다. 하지만 이 열렬한 젊은 연인들은 무슨 일이든 제멋대로 하거든. 내일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갚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해서 한 일이라고 펄펄 뛰며 열변을 토할 테고, 그걸로 이 일은 그냥 끝나겠지."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며칠 전 콜린스 씨의 편지를 읽어 줄 때 엘리자베스가 쩔쩔매던 일을 떠올리고는 한참 동안 엘리자베스를 놀린 끝에 마침내 나가도 좋다고 했고, 엘리자베스가 방을 나설 때 이렇게

말했다. "메리나 키티를 데려가겠다는 젊은이가 오거든 이리 들여보내라. 나는 아주 한가하니까."

엘리자베스는 이제 아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30분 동안 제 방에서 조용히 생각을 가다듬은 뒤에는 꽤 차분하게 다른 사람들 틈에 낄 수 있었다. 모든 일이 너무 갓 일어나서 들떠 즐길 수는 없었지만 저녁은 고요하게 지나갔고, 이제 크게 두려워할 일은 더 남아 있지 않았으며, 마음 편하고 허물없는 사이에서 오는 위안은 시간이 지나면 찾아올 터였다.

밤에 어머니가 자기 방으로 올라가자 엘리자베스는 뒤따라 들어가 그 중대한 소식을 전했다. 그 효과는 더없이 놀라웠다. 처음 그 말을 들은 베넷 부인은 꼼짝도 않고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집안에 이득이 되는 일이나 딸들 가운데 누구에게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이라면 대개 선뜻 믿는 편이었는데도, 들은 말을 알아듣기까지 몇 분이고 또 몇 분이 걸렸다. 마침내 베넷 부인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니, 의자에서 들썩이다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가, 어리둥절해하다가 하느님께 감사했다.

"어머나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생각 좀 해 봐! 아이고! 다아시 씨라니!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 그런데 정말 사실이니? 아, 우리 예쁜 리지! 넌 얼마나 큰 부자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까! 용돈[1]이며 보석이며 마차며, 다 얼마나 많이 갖게 될까! 제인 건 거기 대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도 아니라고. 나는 정말 기뻐, 정말 행복해. 그렇게 매력 있는 남자라니!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그렇게 크고! 아, 리지! 내가 전에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한 걸 대신 사과 좀 해 다오. 너그러이 봐주면 좋겠구나. 리지, 우리 리지. 런던에 집도 있고!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딸 셋이 시집을 가다니! 1년에 10,000파운드라니! 아이고, 세상에! 나 어떡하니? 이러다 정신이 나가겠다."

이만하면 어머니의 승낙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엘리자베스는 그런 감정의 분출을 자기 혼자만 들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곧 자리를 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제 방에 들어간 지 3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따라 들어왔다.

"얘야, 우리 얘야," 어머니가 소리쳤다.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구나. 1년에 10,000파운드, 아마 그보다 더 될 거야! 귀족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특별 결혼 허가[2], 너는 꼭 특별 결혼 허가를 받아서 결혼해야 해, 꼭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 귀한 딸, 다아시 씨가 특히 좋아하는 요리가 뭔지 말해 다오. 내일 그걸 차리게."

이것은 어머니가 그 신사 본인을 어떻게 대할지 보여 주는 불길한 징조였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더없이 뜨거운 애정을 확실히 얻었고 식구들의 승낙도 받아 냈지만, 아직도 바랄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튿날은 예상보다 훨씬 무난하게 지나갔다. 다행히 베넷 부인은 장차 사위가 될 사람을 어찌나 어려워했는지, 무언가 대접할 거리가 있거나 그의 의견을 받드는 시늉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면 감히 그에게 말을 붙이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그와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흐뭇했고, 베넷 씨는 곧 그가 시시각각 자기 눈에 점점 더 나아 보인다고 엘리자베스에게 장담했다.

"나는 세 사위를 모두 대단히 높이 산다." 베넷 씨가 말했다. "아마 위컴이 제일 마음에 들겠지만, *네* 남편도 제인의 남편만큼은 좋아하게 될 것 같구나."

---

1. 혼인 계약으로 정해 두는 아내의 개인 수입. 옷값과 몸치장, 사사로운 씀씀이에 쓴다.

2. 교회의 결혼 예고를 거치지 않고 아무 날 아무 곳에서나 결혼할 수 있도록 대주교가 내주는 허가. 값이 비싸 상류층의 표지였다.

# 제60장

곧 다시 장난기가 살아난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어쩌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기를 바랐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일단 시작하고 나서 멋지게 이어 가신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맨 처음에는 대체 무엇 때문에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바탕을 놓은 시각이나 장소, 눈길이나 말을 딱 짚어 낼 수는 없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벌써 한가운데에 와 있었어요."

"제 미모는 일찌감치 잘 견뎌 내셨잖아요. 그리고 제 태도로 말하자면, *당신*을 대하는 제 태도는 적어도 늘 무례하기 직전이었고, 당신한테 말을 걸 때마다 아프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버릇없어서 좋아하셨어요?"

"당신의 활달한 마음이 좋았어요."

"차라리 버릇없음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별 차이도 없었으니까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예의니 공손함이니 주제넘은 친절이니 하는 데 진저리가 나 있었어요. 늘 *당신의* 마음에 들려고만 말하고, 쳐다보고, 생각하는 여자들에게 질려 있었죠. 제가 그 *여자들*과 너무 달라서 당신의 마음을 일깨우고 끌었던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때문에 저를 미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애써 본심을 감추려 하셨어도 당신의 감정은 늘 고결하고 공정했고, 그토록 열심히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을 속으로는 철저히 경멸하고 계셨지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수고를 덜어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헤아려 보니 정말이지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물론 당신은 제게서 실제로 좋은 점은 하나도 모르시지요. 하지만 사랑에 빠질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더필드에서 제인 양이 아팠을 때 당신이 언니를 그렇게 다정하게 돌본 건 좋은 점이 아니었나요?"

"우리 제인 언니! 누가 그보다 덜 해 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꼭 미덕으로 쳐 주세요. 제 좋은 점은 당신이 지켜 주셔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부풀려 주셔야 해요. 그 대신 저는 될 수 있는 한 자주 당신을 놀리고 말다툼할 거리를 찾아야겠지요. 당장 시작할게요. 마지막에 가서 왜 그렇게 요점을 꺼내기를 꺼리셨어요?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 뒤 여기서 저녁을 드셨을 때, 왜 저한테 그렇게 쭈뼛거리셨어요? 특히 찾아오셨을 때는 왜 저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셨어요?"

"당신이 심각하고 말이 없고, 저한테 아무 격려도 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황해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녁 드시러 오셨을 때는 저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마음이 덜한 남자였다면 그럴 수 있었겠지요."

"당신한테 이렇게 합리적인 대답이 있다니, 그리고 제가 그걸 인정할 만큼 합리적이라니,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그런데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었다면 얼마나 오래 그렇게 *버티셨을지* 궁금해요. 제가 묻지 않았다면 언제쯤 *말씀하셨을지* 궁금해요! 리디아에게 베푸신 친절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로 한 제 결심이 분명 큰 효과를 낸 거예요. *너무 큰* 효과일까 봐 걱정이에요. 그 이야기는 꺼내면 안 되는 거였으니, 우리

행복이 약속을 깬 데서 생겨났다면 교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훈은 아무 흠 없이 공정할 거예요. 우리를 갈라놓으려던 캐서린 영부인의 부당한 노력이 제 의심을 모두 걷어 준 셈이니까요. 제가 지금 누리는 행복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하신 당신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말문을 열어 주기를 기다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이모님이 전해 준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고, 그래서 당장 모든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캐서린 영부인이 정말 큰 쓸모가 있으셨네요. 그분은 쓸모 있는 걸 좋아하시니 그걸로 기뻐하셔야겠지요. 그런데 말씀해 보세요, 네더필드에는 무엇 하러 내려오셨어요? 그저 롱번까지 말을 타고 와서 당황하시려고요? 아니면 더 진지한 결과를 염두에 두셨어요?"

"제 진짜 목적은 *당신*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 당신이 저를 사랑하게 되리라고 바랄 수 있을지 가늠해 보려는 거였어요. 겉으로 내세운 목적, 아니 저 자신에게 내세운 목적은 언니분이 아직도 빙리에게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빙리에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그 고백은 그 뒤에 했고요."

"캐서린 영부인께 이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알려 드릴 용기가 나시겠어요?"

"모자라는 건 용기보다 시간일 거예요, 엘리자베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 종이 한 장만 주시면 당장 쓰겠습니다."

"저도 써야 할 편지가 없다면, 언젠가 어느 아가씨가 그랬듯이 당신 곁에 앉아서 글씨를 어쩌면 그렇게 고르게 쓰시느냐고 감탄해 드릴 텐데요. 하지만 저한테도 더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외숙모가 계시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와 자기 사이가 실제보다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털어놓기 싫어서 가디너 부인의 긴 편지에 아직 답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외숙모가 더없이 반가워할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외삼촌과 외숙모가 벌써 사흘이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부끄럽기까지 해서, 곧바로 이렇게 써 내려갔다.

"외숙모, 그렇게 길고 다정하고 흡족하게 자세한 사정을 적어 보내 주셨으니 진작 고맙다는 편지를 드렸어야 마땅했는데, 사실은 너무 심통이 나서 쓸 수가 없었어요. 외숙모께서는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짐작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껏 짐작하세요. 생각의 고삐를 늦추시고, 이 일이 허락하는 한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세요. 제가 벌써 결혼했다고 믿으시는 게 아니라면, 크게 틀리실 일은 없을 거예요. 곧 다시 편지를 주셔야 해요. 그리고 지난번 편지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칭찬해 주셔야 해요. 호수 지방에 가지 않은 게 몇 번이고 고마워요. 거기 가고 싶어 했다니 제가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조랑말 생각은 정말 멋져요. 날마다 영지를 한 바퀴씩 돌기로 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저만큼 그 말이 꼭 맞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인 언니보다도 더 행복해요. 언니는 미소만 짓지만 저는 소리 내어 웃거든요. 다아시 씨가 저한테 줄 몫에서 덜어 낼 수 있는 한 세상의 모든 사랑을 외숙모께 보낸대요.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펨벌리로 오셔야 해요. 그럼 이만."

캐서린 영부인에게 보낸 다아시 씨의 편지는 이와는 문체가 달랐다. 그리고 베넷 씨가 콜린스 씨의 지난번 편지에 답해 보낸 편지는 그 둘 어느 쪽과도 또 달랐다.

"콜린스 군 보게."

"자네에게 한 번 더 축하를 청하는 수고를 끼쳐야겠네. 엘리자베스가 곧 다아시 씨의 아내가 될 걸세. 캐서린 영부인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위로해 드리게. 하지만 내가 자네라면 조카 편에 서겠네. 그쪽이 줄 것이 더 많으니까."

"이만 줄이네."

오빠의 결혼을 앞두고 빙리 양이 보낸 축하는 더없이 다정하고 더없이 진심이 없었다. 빙리 양은 이 일로 제인에게까지 편지를 보내 기쁘다고 말하고, 예전에 늘어놓던 호의의 말을 모두 되풀이했다. 제인은 속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빙리 양을 조금도 믿지 않으면서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훨씬 다정한 답장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소식을 받은 다아시 양이 드러낸 기쁨은, 그 소식을 전한 오라버니의 기쁨만큼이나 진심이었다. 종이 네 쪽으로도 그 모든 기쁨과, 새언니에게 사랑받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다 담기에 모자랐다.

콜린스 씨의 답장이 오기도 전에,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축하 편지가 오기도 전에, 롱번 식구들은 콜린스 씨 부부가 몸소 루커스 로지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갑자기 옮겨 온 까닭은 곧 드러났다. 캐서린 영부인이 조카의 편지를 읽고 어찌나 노발대발했는지, 이 혼사를 진심으로 기뻐하던 샬럿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자리를 잠시 피하고 싶어 했다. 이런 때 친구가 와 준 것은 엘리자베스에게 진심으로 기쁜 일이었지만, 만날 때마다 다아시 씨가 샬럿 남편의 그 모든 허세와 굽실거리는 예의에 고스란히 시달리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을 비싸게 치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래도 그는 감탄스러울 만큼 침착하게 견뎠다. 윌리엄 루커스 경이 이 고장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데려간다고 치켜세우며, 세인트제임스 궁에서 다 함께 자주 만나기를 바란다고 할 때도 그는 꽤 점잖게 침착함을 잃지 않고 들어 줄 수 있었다. 어깨를 으쓱했다 하더라도 윌리엄 경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난 뒤의 일이었다.

필립스 부인의 천박함은 그의 인내심에 매겨진 또 하나의, 어쩌면 더 무거운 세금이었다. 필립스 부인은 언니인 베넷 부인과 마찬가지로 그를 너무 어려워해서, 빙리의 사람 좋은 성품 앞에서처럼 허물없이 말을 붙이지는 못했지만, *정작* 입을 열었다 하면 천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를 어려워하는 마음 덕분에 더 조용해지기는 했어도, 그 마음이 필립스 부인을 조금이라도 더 고상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그에게 자주 말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늘 그를 자기 곁에 두거나 그가 굴욕을 느끼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식구들 곁에 두려고 애썼다. 이런 데서 오는 불편한 마음 때문에 연애하는 시절의 즐거움은 꽤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앞날에 대한 희망은 커졌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 모두에게 그토록 달갑지 않은 사람들 틈을 벗어나, 펨벌리에서 식구끼리 누릴 온갖 안락하고 품위 있는 시간으로 옮겨 갈 날을 기쁘게 고대했다.

# 제61장

베넷 부인이 가장 훌륭한 두 딸을 치워 버린 날은 어머니로서 품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비추어 행복한 날이었다. 그 뒤로 베넷 부인이 얼마나 흐뭇한 자부심에 젖어 빙리 부인을 찾아가고 다아시 부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토록 많은 자식을 자리 잡게 하려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덕분에 베넷 부인이 남은 평생 분별 있고 상냥하고 견문 넓은 여인이 되었다고, 그 집안을 위해서라도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토록 낯선 꼴의 가정의 행복을 반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남편에게는, 아내가 여전히 이따금 신경이 곤두서고 한결같이 어리석었던 것이 어쩌면 다행이었다.

베넷 씨는 둘째 딸을 몹시 그리워했다. 그 딸을 아끼는 마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주 베넷 씨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베넷 씨는 펨벌리에 가는 것을 즐겼고, 특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불쑥 찾아가기를 좋아했다.

빙리 씨와 제인은 네더필드에 한 해만 머물렀다. 장모와 메리턴의 친척들에게 그토록 가까이 사는 것은 *빙리의* 느긋한 성미에도 *제인의* 다정한 마음에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빙리의 누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빙리는 더비셔 이웃 주에 영지를 샀고,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다른 모든 행복의 원천에 더하여 서로 30마일 안에 살게 되었다.

키티는 두 언니 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것이 키티에게 큰 득이 되었다. 여태 겪어 온 것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틈에서 지내면서 키티는 몰라보게 나아졌다. 키티는 리디아만큼 다루기 힘든 성미는 아니었다. 그래서 리디아가 보이던 본보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마땅한 보살핌과 지도를 받자, 덜 짜증스럽고 덜 무지하고 덜 따분한 아가씨가 되었다. 리디아와 어울려서 생길 더 큰 해를 막으려고 식구들은 당연히 키티를 조심스레 떼어 놓았다. 위컴 부인은 무도회와 젊은 남자들을 약속하며 와서 지내라고 자주 키티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집에 남은 딸은 메리뿐이었다. 베넷 부인이 혼자서는 도무지 앉아 있지를 못했으므로, 메리는 어쩔 수 없이 교양을 쌓는 일에서 떨어져 나왔다. 메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려야 했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찾아오는 손님을 두고 여전히 교훈을 늘어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언니들의 미모와 자기 미모를 견주는 일로 굴욕을 느끼지 않게 되었으니, 메리가 그 변화를 그리 내키지 않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버지는 짐작했다.

위컴과 리디아로 말하자면, 언니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사람됨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위컴은 이제 엘리자베스가 자기의 배은망덕과 거짓말 가운데 전에 몰랐던 것까지 다 알게 되리라는 것을 철학자처럼 의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다아시를 설득해 한밑천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결혼할 때 리디아에게서 받은 축하 편지를 보면, 위컴 자신은 몰라도 적어도 그 아내만큼은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다.

"리지 언니에게"

"축하해. 언니가 다아시 씨를 내가 우리 위컴을 사랑하는 것의 반만큼만 사랑해도 틀림없이 아주 행복할 거야. 언니가 그렇게 부자가 됐다니 정말 든든해. 그리고 달리 할 일이 없을 때면 우리 생각도 좀 해 줘. 위컴은 궁정에 자리 하나 얻으면 정말 좋아할 거야. 그리고 누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살 돈이 영 모자랄 것 같아. 1년에 300~400파운드쯤 되는 자리면 아무거나 괜찮아. 그래도 언니가 내키지 않으면 다아시 씨한테는 말하지 마."

"그럼 이만."

공교롭게도 엘리자베스는 몹시 내키지 않았으므로, 답장에서 그런 부탁이나 기대는 아예 하지 못하게 끝을 내려 애썼다. 그래도 자기 몫의 씀씀이를 절약이라 부를 만큼 줄여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은 자주 보내 주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는 그토록 헤프고 앞날은 생각지도 않는 두 사람이 꾸려 가는 그 정도 수입으로는 살림을 버티기에 턱없이 모자라리라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늘 훤히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밀린 셈을 치를 돈을 조금만 도와 달라며 틀림없이 제인이나 엘리자베스에게 손을 벌렸다. 전쟁이 끝나 평화가 돌아오고 제대해서 집을 갖게 된 뒤에도, 두 사람의 살림은 더없이 불안정했다. 두 사람은 늘 싼 거처를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녔고, 늘 써야 할 것보다 더 썼다. 리디아를 향한 위컴의 애정은 곧 무관심으로 가라앉았다. 리디아의 애정은 그보다는 조금 더 갔다. 그리고 리디아는 그 나이와 그 행실에도, 결혼으로 얻은 체면에 대한 권리만큼은 하나도 잃지 않았다. 다아시는 *위컴*을 결코 펨벌리에 들일 수 없었지만, 엘리자베스를 생각해서 위컴이 군에서 앞길을 열어 가도록 더 도와주었다. 남편이 런던이나 바스로 즐기러 가 있을 때면 리디아는 이따금 펨벌리를 찾아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빙리 부부 집에 자주 와서 어찌나 오래

눌러앉았는지, 빙리의 사람 좋은 성품마저 바닥이 나서 이제 그만 떠나 달라고 넌지시 알려 주자는 말까지 *입에 올릴* 지경이었다.

빙리 양은 다아시의 결혼으로 자존심이 몹시 깊이 상했다. 그러나 펨벌리를 드나들 권리는 지켜 두는 편이 현명하다고 여겼으므로 원한을 모두 내려놓았다. 조지애나를 어느 때보다 더 귀여워했고, 다아시에게도 예전 못지않게 살갑게 굴었으며,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동안 밀린 예의를 남김없이 갚았다.

펨벌리는 이제 조지애나의 집이 되었다. 새언니와 시누이 사이의 정은 다아시가 바라던 바로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려고 마음먹은 만큼이나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다. 조지애나는 엘리자베스를 세상에서 누구보다 높이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엘리자베스가 오빠에게 활달하고 장난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을 들으며 놀라다 못해 겁이 날 지경일 때가 많았다. 조지애나 자신에게는 늘 애정을 거의 압도할 만큼 큰 존경을 불러일으키던 오빠가, 이제는 대놓고 농담을 받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 조지애나의 마음에는 전에는 한 번도 접할 기회가 없던 앎이 들어왔다. 엘리자베스에게 배우면서 조지애나는, 아내는 남편에게 거리낌 없이 굴어도 되지만 오빠는 자기보다 열 살 넘게 어린 누이에게 그것을 늘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캐서린 영부인은 조카의 결혼에 몹시 분개했다. 그리고 결혼을 알리는 편지에 답하면서 진실하고 솔직한 제 성품을 마음껏 드러낸 나머지, 특히 엘리자베스를 두고 어찌나 심하게 욕설을 퍼부었는지 한동안은 서로 왕래가 완전히 끊겼다. 그러나 마침내 엘리자베스가 설득한 끝에 다아시는 그 모욕을 눈감아 주고 화해를 청하기로 했다. 이모 쪽에서 조금 더 버티기는 했지만, 영부인의 원한은 결국 조카를 아끼는 마음 앞에, 아니면 조카며느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고 싶은 호기심 앞에 무너졌다. 그리하여 영부인은 펨벌리의 숲이 그런 안주인이 들어앉은

것만으로도 모자라 런던 시티에서 온 그 외삼촌과 외숙모의 방문으로까지 더럽혀졌는데도, 굽어살펴 두 사람을 찾아 펨벌리까지 와 주었다.

가디너 부부와는 늘 더없이 가깝게 지냈다. 다아시도 엘리자베스 못지않게 외삼촌 내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둘은 엘리자베스를 더비셔로 데려와 자기들을 맺어 준 이들에게 언제나 더없이 따뜻한 고마움을 품고 있었다.

# 판권면

**오만과 편견**

원제 · Pride and Prejudice

지은이 · 제인 오스틴 (Jane Austen, 1775~1817)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 1813년, 런던 토머스 에저턴, 세 권(지은이 이름 없이).

**저본** · 1813년 초판에서 내려온 본문을 1894년 런던 조지 앨런판(휴 톰슨 삽화)에서 옮겨 적은 퍼블릭 도메인 영어 전자 텍스트. 서문과 삽화는 싣지 않았다.

**분량** · 원문 121,546단어 · 61장 · 2,051문단 · 옮긴이 주 24개

**저작권** · 지은이가 1817년에 사망했고 원저작물은 1813년에 나왔으므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에테르 라이브러리가 옮겼다.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0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18